

한·중 FTA에 대응한 지역농업 발전전략 - 민감품목 중심으로 -

2012. 12. 31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s

제 출 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중 FTA에 대응한 지역농업 발전전략
- 민감품목 중심으로 -」의
최종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박 진 도

목 차

요 약 문	1
제1장 문제의 제기	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	7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내용	8
2) 연구의 방법	8
4. 연구진 구성	9
5. 연구의 분석틀	10
6. 연구의 추진경위	11
제2장 중국의 농업 및 FTA 추진 현황	15
1. 중국의 농업 현황	15
1) 생산 현황	15
2) 유통 현황	20
3) 소비 현황	25
4) 수출입 현황	27
5) FTA 추진 현황	32
2. 한국의 대중국 FTA 추진 현황	40
1)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 현황	40
2) 대중국 FTA 추진 현황	43
3. 요약 및 정리	47
1) 생산 현황	47
2) 유통 현황	47
3) 소비 현황	48
4) 수출입 및 FTA 추진 현황	48

제3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선정	51
1. 충청북도 포도	51
1) 생산액	51
2) 수입시장 점유율	52
3) 관세율	54
4) 지역경제 영향	54
2. 충청남도 인삼	56
1) 생산액	56
2) 수입시장 점유율	56
3) 관세율	56
4) 지역경제 영향	56
3. 경상북도 사과	57
1) 생산액	57
2) 수입시장 점유율 및 관세율	57
3) 지역경제 영향	58
4) 정책적 필요성	58
4. 경상남도 단감	59
1) 생산액	59
2) 수출액	59
3) 무역시장 변화	59
4) 지역경제 영향	59
5. 전라남도 마늘	60
1) 생산액	60
2) 품목소비 특성	60
3) 지역경제 영향	60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61
1) 생산액	61
2) 수입시장 점유율	61
3) 관세율	61
4) 지역경제 영향	62
5) 감귤피해시 발작물 재배확대로 붕괴 위기	63
7. 인천광역시 약쑥	64
1) 역사성	64
2) 품질 특성 및 효능	64
3) 한·중 FTA에의 경쟁력 담보	65
8. 광주광역시 과채류	66
1) 생산액	66
2) 수입시장 점유율	66
3) 지역특성	66
4) 지역경제 영향	66
9. 요약 및 정리	67

제4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현황 및 문제점	71
1. 충청북도 포도산업 현황 및 문제점	71
1) 농업 현황	71
2) 포도산업 현황	73
3) 포도산업 문제점	87
2. 충청남도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88
1) 농업 현황	88
2) 인삼산업 현황	90
3) 인삼산업 문제점	97
4) 인삼시장 전망 및 대내외 여건변화	101
5) 인삼산업의 제도 및 정책	102
3. 경상북도 사과산업 현황 및 문제점	106
1) 농업 생산	106
2) 사과산업 현황	107
3) 사과산업 문제점	110
4. 경상남도 단감산업 현황 및 문제점	112
1) 농업 현황	112
2) 단감산업 현황	114
3) 단감산업 문제점	119
5. 전라남도 마늘산업 현황 및 문제점	124
1) 농업 현황	124
2) 마늘산업 현황	125
3) 마늘 수출 동향	130
4) 마늘산업 문제점	131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 현황 및 문제점	138
1) 농업 현황	138
2) 감귤산업 현황	141
3) 감귤산업 문제점	150
7. 인천광역시 약쑥산업 현황 및 문제점	153
1) 농업 현황	153
2) 약쑥산업 현황	170
3) 약쑥산업 문제점	179
8. 광주광역시 과채류산업 현황 및 문제점	180
1) 농업 현황	180
2) 과채류산업 현황	182
3) 과채류산업 문제점	185
9. 요약 및 정리	188

1) 생산 부문	188
2) 유통 부문	191
3) 소비 및 가공 부문	193
4) 수출·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193

제5장 민감품목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197

1. 충청북도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97
1) 포도산업의 SWOT분석	197
2) 전략과제 도출	200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03
2. 충청남도 인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5
1) 인삼산업의 SWOT분석	205
2) 전략과제 도출	207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09
3. 경상북도 사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14
1) 사과산업의 SWOT분석	214
2) 전략과제 도출	219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20
4. 경상남도 단감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25
1) 단감산업의 SWOT분석	225
2) 전략과제 도출	227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29
5. 전라남도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32
1) 마늘산업의 SWOT분석	232
2) 전략과제 도출	235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38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44
1) 감귤산업의 SWOT분석	244
2) 전략과제 도출	247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48
7. 인천광역시 약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52
1) 약쑥산업의 SWOT분석	252
2) 전략과제 도출	256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60
8. 광주광역시 과채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63

1) 과채류산업의 SWOT분석	263
2) 전략과제 도출	266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269
9. 요약 및 정리	271
1) 생산 부문	271
2) 유통 부문	273
3) 소비 및 가공 부문	275
4) 수출·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276

제6장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279

1. 충청북도 포도	279
1) 고품질 포도 생산체계 강화	279
2)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개발지원	279
3)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279
4) 경영위험 안전장치 마련	279
2. 충청남도 인삼	280
1) 민감품목의 지정	280
2) 품질 및 신뢰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단위 연구개발 전폭적인 투자 지원	280
3) 가격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280
4)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삼관련 법의 개정, 관리부처 일원화	280
5) 인삼 클러스터 구축 지원	280
3. 경상북도 사과	281
1) 민감품목 선정으로 양허대상 제외	281
2) 사과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281
3) 과수전용 중소형 농기계 농가 지원사업	282
4) 공공형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282
5) 우량묘목 증식 및 보급센터 설치	283
6) 소포장 경매제 실시	284
7) APC 유지관리비 지원	284
4. 경상남도 단감	286
1) 기상재해 대비 비용절감형 생산시설 구축 및 지원	286
2) 단감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지원	286
3) 단감 수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선도 수출업체 선별 및 지원	286
4) 단감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단감 가공산업 육성	287
5) 단감 클러스터 구축 지원	287

5. 전라남도 마늘	288
1) 마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사업 지원	288
2) 마늘 상장경매제도 도입	288
3) 마늘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마늘수입 억제대책 추진	289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291
1) 제주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초민감품목 지정·확대	291
2) 실질적인 지원사업	293
3) 감귤 소득피해직불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293
4) 관련 법 및 제도개선	293
5) 국가단위로 동식물검역(SPS)·원산지 규정의 강화 및 수입제한	294
7. 인천광역시 약쑥	295
1) 약쑥 이용 테마((Eco-healing)체험관 건립 지원	295
8. 광주광역시 과채류	296
1) 정보수집 강화	296
2) 친환경 과채류 생산 및 인증	296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연구	296
4) 한국산 과채류 마켓테스트 및 신규입점 추진	296
5)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설비 보급	297
6) 친환경 과채류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확대	297
9. 요약 및 정리	298
제7장 결론	303
1. 요약 및 정리	303
2. 시사점	307
참고문헌	311
부 록	317

요 약 문

-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단연 한·중 FTA로, 양국은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EU,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제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장점 이외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 1의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별 농수산업 피해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가 전체적으로 상위 해당품목에 집중된 대응방안 수립 및 정책지원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지역 내 정서를 고려하여 지역별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자구책 중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 지역내 민감품목별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제안함
- 중국농업의 전체적인 상황과 한국과의 교역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차 산업인 농업 비중 점차 감소하는 반면 2, 3차 산업 증가, 산업화로 인해 농촌 청장년층 인구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은 ‘공동화’ 문제 발생을 겪고 있음
 - 농산물 생산규모는 꾸준히 증가, 특히 식량작물과 과일류 중심 지속 증가 중
 - 유통시설의 낙후 및 단계의 복잡성, 거래 방식의 낙후 등 낮은 유통효율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녹색통로”의 개통정책도 활발히 시행 중
 - 소비성향은 경제발전예 따라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보이는데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곡물과 채소류의 소비 감소, 축산물 소비 증가, 의식수준 향상으로 수요의 다양화, 안전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
 -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시장(당류, 과자류, 커피류 등 농식품가공상품)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2대 농산물 수출시장(곡류,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원물)으로서 對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확대 추세
- 지역별로 가장 피해가 심할 것이라 예상되는 민감품목을 선정함
 - 민감품목의 선정기준은 산업구조변수로 생산액 및 생산량, 교역변수로 중국과의 교역현황 및 관세율, 수입시장 점유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항목 고려
 - 선정결과 지역별로 충청북도의 포도, 충청남도의 인삼, 경상북도의 사과, 경상남도의 단감, 전라남도의 마늘,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 인천광역시의 약쑥, 광주광역시와 과채류

-
- 지역내 민감품목의 부문별(생산, 유통, 소비 및 가공 등) 공통적 문제점 도출함
 - 생산 부문에서는 농가인구 고령화, 농가규모 영세화, 농가간 기술격차, 농민단체 부족, 묘목 및 종자 공급체계 부족, 품종 편중생산, 기계화율 부진, 시설비용 상승, 품질향상 미흡, 지도인력 부족, 기술개발노력 부족, 연작장해, 기후변화대응 미흡, 낮은 생산성, 수확시기 노동력 경합, 경영여건 열악, 수급불안 등
 - 유통 부문에서는 유통구조 낙후성, 생산자 조직 미흡, 안전성 취약, 품질균일성 부족, 저장성 취약, 유통비용 과다발생, 품질관리체계 미흡, 산지유통시설 낙후, 유통관리체계 미흡, 브랜드 난립, 거래단위 및 규격 복잡,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포전매매 성행, 낮은 가격경쟁력 등
 - 소비 및 가공 부문에선 원산지 및 안전성 불신확배, 가공제품 개발노력 미흡 등
 - 수출,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제조·가공·유통·소비통계 부실, 수출정보 부족, 수출전문성 및 경험부족, 단기성 정책으로 인한 농가자생력 저해 등
 - 민감품목별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부문별 접근,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함
 -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자 교육 강화, 영농기술 체계화, 친환경·GAP인증농산물 확대, 계약재배 및 시설재배 확대, 녹비작물재배 확대, 묘목 및 종자개발, 영농기계화 확대, 수출전문단지 육성, 경영인 육성 및 귀농지원,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경관 및 환경직불제 도입
 - 유통 부문에서는 APC 확충 및 정비, 주체간 규모화 및 조직화,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원산지 증명 강화,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수출육성, 대표브랜드 육성,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저온저장기술 및 유통체계 확립, 유통현대화 사업, 다양한 포장단위 개발, 계약거래 및 직거래 확대 추진, 소비시장 변화 주시 등
 - 소비 및 가공 부문에서는 브랜드 확립, 상품안전성 강화, 가공상품 개발, 소비촉진운동 전개, 기능성물질 개발, 타 산업과의 연계,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산·학·연 협의체 구성, 품목연구소 설치, 수출상대국 상품연구 등
 - 수출,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법령개정 제한 완화, 주산지별 수출단지 육성 등
 - 종합해보면, 민감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 구축, 현대화된 유통시설,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력 강화방안 제안
 - 총 6개의 공통된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도출함
 - 첫째, 한·중FTA 협상 시 민감품목의 지정, 둘째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및 경영안정장치의 마련, 셋째,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국고보조 지원, 넷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 다섯째, 품목별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 여섯째, 품목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법·제도적 정비 실시
-

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장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로 명명되는 세계화시대에 WTO/DDA, FTA 등 자유무역 물결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고 국가간 무역장벽은 점점 낮아짐. 반면 경제환경(성장과 고용)은 불안해지고 지역과국, 환경과국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한·중 FTA에 대한 것으로 한·중 양국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으로 2000년 이후 급속히 성장 중
 - 2011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5,565억 달러였으며 이중 중국으로의 수출은 1,342억 달러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 달함
 -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로의 수출이 각각 562억 달러, 557억 달러로 그 비중이 각각 10.1%, 10.0%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음
- 한·중 FTA는 이와 같은 거대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한국이 EU 및 미국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임
-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는 우리나라 농수산업 분야에는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제조업의 구조조정 촉발 및 무역외 서비스분야 진출 가능성 존재
 - 중소제조업, 농축수산업 등 취약산업 개방 피해, 구조조정 압력 가중화 예상
 -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급격한 인력 유입, 유출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농산물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가격경쟁력 격차 등으로 인해 품목전반에 걸친 피해가 예상,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 필요

- 지역별 농수산업 피해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 수립 요구 증가
 - 향후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중앙정부를 향한 지역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수행에 대한 요구 증폭

<그림 1-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 한·중FTA는 농어업분야에 있어서 편익보다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
- 위기이자 기회인 중국 농업 현황 면밀히 파악, 사전 대응
- 지역 내 농업관계자간 자구책 수립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농업보호 기반여건 조성 필요

2. 연구의 목적

- 한·중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내 민감품목 선정 연구
- 지역별 민감품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포지션 파악
- 민감품목별 지역내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및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제안

※ 기존연구와의 차별성&독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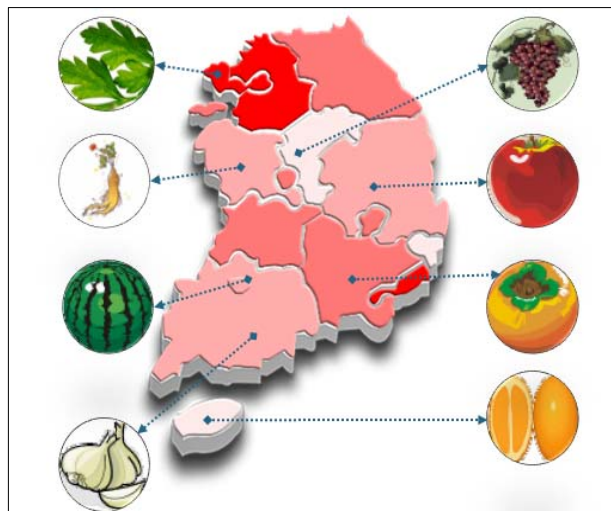
- 기존 연구 : 국가 전체적으로 상위 해당품목 집중하여 지역 내 중요품목 대응방안 수립 부족,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지원 중심
- 본 연구 : 객관적 자료· 주관적(지역 내) 정서를 고려하여 지역별 민감품목 선정, 민감품목에 대한 전반적 현황진단 구조화, 자구책 수립 동시 고민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주요 대상 : 한·중FTA, 1차 산업(농업) 중심
- 시간 범위 : 2011년
- 공간 범위 : 8개 광역지자체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인천, 광주)
- 품목 범위 : 8개 품목 (포도, 인삼, 사과, 단감, 마늘, 감귤, 약썩, 과채류)
- 내용 범위 :
 - 민감품목 선정기준
 - 민감품목 현황 및 문제점
 - 민감품목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그림 1-2> 연구의 품목 범위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통계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간 회의
- 연구진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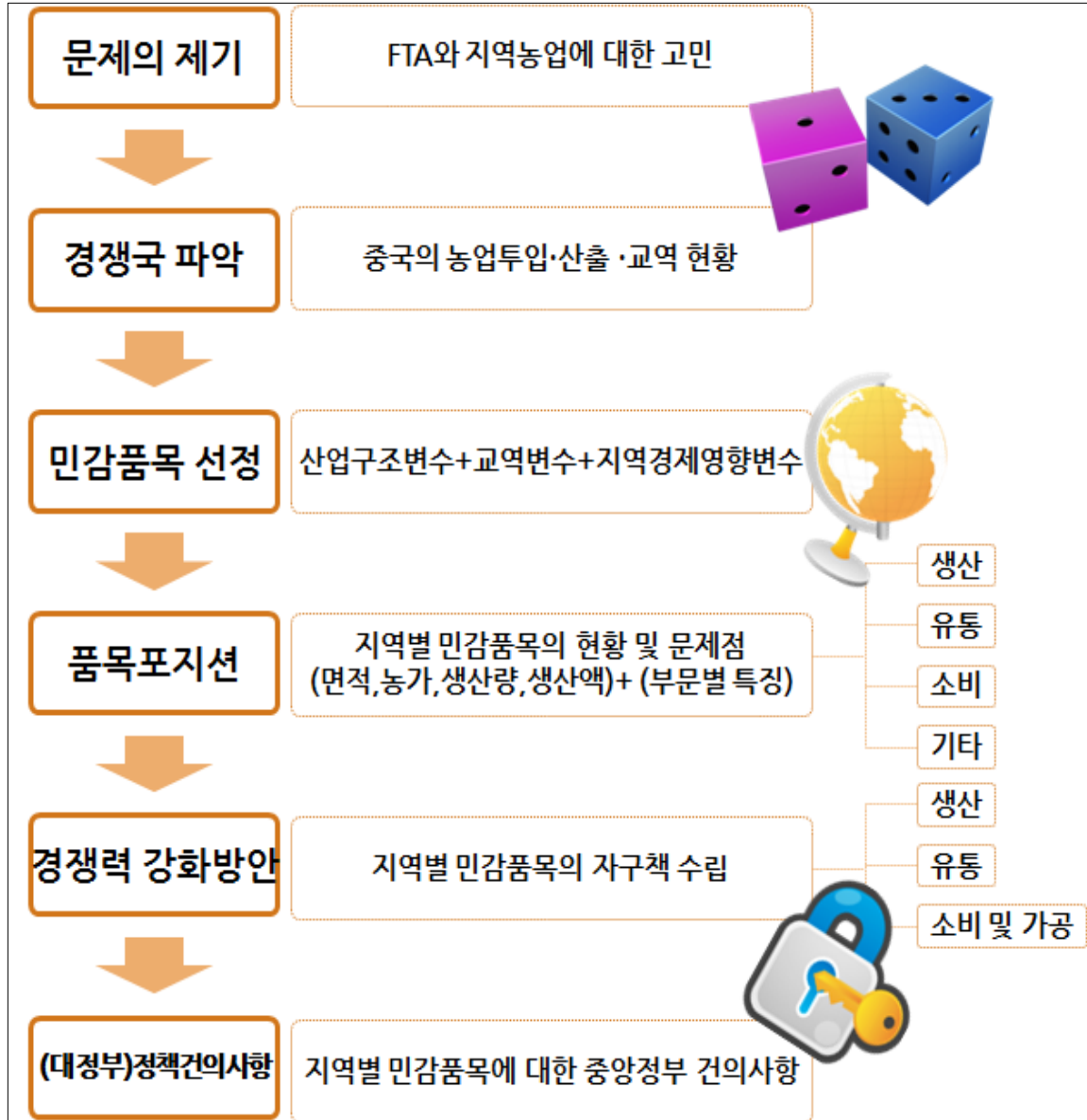
4. 연구진 구성

<표 1-1> 연구진 구성

참여업무	기관	직위	성명	담당분야	비고
연구책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강마아	총괄진행	주관연구기관
연구간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양중	공동진행	
연구참여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여민수	인삼, 중국농업 및 FTA 현황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김영수	인삼, 중국농업 및 FTA 현황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장명	포도	참여연구기관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창완	마늘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오병기	마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유병규	사과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권용덕	단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승진	감귤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봉현	감귤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번욱	약쑥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조인형	과채류	

5. 연구의 분석틀

<그림 1-3> 연구의 분석틀



제2장

중국의 농업 및 FTA 추진 현황

제2장 중국의 농업 및 FT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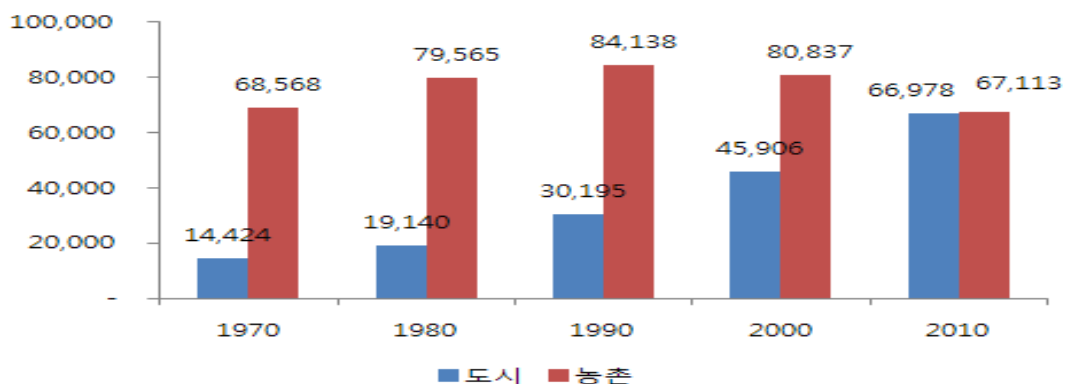
1. 중국의 농업 현황

1) 생산 현황

- 중국정부는 농업이 중국 건국의 근본이며 국가와 사회의 존재·안정·국민경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 등은 모두 ‘삼농’의 기초위에 건립된 것이라고 말하며, ‘삼농’문제의 해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중국의 ‘삼농’이란 농업·농촌·농민을 말하며, 현재 도농간에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임¹⁾
- 이처럼 중국은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층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에는 아동, 노인, 부녀 수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아래의 <그림 2-1>은 연도별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구성으로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구성이 2010년에는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51%로 도시로 진출한 인구가 2.53억 명에 달하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0만 명, 노인은 4000만 명, 부녀자는 4700만 명으로 나타남
- 중국의 이러한 문제를 ‘농촌공동화’라고 하는데, ‘농촌공동화’란 인구, 토지, 산업, 기초시설 등을 포함한 부문에서 약화되고 이전되는 현상을 말함. ‘농촌공동화’현상으로 인해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교육수준의 하락 및 농촌의 황폐화가 심화되고 있음²⁾

<그림 2-1> 중국의 연도별 도농 간 인구구성

(단위 : 만 명)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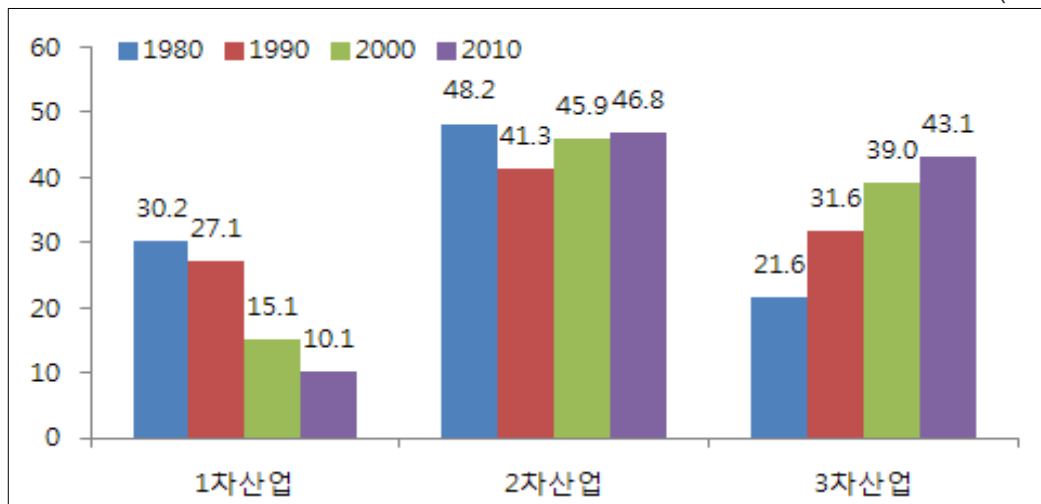
1) 중국 농민일보 (2011. 08. 31, 2011. 09. 31)

2) 중국 농민일보 (2012. 03. 31)

- 앞서, 말한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중국은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그에 비해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는 아래의 <그림 2-2>과 같음. 1980년에 중국의 1차 산업 비중은 전체 국내 총생산 중 30.2%를 차지하였으나,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비중은 감소하여 2010년에는 10.1%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3차 산업은 지속적인 확대로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의 43.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2> 중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산업별 비중

(단위 : %)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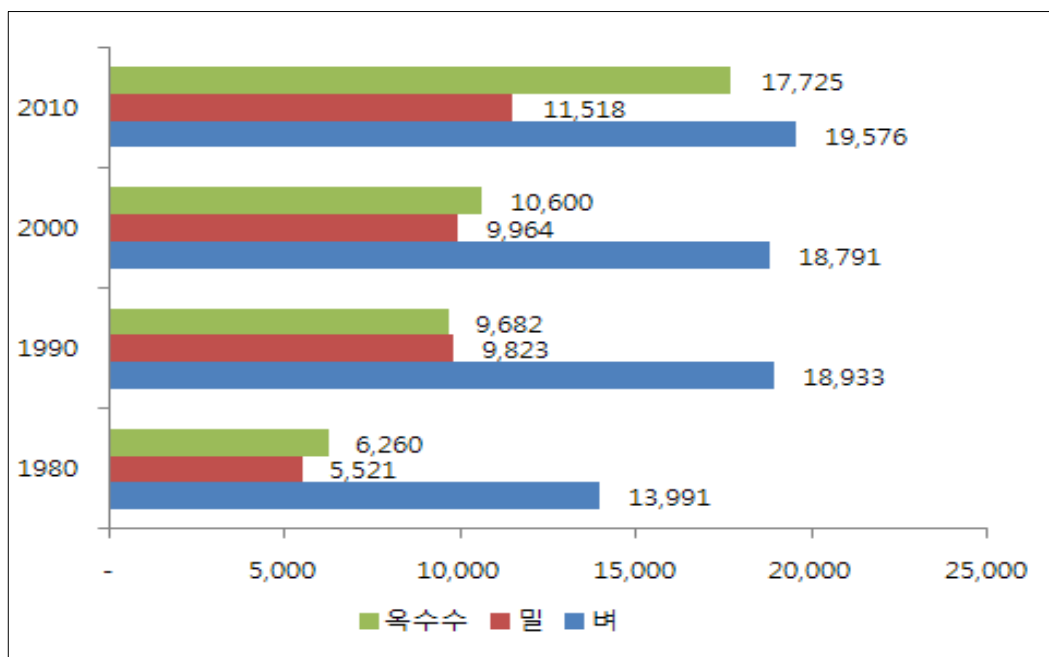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산업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문제와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의 농산물 생산현황은 증가하는 추세임. 주요 식량작물인 벼, 밀, 옥수수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일류인 사과, 배, 포도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음을 아래의 <그림 2-3>을 통해 알 수 있음
- 국내총생산 비중에 비해 중국의 농업 생산량의 증가는 농업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식량작물에 대한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농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농업 지원 관련 예산은 2007년에는 4,318억 위안, 2008년에는 5,955억 위안, 2009년에는 7,167억 위안, 2010년에는 8,183억 위안으로 매년 농업 지원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초시설투자, 농업보조금(양곡지점보조자금, 농자재 종합보조, 우량종 보조금, 농기구 구매보조), 식량 최저수매가격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³⁾
- 다음 아래의 <그림 2-4>는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으로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유의 생산량이 2007년부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

3) 중국 농민일보(2011. 08. 31. ~2011. 09. 31.)

여 2010년까지 3500만 톤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2006년 4월23일 원자바오 총리가 충칭의 간다(廣大) 과학기술원 목축연구소를 방문해서 “나에게 꿈이 하나 있다. 모든 중국인, 특히 어린이들이 매일 우유 1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 발언이 중국에서 교시처럼 퍼져, 전국적으로 우유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졌음. 거리에는 육상 110m 허들 세계 챔피언 류샹의 얼굴을 내세워 “우유를 많이 마셔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광고판이 걸렸고 2006년 10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낙농연맹 총회의 한쪽 벽면에는 원자바오의 그 ‘교시’가 차지했음. 2006년 11월 후난 성에서는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빗댄 ‘우유 장정’ 운동이 시작됐고 중국 10개의 성을 차례로 돌며, 초등학교생에게 우유를 나눠주는 전국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신문 및 방송매체는 이를 연일 중계함.⁴⁾ 또한 돼지고기의 생산량은 2006년 4650.5만 톤에 비해 2007년에는 400만 톤 가량 감소한 4287.8만 톤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2006년에 역병으로 인해 어미 돼지와 씨돼지가 많이 줄었고 더불어 사료인 옥수수 가격의 상승⁵⁾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보임

<그림 2-3>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 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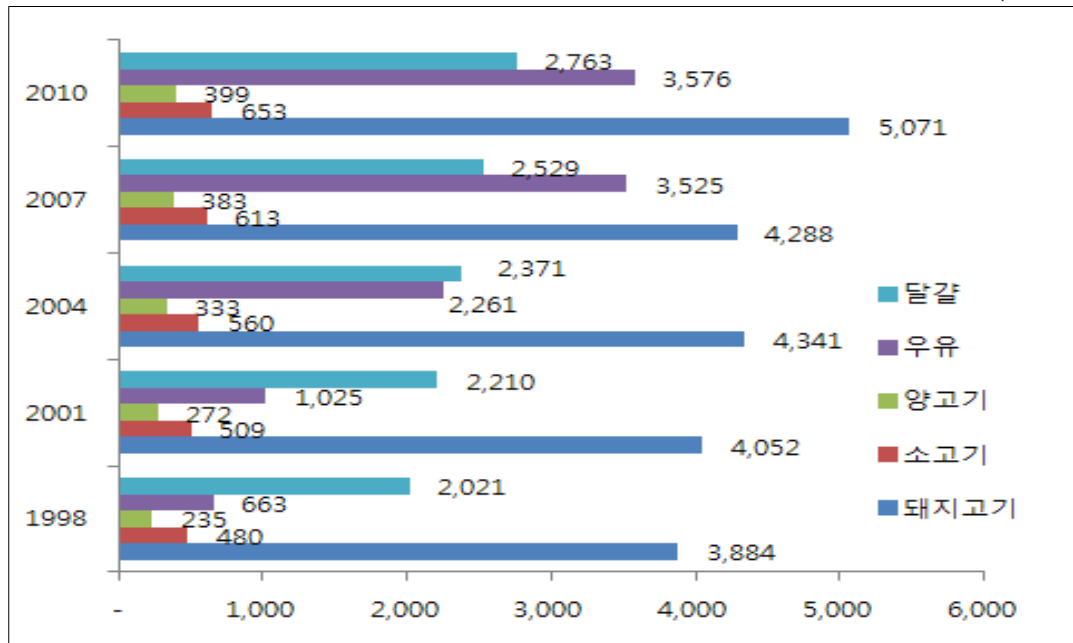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4) 시사IN (2008. 12. 09.)

5) 중국 경제주간지 ‘재경’ (2007. 05. 29.)

<그림 2-4> 중국의 주요 축산물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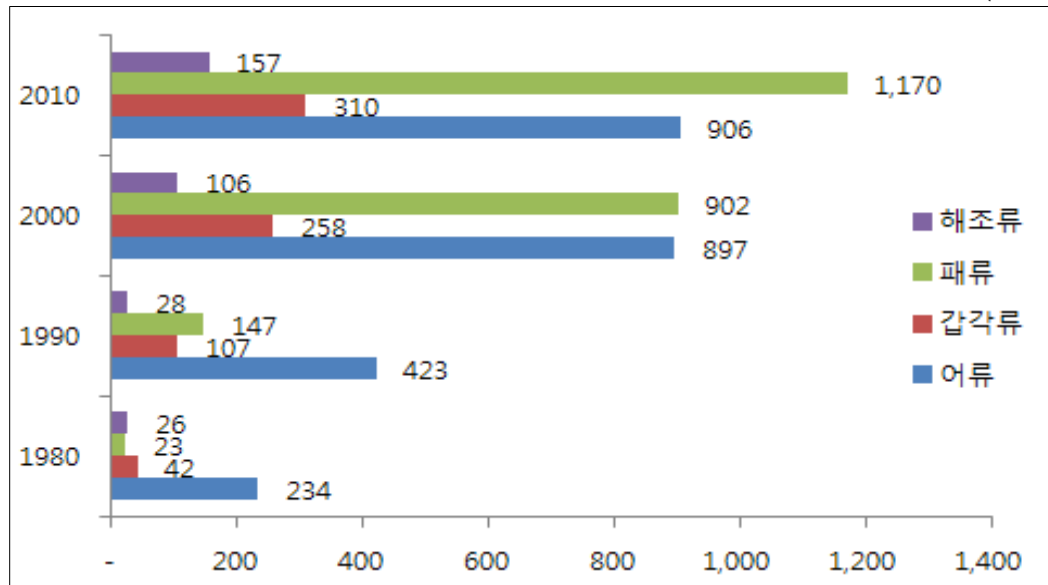
- <그림 2-5>와 같이 중국의 해수산물 생산현황은 1999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연평균 15.8%지속적인 증가를 보이지만 2000년을 들어서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는 1978년에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통제유통제도⁶⁾의 완화로 시장메커니즘이 확대되고,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점차적으로 통제유통을 대신한 자유시장유통이 추진됨
- 이에 자유시장의 전개로 수산물유통의 다양화 및 가격자유화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수산물소비시장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와서는 농촌주민의 소득증가 둔화 및 물류시설의 미정비 등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정체됨
- 또한 해수산물의 생산이 자연산에 비해 양식의 증가가 높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수산업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1979년부터 ① 자원의 보호와 증식 및 합리적 이용, ② 양식의 발전에 주력, ③ 선도유지와 수산가공의 개선하고 가공품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세 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985년에는 “양식을 주로하고 양식, 어로, 가공을 병행하여 각 지역의 조건에 응하여 각기 중점사업과 보조 사업을 정한다.”라는 발전방침을 실행함.⁷⁾ 이로 인해 중국의 해수산물 생산은 2006년부터 양식이 자연산보다 생산량이 많은 구조로 변화됨

6) 통제유통제도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고도의 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1차생산물에 대하여 정부의 계획아래에 의한 생산, 유통, 소비가 이루어졌다.

7) 수산경영론집 (제 37권 제3호 2006. 12.)

<그림 2-5> 중국의 주요 해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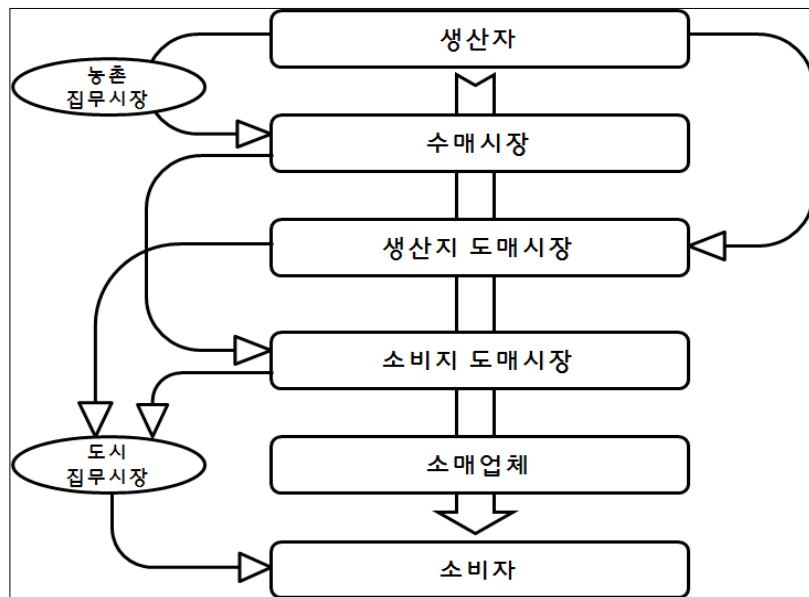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2) 유통 현황

(1) 농산물 유통구조

- 중국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아래의 <그림 2-6>과 같음

<그림 2-6> 중국의 농산물 유통구조



자료 : 노령령. 중국 농산물 유통정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2008.

- 수매시장은 중국에서 가장 일찍 형성된 시장이며, 무형시장의 형태이고 생산지 최초의 시장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 시장'이라고 함⁸⁾
-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유통경로를 함께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함.⁹⁾ 아래의 <그림 2-7>은 중국의 농축수산물 시장¹⁰⁾의 현황 및 도매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의 판매액을 나타낸 것으로 시장의 개수와 도매시장의 거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채소류시장이 농축수산물 시장 중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액 또한 가장 높음. 중국의 재정부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채소 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채소 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¹¹⁾하기로 하여, 채소류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8) 노령령. 중국 농산물 유통정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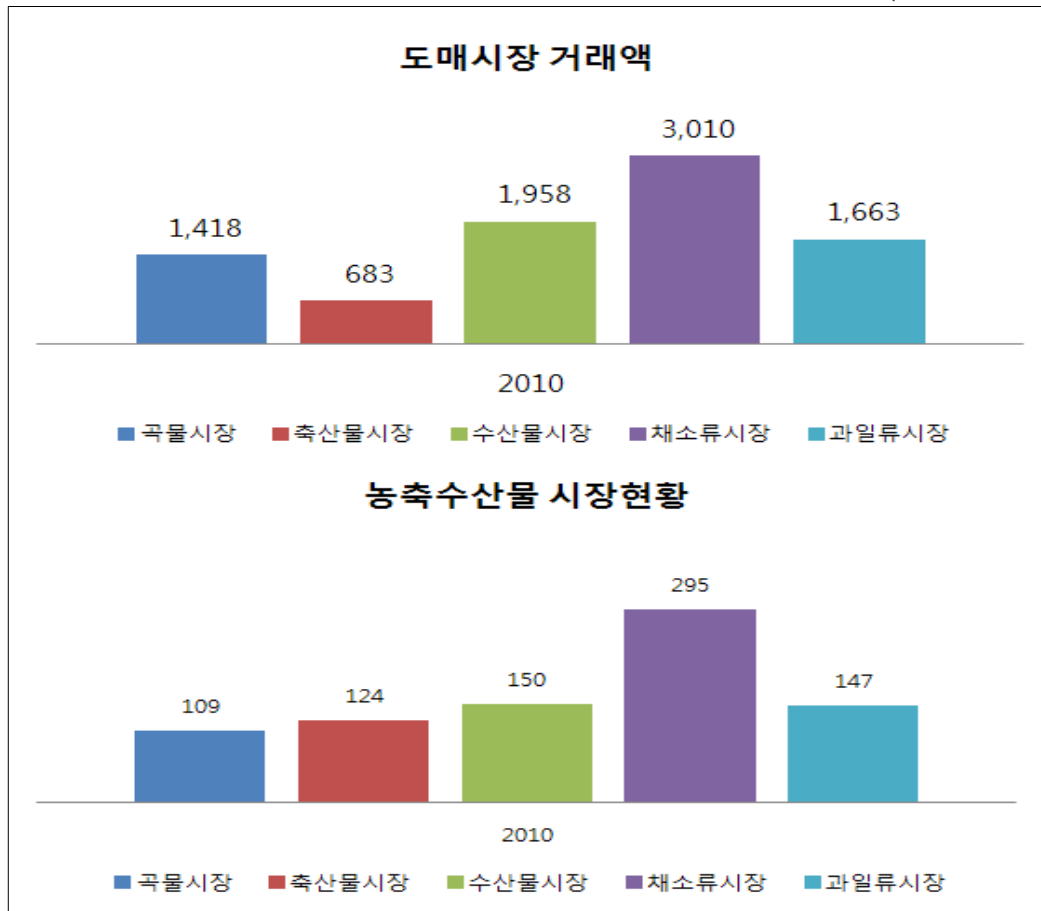
9)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자료로서, 농축수산물의 시장에 대한 개수를 제시해주지만, 이 시장이 도매시장의 개수인지는 알 수 없음.

11) 중국 양선만보(2012.01.11.)

<그림 2-7> 중국의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액 및 시장 현황(2010년)

(단위 : 백만 위안,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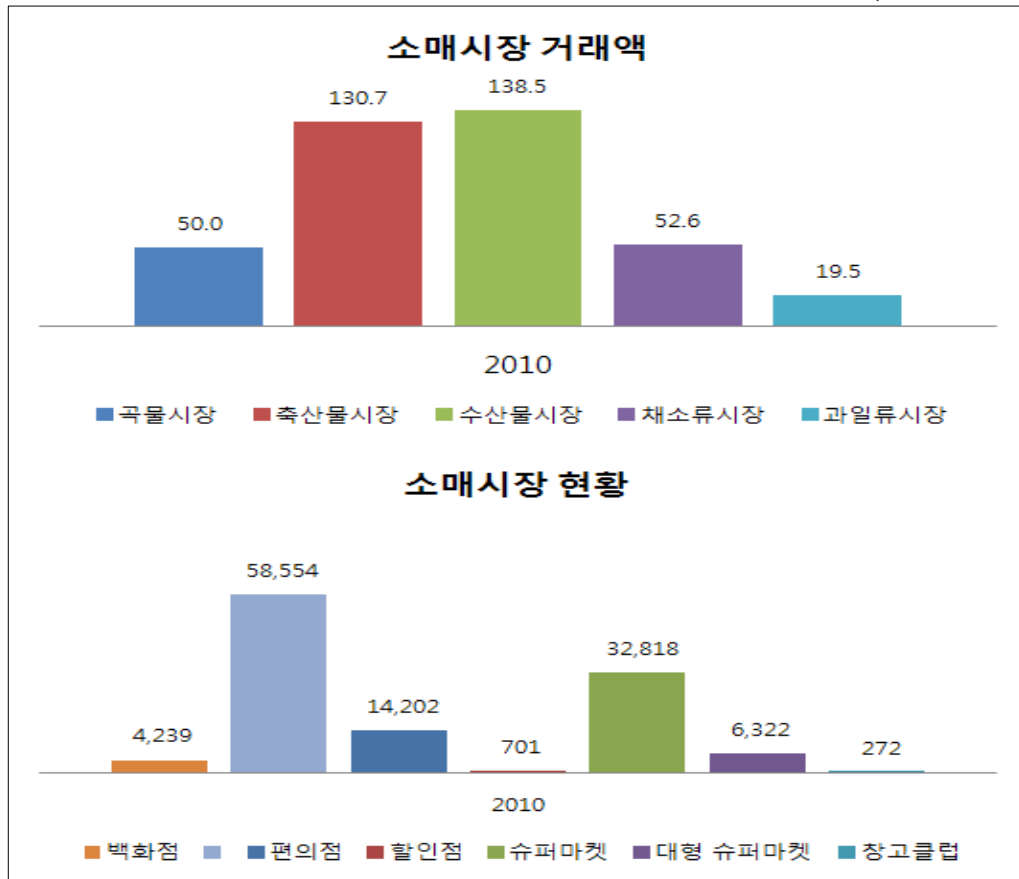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 소매시장은 집무시장과 소매업체로 나뉜다. 아래의 <그림 2-8>은 소매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의 거래액 및 소매업체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소매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의 거래액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중 채소류시장과 과일류시장에서의 거래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도매시장은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매시장의 경우 거래액의 증감이 일정치 못하므로 시장의 형성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임. 소매업체 중 슈퍼마켓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편의점이 많이 분포함. 중산층의 비중 증가와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의 고도화로 깨끗하고 밝은 곳에서의 쇼핑이 선호가 높아지며, 주부의 취업증가로 심야쇼핑이 증가하여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¹²⁾되므로 소매업체에서의 농수축수산물의 구매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12) 인터넷카페 발췌 (중국시장연구 수업카페, <http://cafe.naver.com/asiastudy1>)

<그림 2-8> 중국의 농축수산물 소매시장 거래액 및 시장 현황(2010년)

(단위 : 백만 위안, 개)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2) 농산물 유통의 특징

- 유통시설의 낙후 및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신선도 저하
 - 농축수산물은 부패되기가 쉬운데, 80~90%의 농축수산물이 상온에서 운송되고 있으며 손실률이 약 20~30%를 차지함. 이는 콜드체인시설과 콜드체인 설비의 부족의 원인이 큰데, 저온운송능력이 중국보다 국토면적이 적은 일본의 경우 냉동·보온 차량이 12만대로 저온 운송율이 80~90%를 차지하는데, 중국은 저온열차 6792대, 보온차량 3만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온 운송율이 50% 미만임¹³⁾
 -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수매시장 → 생산지 도매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매업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유통의 단계가 많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거래시간이 길고 잦은 상하차 작업으로 농수축산물의 부패 및 손실이 큼
- 농산물의 슈퍼마켓 직공급 운동의 확산¹⁴⁾
 - 중국의 농민 전업협작사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업인들의 수입증대를 위해 ‘농산물 슈퍼마켓 직공급운동(農超對接 : 농초대접)’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의 농업부에서는 2011년 농민전업협작사가 600여개에 달한다고 발표함. 농민전업협작사는 수집한 농산물을 도시의 대형 슈퍼마켓에 직공급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대형유통업체인 프랑스의 까르푸와 미국의 월마트도 농산물 직공급 운동을 실시하고 있음. 까르푸의 경우 중국 내 43개 도시, 145개 점포에 생산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2011년까지 채소와 과일 구입의 3분의 1 이상을 직공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계획함
- 거래 방식의 낙후 : 대부분의 거래가 협상매매로 이뤄지고 있어서 가격의 투명도가 낮고 1:1의 협상이므로 거래시간이 길고 유통효율이 낮음
- “녹색통로”의 개통 : “녹색통로”는 농축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농축수산물 수송차량을 우대하는 제도로 검역증명서를 제시하면 유통과정에서 중복검역을 막을 수 있고 최초의 물품증명서를 통해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제도임. 녹색통로는 총 길이가 2만 7,000km에 이르며, 중국의 29개성과 71개 시급 도시, 262개 현급 도시가 하나로 통합됨. 녹색통로를 통해 통행료가 매년 10억여위안의 감면효과가 있음¹⁵⁾

13) TAN CHAO. 중국 농산물 유통에 관한연구. 2012.

14) 농민신문(2012. 02. 18.)

15) 농민신문(2005. 08. 29.)

(3) 농산물 유통체계의 구축관련 주요 정책

- 농산물 유통체계의 구축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의 <표 2-1> 와 같음
 - 농산물 유통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업무의 주요 부처는 국무원, 농업부, 교통부 임
 - 국무원은 식량유통체계 및 농업소득안전 등 농업의 전반적인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농업부는 농산물 유통체계와 구축과 관련된 녹색도로, 도매시장 등 시설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부는 녹색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 징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함

<표 2-1>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관련 주요 정책

연도	시행부서	내용
2004	국무원	<식량 유통체계개혁에 대한 의견>을 공포. 2004년부터 식량수매시장을 전반 개방하여 식량판매시장화, 시장주체다원화를 선언. 또한 필요시 식량주산지에서 저가 수매가격정책을 결정하도록 제안
2005	농업부 등 7부처 공동	<전국 고효율 신선농산물 “녹색통로”를 건설할 데 대한 실시방안>을 발표
2006	교통부	녹색통로네트워크를 성(省)간 및 해외로의 확대를 실현할 것을 발표
2007	농업부, 중국농업은행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을 지지하는 합작구조협약>을 체결, 이를 통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
2009	국무원	<농업발전을 안정시키고 농업소득증대를 촉진시키는데 관한 의견>을 하달. “농산물 유통 발전과 촉진 방안”을 중대 대책 8개중 하나로 간주
2009	교통부	신선농산물운송의 녹색통로정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신선농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에 대해 발표
2010	교통부	전국 모든 비용징수 도로를 “녹색통로”범위에 포함하고 법적으로 신선농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료의 면제제도를 실행
2010	농업부, 상무부	<합작구조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발표. 두 부처는 공동으로 농산물유통구조와 생산구조간의 연결을 강화 및 농산물 시장체계건설 등을 추진키로 협의

자료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소비 현황

(1) 최근 중국인의 농축수산물 소비경향¹⁶⁾

- 수요의 다양화 : 레저식품¹⁷⁾, 기능식품, 곡물식품 등 식품의 분류가 끊임없이 세분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
- 의식수준의 향상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식품의 보건기능이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보건 식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유행과 개성에 대한 민감성 : 식품 소비자는 제품의 포장과 형태가 유행과 개성에 따르길 바램. 즉, 제품을 통해 자신만의 다양한 식품 요구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동시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제품을 원함. 그 예로 “彩虹糖(차이홍탕, SKITTLES : 7가지 무지개 색에 각기 다른 과일 맛이 나는 사탕)이 있음
- 다양한 영양보충 식품의 등장 : 곡류 식물의 섭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식사로서의 지위 또한 점차 떨어지고 있음. 특히 경제 발전과 좋지 않은 음식 습관으로 국민의 식사 구성이 불균형해지고 영양과잉으로 인해 “사치병”의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음. 이에 최근 곡물 음료, 유제품, 두류 제품, 영양 보충 식품 등이 큰 수요를 가짐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 : 최근 식품 중의 첨가제, 농약 잔류 등 “식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람들은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갈수록 중시 여기고 있음. 이에 “녹색 식품”, “안전 식품”이 관심을 받고 있음
- 지역에 따라 편중된 수산물 소비 : 연해와 동부 지역에서는 수산물의 소비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만, 중부와 서부지역은 수산물 소비 지출이 적은 편임
- 체험, 셀프, DIY식 식품 소비 트렌드 : 체험이 식품 시장에 진입하면서 ‘체험을 통해 생활을 누린다’는 식품의 소비 패턴이 성행하게 됨. DIY식 식품 소비를 통해 식품의 기능, 체험, 감정의 효과와 이익을 추구함. 또한 DIY식 식품 소비 풍토는 식품안전성문제의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어 더욱 확산 됨
-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식품의 등장 : 경제의 발전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여성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식품 소비에도 영향을 줌. 즉, 여성을 겨냥한 여성 음료, 미용 식품, 다이어트 식품, 산후 영양 식품 등 다양한 계열의 식품이 등장하고 있음

16)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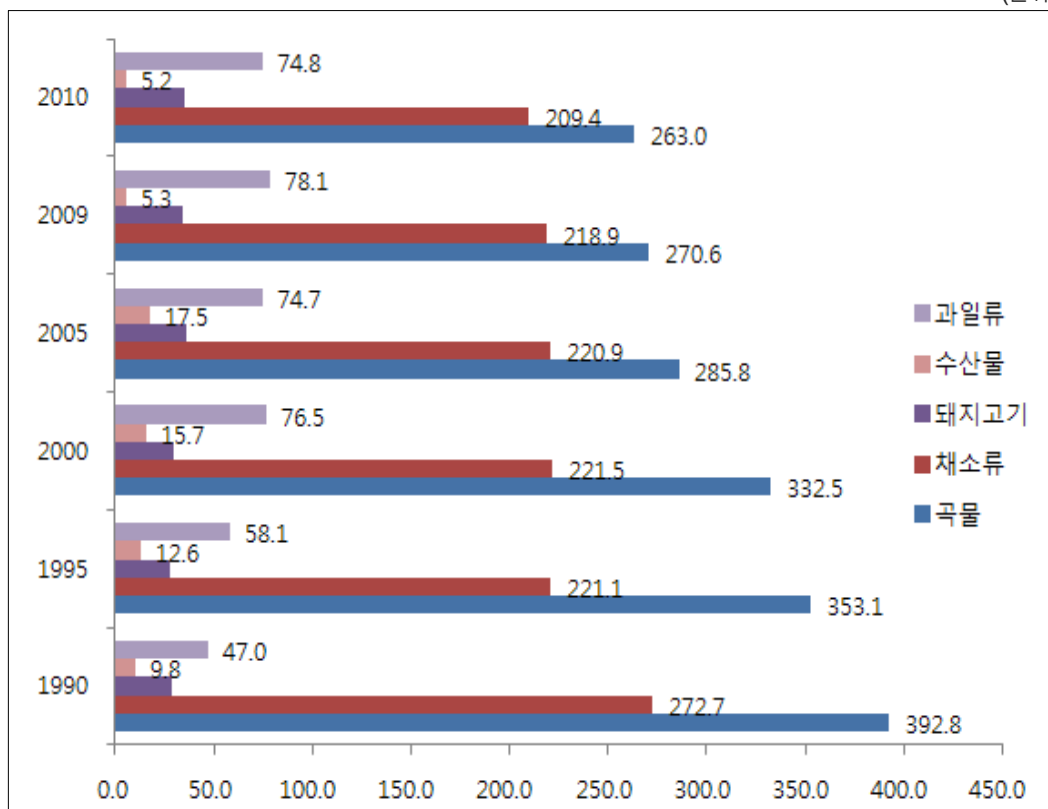
17) 레저식품 :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가공한 식품으로 곡물 곡물을 원료로 한 스낵, 기름에 튀겨 가공한 과일씨, 고구마 튀김, 건어물, 말린 과일 및 야채 등이 있음

(2) 농축수산물 소비 현황

- 중국의 인구는 1990년에 약 11억 4천명 이였고 2010년에는 약 13억 4천명으로 2억 명 가량 증가하였으나, <그림2-9>와 같이 1인당 연간 주요 농축수산물의 소비 현황은 132.2Kg 감소함. 이에 주요인은 곡물과 채소류의 소비감소인데, 곡물의 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 129.8Kg 감소하였고 채소류의 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 63.3Kg감소함
- 반면에, 축산물의 소비는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유의 소비로서, 앞서 말한 원자바오의 그 ‘교시’와 우유 나눠주기 캠페인인 ‘우유 장정’ 운동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과일류의 소비량도 증가하였는데, 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수준 상승에 의한 것임
- 곡물과 채소의 섭취가 줄고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중국인의 식습관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이고 “위의 사치병”발생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음

<그림 2-9> 중국의 1인당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 추이

(단위 : Kg)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4) 수출입 현황

(1) 중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현황

- 중국은 농축산물 수출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역에서 대부분 이뤄지는데, 곡물의 최대 수출국은 한국으로서 2011년에 203,976 천 달러를 수출함. 채소류의 최대 수출 국가는 일본으로서 2011년에 1,402,796 천 달러를 수출하였고 과일류는 인도네시아로서 2011년에 431,661 천 달러를 수출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홍콩이 최대 수출국으로 2011년에 706,886 천 달러를 수출하였고 수산물은 일본에 2011년 1,942,640 천 달러를 수출하였음
- 곡물, 과일류, 축산물은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은데, 곡물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1년에 716,129 천 달러를 수입하였고 과일류의 최대 수입국은 태국으로서 2011년에 748,863 천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축산물의 경우 미국에서 2011년에 1,357,173 천 달러를 수입하였음
- 아래의 <표 2-2>는 품목별 국가의 수출입현황으로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산물, 채소류의 수입이 많은데, 곡물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채소류는 2011년에 588,704 천 달러로 수출액이 상위 4위를 기록함

<표 2-2> 중국의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입현황(2011)

(단위 : 천달러)

곡물					채소류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1	한국	203,976	미국	716,129	1	일본	1,402,796	태국	957,773
2	북한	102,344	호주	637,601	2	베트남	872,855	베트남	402,743
3	일본	66,626	태국	255,662	3	말레이시아	643,499	캐나다	280,488
4	베트남	32,446	베트남	123,591	4	한국	588,704	인도	78,357
5	홍콩	23,550	캐나다	102,972	5	인도네시아	584,704	미국	30,259
과일류					축산물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순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입액
1	인도네시아	431,661	태국	748,863	1	홍콩	706,886	미국	1,357,173
2	태국	338,370	미국	500,714	2	말레이시아	92,376	브라질	603,783
3	베트남	302,802	칠레	452,449	3	키르기스자	66,552	덴마크	319,463
4	말레이시아	265,589	베트남	421,555	4	마카오	33,428	캐나다	209,035
5	러시아	254,513	필리핀	408,680	5	요르단	20,503	뉴질랜드	177,253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2) 중국의 對 한국 농축수산물 수출입 현황

- 아래의 <표 2-3>부터 <표 2-12>까지는 중국의 성별 對 한국의 농축수산물 수출입현황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출입 금액의 합이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성들의 연도별 수출입 금액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은 중국의 곡물 최대 수출국으로서, 아래의 <표 2-3>은 중국의 성별 對 한국의 곡물 수출 현황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가장 많은 성은 길림성으로 총 2,009,525 천 달러를 수출함. 하지만 헤이룽장성은 2008년부터 수출되는 금액이 길림성보다 높으며, 2011년에는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 헤이룽장성으로부터의 곡물수출액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표2-4>는 한국으로부터 곡물의 수입액은 극히 적은데, 2011년에는 랴오닝성과 길림성으로부터 각각 383 천달러, 327 천달러를 수입함

<표 2-3> 중국의 성별 對 한국 곡물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길림(吉林)	418,976	537,637	129,253	369,265	147,455	283,234	17,098	38,055	27,930	40,622	2,009,525
헤이룽장(黑龙江)	75,172	215,329	47,732	140,901	113,563	242,888	51,702	78,915	93,314	145,564	1,205,080
랴오닝(辽宁)	58,245	78,343	21,065	142,209	45,319	135,077	15,305	28,998	21,882	9,106	555,549
내몽고(内蒙古)	70,193	87,204	29,091	101,611	58,575	128,607	2,234	2,729	1,812	2,934	484,990
허베이(河北)	54,225	20,138	4,639	11,074	1,595	19,017	703	630	219	1,453	113,693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표 2-4> 중국의 성별 對 한국 곡물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랴오닝(辽宁)	0	0	0	0	0	0	0	0	306	383	689
길림(吉林)	0	0	4	0	0	0	0	0	0	327	331
천진(天津)	0	0	0	0	5	0	0	0	0	0	5
광둥(广东)	0	2	0	0	0	0	0	0	0	0	2
베이징(北京)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 아래의 <표 2-5>, <표 2-6>는 중국의 성별 對 한국의 채소류 수출입 현황으로서, 산둥성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있었고 수입은 곡물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근소함

- 최근 들어, 허난성, 베이징, 광둥성으로부터 작게나마 한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있는데, 이들 지역의 소비자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전략을 잘 구사한다면, 중국과의 FTA 협정 후 농산물 수출의 기회도 엿볼 수 있음

<표 2-5> 중국의 성별 對 한국 채소류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산둥(山东)	45,419	81,304	94,987	101,809	132,339	129,422	124,462	124,269	270,349	260,059	1,364,419
랴오닝(辽宁)	13,651	15,633	20,666	26,043	28,950	39,571	35,036	28,937	47,875	60,164	316,526
길림(吉林)	10,348	11,487	13,464	19,128	21,122	23,558	22,852	25,014	47,472	38,854	233,299
장쑤(江苏)	6,172	11,871	12,436	12,960	19,170	21,114	20,225	20,902	32,414	45,908	203,172
푸젠(福建)	1,998	3,342	7,408	12,051	17,341	12,941	23,364	18,514	27,257	45,377	169,593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표 2-6> 중국의 성별 對 한국 채소류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허난(河南)	0	0	0	0	0	0	0	376	3,075	259	3,710
베이징(北京)	0	0	1	0	11	19	819	1,333	85	1,248	3,516
광둥(广东)	5	0	0	0	0	0	0	435	2,122	826	3,388
랴오닝(辽宁)	165	52	54	11	0	153	38	926	47	113	1,559
산둥(山东)	148	7	167	93	40	136	150	265	217	18	1,241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 <표 2-7>, <표 2-8>과 같이 산둥성은 중국의 성중 한국으로부터 과일의 수출입이 가장 많은 성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의 규모가 비슷함.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출액의 합은 103,689 천 달러이고 수입액의 합은 106,139 천 달러이며, 2006년까지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았지만, 2007년부터는 수출액의 규모가 큰 편임.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으로부터의 과일류 수입이 꾸준하므로 한국은 산둥성을 과일류 수출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표 2-7> 중국의 성별 對 한국 과일류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산둥(山东)	6,849	9,531	6,619	8,478	10,172	14,118	11,233	9,061	12,371	15,257	103,689
랴오닝(辽宁)	4,826	4,686	6,798	6,949	7,210	6,580	7,601	3,981	4,740	7,288	60,659
장쑤(江苏)	2,067	3,049	4,277	3,478	5,032	2,356	1,383	2,297	0	0	23,939
허베이(河北)	1,720	1,491	1,535	1,813	3,805	3,559	2,987	1,405	1,834	2,590	22,739
허난(河南)	155	375	369	398	514	3,158	4,023	3,482	2,998	3,889	19,361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표 2-8> 중국의 성별 對 한국 과일류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산둥(山东)	5,561	10,925	11,873	11,915	12,336	11,781	9,587	9,870	11,230	11,061	106,139
장쑤(江苏)	2,423	6,929	6,774	6,750	3,342	1,454	967	1,067	794	590	31,090
랴오닝(辽宁)	274	948	1,668	2,090	2,393	2,195	2,520	2,299	2,322	2,594	19,303
안후이(安徽)	0	487	131	134	935	1,406	1,193	1,057	1,593	1,232	8,168
절강(浙江)	526	1,526	303	238	149	267	140	0	0	0	3,149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 아래의 <표 2-9>과 <표 2-10>은 중국의 성별 對 한국 축산물 수출입 현황으로, 2006년까지는 일정 규모의 축산물을 한국에 수출하였지만 그 후 축산물에 대한 수출은 아주 없음. 수입 또한 거의 없으나 최근인 2011년에 천진성에서 432 천 달러를 수입함

<표 2-9> 중국의 성별 對 한국 축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충칭(重庆)	0	0	542	8,375	1,369	0	0	0	0	0	10,286
헤이룽장강(黑龙江)	0	127	0	0	5,804	0	0	0	0	0	5,931
허난(河南)	1,920	2,787	454	162	0	0	0	0	0	0	5,323
산둥(山东)	1,033	1,480	966	816	475	0	0	42	0	0	4,812
쓰촨(四川)	0	0	140	284	2,853	22	0	0	0	0	3,299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표 2-10> 중국의 성별 對 한국 축산물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천진(天津)	0	0	0	0	0	0	0	0	27	432	459
랴오닝(辽宁)	0	59	18	0	0	0	0	0	218	0	295
광둥(广东)	100	6	0	0	0	0	0	0	0	0	106
산둥(山东)	0	0	0	0	0	0	0	0	0	52	52
베이징(北京)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 <표 2-11>, <표 2-11>과 같이 한국은 중국의 수산물에 대한 수출액규모가 3위이고 수입액규모가 5위이지만, 다른 수출입품목에 비해 수출입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큼. 한국에 수출액이 많은 성은 산둥성, 절강성, 랴오닝성, 푸젠성으로 2011년 수출액 규모가 모두 200,000 천 달러 이상이며 그 중 산둥성은 369,384 천 달

러의 규모임. 또한 산둥성은 한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이 가장 많은 성으로서 수산물의 수입액 규모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75,877 천 달러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산둥성은 한국의 수산물 수출시장 확장진출 전망 밝음

<표 2-11> 중국의 성별 對 한국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산둥(山东)	228,142	239,258	267,178	278,751	278,715	288,555	274,087	278,312	363,618	369,384	2,866,000
절강(浙江)	198,866	171,452	239,379	214,547	227,580	220,443	173,850	165,571	220,692	234,757	2,067,127
랴오닝(辽宁)	98,760	167,343	208,068	158,438	152,833	137,571	124,055	124,697	156,201	240,197	1,568,163
푸젠(福建)	38,877	38,664	50,844	47,575	56,489	57,413	62,940	96,513	146,232	204,421	799,968
허베이(河北)	11,167	15,287	22,770	21,866	36,269	29,646	33,527	32,771	43,982	63,837	311,122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표 2-12> 중국의 성별 對 한국 수산물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산둥(山东)	22,319	34,279	59,079	91,265	57,525	96,209	114,580	85,083	107,774	175,877	843,990
랴오닝(辽宁)	10,741	6,857	9,111	11,377	11,521	20,816	20,975	12,017	12,796	15,689	131,900
절강(浙江)	3,724	3,441	4,475	2,340	2,433	10,994	12,247	9,643	22,024	26,984	98,305
푸젠(福建)	740	1,866	1,461	1,208	1,675	4,930	3,992	2,210	1,961	1,018	21,061
길림(吉林)	36	18	909	1,721	4,205	2,626	1,494	2,080	863	2,823	16,775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5) FTA 추진 현황

(1) 총괄 개요

- 중국은 현재 ASEAN의 10개국¹⁸⁾을 포함한 19개국과 FTA 협상이 체결된 상태이며, GCC¹⁹⁾의 6개국, SACU²⁰⁾의 5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표 2-13> 중국의 FTA 추진 총괄 개요

구분	국가			
기체결된 FTA	중국-ASEAN FTA	중국-뉴질랜드 FTA	중국-대만 ECFA	중국-마카오 CEPA
	중국-싱가포르 FTA	중국-칠레 FTA	중국-코스타리카 FTA	중국-파키스탄 FTA
	중국-페루 FTA	중국-홍콩 CEPA		
협상중인 FTA	중국-GCC FTA	중국-SACU FTA	중국-노르웨이 FTA	중국-아이슬란드 FTA
	중국-한국 FTA*	중국-호주 FTA	중국-스위스 FTA	
검토중인 FTA	중국-MERCOSUR FTA	중국-인도 RTA	중한일 FTA	

자료 : KITA(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 중국-한국 FTA는 p. 43 이후부터 자세하게 다뤄질 것이므로 본문에서는 설명생략함.

(2) 기체결된 FTA²¹⁾

- 중국-ASEAN FTA
 - 2001년 11월 중국이 2010년까지 FTA 완성 제안
 - 2002년 11월 4일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 서명
 - 2005년 7월 20일 상품협정 발효
 - 2007년 1월 15일 제 10회 아세안-중국 정상회담에서 ASEAN 각국의 경제장관과 중국 외무장관이 중-아세안간 서비스 협정에 공식 서명

18) 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서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였지만,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19)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로서,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6개국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이며, 상호간의 경제 및 안전보장의 협력과 치안·국방 면에서 결속할 것을 목적으로 함.

(네이버 지식백과)

20) 남아프리카 5개국 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 Botswana, Lesotho, Namibia, South Africa and Swaziland 등 5개국임. (네이버 지식백과)

21) KITA(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2007년 7월 서비스협정 발효
- 2009년 8월 14일 공식 서명
- 2010년 1월 1일 부로 중-ASEAN FTA 상품협정을 바탕으로 중-ASEAN 자유무역 지대(FTA)가 실질적으로 완성됨
- 중국-뉴질랜드 FTA
 - 2004년 5월 공동연구 종료
 - 200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헬렌 클락 수상의 합의로 FTA 공식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2004년 12월 6일 협상을 개시
 - 2008년 1월 21일 양국 간 FTA 협상을 공식 타결함
 - 2008년 4월 7일 공식서명
 - 2008년 10월 1일 공식 발효
- 중국-대만 ECFA
 - 2009년 11월 18일 중국-대만 ECFA(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정 상에 500여개 품목에 대해 조기 관세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을 검토중에 있음
 - 2009년 11월 3~4일 중-대만 ECFA 비공식 협상 개최, 12월 양안관계 확대를 위한 논의에서도 중-대만 ECFA를 의제로 다룸
 - 2010년 1월 26일 중-대만 ECFA 제1차 사전협의 개최
 - 2010년 2월말~3월초 중-대만 ECFA 제2차 사전협의 개최 예정
 - 2010년 6월 29일 중-대만 ECFA 서명
 - 2010년 9월 12일 중-대만 ECFA 발효
 - 2011년 확대협상예정
- 중국-마카오 CEPA
 - 2003년 10월 17일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 2004년 1월 1일 발효
 - 2009년 5월 11일 시장접근 확대,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완화 등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마카오 CEPA Supplement(보완협정) VI를 체결, Supplement VI

는 2009년 10월 1일 발효

○ 중국-싱가포르 FTA

- 2004년 11월 상품 및 서비스, 투자에 관한 포괄적인 FTA 협상 개시에 합의
- 2006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
- 2008년 9월 4일 타결
- 2008년 10월 23일 공식 서명
- 2009년 1월 1일 발효

○ 중국-칠레 FTA

- 2004년 8월 양국간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시작
- 2004년 11월 19일 APEC회의에서 공식 협상 시작 예정
- 2005년 1월26-28일 1차 협상(북경)
- 2005년 4월 25일 2차 협상(산티아고)
- 2005년 6월 29일-30일 3차 협상(중국)
- 2005년 9월 12일-16일 4차 협상
- 2005년 10월 5차 협상
- 2005년 11월 18일 부산APEC회담을 계기로 공식 서명
- 2006년 7월-8월 칠레 상하원에서 비준안 통과
- 2006년 10월 1일 발효(동 협정에는 양국이 향후 10년 내 약 97%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2008년 4월 13일 서비스 협정 공식 서명
- 2009년 1월 14일 투자협상 개시
- 2009년 2월 5일 투자부분 1차 협상
- 2009년 4월 7-8일, 6월 22-24일, 9월 23-25일 각각 중-칠레 FTA 제2-4차 투자협상 개최
- 2010년 2월 제6차 투자협상 개최
- 2010년 8월 서비스협정 발효

○ 중국-코스타리카 FTA

- 2007년 10월 양국은 Oscar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양국 간 FTA 타당성 검토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를 발표함
- 2008년 7월까지 공동연구 3차례 개최
- 2008년 11월 후진타오 주석 중미 방문시 가진 합동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2009년 1월 양국의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힘
- 2009년 2월 12일 1차 협상 개최
- 2009년 3월 17일 2차 협상 개최
- 2009년 6월 15일~17일 3차 협상 개최
- 2009년 9월 7일 4차 협상 개최
- 2009년 11월 5차 협상 개최
- 2010년 2월 10일 중-코스타리카 FTA 협상 타결
- 2010년 04월 8일 중-코스타리카 FTA 공식서명
- 2011년 8월 1일 발효

○ 중국-파키스탄 FTA

- 2005년 4월 쇼캇 아지즈 수상과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함
- 2005년 12월 7일-9일 2차 협상 종료 후 2006년 1월 1일부터 EHP 실행하기로 합의
- 2006년 11월 7일-10일 중국-파키스탄 FTA 제 5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
- 2006년 11월 24일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양국간 통상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 2008년 9월 제4차 서비스 협상 개최
- 2009년 2월 FTA 서비스 협정 서명
- 2009년 10월 10일 FTA 서비스 협정 발효

○ 중국-페루 FTA

- 2007년 5월 14-15일 중국과 페루는 베이징에서 양국 간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 2007년 9월 7일 후진타오 주석과 알렌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중-페루 FTA 협

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2008년 1월 20일-24일 양국 간 FTA 제1차 협상 개최
- 2008년 11월 19일 중-페루 FTA 타결
- 2009년 4월 28일 중-페루 FTA 공식 서명
- 2010년 3월 1일 중-페루 FTA 발효

○ 중국-홍콩 CEPA

- 2004년 1월 1일 발효
- 2008년 7월 29일 서비스 시장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중-홍콩 CEPA Supplement(보완협정) V를 체결, Supplement V는 2009년 1월 1일 발효
- 2009년 5월 9일 시장접근 개선, 서비스 시장 개방, 주식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홍콩 CEPA Supplement VI를 체결, Supplement VI는 2009년 10월 1일 발효

(3) 협상 중인 FTA²²⁾

○ 중국-GCC FTA

- 2004년 7월 GCC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
- 2005년 4월 24일 1차 협상(리야드)
- 2005년 6월 2차 협상(베이징)
- 2005년 9월 28-29일 3차 협상(리야드)
- 2007년 11월 제5차 협상 개최
- 2008년 12월 Li Keqiang 중국 부주석은 2009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힘
- 2009년 6월 22~24일 중-GCC FTA 협의

○ 중국-SACU FTA

- 2004년 6월 28일 중-SACU FTA 협상 개시 합의

○ 중국-노르웨이 FTA

- 2007년 9월 중-노르웨이 FTA 타당성을 위한 공동연구 출범 합의

22) KITA(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2008년 9월 18일 중-노르웨이 FTA 제1차 협상 개시, 동년 12월 3~4일 제2차 협상 개최
- 2009년 3월 10~12일, 6월 2~5일, 12월 15~17일 각각 중-노르웨이 FTA 제3~6차 협상 개최
- 2010년 3월 제7차협상
- 2010년 9월 제8차협상

○ 중국-아이슬란드 FTA

- 2005년 5월 후진타오 주석과 아이슬란드 Olafur Ragnar Grimsson 대통령은 양국 간 FTA를 위한 공동연구 착수에 합의함
- 2006년 7월 공동연구 완료
- 2007년 4월 11일-12일 제 1차 중국-아이슬란드 FTA 협상 개최(베이징)
- 2007년 6월 22일-23일 2차 협상(Reykjavik)
- 2007년 10월 제3차 협상(베이징)
- 2008년 4월 28일-30일 제4차 협상

○ 중국-호주 FTA

- 2003년 8월 FTA 일반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
- 2003년 10월 FTA 체결을 위한 교역 및 경제에 관한 기본 협정(The Australia-China Trade and Economic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
- 2005년 10월까지 FAT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후 협상 개시 결정 예정(당초)
- 2005년 3월 공동연구 조기 종료(4월 18일 공식 협상 개시 선언)
- 2005년 5월 23일 협상 개시
- 2005년 8월 22일 2차 협상 개최
- 2005년 11월 2일-4일 3차 협상(북경)
- 2006년 2월 27일 제4차 협상
- 2006년 5월 22일-24일 제5차 협상 (북경)
- 2006년 8월 31일-9월 6일 제6차 협상(북경) — 양국은 2007년 안에 협상 완료 목표로 함

- 2006년 12월 11일-15일 제7차 협상(캔버라)
- 2007년 3월 제8차 협상
- 2008년 11월 G-20 회의 후 후진타오 주석과 Kevin Rudd 호주 총리는 고착화 상태에 빠진 양국 간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 2008년 12월 1일-5일 제13차 공식 협상 개최
- 2009년 9월 제14차 협상
- 2010년 7월 제15차 협상
- 2011년 7월 제 16차 협상

○ 중국-스위스 FTA

- 2009년 1월 27일 원자바오 총리 스위스 방문시 하반기 공동연구 출범 합의
- 2010년 2월 4일 중-스위스 FTA 공동연구 개시
- 2011년 1월 협상 개시 선언
- 2011년 4월 제1차 협상

(4) 검토 중인 FTA²³⁾

○ 중국-MERCOSUR FTA

○ 중국-인도 RTA

- 2004년 10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만난 양국 총리는 양국 간 공동연구회 설립을 서두르기로 합의
- 2005년 4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인도와의 FTA 체결 희망 의사를 밝히고 공동 연구를 진행함
- 2006년-2007년 JTF(Joint Task Force) 3차례 회의
- 2006년 11월 중국 주석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다시 양국 간 FTA 체결의사를 밝혔으며, 2007년 1월 초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함
- 2008년 1월 인도 싱 총리 방중시 중-인도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
- 2008년 10월 10일 양국 간 공동연구 종료

23) KITA(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중한일 FTA

- 1999년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 추진
- 2003년부터 한·중·일 3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진행
- 2009년부터 한·중·일 3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제2기 연구 개시 예정
- 2009년 10월 10일 3국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간 FTA 민간공동연구 (03년~09년)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 연구 출범 합의
- 2009년 10월 25일 3국 통상장관회의 시 2010년 상반기 중(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이전) 산관학공동연구 개시 및 이를 위한 준비회의 2010년 초 개최 합의
- 2010년 1월 26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준비회의 개최
- 2010년 5월 6일-7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서울)
- 2010년 9월 1일-3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일본 도쿄)
- 2010년 12월 1일-3일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

2. 한국의 대중국 FTA 추진 현황

1)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 현황

-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대중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입액은 2010년 1,945,736천 달러에서 2011년 2,446,832천 달러로 약 26%가량 증가함. 같은 기간 대중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액은 466,601천 달러에서 625,450천 달러로 34%가량 증가함
 -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농산물 수출시장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2대 농산물 수출시장

<표 2-14>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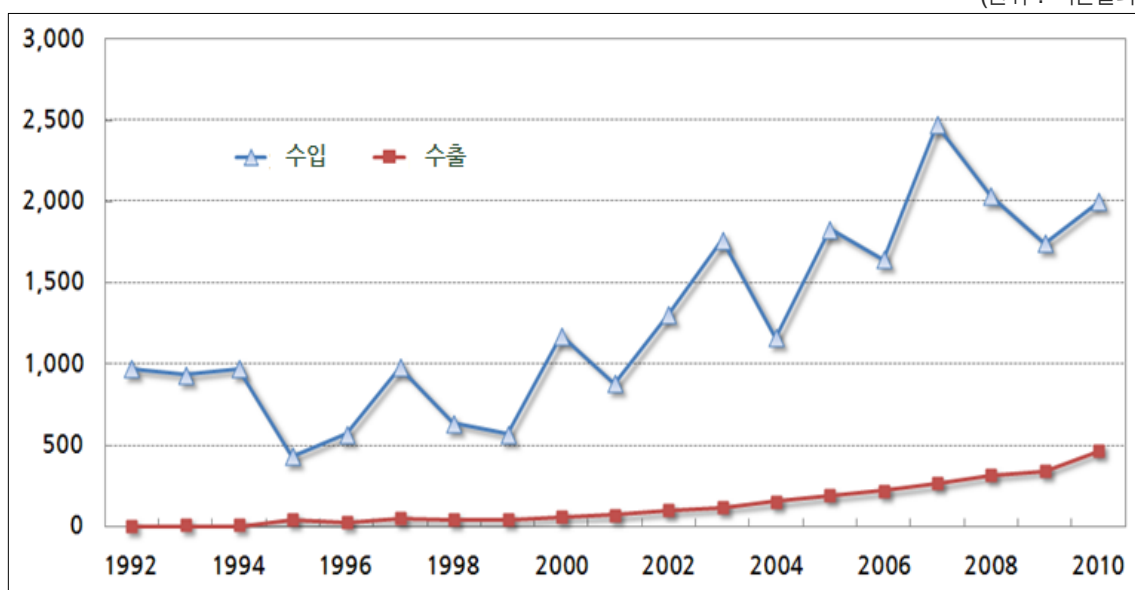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톤)

구분	수입		수출	
	금액	중량	금액	중량
2007	2,375,231	7,320,304	257,420	208,837
2008	1,949,705	3,572,616	303,134	189,464
2009	1,702,046	3,017,173	326,679	211,389
2010	1,945,736	2,907,207	466,601	269,815
2011	2,446,832	3,311,542	625,450	355,92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ATKATI)

<그림 2-10>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교역량 추이(1992-2010년)

(단위 : 백만달러)



자료: 한·중 농업현황과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 2011년 대중국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은 당류(144,417천 달러), 과자류(76,243천 달러), 커피류(53,278천 달러), 인삼류(45,607천 달러) 등이며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대부분 가공식품류임
- 최근 중국시장으로의 인삼류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 주로 홍삼과 인삼음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중국 내 한국인삼공사의 법인설치와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 인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유자의 경우 중국 내 한국산 유자의 높은 인지도와 중국산과 품질의 차별성 때문에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2-15> 한국의 대중국 주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 현황(수출액 기준)
(단위 : 천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당류	54,393	58,070	58,094	97,684	144,417
과자류	38,617	33,861	36,510	43,481	76,243
커피류	17,709	15,997	29,000	45,878	52,478
인삼류	3,568	6,752	6,830	16,148	45,607
면류	30,115	35,980	39,562	36,700	41,703
과실류	11,455	18,246	20,182	30,036	36,941
식물성유지	2,459	2,374	4,585	17,172	33,985
소스류	18,552	19,375	18,343	25,894	32,183
음료	9,734	10,806	19,566	20,615	21,559
주류	12,818	16,045	10,584	13,991	15,861
연초류	7,041	8,325	12,037	7,609	13,585
화훼류	23,298	23,415	14,435	18,575	12,924
채소류	5,460	6,867	6,190	6,644	7,704
식물성액즙	2,421	1,402	2,796	5,150	7,335
코코아류	3,072	2,006	3,761	5,304	6,504
지방성물질	1,158	1,034	794	1,423	5,804
버섯류(농산)	61	4,195	9,413	6,458	5,000
곡류	1,814	2,405	2,167	1,990	2,714
사료	1,148	3,570	1,560	1,650	2,376
유지가공품	4,110	1,748	1,260	1,420	1,169
농산물 계	257,420	303,134	326,679	446,601	624,450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ATKATI)

- 2011년 대중국 농산물 수입은 채소류(635,480천 달러), 곡류(259,113천 달러), 박류(218,143천 달러), 기타조제 농산품(189,162천 달러), 채유종실(176,113천 달러) 등으로 수입을 주도하는 품목은 신선식품, 곡류, 가공원료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 수입액은 2010년 136,181천 달러에서 2011년 230,490천 달러로 약 70%가량 증가하였음
- 최근 채소류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내 채소가격 상승에 따른 TRQ물량 확대 등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2-16> 한국의 대중국 주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입 현황(수입액 기준)
(단위 : 천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채소류	399,978	399,996	323,825	531,643	635,480
곡류	953,271	177,298	192,306	165,287	259,113
박류	141,602	276,605	216,734	181,899	218,143
기타조제 농산품	24,034	51,988	66,251	78,468	189,162
채유종실	96,303	128,041	118,459	128,823	176,113
두류	111,013	233,660	170,519	85,352	137,401
사료	66,103	97,804	79,552	97,824	104,534
소스류	66,290	76,447	67,465	78,714	86,235
면류	52,416	58,737	53,079	63,525	80,742
당류	29,098	52,792	56,099	65,174	79,354
과실류	72,793	66,532	51,465	53,654	65,454
과자류	74,737	68,403	34,360	46,873	63,059
음료	38,457	35,183	35,460	54,532	59,652
전분	34,457	36,786	25,650	31,754	41,388
잠사류	0	0	29,757	961	38,318
식물성 액즙	13,233	18,958	18,963	28,403	33,516
기타곡실류	13,626	14,865	17,653	16,621	24,103
버섯류(농산)	14,918	10,521	7,483	13,147	18,723
식물성유지	13,664	11,526	11,392	18,398	16,943
효모류	5,362	7,777	8,693	11,828	13,499
농산물 계	2,375,231	1,949,705	1,702,046	1,945,736	2,446,832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ATKATI)

2) 대중국 FTA 추진 현황

(1) 주요 추진경과

- 한·중 FTA는 2005년 3월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5월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이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현재 한·중간 4차 회의까지 진행된 상황임

<표 2-17> 한·중 FTA 추진일지

일시	내용
2004. 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사 추진 합의
2005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 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6. 11. 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기로 합의
2007. 03. 22~2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07. 07. 03~04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2007. 10. 23~2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08. 02. 18~2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 06. 11~13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0. 02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010. 05. 23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
2010. 05. 28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 09. 28~29	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 1차 회의 개최(북경)
2011. 04. 11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2012. 02. 24	한·중 FTA 공청회
2012. 03. 01~02	한·중 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2012. 03. 22~23, 04. 05	한·중 FTA 추진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
2012. 05. 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북경)
2012. 05. 14	제1차 협상 개최(북경)
2012. 07. 03~05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12. 08. 22~24	제3차 협상 개최(산둥성)

자료: 외교통상부 한·중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china>)

(2) 협상의 주요 결과

- 1차 협상결과(2012. 05. 14, 중국, 북경)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 협상의 원칙 규정 : 포괄적 FTA 추진, 실질적 자유화, WTO 규범과의 정합성, 민감분야의 고려 등
 - 협상의 대상범위 협의
 - 협상의 구조 규정 :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 단계별 협상의 진행
 - 상품/서비스·투자/기타 분야의 Modality(세부협상원칙) 골격 규정
 -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 구성(한국대표 : FTA 교섭대표, 중국대표 : 상무부 부장조리)
 - 행정사항 규정
 - 협상일정 협의 : 약 2개월간의 주기로 개최하기로 합의

- 2차 협상결과(2012. 07. 03 ~ 07. 05, 한국, 제주)
 - 상품분야 : TNC에서 Modality 협상 개시
 - 초민감품목군과 일반품목군의 크기를 결정하는 전단계로, 각 품목 군별 정의에 대한 기초적인 토의(관세 유지·철폐 기간, 양허제외 등)
 - 민간품목과 초민감품목에 속하는 품목 합의 : 제조업, 농수산 품목의 둘로 구분
 - 서비스·투자분야 : TNC산하에 서비스·투자분야 Modality 협상을 진행할 협상 작업반 설치, 기초적인 의견교환
 - 양측의 법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 양국의 기 체결 FTA의 서비스·투자분야에 대한 사례 등 의견교환
 - 협정문의 구성분야 논의
 - 한국 측은 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등의 분야가 독립된 챕터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중국은 일부 분야에 대해선 독립된 챕터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 표시
 -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그룹회의 후 협정문에 독립된 챕터로 구성 합의

○ 3차 협상결과(2012. 08. 22 ~ 08. 24, 중국, 산둥성)

- 상품분야 Modality : 품목 군별 정의와 처리방안, 품목 군별 크기설정 기준 도출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전 품목을 일반 품목군,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 군으로 분류하고, 일반품목군(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관세 철폐)과 민감 품목 군(협정 발효 후 10년 이후 관세 철폐)의 정의에 합의, 초민감 품목군은 다음 협상 시 논의 예정
 - 품목 군별 크기는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을 동시사용
- 서비스분야 : 통신 및 금융 서비스와 일시 입국분야의 기 체결 FTA 사례소개
-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분야 : 중국의 해당 분야별 국내제도, 기 체결 FTA 규정 설명
-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
 -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향후 협상에서 경쟁정책 작업반 구성 후 경쟁 이슈에 대한 논의하기로 합의
 - 정부조달 부분에서는 중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과 병행하여 한·중 FTA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해선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분야가 중요하다는 바탕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4차 협상결과(2012. 10. 30. ~ 11. 01, 한국, 경주)

- 경주에서 열린 4차 협상은 3차회의때 결정된 품목 군별 정의를 바탕으로 자유화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각 분야별 협상 기본지침(modality)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
- 이번 협상은 1단계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자유화 수준과 협상 분야별 기본지침 텍스트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함
- 첫째, 상품분야에서는 지난 3차 협상때 정해진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의 품목군 별로 구체적인 비중에 대해 논의, 양국의 입장차자 서로 큼을 확인
- 둘째, 각 분야별 협상기본지침의 텍스트에 대한 논의의 시작
 - 상품분야에선 우리 측 관심사항인 비관세 장벽과 무역구제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우리 측이 준비한 modality 텍스트의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함
 - 비관세 장벽 논의 분야에선 양국 간 무역자유화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 메커니즘 반영 논의
 - 무역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이슈를 포함함)분야에서는 양측의 무역규

제제도를 설명하고 양측의 입장 확인

-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준비한 modality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 통신, 일시입국, 건설 및 항공운송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측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투자분야 회의는 modality 텍스트에 대한 논의 및 양국의 투자정책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원산지과 통관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분야별 협상지침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경쟁분야 회의는 양국의 경쟁정책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화와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투명성 관련 전문가 대화에서도 분야별 협상지침의 주요 요소와 양국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됨
- 지적재산권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을 협상대상분야의 하나로 포함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협상부터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modality 텍스트 논의 및 기술적 논의 진행기로 합의

<그림 2-11> 한·중 FTA 주요 추진일지



3. 요약 및 정리

1) 생산 현황

- 최근들어 중국은 산업화로 인해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농업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업보조금지원, 기초시설투자 등 농업지원정책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농축산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농산물 생산현황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사료작물로서의 옥수수 등 식량작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과일류 중심 지속 증가, 꾸준한 우유마시기 소비운동으로 우유 등 축산가공품 생산증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농업현황은 한국과 비교해 투입부문에서 국토면적 96배, 식량작물면적 101배, 채소류 면적 102배, 과일류 면적 72배 등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고, 산출현황에서도 식량작물생산량 114배, 과일류 생산량 52배, 채소류 생산량 83배, 농업 총 생산액 25배, 농업 부가가치 27배 등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2-18> 중국과 한국농업의 투입-산출 규모 비교

투입 및 산출	구분	항목	한국	비교	중국
투입	면적 (만ha)	국토면적	1,000	96배	96,000
		식량작물	109(60.1%)	101배	10,988(63.1%)
		채소류	21(11.3%)	102배	2,139(12.3%)
		과실류	16(8.6%)	72배	1,154(6.6%)
	노동 (만명, 만호)	총인구	4,858	28배	134,091
		농림어업취업자수	157(6.6%)	178배	27,931(36.7%)
		농가수	118(6.8%)	170배	20,106(50.1%)
산출	생산량 (만톤)	식량작물	479.6	114배	54,648
		과실류	248.9	52배	12,865
		채소류	839.1	83배	69,973
	총규모 (조원)	농업총생산액	50.9	25배	1,247.7
		농업부가가치	27.0	27배	729.6
	농가경제 (천원)	농가소득	32,121	7.9배	23,892
		도농간소득격차	1.50:1	-	3.33:1

자료: 전형진, 한·중 농업현황과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2) 유통 현황

- 중국의 농산물 현대화된 생산기반 때문에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유통현황은 매우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
- 유통시설의 낙후되었고, 수매시장→생산지 도매시장→소비지 도매시장→소매업체→소비지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신선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산물 유통에 필수적인 저온 운송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농산물의 슈퍼마켓 직공급 운동이 확산되고, 농축산물의 수송차량을 우대하는 녹색통로의 개통 등 농산물 유통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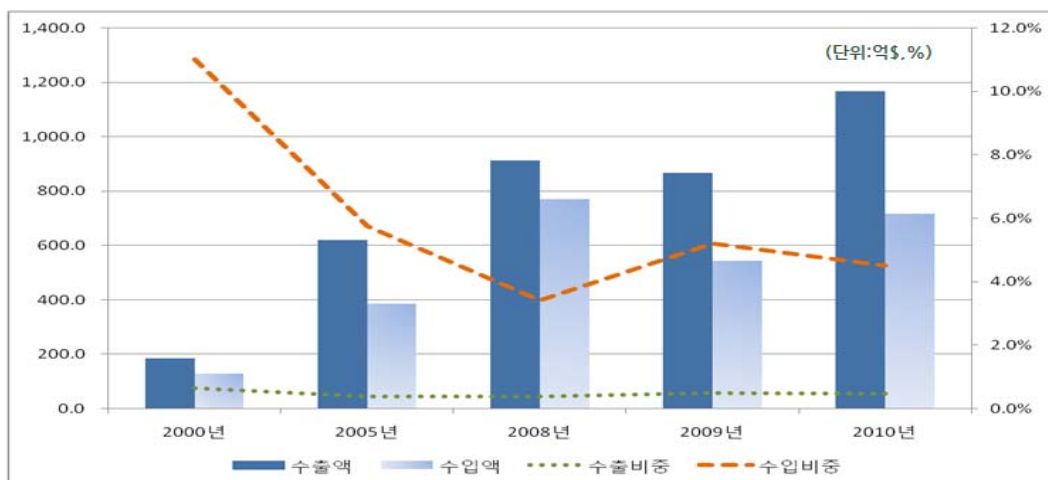
3) 소비 현황

- 경제발전에 따른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한 수요의 다양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곡물과 채소류는 소비감소, 축산물 소비 증가 추세가 가장 큰 특징임. 그 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 지역에 따라 편중된 소비패턴도 보임

4) 수출입 및 FTA 추진 현황

- 중국은 한국 포함한 16개국과 FTA협상 진행 중, 19개국과 FTA협상 체결되어 적극적인 무역정책 전개 중, 한국과 2005년 연구를 시작으로 4차 회의까지 진행
- 한국의 대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2000년 1.2억 달러에서 2010년 5.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대중국 농축산물 수입액 또한 2000년 14.1억 달러에서 2010년 32.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농축산물 수출액이 증가한 것보다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12.9억 달러에서 2010년 26.7억 달러로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자연기후조건 유사성으로 인한 비슷한 농업생산 구조, 가격경쟁력 격차, 한국 내 수요 발생 시 언제든지 적극적인 수출공약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품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됨. 이에 FTA를 통해 관세철폐 시 상대적으로 한국농업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예측할 수 있음

<그림 2-12> 한·중 농축산물 교역 동향(2000~2010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aT Kati)

제3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선정

제3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선정

1. 충청북도 포도

1) 생산액

- 충청북도 포도 생산액은 2011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 16.5%로 추정할 때 약 820억 원으로 추정되며 경북,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주산지(<표 3-1>, <표 3-2>참고)

<표 3-1> 전국의 포도 생산량(2011년)

(단위: 톤, %)

행정구역	생산량	전국대비 구성비
계	269,150	100.00
서울특별시	31	0.01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3,416	1.27
인천광역시	1,944	0.72
광주광역시	768	0.29
대전광역시	2,455	0.91
울산광역시	28	0.01
경기도	41,263	15.33
강원도	3,023	1.12
충청북도	44,411	16.50
충청남도	14,277	5.30
전라북도	14,280	5.31
전라남도	4,977	1.85
경상북도	132,398	49.19
경상남도	5,879	2.18
제주도	-	-

자료: 통계청 (KOSIS)

<표 3-2> 전국 및 충북의 포도 생산량과 생산액 추이

(단위 : 톤, 10억 원)

구분	전국		충청북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전국대비 비중: %)	생산액 (전국대비 구성비: %)
2007	328,680	525.4	49,340 (15.01)	78.863 (15.01)
2008	333,596	434.5	55,379 (16.60)	72.127 (16.60)
2009	332,978	504.6	51,504 (15.47)	78.062 (15.47)
2010	305,543	546.3	46,695 (15.28)	83.475 (15.28)
2011	269,150	499.2	44,411 (16.50)	82.368 (16.50)

주: 충청북도 생산액은 생산량 전국대비 비중으로 추정한 값임.

자료: 통계청 (KOSIS),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12)

2) 수입시장 점유율

- 2007년 이후 신선포도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포도 수입량은 4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36.4% 증가함(<표 3-3>, <표 3-4>, <표3-5> 참고)

<표 3-3> 우리나라 포도 수입량 추이

(단위: 천불, 톤, %)

년도	금액	중량	전년대비 증가율
2011	114,761	45,189	36.4
2010	84,127	34,963	47.3
2009	57,112	28,436	-20.0
2008	71,407	32,482	23.1
2007	58,029	27,801	78.0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 kita. net)

- 2011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포도를 수입한 국가는 약 3만 9천 톤을 수입한 칠레이며, 전체 포도 수입량의 약 86.7%를 차지하고 있음

<표 3-4> 우리나라 국가별 포도 수입 현황(2011년)

(단위: 천불, 톤, %)

국가명	금액	중량	전년대비 증가율
칠레	99,541	39,179	33.4
미국	14,485	5,770	52.6
페루	734	240	-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 kita. net)

- 현재 중국과의 포도 수출입은 미미하나 중국의 포도 생산면적 및 생산량이 약 32배 높아 향후 한·중FTA 체결로 교역이 늘어날 경우 경쟁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

<표 3-5> 중국 포도의 재배면적, 생산량, 교역량

(단위: 천ha, 천 톤, %)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10/'06)
재배면적	286	395	417	422	454	706	644	52.6
생산량	3,373	4,564	5,771	6,373	7,236	8,039	8,654	35.8
수출량	1	6	18	34	64	100	-	459.1
수입량	74	75	80	68	78	110	-	36.8

주: 교역량(수출량, 수입량) 증감률은 '09/'04임

자료: FAO

출처: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98쪽 재인용함

3) 관세율²⁴⁾

- 칠레산 신선 포도는 계절관세 (2012년 5~10월 45%, 11~익년 4월 8.3%)가 적용됨
- 한·미 FTA에서 미국산 포도 관세는 국내산 포도 출하기 (5월 1일~10월 15일)의 경우 현행 45%에서 17년간 균등 철폐되며, 비출하기 (10.16~4.30)에는 관세가 FTA 발효 시점부터 24%로 인하되고, 이행 2년차부터 4년간 균등 철폐됨
- 2012년 현재 칠레산 건포도의 관세는 4.1%이고, 포도주는 무관세 적용됨
- 미국산 건포도와 포도주는 한·미 FTA 발효 후 이전 관세 21%, 15%가 즉시 철폐됨
- 2010년 미국 포도 생산량의 87%는 가공용으로 이용되었고, 주로 와인 65%, 건포도 26%, 주스 7%로 가공됨

4) 지역경제 영향

- 포도는 충북에서 많이 재배하는 주요 과수 품목으로 한중 FTA로 인해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표 3-6>과 같이 충청북도의 포도는 특화계수 1.318의 특화품목으로 충북지역 과실류 생산량 높은 편에 속함
- 충북지역 전체 포도 재배면적 1,849ha 중 90%이상이 영동군, 옥천군에 집중됨

<표 3-6> 충북 주요 과실류 생산규모 및 특화계수(2011년)

단위: ha, MT

품목	면적	생산량	특화계수
포도	2,916	44,411	1.318
사과	4,158	42,387	1.155
복숭아	3,610	40,288	2.317
감	1,557	7,544	0.419
배	647	15,220	0.369

자료: 우장명, 중국의 농업 현황과 FTA 추진, 충북 DDA/FTA 농수산업협상 지역포럼 자료집, 2012, 108쪽, 109쪽 재구성

24)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99쪽 인용.

<표 3-7> 충북 포도의 시군별 농가 및 재배면적

(단위 가구, ha)

구 분		노지포도		시설포도		합 계	
		농가	재배면적	농가	재배면적	농가	재배면적
충청북도 합계		3,870	1,849	1,021	475	4,891	2,324
행정 구역 별	청주시	86 (2.2)	36 (1.9)	3 (0.3)	0 (0.0)	89 (1.8)	36 (1.5)
	충주시	33 (0.9)	13 (0.7)	1 (0.1)	0 (0.0)	34 (0.7)	13 (0.6)
	제천시	19 (0.5)	5 (0.3)	3 (0.3)	1 (0.2)	22 (0.4)	6 (0.3)
	청원군	110 (2.84)	40 (2.16)	41 (4.02)	12 (2.53)	151 (3.09)	52 (2.24)
	보은군	52 (1.34)	26 (1.41)	6 (0.59)	2 (0.42)	58 (1.19)	28 (1.20)
	옥천군	484 (12.51)	135 (7.30)	467 (45.74)	202 (42.53)	951 (19.44)	337 (14.50)
	영동군	3,018 (77.98)	1,546 (83.61)	486 (47.60)	249 (52.42)	3,504 (71.64)	1,795 (77.24)
	진천군	25 (0.65)	28 (1.51)	6 (0.59)	6 (1.26)	31 (0.63)	34 (1.46)
	괴산군	11 (0.28)	3 (0.16)	0 (0.00)	0 (0.00)	11 (0.22)	3 (0.13)
	음성군	27 (0.70)	15 (0.81)	4 (0.39)	2 (0.42)	31 (0.63)	17 (0.73)
	단양군	5 (0.13)	1 (0.05)	0 (0.00)	0 (0.00)	5 (0.10)	1 (0.04)
	증평군	0 (0.00)	0 (0.00)	4 (0.39)	1 (0.21)	4 (0.08)	1 (0.04)

자료: 과수재배농가 및 면적, 「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2.

주: ()는 전국 대비 구성비

2. 충청남도 인삼

1) 생산액

- 2011년 인삼생산액 9,510억 원, 충청남도의 인삼생산액은 1,647억 원으로 약 17% 차지, 이는 전라북도, 충청북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충남내 상위 품목별 생산액 및 충남내 비중을 살펴보면 쌀과 축산류를 제외하고 원예작물 생산액 기준으로 1순위 품목임
 - 2008년 기준으로 쌀(17,332억원, 18.5%), 양돈(7,570억원, 18.5%), 한육우(4,507억원, 12.7%), 낙농(2,942억원, 18%), 양계(4,368억원, 16.9%) 등

2) 수입시장 점유율

- 2011년 기준 중국인삼의 충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함
 - 그러나 2008년, 2010년에는 각각 97%, 74%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점유율 차지

3) 관세율

- 인삼의 관세율(수삼, 백삼)은 228%의 높은 관세율로, 관세율 하락 시 수입산 저가인삼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 우려

4) 지역경제 영향

- 충청남도의 인삼 생산은 미미하나, 인삼유통 집산지로서, 전국 유통물량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농림어업 GRDP로 3조 4천억 원, 이 중 인삼의 생산액은 1,647억 원 (4.7%) 차지하고 있음
-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충남, 2011)에서 인삼은 타품목에 비해 개방화시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음

3. 경상북도 사과

1) 생산액

- 2011년 현재 경북지역의 사과재배면적은 19,470ha로 전국면적 31,167ha의 62.4%를 차지하고 있음. 경북지역 면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경북지역의 사과생산량은 약 24만 톤이며, 시장가치로 평가한 생산액은 4,256억 원으로 전국의 63.5%를 차지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과 생산액을 유지함으로써 경북의 가장 중요한 경제작물로 자리매김됨
- 2010년 현재 경북지역의 사과농가수는 23,198호로 전국 38,765호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과채류 생산농가 중 가장 많은 농가가 사과생산에 참여하고 있음

2) 수입시장 점유율 및 관세율

- 사과의 경우 대만 등 동남아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출량이 일정치 않음. 그리고 현재까지 식물검역조치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의 사과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과의 WTO 양허관세율은 45%가 적용되고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양허관세율은 상대국에 따라 상이함. 2011년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양허 관세율은 45~54%이며, 7~20년에 걸쳐 관세가 모두 폐지됨. 아직 국내시장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있음
-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의 경우 사과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관세율은 45%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많은 후지(부사)의 경우 20년 철폐 + 23년 세이프가드(SG), 기타품종은 10년 철폐 + 10년 세이프가드(SG) 조건으로 타결됨. 현재가격을 비교하면 국내산사과가 미국산사과보다 가격이 높아 향후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산 사과의 경우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병해충 유입 등 식물검역조치로 수입되지 않고 있음. 비관세장벽으로 단기간 수입이 어렵지만, 그전의 한-EU나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관세가 결정되어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경북사과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임

3) 지역경제 영향

- 2011년 현재 경북 작물 재배면적은 벼농사가 110,550ha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벼농사를 제외한 재배면적으로는 사과 19,470ha, 포도 8,306ha, 배 1,849ha, 복숭아 6,335ha, 뽕은 감 7,306ha, 자두 4,786ha로 집계되고 있음. 그 외 과채류 10,576ha(수박 2,411ha, 참외 5,149ha, 딸기 255ha), 근채류 2,221ha, 엽채류 6,939ha, 조미채소 19,257ha 등의 면적으로 집계되고 있음
- 경북에서 벼농사를 제외하고 사과 재배면적이 가장 많다는 것은 경제작물로서 가치가 높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작물임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2010년 경북사과 생산액은 4,708억 원으로 경북농업 GRDP 4조 702억 원의 11.6%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속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 정책적 필요성

- 사과가 경북사과의 주생산 작물이기는 하나 기후변화로 인한 주재배지 이동, FTA로 사과수입 가능성 증대 등으로 지역 내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 지역농산물의 전략적 차원에서 사과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대응방안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임

4. 경상남도 단감

1) 생산액

- 2010년 전국 단감생산액 3,237억 원 경상남도의 단감생산액은 1,891억 원으로 약 61% 차지
-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과반수를 넘는 단연 1위

2) 수출액

- 2011년 기준 경상남도의 국내단감 수출시장 점유율은 90%이상으로 압도적인 수준
- 수출량 6,977톤 수출액 약948만 달러 정도

3) 무역시장 변화

- 향후 한·중FAT 체결에 따른 국내 단감산업 위축 하락 예상
-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검역·국가표준·농약안정성 기준 등) 강화에 대비

4) 지역경제 영향

- 2011년 기준 단감 농가수(13,186가구·전국대비 42%), 재배면적(8,167ha·전국대비 57%), 생산량(104,293톤·전국대비 61%), 생산량 특화계수(2.93), 재배면적 특화계수(3.41)

5. 전라남도 마늘

1) 생산액

- 전남은 전국 최고의 마늘 주산단지
 - 전남의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1년 기준 7,546ha, 84,197톤으로 전국 대비 31.4%, 28.5% 차지하여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로서 확고한 위상 점유
 - 마늘 시장 개방 및 노령화로 2000년 이후 마늘 생산면적 및 생산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전국 마늘생산액 1조 1,440억 원 전남 생산액은 3,265억 원으로 전국 최고인 약 29% 점유

2) 품목소비 특성

- 마늘은 우리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념채소류
 - 마늘은 우리 식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미채소의 하나로 마늘시장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인식
 - 마늘 수입은 대부분 세계 마늘 생산량의 82%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 비슷한 품종, 상대적으로 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향후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지역경제 영향

- 마늘은 전남 농가소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선점
 - '10년 농업생산액 40조 원 중 전남의 농업생산액은 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마늘은 4.1%를 차지하여 쌀, 축산업과 더불어 전남 농가소득원 중 중요한 작목 위치 선점
 - 마늘은 360%의 고율관세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으나, 한중 FTA로 관세가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전남 마늘산업은 큰 피해 예상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1) 생산액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 2011년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생산액은 7,641억 원으로 제주지역 전체 농산물 조수입 1조 5,548억 원 중에서 49.1%를 차지함
 - 특히, 전국에서 제주감귤의 생산비중이 99.9%로 우리나라의 감귤 주산지임

2) 수입시장 점유율

- 중국 감귤의 절대적 경쟁우위
 - 지리적 근접성, 품종과 생산시기의 유사성, 생산량과 가격의 절대적 경쟁우위
 - 중국 감귤의 재배면적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감귤 대비 2,010천ha로 97배, 생산량은 23,938천 톤으로 41배, 수출량은 640천 톤으로 213배에 달함²⁵⁾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감귤류·오렌지류 총 수입량은 136,735톤이며, 이 중 오렌지류가 99.8% (오렌지 (신선/건조) 80.4% 차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총 수입액 1억 7,537만 달러)
 - 감귤류 총 수입량은 295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총 수입액 128만 2,000달러)

3) 관세율

- 현재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는 감귤류·오렌지류의 세번별 품목은 14개이며, 부류별로는 신선 및 건조, 가공품 및 가공원료, 육묘, MMA (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구분됨
- 신선 및 건조 감귤류의 현행 관세기준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 144%이며, 북한산의 경우 0%를 적용함
 - 기타 감귤류의 MMA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이며, MMA 초과 물량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고율인 144%로 일반 수입업체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음

25) FAO 통계자료 (<http://www.fao.org>)

4) 지역경제 영향

- <표 3-8>에서와 같이 2013년 한·중 FTA 발효시, 2023년 기준 감귤 생산 감소액은 1,126억 원 (I안) ~ 1,644억 원 (III안)으로 추정
- 향후 10년간 누적 피해액은 1조 624억 원 (I안) ~ 1조 5,969억 원 (III안)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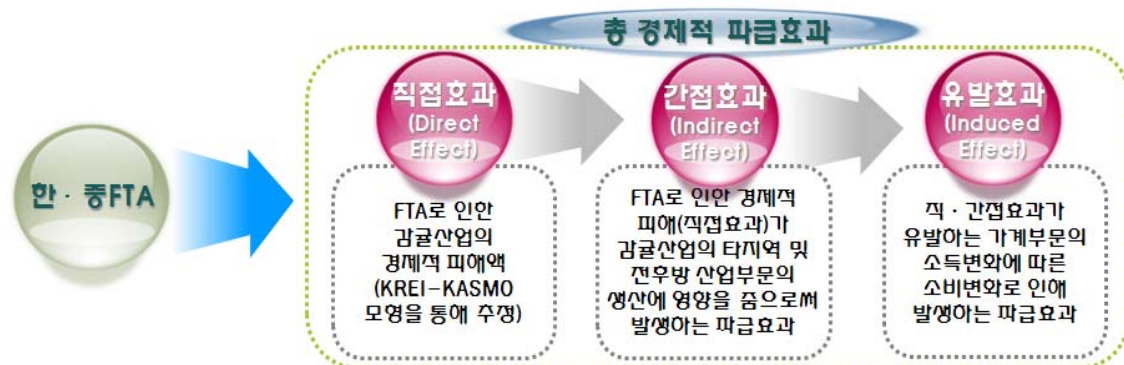
<표 3-8> 한·중 FTA 체결 시나리오별 감귤 생산 감소액(2023년 기준)

기준 시나리오			쌀만 제외
한·미 FTA 한·EU FTA 검역상 수입규제 해제	DDA 발효	선진국	시나리오 I 1,126~1,377억 원 (10,624~12,985억 원)
		개도국	시나리오 II 1,180~1,443억 원 (11,079~13,541억 원)
	DDA 타결 실패		시나리오 III 1,345~1,644억 원 (13,065~15,969억 원)

주 : ()는 10년간 누적 피해액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 한·중 FTA로 인해 감귤 생산액이 감소하게 되면 산업구조 내에서 감귤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결된 부문들 역시 생산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한·중 FTA로 인한 감귤산업의 피해액 산정에 있어 해당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내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산업연관분석 (Regional Input-Output Model)을 통해 감귤산업의 생산액 감소로 인한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 내 파급효과를 추정 (<그림 3-1>, <표 3-9> 참고)

<그림 3-1>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흐름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 총 경제적 파급효과 : 2조 683억 원 (I안) ~ 3조 1,088억 원 (III안) 감소
 - 직접효과 : 1조 624억 원 (I안) ~ 1조 5,969억 원 (III안) 감소
 - 간접효과 : 6,518억 원 (I안) ~ 9,797억 원 (III안) 감소
 - 유발효과 : 3,541억 원 (I안) ~ 5,322억 원 (III안) 감소

<표 3-9>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감귤생산액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준 시나리오			쌀만 제외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	총 파급효과
한·미 FTA 한·EU FTA 검역상 수입규제 해제	DDA 발효	선진국	시나리오 I	10,624 ~12,985	6,518 ~7,967	3,541 ~4,327	20,683 ~25,279
		개도국	시나리오 II	11,805 ~13,541	6,797 ~8,308	3,692 ~4,513	21,568 ~26,361
	DDA 타결 실패		시나리오 III	13,065 ~15,969	8,016 ~9,797	4,354 ~5,322	25,435 ~31,08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5) 감귤피해시 발작물 재배확대로 붕괴 위기

- 제주지역 농업은 감귤을 중심으로 당근, 감자,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콩 등 지역별로 발작물이 특화되어 있음
 - 전국 대비 제주 주요 품목 생산량을 보면 당근 65%, 브로콜리 63%, 양배추 39%, 무 21% (월동무 100%)
- 한·중 FTA 체결로 감귤산업에 영향을 받을 경우, 감귤재배지에 발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제주농업 공멸이 예상됨

7. 인천광역시 약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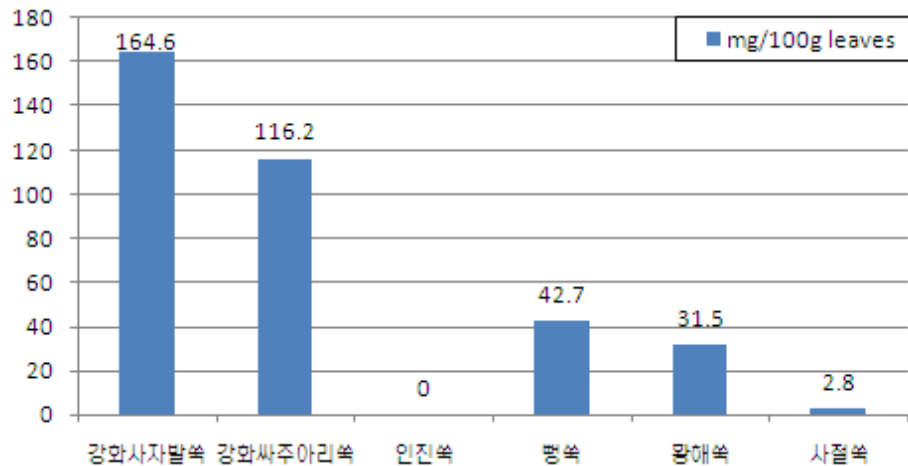
1) 역사성

- 1425년 세종실록지리지 강화도호부 편에 약재 중 하나로 사자발쑥을 소개하고 있으며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2권에서는 강화도호부 토산품 중 하나로 사자발쑥을 사자족애(獅子足艾)로 표기하고 있음
- 또한 1974년 한방약초해설에서는 ‘산야에 자생하는 쑥, 약쑥의 잎을 애엽이라 하여 약용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 강화도산이 저명하며 지혈, 진통약으로 하혈, 복통, 제출혈에 쓰며 옥탕육으로도 사용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증보강화사, 강화지명고, 역사기행 문화탐방 경기 강화군편, 내 발로 떠나는 방방곡곡 약초산행 등 다양한 서적에서 약쑥의 품질과 명성, 효능에 대해 이야기함

2) 품질 특성 및 효능

- 약쑥은 강화에서 예부터 자생하고 있는 약쑥으로 강화지역의 기후풍토에 수백 년 동안 적응해온 재래종 싸주아리약쑥과 새롭게 선발된 사자발약쑥을 포함하여 향과 약효가 뛰어남(〈그림 3-2〉 참고)
 - 싸주아리 약쑥은 토속명으로 싸자리, 혹은 싸재리로 불리며 향이 강하고 잎 뒷면이 희며, 잎 형태가 날개 모형이면서 평편하고, 줄기는 부드러우며 흰색을 띠고 뜸용으로 주로 사용됨
 - 사자발 약쑥은 강화 자생약쑥 중 가장 품질이 우수한 약쑥으로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싸주아리 약쑥에서 향이 강한 종류를 분리하여 ‘사자발 약쑥’으로 명명한 것으로 초장이 50~100cm 정도로 자라며 줄기가 다소 굵고 곧게 자라며 잎 모양이 사자의 발바닥 모양으로 잎 뒷면은 흰 거미줄 같은 털로 덮여 있음
- 또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사자발 약쑥 정유는 질염균, 대장균 등 모든 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위염치료제의 약효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는 유파틸렌(Eupatilin)의 함량이 다른 쑥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3-2> 약쑥 종류별 효능(유파틸렌 함량) 비교



- 약쑥의 효능은 각종 부인병에 특효약이며, 각종 성인병 예방효과, 피부미용, 위궤양 등 위장병, 알레르기 성병 예방, 비만해소, 두통, 설사, 변비 등 수많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음

3) 한·중FTA에의 경쟁력 담보

- 약쑥의 품질 특성 및 효능을 감안할 때, 한·중 FTA가 타결 되어도 강화군의 약쑥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됨. 이는 약쑥이 강화군의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한·중 FTA가 타결 되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즉, 품질이나 생리활성 물질 함량 등에서 약쑥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중국산 쑥이 수입된다 해도 강화군의 농업관련 분야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전망 됨
- 약쑥은 비교적 적은 노동력이 소요되면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생산되면 판매에 어려움이 없음
- 따라서, 한·중 FTA가 타결되면 약쑥의 우수한 항 당뇨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내 VIP 마케팅으로 차별화하면 소비자 구매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한·중 FTA 타결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천지역에서는 약쑥산업을 핵심 업종으로 선정하였음

8. 광주광역시 과채류

1) 생산액

- 2011년 과채류(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생산액 39,561억 원 광주광역시 생산액은 515억 원으로 1.3%를 차지
- 주요작물인 풋고추 생산액은 240.4억 원 80.1%에 해당하는 192.5%에 달함

2) 수입시장 점유율

- 2011년 기준 과채류(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수출은 14,479천불이며 수입은 32,163천불로 무역수지는 17,684천불 적자가 발생하였고 적자의 대부분은 딸기에서 발생

3) 지역특성

- 광주광역시는 주거지역(14.6%), 상업지역(1.8%), 공업지역(4.4%), 관리 및 농림지역(4.6%)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하우스 중심의 농업이 광산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
 - 따라서 시설재배가 가능한 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지역 거점 대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대형 소비처가 다수 존재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하며 로컬푸드 개념의 도입에 따른 안정적 소비구조 확립
 -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른 집단적 생산·유통구조의 확보 가능

4) 지역경제 영향

- 광주지역 농림어업 생산액은 2,152억 원이며 이중 과채류 생산액은 515억 원으로 23.9%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농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작목임

9. 요약 및 정리

- 산업구조 변수로 생산액, 교역변수로 중국과의 교역현황, 관세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을 선정한 결과, 지역별로 포도(충북), 인삼(충남), 사과(경북), 단감(경남), 마늘(전남), 감귤(제주), 약쑥(인천), 과채류(광주)로 선정함
- 포도는 충북지역 과실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의 포도와 규모의 경제성에서 매우 불리함
- 인삼은 충남에서 전국 유통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충남이 인삼에 있어 요충지이며, 228%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철폐 시 값싼 중국산 수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사과는 전국대비 생산액 비중이 64%가량 되고, 현재 다수의 국가로부터 병해충 위험평가가 진행되고 있음
- 단감은 경남지역에 재배가 집중되고 있어 생산량 특화계수(2.93)재배면적 특화계수(3.41) 등 경남이 매우 중요한 입지임
- 마늘은 주 수입국가가 중국이며 현재 360%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과의 FTA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 감귤의 경우도 144%의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중국과의 출하가 유사하고, 제주도에서만 감귤생산을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특화된 품목임. 이에 수입 개방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 약쑥은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특화작물로서 역사성, 품질특성과 효능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보다는 중국내 VIP공략 등 차별적인 마케팅으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과채류는 광주광역시라는 지역특성 상 도시농업(근교농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민감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근교농업지역으로 시설작물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주된 시설작물인 과채류의 수입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적자를 이루고 있는 과채류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3-10> 지역별 민감품목 선정결과 요약

지역 품목	생산액	교역	관세	지역경제 영향
충북 포도	전국대비 17%	중국의 포도 생산량 월등히 많아 경쟁에 있어 불리	계절관세 적용 (출하기:45% , 비출하기 8.3%)	충북지역 과일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
충남 인삼	전국대비 17%	중국인삼 시장점유율 74%	228%의 고관세	전국 인삼유통량의 70%
경북 사과	전국대비 64%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 다수국가서 병해충위험평가 진행 중 수출국의	신선사과 45%	지역 내 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
경남 단감	전국대비 61%	자국산업 보호 (비관세장벽)강화 대비	신선단감 45%	생산량 특화계수(2.93) 재배면적 특화계수(3.41)
전남 마늘	전국대비 29%	수입시장의 대부분 중국산 마늘	360%의 고관세	전국 마늘농가 중 전남비중 25%
제주 감귤	전국대비 99%	중국과 출하기의 유사성, 가격경쟁력 열세	144%의 고관세	한·중FTA체결시 15년간 1조 3천억원 피해 예상
인천 약쑥	전국대비 95%	- 세종실록지리지, 한방약초해설 등 약쑥 우수성 문헌 자료 다수 존재 - 향과 약효가 뛰어나며,유파틸렌의 함유량이 많은 등 타 지역 약쑥과는 품질 차별성		
광주 과채류	전국대비 8.6% (풋고추)	과채류 무역수지 : 17,684천 달러 (대부분 딸기)	오이 및 호박 : 27% 수박, 딸기, 토마토 :45%	도시 근교농업(시설원예)중심

주 : 과채류는 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등을 포괄함

제4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지역별 민감품목의 현황 및 문제점

1. 충청북도 포도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 현황

(1) 농업부문 총생산

- 2010년의 충북 지역내총생산은 35조 9천 888억 원이며, 이 중 농림어업 분야의 비중은 약 4.25%인 1조 5천 298억 원으로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 충북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GRDP	27,997,385	30,000,748	30,104,794	32,175,365	35,988,833
농림어업 GRDP	1,479,212 (5.28%)	1,411,173 (4.70%)	1,303,522 (4.33%)	1,508,707 (4.69%)	1,529,888 (4.25%)

자료: 충북통계연보(2011)

주: ()는 전체 GRDP 대비 농림어업 GRDP 구성비임.

(2) 경지 현황

- 2011년의 충청북도의 경지면적은 115,821ha로, 전국 경지면적의 6.82%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경지면적 중 논은 49,222ha로 전국 논 면적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은 66,599ha로 전국 밭 면적의 9.02%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경지면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경지면적은 2008년에 비하여 4.96% 감소하였음
 - 2008년과 비교한 밭 면적의 감소율은 0.59%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에 반하여, 논 면적의 감소율은 10.30%로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

<표 4-2> 충북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8	2009	2010	2011	08~11 증감률
경지	121,865 (6.93%)	118,919 (6.85%)	116,973 (6.82%)	115,821 (6.82%)	-4.96
논	54,871 (5.25%)	52,994 (5.25%)	50,999 (5.18%)	49,222 (5.13%)	-10.30
밭	66,994 (9.40%)	65,925 (9.07%)	65,974 (9.02%)	66,599 (9.02%)	-0.59

자료: 통계청 (KOSIS), 농업면적조사

주: ()는 전국 대비 비중임

(3) 농가 및 농가인구

- 2011년 충청북도의 농가수는 80,185가구, 농가인구는 207,174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3.26%를 차지하고 있음

<표 4-3> 충북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

구분	충청북도					
	세대수	인구수	농가수	농가인구	비중 (농가수/세대수)	비중 (농가인구/인구수)
2007	574,198	1,527,339	85,424	233,514	14.88	15.29
2008	587,411	1,542,287	85,388	228,531	14.54	14.82
2009	599,204	1,550,126	84,257	223,580	14.06	14.42
2010	617,431	1,573,981	79,963	211,522	12.95	13.44
2011	627,006	1,562,903	80,185	207,174	12.79	13.26

자료: 충북통계연보 (2011), 충청북도통계정보시스템

2) 포도산업 현황

(1) 재배면적

- 충청북도 노지포도 재배면적은 전국 대비 12.8%, 시설포도 재배면적은 전국 대비 22.3%, 점유율을 나타냄

<표 4-4> 지역별 전체포도 재배 농가, 재배면적, 수확면적

(단위: 가구, ha)

행정구역	노지포도			시설포도			합계		
	농가	재배면적	수확면적	농가	재배면적	수확면적	농가	재배면적	수확면적
서울특별시	65	20	18	7	5	5	72	25	23
부산광역시	24	8	8	1	0	0	25	8	8
대구광역시	1,119	351	340	31	14	13	1,150	365	353
인천광역시	645	195	178	62	16	15	707	211	193
광주광역시	107	34	28	21	9	9	128	43	37
대전광역시	345	107	99	135	58	55	480	165	154
울산광역시	32	8	8	3	1	1	35	9	9
경기도	4,689	2,336	2,218	417	177	171	5,106	2,513	2,389
강원도	446	228	210	117	39	34	563	267	244
충청북도	3,870	1,849	1,761	1,021	475	452	4,891	2,324	2,213
충청남도	2,369	1,374	1,308	310	157	149	2,679	1,531	1,457
전라북도	1,181	548	505	665	376	359	1,846	924	864
전라남도	461	173	165	162	66	62	623	239	227
경상북도	14,974	6,876	6,624	1,461	672	644	16,435	7,548	7,268
경상남도	891	348	328	118	58	56	902	351	331
제주특별자치도	5	1	1	11	3	3	16	4	4
전국	31,223	14,457	13,800	4,542	2,127	2,029	35,765	16,584	15,829

자료: 과수재배농가 및 면적, 「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2.

<표 4-5> 지역별 노지포도 재배농가와 면적 점유율

(단위: 가구, %, ha)

행정구역	노지포도					
	농가	구성비	재배면적	구성비	수확면적	구성비
서울특별시	65	0.2	20	0.1	18	0.1
부산광역시	24	0.1	8	0.1	8	0.1
대구광역시	1,119	3.6	351	2.4	340	2.5
인천광역시	645	2.1	195	1.3	178	1.3
광주광역시	107	0.3	34	0.2	28	0.2
대전광역시	345	1.1	107	0.7	99	0.7
울산광역시	32	0.1	8	0.1	8	0.1
경기도	4,689	15.0	2,336	16.2	2,218	16.1
강원도	446	1.4	228	1.6	210	1.5
충청북도	3,870	12.4	1,849	12.8	1,761	12.8
충청남도	2,369	7.6	1,374	9.5	1,308	9.5
전라북도	1,181	3.8	548	3.8	505	3.7
전라남도	461	1.5	173	1.2	165	1.2
경상북도	14,974	48.0	6,876	47.6	6,624	48.0
경상남도	891	2.9	348	2.4	328	2.4
제주특별자치도	5	0.0	1	0.0	1	0.0
전국	31,223	100.0	14,457	100.0	13,800	100.0

자료: 과수재배농가 및 면적, 「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2.

<표 4-6> 지역별 시설포도 재배농가 및 면적 점유율

(단위: 가구, %, ha)

행정구역	시설포도					
	농가	구성비	재배면적	구성비	수확면적	구성비
서울특별시	7	0.2	5	0.2	5	0.2
부산광역시	1	0.0	0	0.0	0	0.0
대구광역시	31	0.7	14	0.7	13	0.6
인천광역시	62	1.4	16	0.8	15	0.7
광주광역시	21	0.5	9	0.4	9	0.4
대전광역시	135	3.0	58	2.7	55	2.7
울산광역시	3	0.1	1	0.0	1	0.0
경기도	417	9.2	177	8.3	171	8.4
강원도	117	2.6	39	1.8	34	1.7
충청북도	1,021	22.5	475	22.3	452	22.3
충청남도	310	6.8	157	7.4	149	7.3
전라북도	665	14.6	376	17.7	359	17.7
전라남도	162	3.6	66	3.1	62	3.1
경상북도	1,461	32.2	672	31.6	644	31.7
경상남도	118	2.6	58	2.7	56	2.8
제주특별자치도	11	0.2	3	0.1	3	0.1
전국	4,542	100.0	2,127	100.0	2,029	100.0

자료: 과수재배농가 및 면적, 「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2.

- 충청북도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옥천 등 남부권에 포도재배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중부권 및 동북부 지역의 포도 재배는 미약한 수준임²⁶⁾
- 영동군은 상주, 김천 지역과 함께 국내 캠벨얼리 품종의 최대 집산지 형태를 띠고 있음
- 충북지역은 남부권인 영동, 옥천지역에 재배농가가 집중되어 있으며, 재배 면적도 영동군이 1,795ha 로 충북 전체면적의 77.24%를 점유하고 있음
- 재배 규모는 1.0ha 미만의 농가가 많으며,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0.475ha 수준임

<표 4-7> 충북 포도의 재배규모별 농가 및 면적 현황

(단위: 가구, ha)

구 분		노지포도			시설포도			합 계		
		농가	재배 면적	수확 면적	농가	재배 면적	수확 면적	농가	재배 면적	수확면 적
충청북도 합계		3,870	1,849	1,761	1,021	475	452	4,891	2,324	2,213
과 수 재 배 규 모 별	0.1ha미만	175	14	13	18	1	1	193	15	14
	0.1~0.3	1,384	282	266	356	78	72	1,740	360	338
	0.3~0.5	1,106	437	413	319	125	120	1,425	562	533
	0.5~0.7	489	301	284	169	103	97	658	404	381
	0.7~1.0	411	363	347	102	89	85	513	452	432
	1.0~1.5	202	248	240	43	52	52	245	300	292
	1.5~2.0	75	130	126	10	17	16	85	147	142
	2.0~3.0	20	48	47	3	7	6	23	55	53
	3.0ha이상	8	26	26	1	3	3	9	29	29
행 정 구 역 별	청주시	86	36	33	3	0	0	89	36	33
	충주시	33	13	8	1	0	0	34	13	8
	제천시	19	5	4	3	1	1	22	6	5
	청원군	110	40	38	41	12	11	151	52	49
	보은군	52	26	23	6	2	2	58	28	25
	옥천군	484	135	129	467	202	193	951	337	322
	영동군	3,018	1,546	1,478	486	249	236	3,504	1,795	1,714
	진천군	25	28	28	6	6	6	31	34	34
	괴산군	11	3	3	0	0	0	11	3	3
	음성군	27	15	15	4	2	2	31	17	17
	단양군	5	1	1	0	0	0	5	1	1
	증평균	0	0	0	4	1	1	4	1	1

자료: 과수재배농가 및 면적, 「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2.

26)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2012. 충청권 포도 와인산업 선진화 방안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로 실시된 주요 과수 재배농가의 주된 재배 품종별 농가조사 분석결과, 충청북도 주요 재배 포도품종은 노지재배 및 시설재배 모두 공통적으로 캠벨얼리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음
 - 충청북도 노지포도 재배 농가의 주요 재배품종 중 캠벨얼리가 79.69%로 전국 노지포도 재배 농가의 캠벨얼리 품종 재배 비중 71.23% 보다 높음
 - 충청북도 시설포도 재배 농가의 주요 재배품종은 캠벨얼리가 8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전국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캠벨얼리 품종 재배 비중 65.5%보다 높음
 - 충청북도 포도재배농가의 품종 분포는 캠벨얼리 품종 외에 마스캇베리에이(MBA), 거봉, 세레단의 순으로 나타남
- 영동군과 옥천군은 캠벨얼리 품종의 집산지 형태를 띠고 있음
 - 영동군은 국내 캠벨얼리 주산지이며, 노지포도 재배농가의 76.77%, 시설포도 재배 농가의 78.60%가 재배하고 있음
 - 옥천군은 노지포도 재배농가의 96.07%,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94%가 캠벨얼리 품종에 집중되어 있음

(2) 생산량 및 생산액

○ 2011년 충청북도의 포도 생산량은 44,411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6.50% 차지함

<표 4-8> 충북 포도의 생산량 및 생산액

(단위: 면적(ha), 10a당 생산량(kg), 생산량(톤), 생산액(10억 원))

연도	항목	전국	충청북도	점유율(%)
2007	면적	18,843	2,775	14.73
	10a당 생산량	1,744	1,778	-
	생산량	328,680	49,340	15.01
	생산액	525.4	78.863	15.01
2008	면적	18,240	2,941	16.12
	10a당 생산량	1,829	1,883	-
	생산량	333,596	55,379	16.60
	생산액	434.5	72.127	16.60
2009	면적	17,996	2,775	15.42
	10a당 생산량	1,850	1,856	-
	생산량	332,978	51,504	15.47
	생산액	504.6	78.062	15.47
2010	면적	17,572	2,750	15.65
	10a당 생산량	1,739	1,698	-
	생산량	305,524	46,686	15.28
	생산액	546.3	83.475	15.28
2011	면적	17,445	2,916	15.65
	10a당 생산량	1,543	1,523	-
	생산량	269,150	44,411	16.50
	생산액	499.2	82.368	16.50

자료: 농림수산물통계연보 시도별 과실생산량(2002-2010). 통계청(KOSIS)

(3) 농가 현황

- 2010년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 중 3,718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영형태 조사에서, 경영주 연령 분포는 55~74세농가가 전체의 62.9%에 달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9> 충북 포도의 농가 경영주 연령별 분포

(단위: 가구, %)

행정구역		전국	충청북도	
포도농가		농가수	농가수	비율
경영주연령별	25~29세	26	2	0.05
	30~34세	149	16	0.43
	35~39세	461	55	1.48
	40~44세	1,065	157	4.22
	45~49세	1,934	267	7.18
	50~54세	3,084	418	11.24
	55~59세	3,682	523	14.07
	60~64세	4,345	541	14.55
	65~69세	4,458	642	17.27
	70~74세	4,318	653	17.56
	75~79세	2,308	347	9.33
	80세 이상	731	97	2.61
	합계	26,561	3,718	100.00

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세부경영형태별 (과수축산) 농가

- 경영형태는 전업농가의 비중이 64.17%로 겸업농가 보다 높으며, 겸업농가는 1종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았음

<표 4-10> 충북 포도의 농가 경영형태별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경영형태별				
		전겸업별				
			전업	겸업	1종겸업	2종겸업
전국	농가수	26,561	16,278	10,283	5,372	4,911
충청북도	농가수	3,718	2,386	1,332	805	527
	비율	100.0	64.17	35.83	60.43	39.57

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세부경영형태별 (과수축산) 농가.

- 경영주 성비는 남성이 월등하게 많으며 여성경영주 비율은 14.04% 수준 나타냄

<표 4-11> 충북 포도의 농가 경영주 성별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포도농가	경영주성별		
		경영주성별	남자	여자
전국	농가수	26,561	22,883	3,678
충청북도	농가수	3,718	3,196	522
	비율	100	85.96	14.04

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세부경영형태별 (과수축산) 농가.

(4) 주요 재배 품종 현황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로 실시된 주요 과수 재배농가의 주된 재배 품종별 농가 조사 분석결과, 충청북도 주요 재배 포도품종은 노지재배 및 시설재배 모두 공통적으로 캠벨얼리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음
- 충청북도 노지포도 재배 농가의 주요 재배품종 중 캠벨얼리가 79.69%로 전국 노지포도 재배 농가의 캠벨얼리 품종 재배 비중 71.23% 보다 높음
- 충청북도 시설포도 재배 농가의 주요 재배품종은 캠벨얼리가 8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전국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캠벨얼리 품종 재배 비중 65.5% 보다 높음
- 충청북도 포도재배농가의 품종 분포는 캠벨얼리 품종 외에 마스캇베리에이(MBA), 거봉, 세레단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2> 전국 노지포도 재배농가 중 주요 재배품종별 농가수

(단위:가구,%)

행정 구역	계	캠벨 얼리	홍이슬	흑보석	거봉	흑구슬	마스캣 베리 에이	세레단	수옥	기타
전국	31,223 (100.00)	22,239 (71.23)	11 (0.04)	29 (0.09)	4,353 (13.94)	117 (0.37)	3,186 (10.20)	410 (1.31)	33 (0.11)	845 (2.71)
서울	65 (100.00)	48 (73.85)	-	-	4 (6.15)	-	3 (4.62)	3 (4.62)	-	7 (10.77)
부산	24 (100.00)	14 (58.33)	-	1 (4.17)	5 (20.83)	-	1 (4.17)	-	-	3 (12.50)
대구	1,119 (100.00)	660 (58.98)	-	2 (0.18)	257 (22.97)	24 (2.14)	91 (8.13)	6 (0.54)	3 (0.27)	76 (6.79)
인천	645 (100.00)	621 (96.28)	-	-	5 (0.78)	2 (0.31)	2 (0.31)	-	1 (0.16)	14 (2.17)
광주	107 (100.00)	73 (68.22)	-	-	3 (2.80)	4 (3.74)	-	1 (0.93)	2 (1.87)	24 (22.43)
대전	345 (100.00)	292 (84.64)	-	-	4 (1.16)	1 (0.29)	3 (0.87)	9 (2.61)	1 (0.29)	35 (10.14)
울산	32 (100.00)	15 (46.88)	-	-	6 (18.75)	1 (3.13)	2 (6.25)	-	-	8 (25.00)
경기	4,689 (100.00)	4,286 (91.41)	4 (0.09)	3 (0.06)	299 (6.38)	7 (0.15)	6 (0.13)	8 (0.17)	4 (0.09)	72 (1.54)
강원	446 (100.00)	378 (84.75)	1 (0.22)	-	20 (4.48)	8 (1.79)	2 (0.45)	2 (0.45)	2 (0.45)	33 (7.40)
충북	3,870 (100.00)	3,084 (79.69)	-	2 (0.05)	45 (1.16)	-	476 (12.30)	177 (4.57)	1 (0.03)	85 (2.20)
충남	2,369 (100.00)	1,244 (52.51)	-	2 (0.08)	864 (36.47)	5 (0.21)	121 (5.11)	19 (0.80)	-	114 (4.81)
전북	1,181 (100.00)	1,009 (85.44)	-	-	29 (2.46)	4 (0.34)	5 (0.42)	62 (5.25)	3 (0.25)	69 (5.84)
전남	461 (100.00)	389 (84.38)	1 (0.22)	-	27 (5.86)	5 (1.08)	6 (1.30)	2 (0.43)	4 (0.87)	27 (5.86)
경북	14,974 (100.00)	9,370 (62.58)	3 (0.02)	15 (0.10)	2,753 (18.39)	44 (0.29)	2,433 (16.25)	119 (0.79)	8 (0.05)	229 (1.53)
경남	891 (100.00)	755 (84.74)	2 (0.22)	4 (0.45)	30 (3.37)	12 (1.35)	35 (3.93)	2 (0.22)	4 (0.45)	47 (5.27)
제주	5 (100.00)	1 (20.00)	-	-	2 (40.00)	-	-	-	-	2 (40.0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는 지역별 비중

<표 4-13> 전국 시설포도 재배농가 중 주요 재배품종별 농가수

(단위:가구,%)

행정 구역	계	캠벨 얼리	홍이슬	흑보석	거봉	흑구슬	마스캇 베리 에이	세레단	수옥	기타
전국	4,542 (100.00)	2,975 (65.50)	2 (0.04)	6 (0.13)	1,122 (24.70)	11 (0.24)	48 (1.06)	22 (0.48)	8 (0.18)	348 (7.66)
서울	7 (100.00)	5 (71.43)	-	-	1 (14.29)	-	1 (14.29)	-	-	-
부산	1 (100.00)	-	-	-	1 (100.00)	-	-	-	-	-
대구	31 (100.00)	17 (54.84)	-	1 (3.23)	9 (29.03)	1 (3.23)	2 (6.45)	-	-	1 (3.23)
인천	62 (100.00)	60 (96.77)	-	-	2 (3.23)	-	-	-	-	-
광주	21 (100.00)	10 (47.62)	-	-	2 (9.52)	1 (4.76)	-	2 (9.52)	1 (4.76)	5 (23.81)
대전	135 (100.00)	35 (25.93)	-	-	4 (2.96)	-	9 (6.67)	2 (1.48)	-	85 (62.96)
울산	3 (100.00)	1 (33.33)	-	-	-	1 (33.33)	-	-	-	1 (33.33)
경기	417 (100.00)	357 (85.61)	1 (0.24)	2 (0.48)	37 (8.87)	-	1 (0.24)	2 (0.48)	-	17 (4.08)
강원	117 (100.00)	90 (76.92)	-	1 (0.85)	5 (4.27)	2 (1.71)	1 (0.85)	-	-	18 (15.38)
충북	1,021 (100.00)	875 (85.70)	-	1 (0.10)	60 (5.88)	-	7 (0.69)	4 (0.39)	2 (0.20)	72 (7.05)
충남	310 (100.00)	151 (48.71)	-	-	90 (29.03)	-	8 (2.58)	6 (1.94)	1 (0.32)	54 (17.42)
전북	665 (100.00)	537 (80.75)	-	1 (0.15)	91 (13.68)	3 (0.45)	5 (0.75)	4 (0.60)	1 (0.15)	23 (3.46)
전남	162 (100.00)	112 (69.14)	-	-	26 (16.05)	-	5 (3.09)	2 (1.23)	1 (0.62)	16 (9.88)
경북	1,461 (100.00)	630 (43.12)	1 (0.07)	-	777 (53.18)	3 (0.21)	7 (0.48)	-	2 (0.14)	41 (2.81)
경남	118 (100.00)	94 (79.66)	-	-	10 (8.47)	-	2 (1.69)	-	-	12 (10.17)
제주	11 (100.00)	1 (9.09)	-	-	7 (63.64)	-	-	-	-	3 (27.27)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는 지역별 비중

○ 영동군과 옥천군은 캠벨얼리 품종의 집산지 형태를 띠고 있음

- 영동군은 국내 캠벨얼리 주산지이며, 노지포도 재배농가의 76.77%, 시설포도재

배 농가의 78.60%가 재배하고 있음

- 옥천군은 노지포도 재배농가의 96.07%,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94%가 캠벨얼리 품종에 집중되어 있음

<표 4-14> 충북 노지포도 주요 재배품종별 농가

(단위:가구,%)

행정 구역	계	캠벨 얼리	홍이슬	흑보석	거봉	흑구슬	마스캇 베리 에이	세레단	수옥	기타
충북	3,870 (100.00)	3,084 (79.69)	-	2 (0.05)	45 (1.16)	-	476 (12.30)	177 (4.57)	1 (0.03)	85 (2.20)
청주	86 (100.00)	74 (86.05)	-	1 (1.16)	2 (2.33)	-	1 (1.16)	2 (2.33)	-	6 (6.98)
충주	33 (100.00)	24 (72.73)	-	-	1 (3.03)	-	-	1 (3.03)	-	7 (21.21)
제천	19 (100.00)	15 (78.95)	-	-	1 (5.26)	-	1 (5.26)	-	-	2 (10.53)
청원	110 (100.00)	97 (88.18)	-	1 (0.91)	4 (3.64)	-	1 (0.91)	1 (0.91)	-	6 (5.45)
보은	52 (100.00)	51 (98.08)	-	-	-	-	-	-	-	1 (1.92)
옥천	484 (100.00)	465 (96.07)	-	-	1 (0.21)	-	7 (1.45)	7 (1.45)	-	4 (0.83)
영동	3,018 (100.00)	2,317 (76.77)	-	-	16 (0.53)	-	465 (15.41)	164 (5.43)	-	56 (1.86)
진천	25 (100.00)	5 (20.00)	-	-	19 (76.00)	-	-	-	-	1 (4.00)
괴산	11 (100.00)	9 (81.82)	-	-	-	-	-	1 (9.09)	1 (9.09)	-
음성	27 (100.00)	24 (88.89)	-	-	1 (3.70)	-	1 (3.70)	1 (3.70)	-	-
단양	5 (100.00)	3 (60.00)	-	-	-	-	-	-	-	2 (40.00)
증평	-	-	-	-	-	-	-	-	-	-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는 지역별 비중

<표 4-15> 충북 시설포도 주요 재배품종별 농가

(단위:가구,%)

행정 구역	계	캠벨 얼리	홍이슬	흑보석	거봉	흑구슬	마스캣 베리 에이	세레단	수옥	기타
충북	1,021	875	-	1	60	-	7	4	2	72
	(100.00)	(85.70)		(0.10)	(5.88)		(0.69)	(0.39)	(0.20)	(7.05)
청주	3	1	-	-	1	-	-	-	-	1
	(100.00)	(33.33)			(33.33)					(33.33)
충주	1	-	-	-	-	-	-	-	-	1
	(100.00)									(100.00)
제천	3	3	-	-	-	-	-	-	-	-
	(100.00)	(100.00)								
청원	41	37	-	-	2	-	-	-	-	2
	(100.00)	(90.24)			(4.88)					(4.88)
보은	6	6	-	-	-	-	-	-	-	-
	(100.00)	(100.00)								
옥천	467	439	-	-	3	-	2	4	1	18
	(100.00)	(94.00)			(0.64)		(0.43)	(0.86)	(0.21)	(3.85)
영동	486	382	-	-	48	-	5	-	1	50
	(100.00)	(78.60)			(9.88)		(1.03)		(0.21)	(10.29)
진천	6	-	-	1	5	-	-	-	-	-
	(100.00)			(16.67)	(83.33)					
괴산	-	-	-	-	-	-	-	-	-	-
음성	4	4	-	-	-	-	-	-	-	-
	(100.00)	(100.00)								
단양	-	-	-	-	-	-	-	-	-	-
증평	4	3	-	-	1	-	-	-	-	-
	(100.00)	(75.00)			(25.0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주: ()는 지역별 비중

(5) 소비 현황

- 포도 연간 1인당 소비량은 2010년의 경우 7.0kg으로 전체 과일 소비량의 12.0% 수준이며, 1990년대 증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6> 1인당 연간 포도 소비량 추이

(단위: kg)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소비량	9.7	9.0	8.1	7.9	8.2	7.1	7.3	6.9	7.4	7.0

주: 1인당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조식기준

자료: 농림수산부, 유통정책관 원예경영과

(6) 가공 현황

- 2010년 포도 가공량은 9,000톤이며 전체 포도 생산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어 가공품 생산 비중이 낮음.
- 국내 포도 가공은 대부분 생과용으로 판매가 어려운 낮은 등급의 포도를 주로 가공하는 형태임.

<표 4-17> 전국의 포도 가공현황

(단위: 천 톤)

2009년도			2010년도			증감
생산량 (A)	가공량 (B)	B/A (%)	생산량 (C)	가공량 (D)	D/C (%)	(D/B)
333	5	1.5	306	9	2.9	8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과실류 가공현황, 2011

<표 4-18> 전국의 제품유형별 포도 가공현황

(단위: 톤)

유형별	'06	'07	'08	'09	'10
합계	14,424	6,474	4,317	4,862	8,767
통조림	851	469	383	532	555
주스	1,067	2,317	1,634	2,023	5,541
넥타	-	80	7	7	230
잼	228	635	228	544	440
술	946	1,419	714	625	785
식초	3	71	344	50	58
음료 및 기타	11,329	1,483	1,007	1,081	1,15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과실류 가공현황, 2011.

- 2010년 기준 포도 가공량 중 주스 가공이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음료 및 기타, 술, 통조림, 잼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포도 가공량은 경기, 경북, 충북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북의 가공량은 1,751톤으로 전체 가공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표 4-19> 시·도별 포도 가공현황(2010년)

(단위: 톤)

구분	통조림	주스	넥타	잼	술	식초	음료	즙청	기타	계
서울										
부산										
대구	555						4		50	609
인천								15		15
광주				6					384	390
대전					4		3			7
울산										
경기		2,496	230		172		46			2,944
강원		26			1		4			31
충북		1,056		393	197		105			1,751
충남		19			100	50		75		244
전북							377			377
전남										
경북		1,764		41	301	8	23			2,137
경남		180			10		73			263
제주										
합계	555	5,541	230	440	785	58	635	90	434	8,76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과실류 가공현황, 2011.

- 충북의 2010년 포도 가공량은 1,751톤으로 전체 가공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 포도 가공제품으로는 주스의 가공량이 가장 많으며, 잼, 술, 음료의 순으로 나타남
- 주스, 잼, 술, 음료의 전국 가공량 대비 각각 19.1%, 89.3%, 25.1%, 16.6%의 점유율을 나타냄

<표 4-20> 충북 포도의 제품유형별 포도 가공현황(2010년)

단위: 톤

구분	전국	충북	점유율(%)
계	8,767	1,751	19.97
통조림	555	0	0
주스	5,541	1,056	19.06
넥타	230	0	0
잼	440	393	89.32
술	785	197	25.10
식초	58	0	0
음료	634	105	16.56
조미	0	0	0
사료	0	0	0
즙청	90	0	0
분말차	0	0	0
전조	0	0	0
기타	434	0	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과실류 가공현황, 2011.

3) 포도산업 문제점

(1) 생산 부문

- 포도 수급의 불일치
 - 1990년 이후 포도 재배면적은 늘어났으나 소비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과잉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많은 양의 포도가 수입되고 있어서 포도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산 포도는 주로 생식용 품종이어서 가공에 적절하지 않으며, 국산 포도를 원료로 할 경우 원가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 기후 변화에 대응 미흡
 -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포도 재배지역이 북상하면서 포도재배 적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시설재배 확대 등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포도농가의 영세성 및 고령화
 - 경쟁 대상국에 비해 포도재배 면적과 규모가 영세하여 기계화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신기술 습득과 노동력확보가 어려우며, 투자 의욕도 적음
- 재배품종의 단순화와 신품종 전문 육종가 부재
 - 대부분 식용인 캠벨얼리가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포도 품종 수요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종 전문가가 부족함
- 친환경 및 생력화 기술 저조
 - 초생재배법, 친환경농자재 개발, 친환경 인증 및 관리 방안, 생력화 재배를 위한 기계화 촉진 등이 중요함
- 병충해에 대한 정보와 방제법 미흡
 -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식용포도 수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정보와 방제법 연구가 미흡함

(2) 소비 및 가공 부문

- 1인당 포도 소비량 감소 추세
- 국내산 포도의 가공식품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낮은 등급만을 처리하는 형태
 - 국내 포도 가공은 대부분 생과용으로 판매가 어려운 낮은 등급의 포도를 주로 가공하는 형태임.

2. 충청남도 인삼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 현황

(1) 농업부문 총생산

- 2010년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76조 3천억 원으로 전국의 약 7%를 차지함
 - 2006년 51조 6천억 원에서 2008년 57조 9천억 원, 2010년 76조 3천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충청남도의 농림어업 부문 지역내총생산(명목)은 3조 5천억 원으로 전국의 약 13%를 차지하며, 2009년보다 약 4% 증가하였음
 - 2010년 전국 농림어업부문 총생산 중 충남은 경북(14.9%), 전남(14.7%)에 이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음
 - 농림어업부문 지역내총생산은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GRDP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6년 6.6%에서 2008년 5.5%, 2010년 4.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4-21> 충남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 가격)

(단위 : 억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GRDP	513,613	551,483	579,739	651,338	763,537
농림어업 GRDP	34,122 (6.6)	32,152 (5.8)	31,994 (5.5)	33,522 (5.1)	34,725 (4.5)

자료: 통계청(KOSIS, 지역소득통계 각 년도)

주: ()는 전체 GRDP대비 농림어업 GRDP비중임

(2) 경지 현황

- 2011년 충청남도의 경지면적은 전국 경지면적 1,698,040ha의 약 14%인 232,289ha이며, 이는 전라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 3번째를 차지함
 - 경지면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1.4%의 감소율로 매년 꾸준히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임

- 밭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증감률이 0.7%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논에 비하여 소득이 높기 때문임. 특히 2010년 64,650ha에 비해 2011년에 늘어난 이유는 농림수산물부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으로 인해 논에서 밭으로 전환했기 때문임

<표 4-22> 충남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07~11 평균증감율
계	246,092	241,857	237,681	233,731	232,289	-1.4
논	181,328	176,107	172,136	169,081	165,678	-2.2
밭	64,764	65,750	65,545	64,650	66,611	0.7

자료: 통계청 (KOSIS)

(3) 농가 및 농가인구

- 2011년 충청남도의 농가는 150,207가구, 농가인구는 378,094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충청남도의 농가수는 2007년 161,025 가구에서 약 7%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 역시 2007년 433,585 명에서 약 13%가량 감소하였음
- 2011년 전국대비 충남의 농가 및 농가인구의 비중은 각각 13%임

<표 4-23> 충남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구분	충청남도	
	농가수	농가인구
2007	161,025	433,585
2008	160,734	428,273
2009	158,529	417,312
2010	151,424	394,324
2011	150,207	378,094

자료: 통계청 (KOSIS)

2) 인삼산업 현황

(1) 재배면적

- 전국의 인삼재배면적은 2008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전국 인삼재배면적은 17,601ha으로 2010년 19,010ha 대비 약 7%가량 감소함
- 2011년 충청남도의 인삼재배면적은 2,860ha으로 경기도(3,811ha), 충청북도(3,521ha)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3,302ha 대비 약13%가량 감소함
- 2011년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인삼 재배면적 또한 16.2%로 2010년 17.4% 보다 1.2%p 감소한 수치임

<표 4-24> 충남의 인삼 재배면적

(단위 : ha, %)

구분	전국	충청남도
2007	17,831	3,435 (19.3)
2008	19,408	3,742 (19.3)
2009	19,702	3,617 (18.4)
2010	19,010	3,302 (17.4)
2011	17,601	2,860 (16.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각 년도

주: ()는 전국대비 충청남도 비중임

(2) 생산량 및 생산액

- 전국의 인삼생산량은 2009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전국 인삼생산량은 26,737톤으로 2010년 26,944 대비 약 1%가량 감소함
- 2011년 충청남도의 인삼 생산량은 4,641톤으로 전라북도(6,437톤), 충청북도(4,932톤)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5,285톤 대비 약 12%가량 감소함
- 2011년 전국의 인삼생산액은 9,51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4%가량 감소함
- 2011년 충청남도의 인삼 생산액은 1,647억 원으로 전라북도(2,290억 원), 충청북도(1,754억 원)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생산액은 2010년 1,637억 원 대비 약 1%가량 증가함

<표 4-25> 충남의 인삼 생산량 및 생산액

(단위 : 톤, 억 원)

구분	전국		충청남도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2007	21,818	7,990	3,723 (17.1)	1,255 (15.7)
2008	24,613	8,749	5,335 (21.7)	1,633 (18.7)
2009	27,460	9,412	5,084 (18.5)	1,533 (16.3)
2010	26,944	9,883	5,285 (19.6)	1,637 (16.6)
2011	26,737	9,510	4,631 (17.3)	1,647 (17.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각 년도

주: ()는 전국대비 충청남도 비중임

(3) 농가 현황

- 2011년 전국의 인삼재배농가는 23,578 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 감소하였음
- 2011년 충청남도의 인삼재배농가는 3,424 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 감소하였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24.5%에서 2011년 14.5%로 약 10%p 감소하였음. 이는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한 재배포기농가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표 4-26> 충남의 인삼 재배농가수

(단위 : 가구)

구분	전국	충청남도
2007	19,850	4,090 (20.6)
2008	24,298	6,570 (27.0)
2009	23,285	4,947 (21.2)
2010	23,857	5,838 (24.5)
2011	23,578	3,424 (14.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각 년도

주: ()는 전국대비 충청남도 비중임

(4) 수출입 현황

- 2011년 전국의 인삼류 수출량은 3,695톤, 수출액은 189,305천 달러로, 2007년 대비 각각 91%, 106% 증가한 수치임
- 인삼류의 주요국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지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인삼류의 급격한 수출증가세는 한국인삼공사의 중국·대만·일본 등 현지 법인의 설치, 금홍(충남금산), 천하제일고려인삼(경기도) 등 브랜드의 미국 내 전문대리점 설립 등으로 유통망이 확충되었기 때문임
 - 또한 중국 내 소비자의 소비트렌드 변화로 안전한 한국산 인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2007년~2011년 인삼류 수출량 대비 가공품수출량 평균 비중은 98%로, 인삼류의 수출은 대부분 백삼분, 백삼정, 홍삼, 홍삼정, 인삼액즙, 인삼음료 등 가공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1년 전국의 인삼류 수입량은 98톤, 수입액은 3,517천 달러로, 2007년 대비 각각 63%, 23% 감소한 수치임
 - 최근 5년간 인삼류 수입은 2007년 263톤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기준 인삼류의 품목별 수입비중은 백삼정 58%, 백삼분 33% 등으로 주로 가공품의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27> 전국의 인삼류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수출량			수출액		
	가공	비가공	전체	가공	비가공	전체
2007	1,895	42	1,937	86,999	5,076	92,075
2008	2,093	36	2,128	93,687	3,543	97,229
2009	3,046	60	3,106	102,797	6,118	108,916
2010	3,217	81	3,298	114,067	10,137	124,204
2011	3,630	64	3,695	180,234	9,071	189,305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ATKATI)

주 : 가공품은 수삼, 백삼을 제외한 인삼류임(홍삼, 백삼분, 인삼액즙 등)

<표 4-28> 국가별 인삼류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수출량					수출액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본	558	502	1,025	538	516	28,665	26,791	34,484	29,809	33,095
홍콩	108	123	114	104	148	21,134	30,900	27,989	27,789	38,891
대만	115	146	219	411	659	17,348	11,985	16,068	23,565	37,804
베트남	338	396	495	704	706	5,741	495	6,185	7,143	7,408
중국	63	107	313	417	640	3,568	6,752	6,830	16,148	45,607
미국	321	394	488	613	510	7,019	7,898	8,310	9,631	11,143
기타	434	460	452	511	516	8,600	12,408	14,050	10,119	15,357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ATKATI)

<표 4-29> 전국의 인삼류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수입량			수입액		
	가공	비가공	전체	가공	비가공	전체
2007	120	142	263	3,256	1,297	4,553
2008	125	120	246	3,698	1,278	4,975
2009	82	73	156	2,206	856	3,062
2010	127	34	160	3,350	667	4,017
2011	94	4	98	3,490	27	3,517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 (ATKATI)

주 : 가공품은 수삼, 백삼을 제외한 인삼류임 (홍삼, 백삼분, 인삼액즙 등)

(5) 소비 현황

- 2011년 인삼생산량은 26,737톤으로, 인삼류의 소비 형태는 수삼용 45% (12,022톤), 홍삼용 47.8% (12,792톤), 태극삼용 0.4% (113톤), 백삼용 6.8% (1,809톤)으로 이루어짐
- 인삼 소비량은 2011년 23,183톤으로 2002년보다 약 48% 늘어남.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에 대한 소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인당 소비량은 2011년 0.46kg으로 2002년에 비해 약 39%가량 늘어남

<표 4-30> 인삼류의 소비 형태(2011년)

(단위 : 톤, %)

구분	소비량	내용	형태
수삼용	12,022(45.0)		전량 내수
홍삼용	12,792(47.8)	뿌리삼가공 : 2,882(22.5)	수출 : 2,326(80.7) 내수 : 556(19.3)
		가공제품류 : 9,910(77.5)	수출 : 802(8.1) 내수 : 9,108(91.9)
태극삼용	113(0.4)	뿌리삼가공 : 113(100)	수출 : 69(61.1) 내수 : 44(38.9)
백삼용	1,809(6.8)	뿌리삼가공 : 1,424(78.7)	수출 : 182(12.8) 내수 : 1,242(87.2)
		가공제품류 : 385(21.3)	수출 : 57(14.8) 내수 : 328(85.2)

자료 : 농협중앙회, 농림수산물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2011년 재인용

<표 4-31> 인삼 소비 현황

(단위 : 톤, kg/인)

구분	소비	1인당소비량
2002	15,657	0.33
2003	14,339	0.30
2004	12,896	0.27
2005	13,647	0.28
2006	18,791	0.39
2007	19,958	0.41
2008	22,529	0.45
2009	23,744	0.48
2010	21,306	0.43
2011	23,183	0.46

자료 : 농협중앙회, 농식품통계연보, 한국인삼공사, 농림수산물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각 년도 재인용

주 : 1. 물동량은 수삼기준임

2. 수삼환산 제조수율 적용

3. 1인당 소비량 적용 총인구수 : 49,773,646명 (2011년 12월 현재)

(6) 인삼조합별 브랜드 현황

- 2011년 지역별 인삼조합은 12개로, 이중 11개의 조합에서 자체브랜드를 소유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1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음

<표 4-32> 인삼조합별 브랜드 현황

(단위 : 톤, kg/인)

구분	조합명	브랜드명
경기	개성	한송정(천경삼)
	김포 파주	통일삼(천경삼)
	경기 동부	임금님표 이천홍삼
	안성	안성마춤(천경삼)
강원	강원	-
충북	충북	삼누리
충남	금산	삼지원
	백제	천삼장
	서산	천해원
전북	전북	진안삼
경북	풍기	황풍정
인천	강화	천수삼
농협중앙회	농협한삼인	한삼인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2011년

(7) 가공 현황

- <표 4-33>은 한국인삼공사의 1년 가공량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인삼공사는 1년에 수삼처리 8,652톤, 홍삼류 2,182톤, 음료제품으로 18,015 천리터를 가공함

<표 4-33> 한국인삼공사 가공능력

구분	물량	형태
수삼처리	8,652 톤	
홍삼제조	410 톤	
홍삼제품	1,772 톤	삼정류 : 3,687kg × 300일 = 1,106톤
		삼분류 : 380kg × 300일 = 114톤
		삼차류 : 750kg × 300일 = 225톤
		정차류 : 365kg × 300일 = 119.5톤
		정환류 : 410kg × 300일 = 123톤
		봉밀절편류 : 282kg × 300일 = 84.6톤
음료제품	18,015 천L	50ml병 : 52천병 × 300일 = 15,300천병(765천L)
		사각파우치 : 500천포 × 300일 = 150,000천포(7,500천L)
		라운드파우치 : 650천포 × 300일 = 195,000천포(9,750천L)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2011년

3) 인삼산업 문제점

- 기본적으로 한국의 인삼은 고려인삼²⁷⁾으로 불리고 있고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가공형태, 햇수, 모양, 크기, 수확시기 등에 따라 삼을 구분²⁸⁾하는 기준이 다양한 것이 타작물과 다른 특징

(1) 생산 부문

- 인삼의 전국 현황은 시장개방이 본격화한 지난 15년 동안(1995~2010년) 전체 농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재배면적이 2배 (9,375ha→19,010ha)로 증가한 작물
 - 홍삼제품 소비 증가로 인하여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4년 13,797가구→2011년 23,578가구로 1만 가구 증가한 상황
 - 2009년부터 제자리걸음을 하던 재배 농가수가 요즘 들어 다시 증가 추세
 - 강원도 산간에서까지 인삼 농사짓기 시작, 2011년 인삼가격 7~8% 상승에 기인
- 전반적으로 2008~2009년 이후 인삼생산 규모 감소 추세, 농가수는 증감 반복
 - 전국과 충남의 인삼재배면적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 인삼생산량 및 생산액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이, 농가수는 2008년 이후 감소와 증가 반복
 - 2011년 면적기준 충남은 16%차지(전국 3위), 생산량 및 생산액 기준 충남은 17%차지(전국 3위), 농가수 기준 충남은 2011년 이전에는 20%이상 차지하였

27) 효능이 뛰어난 한국인삼을 화기삼, 동양삼, 관동삼 등과 같은 외국삼과 구별하기 위해 고려인삼(Korean Ginseng)이라고 불리고 있다(고려인삼학회).

28) 가공 형태에 따라서 밭에서 캐낸 상태를 수삼, 수삼을 햇빛이나 열풍에 말린 것을 백삼, 수삼을 끓는 물에 데쳐서 말린 것을 태극삼, 수삼을 껍질째 증기로 찌고 말린것을 홍삼으로 불린다. 상품성 및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생김새와 크기, 색깔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 뇌두와 몸통, 뿌리가 균형 있게 잘생겨야 상품으로 친다.

햇수에 따라 4(년)근부터 5(년)근, 6(년)근으로 나누는 것은 기본, 생김새에 따라 가장 잘생긴 삼을 원수삼, 잔뿌리가 많은 것은 난발삼, 모양이나 품질이 낮은 것은 파삼, 대편삼으로 불린다.

수삼의 거래단위는 특이하게도 채(1채는 750g), 뿌리, 편, 근 등으로 나뉜다. 크기에 따라 1채를 구성하는 삼의 개수(규격)에 따라 왕왕대(2~4), 왕대(5~6), 특대(7~8), 대(9~12), 중(13~17), 소(18~22)로 나뉜다.

과중한 자리에서 수확해 잔가지가 적고 쪽 끝게 뺀 직파삼, 1년 된 삼을 다른 묘상으로 옮겨 심고 나서 수확하는 일반삼(이식삼, 심은삼 등으로 불린다)으로 구분하고, 재배지에 따라서 논삼과 밭삼으로 구분한다. 인삼은 한 번 재배한 곳에서는 10년 정도 지나야 다시 재배가 가능해 전국적으로 생산지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색깔도 검정부터 회색, 누런색, 황토색 등으로 다양한데 황토밭에서 자라 붉은색 기운이 도는 삼을 높게 쳐준다.

으나 2011년 이후 14.5% 비중으로 감소

○ 긴 경작기간과 연작피해

- 경작기간 4~6년으로 길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배하기 어려움
- 연작피해 등에 따른 재배적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밭 중심 생산 확대 어려움
- 연작장애로 인한 인삼 품질 저하와 생산성 감소

○ 까다로운 재배조건과 생산비 절감에 애로

- 인삼의 까다로운 생육조건으로 인해 재배적지 제한
- 해가림시설 설치 등 노동력 많이 소요, 규모화·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힘들
- 병충해에 약해 재배관리 까다로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품종 기술개발 연구 부족

- 신품종 및 우량종자의 보급률 저하로 생산성 저하
- 농가에서는 소량 다품목 재배구조로 국내산 자급률은 52%가량(2010년 현재)
-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 저하 요인 작용(중국산 가격은 국내산의 20~50%)

○ 정부투자 지원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

- 인삼산업 위축으로 정부투자 감축→신기술 연구개발도 위축→생산성 저하 등을 반복하는 악순환 구조

(2) 유통 부문

○ 유통구조의 낙후성, 저효율성

- 카드 거래와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되지 않는 곳이 많고 현장에서 원산지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작증명서도 시행하지 않는 곳이 많음
- 인삼의 등급은 연근, 크기, 체형, 색상 등에 의해 세분화될 수 있는데 표준화된 등급 기준이 없어 유통의 효율성이 저하
- 생산이력추적제의 미시행으로 생산자 확인도 어려움

○ 포전매매의 성행

- 한국인삼공사에서 계약 수매하는 6년근 수삼을 제외한 수삼거래의 대부분이 포전매매로 거래되고 있어 거래교섭력이 취약한 생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짐

- 인삼경작자가 수확한 인삼의 70~80%가 일부 중간유통상에 의해 포전매매
- 복잡한 유통구조 및 유통구조과정 체계 미흡
 - 현재 수삼의 유통비용은 64% 수준으로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 51% 보다 13% 수준이나 높은 것이 현실
 - 수삼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6단계, 백삼은 8단계로 유통과정이 복잡
 - 고가품인데도 불구하고 중간 유통비용과 마진이 높음
 - 도매상을 거쳐 출하할 경우 유통비용을 5~6%정도 감소 가능
 -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사업 비중이 현재 5%수준에 불과
- 거래단위 및 규격 등 유통 거래시 복잡하여 소비자 혼란 초래, 신뢰도 저하 요인
- 부정유통 관행광배 : 해외삼이 국내인삼으로, 4년근이 6년근으로 눈속임 등
- 관행적 농약살포 및 일부 자체검사단에 품질관리 노력 미흡

(3) 소비 및 가공 부문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인삼류 제품에 대한 소비 증가
- 안전성, 친환경 인삼제품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원산지, 안전성 불신에 대한 문제 상존, 유통관계자들의 안전성 인식 부족
- 생산량의 45%는 수삼형태, 55%는 건삼(백삼, 홍삼) 및 제품류(엑기스 등)가 공형태로 소비
- 재배면적 및 공급량은 점차 감소, 수요량은 점차 증가하는 상반된 현실
 - 국내 내수시장의 특징은 1인당 인삼소비량이 1995년 0.23kg→2010년 1인당 0.46kg으로 15년 사이 2배 증가
 - 중국 수출시장에서는 한국산 고려인삼은 효능은 좋으나 고가로 인해 선물용으로 소비, 대중화되기 힘든 품목으로 인식
- 인삼류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순으로 인삼류 수출량 대비 가공품 수출량이 압도적으로 높음(98%)
- 최근 5년간 인삼류 수입은 점차 감소추세로 주로 가공품 형태가 대부분 차지

※ 참고 : 중국 인삼소비 특성

- 한국산 인삼이 고가라는 인식으로 인해 대중화되기 힘든 품목
 - 중국의 고소득층에게 인기가 많으나 가격은 일반인 소비 능력에 비해 비싸서 선물용 등 특별한 경우에만 구입하게 되어 대중화되기 어려운 품목
 - 고소득층과 고령층의 경우 효능에 대한 탁월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병후회복 등 특별한 경우에만 구입
- 주로 동인당, 고급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판매, 지역적으로는 남방지역에서 한국인삼 선호
 - 남방지역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홍삼제품은 대부분 홍콩으로부터 여행객 등에 의해 반입된 것, 고가로 위조품도 범람
 - 백화점, 약점 등 소매점에서는 한국삼은 캔포장 뿌리삼이 대부분, 제품류는 위조품, 유사품의 유통이 많음.
 - 수출된 제품 외에도 밀거래로 유입된 제품이 남방 대도시 집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실수요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
- 중국산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산은 중국산에 비해 최고 10여배 고가, 외관 및 포장에서 우수
- 그동안 정상적인 수입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유통망 구축이 확고치 않은 상황으로 유통망 구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 필요

(4)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관리부처 이원화 구조로 인해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지원받는 구조에 애로사항
 - 식품용은 농림수산물식품부, 한약재용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
- 작물의 특성상 이원화된 상위관련 법으로 산지에서는 혼란
 - 식품으로서 인삼산업법 적용(농림수산물식품부), 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적용(보건복지부)
- 인삼관련 제조, 가공, 유통, 소비 통계 부실
 - 생산통계에만 치중되어 있고 가공, 제조, 유통, 소비량 등 단계별 종합정보 관리체계 미흡
 - 통계부실로 인삼류의 수급조절, 가격동향, 미래예측 등 정책개발 관리에 어려움

4) 인삼시장 전망 및 대내외 여건변화

(1) 대외 여건변화

- 세계 금융과 국가재정 불안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출 여건 악화
- FTA 발효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심화, 국가 간 무한경쟁시대 도래
- 한국과 중국 간 농산물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
-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당류, 과자류, 커피류, 인삼류 등 가공식품류 수출 주도
- 한국산 인삼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0년 이후 대중국시장 인삼류 수출 급격 증가
- 한·중 FTA가 발효되면 국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 클 것으로 예상²⁹⁾
- 중국, 미국 등 경쟁국 인삼생산 및 수출확대, 국내 인삼생산 가격경쟁력 약화
-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작황악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주산지 이동
- 고려인삼의 우수성에 대한 높은 인지도

(2) 대내 여건변화

- 홍삼시장 신장, 기능성원료 등 수요증가, 건강과 인삼, 약초 체험 관심증대
- 국내 저성장기조(3.6%)로 인삼류 소비 감소 전망, 국내 홍삼소비가 거의 성숙기에 도달하여 조만간 수요 정체 예상
- 인건비, 임차료, 자재비 증가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 홍삼전매제도 폐지('96)와 식품 및 인삼분야 규제개혁 결과 인삼류 가공 산업 활성화
- 영세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품질저하와 유통질서 문란 문제 제기
- 인삼의 작황 부진과 수삼가격 상승으로 인삼제조업체 위축
- 값싼 중국산 인삼원료 수입으로 인삼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 수삼 도·소매시장 증가로 시장간 유통 경쟁 가속

29) 농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개방에 부정적이었으며 개방화시 주요 위협국은 중국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2011년 설문조사 결과)

5) 인삼산업의 제도 및 정책

(1) 관련 법률

○ 인삼산업법 개정 (2012. 07. 22.)

■ 목적

- 유통질서 혼란예방과 품질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 주요 골격

- 인삼 경작신고기관에 시장·군수 포함
- 수삼연근 표시 의무화 및 연근 확인 수수료 징수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삼류 (농약잔류허용기준) 검사 예외규정 삭제
- 인삼류 (농약잔류허용기준) 검사제도 개선

■ 시사점 및 의미

- 긍정적 : 흑삼의 제도권 진입으로 인삼 가공상품의 다양화 및 시장 다각화 초석 마련
- 부정적 : 예외조항 삭제로 인해 산지 피해예상, 검사비용 부담, 제품가격상승 초래해 소비위축

○ 약사법 개정 (2012. 05. 14.)

■ 목적

- 약사법 개정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취지
- 한약재 잔류농약 등 안전성 강화 취지가 골자

■ 주요 골격

- 인삼 유통체계 강화
- 기존에 인삼유통 제조업체는 한약제조업체 거쳐야만 인삼류 유통가능
- 한약재 자가규격제(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는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제도)가 전면 폐지
- * 인삼이 한약재로 사용될 경우(식용은 제외) 가공·포장은 허가된 제약회사만 가능하고, 유통은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거쳐야 한다는 법

■ 입장차이

- 한의약업계 : 생산자의 편리함을 위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반대
- 인삼업계 :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의해 중금속·농약잔류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약사법 적용은 '이중규제'라는 입장

(2) 중앙정부 정책

○ 농림수산물식품부 정책 (자료 :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2012)

■ 인삼·약용 작물계열화 사업 (재원 : 농안기금)

- ▶ 목적 : 인삼·약용작물의 전근대적인 생산·유통·가공구조를 생산자단체의 계열화를 통해 유통구조 현대화,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 ▶ 목표 :
 - 고품질 청정인삼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계약재배 확대 (계약재배 면적을 2017년까지 재배면적의 40%수준까지 확대)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의 유통 비중을 높이고 유통의 효율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 ▶ 사업대상 :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 (농협, 일반 업체 등 포함)
- ▶ 지원대상 : 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 (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GAP 토양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인삼)는 대상에서 제외
- ▶ 지원규모 : 2012년 기준 58,018백만 원 (계약재배 18,488백만 원, 수매사업 38,713백만 원)
- ▶ 인센티브 부여 및 타사업과의 연계 : 지리적 표시제 및 수삼경매 참여 업체 조직 우대

■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재원 : FTA기금)

- ▶ 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 (Brand) 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 목표
 -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 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생산·유통체계 일원화를 통한 표준화·규격화를 촉진하고, 전 근대적인 인삼 유통체계를 개선
 - 인삼 생산 관련 고가의 시설·장비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 및 브랜드 (Brand) 화로 대외 경쟁력 제고
 - 인삼재배 전 (前) 단계 (예정지관리) 부터 생산·가공·유통·홍보까지 수평·수직적으로 연계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삼전문단지 육성
- ▶ 지원대상 :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수산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 ▶ 지원규모 : 2012년 기준 4,200백만 원 (생산유통시설현대화 4,000백만 원, 마케팅, 경영전략컨설팅 200백만 원)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 원/개소당 (2년간 사업)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 원/개소당 (2년간 사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 인센티브 부여 및 타사업과의 연계
 - '인삼계열화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할 경우 고득점 부여

(3) 충남 및 지자체 정책

○ 충남 정책(자료 : 충남 주요 업무계획, 2012)

■ 충남 인삼산업 경쟁력 강화(충청남도)

- 고품질 안전인삼 생산기반 구축
- 안전인삼 생산을 위한 GAP 인증 확대
- 친환경인삼생산자재 지원
- 내·재해형 재배시설 지원
- FTA 대응 및 기능성 인삼제품 개발
-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 서산조
- ※ 저온저장고, 수삼선별장, 건조기, 증삼기, 냉각기 등 유통·가공 설비
- 충남 인삼산업 클러스터 구축 : 생산, 유통, 가공, R&D 등
- ※ 분야별 과제(생산 7, 유통 7, 가공 6, R&D 9)
- 해외 마케팅 및 충남인삼 홍보
- 도공동브랜드 「진스Q」 국내·외 홍보관측 및 시장개척
- ※ 국내 홍보관측 5회, 해외 박람회 3회, 학술대회 등
- ※ 서산인삼농협과 금산인삼농협, 동진제약식품사업부 등 3개 업체 10개 품목에 부여
- 서산인삼농협은 홍삼정과 홍삼액골드, 홍삼액 플러스 등 홍삼가공품 3종
- 금산인삼농협은 홍삼진액골드와 삼지원고려홍삼정골드 등 3종
- 동진제약식품사업부는 고려홍삼정과 홍삼분말, 정과 등 홍삼가공품 4종
- 충남인삼 홍보
- ※ 영상(HD)홍보물, 홍보책자, 스마트 폰과 연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충남넷), 포탈(다음, 네이버) 홍보, 진스Q 홍보물설치 등

■ 인삼 신품종 보급(충남 농업기술원)

- 충남도 최초 육성 인삼품종 「충남1호」 보급 확대
- 품종보호 출원('12) → 채종포 설치('13) → 농가 보급('14이후)
- 충남 5대 특화작목 산학협력단 운영(인삼, 토마토, 백합, 국화, 배) : 수출위한 해외 시장 공략으로 수출관리시스템 운영, 수출시장의 맞춤형 상품생산 및 정보 기술 컨설팅, 포장디자인 브랜드화 및 GAP, 유기농 재배기술 개발, 생산자 정보 및 농약 사용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부착으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 노력

○ 서산시 정책 / 주종 : 6년근 인삼(자료 : 서산시 주요 업무계획, 2012)

■ 사업명 :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신규)

■ 개요

- 전문 인삼·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여 고품격 인삼가공제품 개발로 서산을 6년근 인삼의 메카로 육성
- 사업기간 : 2012~2013년(2년간) / 서산인삼농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인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수삼선별장, 인삼가공 제조시설, 브랜드 개발 등

■ 예산

- 총사업비 : 2,100백만 원(기금630, 도430, 시430, 자담610)
- 2012년 예산 : 1,050백만 원(기금315, 도215, 시215, 자담305)

■ 기대효과

-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서산6년근 인삼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대외 인지도 제고

○ 금산군 정책 / 주종 : 4년근 인삼(자료 : 금산군 주요 업무계획, 2012)

■ 생산 분야

- GAP인증 인삼생산지원
-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지원
- GAP인증 수삼박스지원
- 약초생산단지 조성

■ 가공유통 분야

- 인삼약초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가공시설 지원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인삼 우수농산물(GAP) 관리시설 지원
- 인삼 GMP생산시설 지원
- 인삼저온저장창고건립지원
- 인삼유통촉진전략사업(RFID)
- 인삼약초명품음식을 활용한 푸드투어리즘 개발사업 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농림수산식품부)

■ 연구 분야

-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연구용역 추진
- 2011년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선정 추진
-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 사업성과(연구개발사업, 연구장비도입 및 구축·기업지원 및 교육)

■ 홍보 및 마케팅 분야

-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립 추진
- 금산인삼열차 운행
- 금산인삼관 리모델링공사
- 인삼다큐(KBS) 제작지원사업
- 금산인삼 해외 수출실적
-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추진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광저우시 시장개척, 금홍매장 개설
- 금산인삼 글로벌 광고사업 추진
- 금홍 상표 등록 추진
- 금산인삼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 한방약초 연계협력사업 “안테나 숲” 오픈

※참고 : 금산 인삼시장

■ 개요

- 국내 인삼 유통 1번지인 금산 금산인삼시장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70~80%가 이곳에서 거래 “인삼 유통의 메카”
- 금산 읍내 중심지에 넓게 퍼져있는 각종 시장, 센터 모두 포함
- 1,600개의 점포와 400여 개의 가공업체
- 인삼을 중심으로 가공품과 한약재 등 8,850여 개 품목이 거래되는 특화된 시장

■ 구성

- ① 판매장으로서 금산시장(2,7일장)
- ② 금산약령시장(300여종의 한약재와 약초류 취급)
- ③ 금산인삼국제시장(백삼 집산지로서 일일거래량 6톤)
- ④ 금산인삼쇼핑센터(인삼 및 약초가공품 중심 판매, 기타편의시설)
- ⑤ 금산수삼센터(400여명의 상인이 주주로 구성, 월 거래량 792톤에 211억 원, 연간 9,504톤에 2,534억 원 매출, 전국 수삼유통의 70%를 차지하는 메카)

3. 경상북도 사과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생산

(1) 농업부문 총생산

- 2010년 현재 경상북도의 농업생산 총생산액(농림어업 GRDP)은 4조 702억 원으로 경북 전체 GRDP 78조 3,135억 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 농림어업 GRDP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것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듦을 의미함

<표 4-34> 경북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억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GRDP	626,428	639,693	677,120	692,227	783,135
농림어업 GRDP	38,388 (6.1)	38,330 (6.0)	37,297 (5.5)	38,055 (5.5)	40,702 (5.2)

자료: 통계청 (KOSIS)

주: ()는 전체 GRDP대비 농림어업 GRDP비중임.

(2) 경지 현황

<표 4-35> 경북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08~11 연평균 증감율
계	280,568	278,665	276,233	274,631	-0.7
논	146,486	144,150	141,005	138,427	-1.9
밭	134,082	134,515	135,228	136,204	0.5

자료: 통계청 (KOSIS)

- 2011년 현재 경북지역의 전체 경지면적은 27만 4,631ha로 논이 13만 8,427ha로 50.4%를 차지하여 밭보다는 다소 많은 면적을 차지함

- 경북지역의 경지면적은 최근 2008~11년 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0.7%를 기록하여 점차 줄어들을 알 수 있음. 이 중 논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나, 밭은 과수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3) 농가 및 농가인구

- 2010년 현재 경북의 농가수는 20만 1,651호, 농가인구는 49만 1,225명이며, 각각 전국의 17.1%, 16.0%를 차지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수와 농가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경북의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 경우 감소추세에서 다소 늘어났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됨

<표 4-36> 경북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구분	경상북도	
	농가수	농가인구
2006	205,516	500,539
2007	205,125	500,110
2008	203,169	490,120
2009	200,252	479,517
2010	201,651	491,225

자료: 통계청 (KOSIS)

2) 사과산업 현황

(1) 재배면적

- 2011년 현재 경북지역의 사과재배면적은 19,470ha로, 전국면적 31,167ha의 62.4%를 차지하고 있음. 경북지역의 사과재배면적은 다소 늘어나다가 2011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음
- 사과재배면적의 특징적 변화는 전국단위의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경북지역의 경우 거의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다른 지역에서 사과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남을 의미함

<표 4-37> 경북의 사과 재배면적

(단위 : ha, %)

구분	전국	경상북도
2007	29,358	19,050 (64.9)
2008	30,006	19,158 (63.8)
2009	30,451	19,339 (63.5)
2010	30,992	19,543 (63.1)
2011	31,167	19,470 (62.4)

자료: 통계청 (KOSIS)

주: ()는 전국대비 경상북도 비중임.

<표 4-38> 경북의 사과 생산량 및 생산액

(단위 : 톤, 억 원, %)

구분	전국		경상북도		소비량(kg/인)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2007	435,686	5,143	271,418 (62.3)	3,204 (62.3)	8.9
2008	470,865	6,977	276,888 (58.8)	4,103 (58.8)	9.6
2009	494,491	8,130	304,517 (61.6)	5,007 (61.6)	9.9
2010	460,285	7,403	292,707 (63.6)	4,708 (63.6)	9.3
2011	379,541	6,707	240,865 (63.5)	4,256 (63.5)	-

주: 1. 통계청에서 행정구역별 생산액 공식 통계가 없는 관계로 경상북도 사과 생산액=경상북도 사과 생산량×전국의 평균 사과 판매액으로 추정하였음.

2. ()는 전국대비 경상북도 비중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각년도

(2) 생산량 및 생산액

- 2011년 현재 경북지역의 사과생산량은 약 24만 톤이며, 시장가치로 평가한 생산액은 4,256억 원으로 전국의 63.5%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의 사과생산량과 생산액은 2009년을 시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경북의 사과생산량과 생산액 또한 2009년을 시점으로 감소함

(3) 농가 현황

- 2010년 현재 경북지역의 사과농가수는 23,198호로 전국 38,765호의 59.8%를 차지하고 있음. 경북의 사과재배 농가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재배농가수는 1990년 대비 54.8%나 감소하였음
- 전국의 사과재배농가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전국 재배농가수는 1990년에 비해 20년 동안 45.3%나 줄어들었음.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FTA 타결 등 외부적 요인과 경영수지 악화 등 내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표 4-39> 경북의 사과 재배농가수

(단위 : 가구, %)

구분	전국	경상북도
1990	70,886	51,388 (72.5)
1995	71,777	51,941 (72.4)
2000	42,796	29,701 (69.4)
2005	37,714	24,050 (63.8)
2010	38,765	23,198 (59.8)

주: ()는 전국대비 경상북도 비중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각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총조사」, 2011.

3) 사과산업 문제점

(1) 생산 부문

- 사과산업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고령화되는 추세
 - 사과생산이 많은 경북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타 지역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과산업의 유지에 큰 우려
- 사과재배 상·하위농가 간 기술격차와 경영능력의 차이 상존
 - 농가간 기술 및 경영관리에 차이가 있어 소득격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농촌진흥청의 자료³⁰⁾에 의하면, 상위 20%와 하위 20% 농가간 소득격차가 3.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것은 품질의 불균질화로 나타나 지역 내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묘목생산·공급 체계의 낙후성
 - 선진국에 비해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수량과 품질이 떨어짐. 국내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이중접목묘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나, 선진국에서는 내병성이 강한 자근촉지묘³¹⁾가 유통됨.
- 영세한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
 - 사과농가의 호당 평균 재배면적이 0.7ha이며, 0.5ha 이하 농가가 47.3%로 사과생산자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0.5ha 미만 농가는 3ha 이상 농가보다 생산비가 32%나 많이 소요³²⁾됨. 규모가 증가할수록 비용과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수익이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음. 경북지역의 경우 영세한 농가가 많아 비용부담이 계속 증가
- 후지 중심의 생산구조
 - 후지 품종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 품종 중심의 단작생산구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선택 제한, 사과를 이용한 가공품 생산의 애로 발생
- 현실에 맞는 사과농업인 교육·현장지도가 미흡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부족
 - 농업기술센터나 농민사관학교 등에서 집체교육 중심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

30)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집」, 2011.

31) 이중접목묘는 독립된 3개의 식물개체를 2번 접목하여 만든 묘목이며, 자근촉지묘는 자근대목에 품목을 접목하여 곁가지를 발생시켜 만든 묘목을 말함.

32) 농촌진흥청, 위의 자료

(2) 유통 부문

- 브랜드가 같지만 판매장소별로 품질이 다른 경우가 많음
 - 전국에서 팔리고 있는 청송사과를 다 합하면 청송의 생산량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말처럼 판매과정에서 생산지 도용이 있을 뿐 아니라 판매점별로 사과품질의 차이가 있음
- 다른 과일에 비해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인식 팽배
 - 사과재배 과정에서 농약투여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며, 잔류농약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타 과일에 비해 잔류농약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 국제시장에서 일본보다 낮은 가격경쟁력
 - 2007년 기준 한국산 사과 수출가격이 kg당 2.28달러로 중국산 사과 수출가격 kg당 0.5달러보다 높으나, 일본 사과 수출가격 2.68달러보다는 낮을 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³³⁾
- 산지 유통시설의 낮은 가동률
 - 경북의 경우 영주, 문경, 청송 등지에 사과출하를 위한 광역 APC가 설립되어 가동 중이나, 물동량 부족으로 연중 가동이 어려워 경영에 어려움

(3) 소비 및 가공 부문

- 가공제품 개발 미흡
 - 사과의 가공제품이 주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른 품목에 비해 가공품 개발이 다양하지 못함. 사과 가공수요 증대를 위한 가공품 품질개선 및 다양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며, 가공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이 필요함

33) (사)한국사과연합회, 「한국 사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0.12.

4. 경상남도 단감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 현황

(1) 농업부문 총생산

- 경상남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증가 추이
 - 전체 GRDP : ('06) 617,350억 원 → ('10) 823,405억 원 (206,055억 원, '06년 대비 33.4% 증가))
- 농림어업 GRDP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줄어들었으나 2008년부터 증가 추이
 - 농림어업 GRDP : ('06) 31,549억 원 → ('10) 33,441억 원 (1,892억원, '06년 대비 6.0% 증가))
- 경상남도의 전체 GRDP 대비 농림어업 GRDP 비중은 감소 추세
 - 전체 GRDP 대비 농림어업 GRDP 비중 : ('06) 5.1% → ('10) 4.1% (1.0% 감소))

<표 4-40> 경남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억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GRDP	617,350	691,571	742,802	772,130	823,405
농림어업 GRDP	31,549 (5.1)	30,299 (4.4)	29,812 (4.0)	31,366 (4.1)	33,441 (4.1)

자료: 통계청 (KOSIS)

주: ()는 전체 GRDP대비 농림어업 GRDP비중임

(2) 경지 현황

- 경상남도 경지면적은 2008년 대비 2011년도 5.8% 감소
 - 논, 밭 면적 : ('08) 166,674ha → ('11) 156,992ha (9,682ha 감소)
- 경상남도 논 면적은 2008년 대비 2011년도 11.4% 감소
 - 논 면적 : ('08) 109,782ha → ('11) 97,305ha (12,477ha 감소)
- 경상남도 밭 면적은 2008년 대비 2011년도 4.9% 증가

- 밭 면적 : ('08) 56,892ha → ('11) 59,687ha (2,795ha 증가)

<표 4-41> 경남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8	2009	2010	2011	08~11 증감율
계	166,674	164,122	159,651	156,992	-5.8
논	109,782	105,930	100,104	97,305	-11.4
밭	56,892	58,192	59,547	59,687	4.9

자료: 통계청 (KOSIS)

(3) 농가 및 농가인구

- 경상남도의 농가수는 2006년부터 4년 동안 감소 추이였으나 2010년에는 전년 대비 가구 수 증가
 - 농가수 : ('06) 153,251가구 → ('09) 140,144가구 → ('10) 141,431가구
- 농가인구수도 마찬가지로 추이를 보이며, 2006년 대비하여 2009년에는 36,203명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전년 대비 3,908명 증가
 - 농가인구수 : ('06) 379,794명 → ('09) 343,591명 → ('10) 347,499명

<표 4-42> 경남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구분	경상남도	
	농가수	농가인구
2006	153,251	379,794
2007	148,383	368,240
2008	143,971	354,291
2009	140,144	343,591
2010	141,431	347,499

자료: 통계청 (KOSIS)

2) 단감산업 현황

(1) 재배면적

- 우리나라 단감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과잉 생산과 소비부진에 따른 단감 가격하락으로 인한 타 작목으로 전환, 농가의 고령화 및 도시개발로 인한 폐원 등으로 평가됨
- 경남의 단감 재배면적 또한 2000년 11,236ha로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며, 2000년의 경남의 재배면적 비율은 4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후 매년 50%이상을 유지하며 높아지는 추세임
 - 2000년대 이전 단감이 경제성이 높은 과실로 인식되어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산되었으나 2000년 이후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재배환경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폐원이 증가하였음
- 다만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단감 재배의 북방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경북,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 단감 재배가 증가하는 곳도 있음

<표 4-43> 경남의 단감 재배면적

(단위 : ha, %)

구분	전국	경상남도
1990	9,869	5,473(55%)
1995	20,158	9,715(48%)
2000	23,816	11,236(47%)
2003	19,620	9,739(50%)
2005	17,199	8,763(51%)
2006	17,304	9,408(54%)
2007	16,309	9,014(55%)
2008	16,259	8,839(54%)
2009	14,785	8,060(55%)
2010	15,244	8,758(58%)
2011	14,299	8,167(5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주: ()는 전국대비 경상남도 비중임

(2) 생산량

- 2000년대 초중반의 우리나라 단감 생산량은 태풍피해가 극심했던 2003년을 제외하고 20만 톤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생산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임
 - 단감생산액 : ('95) 2,314억 원 → ('00) 1,843 → ('07) 2,992 → ('09) 2,874 → ('10) 3,237
- 2009년 이후 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로 생산량도 2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생산량 감소와 수출 등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따라 단감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임
 - 단감가격 : ('96) 2,574원/kg → ('00) 1,269 → ('07) 2,560 → ('09) 2,568 → ('10) 2,926
- 따라서 연 19만 톤 이상이 생산될 경우 내수 생과시장이외의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이 필요함
- 2000년대 들어 재배면적 외에 단감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태풍, 동해 등 기상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표 4-44> 경남의 단감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전국	경상남도
1990	65,682	36,012(55%)
1995	154,737	93,458(60%)
2000	227,394	118,877(52%)
2003	163,004	65,641(40%)
2005	235,854	144,064(61%)
2006	206,589	117,788(57%)
2007	251,000	143,100(57%)
2008	216,030	117,294(54%)
2009	195,138	108,662(56%)
2010	180,840	105,671(58%)
2011	171,696	104,293 (6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주: ()는 전국대비 경상남도 비중임

(3) 수출 현황

- 우리나라의 단감 수출은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3년에 2천 톤 수준에서 2006년에는 3,591톤, 2007년에는 4,683톤, 2008년 7,389톤, 2009년에는 10,000톤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감소

<표 4-45> 전국 및 경남의 단감 수출 추이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수출량		수출액	
	전국	경남	전국	경남
1996	10	-	28	-
1998	679	-	939	-
2000	3,060	89(2.9%)	3,922	103(2.6%)
2001	4,107	381(9.3%)	4,385	420(9.6%)
2002	4,177	1,266(30.3%)	4,592	1,371(29.9%)
2003	1,991	556(27.9%)	2,285	669(29.3%)
2004	2,931	1,064(36.3%)	3,607	1,436(39.8%)
2005	4,273	1,569(36.7%)	5,590	2,323(41.6%)
2006	3,591	1,317(36.7%)	4,941	2,158(43.7%)
2007	4,683	2,260(48.3%)	6,196	3,443(55.6%)
2008	7,389	3,585(48.5%)	7,404	3,732(50.4%)
2009	10,255	8,507(83.0%)	10,884	9,063(83.3%)
2010	6,503	5,295(81.4%)	8,353	6,994(83.7%)
2011	6,897	6,009(87.1%)	9,363	8,298(88.6%)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주: ()는 전국대비 경상남도 비중임

<표 4-46> 국가별 단감 수출 현황

(단위: 천달러, 톤)

국가	2000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말레이시아	1,887	1,538	2,373	2,095	3,112	2,815	4,790	5,396	3,995	3,360
태국	492	373	1,175	827	582	389	409	322	349	194
싱가포르	774	662	371	294	440	362	1,543	1,470	1,694	1,322
캐나다	78	60	146	82	619	298	1,640	1,097	1,308	728
미국	-	-	354	217	586	289	275	135	36	15
홍콩	415	350	617	433	486	296	1,318	1,089	942	645
기타	276	77	554	325	371	234	909	746	1,155	733
계	3,922	3,060	5,590	4,273	6,196	4,683	10,884	10,255	9,479	6,997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 년도

- 단감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와 캐나다 등으로 특히, 말레이시아는 전체 수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국별 시장에서 국내산 단감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말레이시아 시장이 85.5%로 가장 높고, 싱가포르 시장이 10.7%이며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미국으로의 단감 수출은 FTA체결 등 교역조건이 호전되었으나, 검역과 농약안전성 등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수출실적이 부진함

<표 4-47> 단감의 주요 수출국별 국내산 비중

(단위: 천 달러, %)

주 수출국가	수출 규모(우리나라 단감 점유율)			
	'06	'07	'08	'09
말레이시아	-	-	2,889(64.1%)	5,073(85.5%)
캐나다	-	41,736(1.0%)	40,806(1.4%)	43,774(2.6%)
싱가포르	14,722(3.8%)	15,924(2.9%)	14,307(6.4%)	13,726(10.7%)
홍콩	35,227(1.2%)	40,301(1.2%)	51,263(1.6%)	60,445(2.5%)
태국	-	3,082(8.5%)	4,226(4.3%)	5,526(5.0%)

자료: Global Atlas Trade

- 주 1. 말레이시아, 캐나다 : 단감의 단일코드가 없어 기타과실 수입실적임, '08, '07년 코드세분으로 이전자료 없음
2. 싱가포르, 홍콩 : 단감의 단일코드가 없어 기타과실 수입실적임
3. 태국 : 08109090-004 (persimmons) 코드는 '07년 세분되어 이전자료 없음

- 단감은 저장성이 낮아 타 과실과 달리 모두 비닐 포장을 하여 저온저장하기 때문에 수확후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수출시기도 11~12월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저비용의 안정적인 장기 저장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수출량이 증가하고 또한 높은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표 4-48> 단감의 월별 수출물량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1월	2월	3월	4~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	금액	162	9	1	0	62	1,950	5,387	3,003
	물량	152	4	1	0	48	1,924	5,237	2,581
수출비중 (3개년)	금액	3.4	0.0	0.0	0.0	0.3	16.8	50.3	29.2
	물량	2.8	0.0	0.0	0.0	0.2	17.3	52.4	27.2

(4) 국가별 수출시장 동향

①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단감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중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도 단감을 수입·유통함
 -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은 수입시기가 4월~6월 중으로 한국산과 경합하지 않고 중국산은 인공탈삼한 감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당도가 낮고 장기운송시 유통매장에서 품질유지가 어려움
 - 이스라엘산은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로 직접 수입이 어려워 싱가포르를 통해 소량 우회 수입되고 있으며, 종교적 반감으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으나, 최근 소비자들의 현대시장 선호와 수입회사를 통한 위탁구매 방식으로 대형유통매장 유통량 증가
 - 대형유통매장 유통량은 전체 수입단감의 30% 정도로, 나머지 70%는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
- 꾸준한 시식행사로 한국산 단감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며 소비촉진을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함

② 싱가포르·홍콩

-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한국·중국·일본·이스라엘·뉴질랜드·호주 등으로부터 연간 수입함
 - 중국 멜라민 파동 이후 중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높은 가격의 일본산 대체제로 한국산 단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산 단감이 고급매장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데에 반해 한국산 단감은 주로 벌크판매가 되어 고급과실 이미지가 없고 중국산과 경쟁하는 실정임
 - '11년 3월 일본 지진 발생 및 방사능 누출의 우려로 한국산 단감이 일본산 시장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③ 미국·캐나다

- 미국산 감의 주요 생산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Hachiya와 Fuyu종이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현지 미국인 보다는 아시아계가 주요 고객임
 - 주로 빵이나 푸딩 또는 소스로 사용되며 감을 즐겨먹는 미국인은 많지 않음

- 중국계 인구가 많은 캐나다에서 감 소비량이 많음
- 미국에서 판매되는 단감은 크게 캘리포니아산(9월~12월), 이스라엘산(12월~익년 3월), 칠레산(8월~9월)이 유통되고 있어 한국산 단감은 출하 시기상으로 미국산·이스라엘산과 경쟁이 불가피함
- 미국에서 유통되는 단감은 뉴욕 헨츠포인트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량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산이 60%, 캘리포니아산 25%, 칠레산이 15% 점유함
- 캐나다는 미국산 단감 수입·유통량이 가장 많으며 중국·대만·이스라엘에서도 수입·유통됨

3) 단감산업 문제점

(1) 생산 부문

- 단감은 난 온대성 과실로서 경쟁력 있는 재배지역은 남부 일부지방에 국한
 - 경남(55%)·전남(29%) 지역에서 만생종인 부유품종을 집중재배
 - 연평균 기온이 13~15℃로 높아야 떫은맛이 없어짐
- 재배면적의 94%가 만생종이고, 부유(富有) 품종이 약 80% 이상이 되어 수확시기 노동력의 경합과 홍수 출하의 원인이 됨

<표 4-49> 경남 단감의 품종별 재배면적 추이

(단위 : 천ha)

품 종	1992	1997	2002	2007	2009	2010
계	13.5(100)	22.6(100)	21.1(100)	16.3(100)	14.8(100)	15.2(100)
부 유	11.0(81.6)	18.6(82.2)	17.2(81.6)	13.4(82.1)	12.1(82.0)	12.6(83.0)
차 량	1.4(10.4)	2.4(10.5)	2.1(10.1)	1.7 (10.5)	1.5(10.4)	1.6(10.2)
서촌조생	0.3(2.4)	1.0(4.6)	1.1(5.2)	0.7 (4.5)	0.7(4.4)	0.6(4.2)
기타	0.8(5.6)	0.6(2.7)	0.6(3.0)	0.5 (2.9)	0.5(3.2)	0.5(3.4)

자료: 농림수산물부, 각년도

- 단감 주산지(경남) 80% 정도가 경사도 15%이상에 재배됨에 따라 기계화가 곤란하여 재배단계에서 비용절감에 애로

<표 4-50> 경남 단감의 주산지 경사지 과원 비율

구 분	7% 경사도 이하	7~15% 경사도	15%경사도 이상
비율(%)	7.5	13.3	79.2

- 단감의 10a당 노동시간은 136.9시간으로 다른 과실에 비해 적은 편이나 수확 및 수확후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많음
 - 수확 및 수확후 관리(선별·저장·포장)에 투입하는 시간은 전체 노동시간의 46.7%로 다른 과종에 비해 많은 편
 - 수확후 관리의 기계화와 자동화로 노동시간 및 비용절감이 필요함

<표 4-51> 경남 단감의 단계별 노동시간 (기준 : 시간/년/10a)

구 분	시간 합계	재배단계				수확 및 후 관리단계			기타
		시비	정지 전정	결실 관리	제조 방제	수확	운반 저장	선별 포장	
자가노력	98.3	9.1	18.0	18.1	13.2	18.9	5.5	11.8	3.8
고용노력	38.6	1.0	1.9	6.4	1.1	19.9	1.7	6.2	0.4
계	136.9	10.1	19.9	24.5	14.3	38.8	7.2	18.0	4.2
합계		68.8(50.3%)				64.0(46.7%)			4.2(3.1%)

자료 : 농촌진흥청, 2007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8.9

(2) 경영 부문

- 단감의 10a기준 조수입은 2,370천원, 경영비는 869천원(자가 노력비 등 제외), 소득은 1,501천원으로 주요과실 중 낮은 편임
 - 단감의 조수입 중 경영비 비중은 36.7% 수준
 - 경영비 구성: 중간재비(비료·농약·재료비 등) 74%, 고용노력비 23.6%, 임차료 등 2.4%
- 규모화, 전문화된 전업농이 영세소농에 비해 소득이 높음
 - (기술수준) 기술력이 높은 상위농가와 평균농가를 비교하면 경영비는 비슷하나 조수입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상위 10%농가는 평균농가보다 77.1%, 상위 20%농가는 평균농가보다 56.9%

높은 소득을 보임

- 경영규모 면에서 단감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이 0.48ha로서 전업농이라고 할 만한 1ha 이상은 9.5%에 불과

<표 4-52> 경남 단감의 농가 경영규모별 비율

구분	1ha 미만							1.0~2.0	2.0~3.0	3.0 이상	합계
	0.1ha 미만	0.1~0.2	0.2~0.3	0.3~0.5	0.5~0.7	0.7~1.0	계				
농가수	5,349	11,124	5,948	5,507	3,095	2,060	33,083	2,319	609	547	36,558
(%)	14.6	30.4	16.3	15.1	8.5	5.6	90.5	6.3	1.7	1.5	100

자료 : 농촌진흥청, 2007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8.9

- 3.0ha이상 농가는 0.5ha미만 농가보다 생산비가 32.2% 절감됨
- 경영 규모별 소득(10a당)은 1~2ha, 또는 3ha 이상 농가에서 높아 규모화가 필요
- 0.5ha이하 농가보다 3ha이상 농가는 27.2%, 2ha이상 농가는 22.5% 높은 소득을 보임

<표 4-53> 경남 단감의 농가 경영규모별 소득

(단위 : 천원 /10a)

구 분	~0.5ha	~1.0ha	~2.0ha	~3.0ha	3.1ha이상
조수입	2,140	2,442	2,431	2,336	2,399
경영비	858	946	859	904	769
소 득	1,282	1,497	1,571	1,432	1,630

자료 : 농촌진흥청, 2007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8.9

(3) 유통·가공 부문

- 단감은 저장성이 낮아 수확후 관리단계에서 비용발생이 많고, 저장 및 유통중 급속한 품질저하로 손실 발생이 많음
 - 단감의 저장기간은 다른 과실에 비해 짧은 편이며 생과는 상온에서 1주, 저온저장 상태에서 4주, 포장후 저온저장시 3~5개월까지 저장 가능
 - 저장력 향상을 위해 MA(Modified Atmosphere:포장) 저장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작업비용 증가와 장기 저장시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됨
- 저장비용은 저장창고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른 과실의 저장비보다 다소 높은 편임

- 보통 15kg 골판지 상자당 2,300원이며, 12월말을 초과할 경우 월 1,000원을 추가 (창고까지 수송료 200원 별도)
- 단감 출하단계는 생산자 → 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 → 도매상 → 소매상을 통해 이루어 짐
- 출하는 50%가 생산자단체, 10%는 산지유통인을 통해 처리되고, 40%는 저장후 출하되어 타 과실에 비해 저장비율이 높음

<표 4-54> 경남 단감의 출하경로별 비율

(단위 : %)

구분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복숭아
생산자단체	26	29	50	59	50	54
산지공판장	27	12	-	-	-	44
산지판매장	-	-	-	25	-	-
산지유통인	13	22	10	11	50	-
저 장	34	37	40	-	-	-
소비자	-	-	-	5	-	2

자료 : 주요농산물유통현황(농수산물유통공사)

- 단감의 평균 유통비용은 약 49.6%, 농가수취율은 50.4%임
- 단감 소비자가격 2,236원의 유통비용은 1,109원, 농가수취가격은 1,127원
- 유통비용 49.6% 중 간접비(22.4%)와 소매단계(24.5%) 비율이 높음

<표 4-55> 경남 단감의 경로별 유통비용

(단위 : %, 원/kg)

구 분		전 체 평 균	창원→서울			진주→서울		
			평 균	(1)A경로	(2)B경로	평 균	(1)A경로	(2)C경로
농 가 수 취 율		50.4	51.1	51.7	45.5	49.6	48.8	57.0
유통 비용		49.6	48.9	48.3	54.5	50.4	51.2	43.0
내용 별	직 접 비	18.9	18.1	18.1	18.1	19.9	19.6	22.0
	간 접 비	21.8	22.4	22.1	24.8	21.0	21.8	14.0
	이 윤	8.9	8.4	8.1	11.6	9.5	9.8	7.0
단계 별	출하단계	12.8	12.2	11.6	17.8	13.6	13.0	18.8
	도매단계	12.3	12.5	12.5	12.5	12.0	13.0	3.2
	소매단계	24.5	24.2	24.2	24.2	24.8	25.2	21.0
가격	농가수취가격	1,127	1,124	1,138	1,000	1,130	1,123	1,198
	소비자가격	2,236	2,200	2,200	2,200	2,280	2,300	2,100

주) A경로 : 생산자(단체)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B경로 : 생산자 → 산지유통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C경로 : 생산자(단체) → 농협유통 → 하나로클럽 → 소비자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함
- 단감은 대부분 생과로 소비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이 전무함

(4) 수출 부문

- 단감 수출전문단지의 부족과 규모의 영세성
 - 수출단지의 경우 참여농가별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수집·선별·포장비용 등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수출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
 - 단감을 소량 단위로 수출할 경우 내륙 및 해상수송비 등 수출물류비용이 높아지므로 물류비를 줄이기 위하여 소형 컨테이너 개발과 보급, 저온저장 수송체계 등 일관적 수출물류시스템의 구축과 활성화가 요구되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수출상품 기술부족과 상품의 다양성 부족
 - 수출단감의 규격화 및 포장수준이 미흡하여 수출단감의 고품질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부족함
- 생산 농가들은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고 수출물량이 늘어날수록 품질이 떨어지는 점과 부분적으로 불량품을 섞어 수출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단감의 수출환경이 국내시장의 수급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 수출물량확보가 어려우며 수출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여 수출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전문적 수출업체의 부족으로서 영세한 유사수출업체가 난립하여 물량확보, 수출규격품 수집, 시장정보의 수집 및 활용, 수출시장에서의 경합과 경쟁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수출시장 해외 마케팅 부족
 -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정보수집이 미흡하며 마케팅 능력이 떨어짐
 - 주요 수출국의 농산물 수급동향 및 검역 등 수입관리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

5. 전라남도 마늘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 현황

(1) 농업부문 총생산

- 전남의 농림어업은 부가가치 절대금액의 성장세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GRDP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임
- 전남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007년 3조 3,969억 원에서 2011년 3조 3,624억 원으
로 350억 원 가량 감소함
- 전남 농림어업의 비중은 2007년 7.15%에 달했으나 2011년 5.11%까지 급감함

<표 4-56> 전남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GRDP	47,497,309	51,361,314	55,148,397	57,973,983	65,759,684
농림어업 GRDP	3,396,876 (7.15%)	3,412,165 (6.64%)	3,215,249 (5.83%)	3,199,384 (5.52%)	3,362,403 (5.11%)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 ()는 전체 GRDP 대비 구성비임.

(2) 경지 현황

- 전남 경지면적은 2006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연평균 0.8%씩 감소
- 특히 논 면적은 2006년 21만ha에서 2011년 19만ha까지 연평균 2.1%씩 급감

<표 4-57> 전남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6~'11 평균 증감율
경지	316,235	313,408	311,081	309,803	307,261	303,975	-0.8
논	211,740	209,658	205,738	198,874	194,764	190,588	-2.1
밭	104,495	103,750	105,343	110,929	112,497	113,387	1.6

자료: 국가통계포털, 농업면적조사

주: ()는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감율임.

(3) 농가 및 농가인구

- 전남 농가인구 및 농가수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 전남 농가수는 2007년 19만 가구에서 2011년 16만 7천 가구로 연평균 2.6%씩 감소
 - 전남 농가인구는 2007년 45만 2천명에서 2011년 38만 명으로 연평균 3.4%씩 급감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감소폭이 큼

<표 4-58> 전남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구분	전라남도	
	농가수	농가인구
2007	190,387	452,324
2008	185,569	438,961
2009	181,090	425,154
2010	170,213	395,835
2011	167,086	379,767
연평균 증감률(%)	-2.6	-3.4

자료: 통계청 (KOSIS), 농어업총조사

2) 마늘산업 현황

(1)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우리나라 마늘 생산면적 및 생산량은 2000년 이후 마늘시장 개방 확대에 지속적 인 감소 추세
 - 마늘의 재배면적은 '00년 44,941ha에서 '05년 31,766ha, '11년 24,035ha로 지난 11년간 87% 감소
 - 생산량 또한 '00년 474,388톤에서 '11년 295,002톤으로 60.8% 감소
 - 향후 한·중FTA로 마늘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예상
- 전남의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0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00년 20,787ha를 정점으로 '05년 12,588ha, '11년

7,546ha로 지난 11년간 175%나 감소

- 전남 마늘 생산량 또한 '00년 227,826톤에서 '05년 146,607톤, '11년 84,197톤으로 171% 감소
- 이에 따라 '00년 전국 마늘생산량의 46.2%를 점유했으나, '05년 39.6%, '11년 31.4%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전남 이외 마늘 주산단지인 경남, 경북, 제주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 또한 '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나 전남에 비해 감소추세가 덜한 상황
 - 경남 : 6,736ha('00년) ⇒ 4,923ha('11년)로 약 36.8% 감소
 - 경북 : 5,287ha('00년) ⇒ 3,518ha('11년)로 약 50.3% 감소
- 10a당 생산량은 기계화 보급과 종구 개량 등으로 '00년 1,056kg에서 '11년 1,227kg로 증가
 - 특히 경북과 경남의 경우 마늘육종 및 기계화 영향으로 10a당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증가 추세가 큼
 - 전남의 경우 마늘 연작장해 등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0a당 생산량이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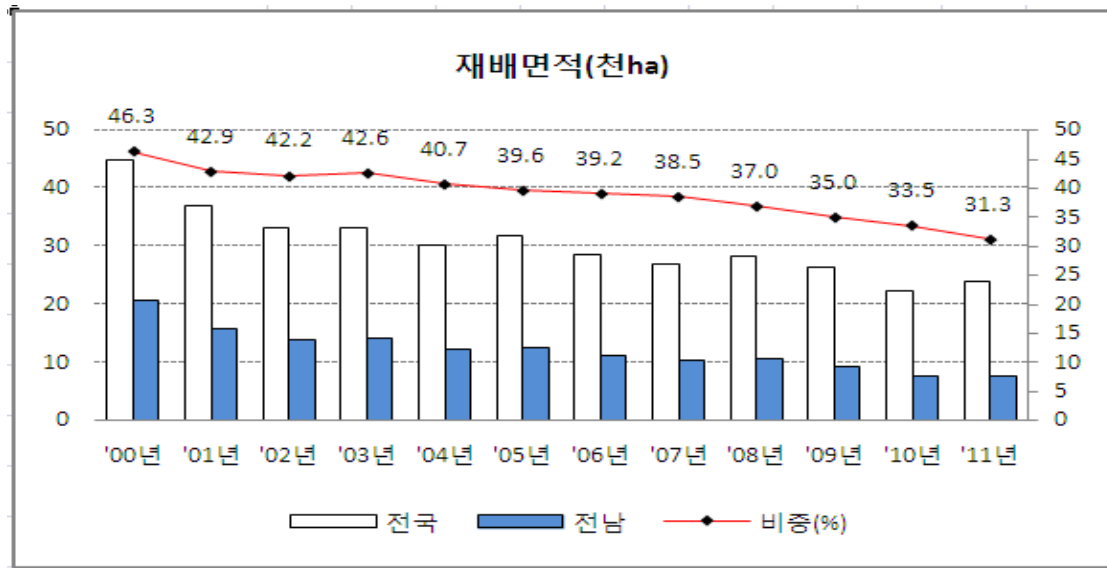
<표 4-59> 마늘의 지역별 생산 면적 및 생산량

(면적: ha, 10a당 생산량: kg, 생산량: 톤)

시도별	2000			2005			2011		
시도별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면적	10a당 생산량	생산량
계	44,941	1,056	474,388	31,766	1,180	374,980	24,035	1,227	295,002
서울특별시	7	596	42	6	650	39	2	740	15
부산광역시	32	678	217	17	818	139	29	1,446	419
대구광역시	359	1,043	3,744	254	1,479	3,757	212	1,380	2,925
인천광역시	199	723	1,439	118	596	703	77	539	415
광주광역시	54	958	517	41	746	306	25	846	211
대전광역시	42	557	234	11	700	77	15	725	109
울산광역시	42	890	374	33	788	260	66	1,111	733
경기도	1,072	596	6,389	735	654	4,807	666	740	4,930
강원도	661	681	4,501	368	714	2,628	440	866	3,810
충청북도	1,029	661	6,802	662	665	4,402	674	588	3,962
충청남도	3,919	986	38,641	2,759	1,095	30,214	2,363	1,047	24,748
전라북도	974	908	8,844	685	984	6,743	673	890	5,990
전라남도	20,787 (46.2)	1,096	227,826 (48.0)	12,588 (39.6)	1,165	146,607 (39.1)	7,546 (31.4)	1,116	84,197 (28.5)
경상북도	5,287	964	50,967	3,868	1,316	50,892	3,518	1,254	44,110
경상남도	6,736	1,090	73,422	5,268	1,223	64,423	4,923	1,499	73,812
제주도	3,741	1,348	50,429	4,353	1,355	58,983	2,806	1,590	44,614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4-1> 전남 마늘의 재배면적 변화추이



- 마늘 주산단지는 난지형과 한지형으로 구분되며, 난지형은 제주도, 전남, 경남 일부, 한지형은 충남과 경북 일부가 해당
 - 난지형의 경우 전남 고흥, 신안, 해남, 무안군과 경남 남해군, 창녕군 및 제주 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해당됨
 - 한지형의 경우 충남 서산, 태안과 경북 의성군이 해당됨
- 마늘 주산시군 중 난지형은 전남 고흥군, 경남 창녕군, 한지형은 경북 의성군의 점유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난지형의 경우 전남 고흥군과 경남 창녕군이 전국 재배면적의 8.5%를 점유하여 가장 높았고, 전남 신안(8.2%), 제주 서귀포(6.5%), 전남 해남(6.0%), 경남 남해(4.7%) 순임
 - 한지형의 경우 경북 의성군이 6.2%를 점유하여 가장 높았고, 충남 태안(3.3%), 서산(2.8%) 순임
 - 고흥군과 신안군의 재배면적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창녕군과 해남군의 점유비중은 소폭 상승함

<표 4-60> 마늘의 주산지 시군별 재배면적 현황

(단위 : ha, %)

주산지	2009		2010		2011		2012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26,323	100.0	22,414	100.0	24,035	100.0	28,278	100.0
충남 서산	693	2.6	620	2.8	725	3.0	790	2.8
충남 태안	796	3.0	636	2.8	763	3.2	922	3.3
전남 고흥	2,580	9.8	2,167	9.7	2,069	8.6	2,396	8.5
전남 해남	1,492	5.7	1,447	6.5	1,412	5.9	1,692	6.0
전남 무안	861	3.3	593	2.6	661	2.8	896	3.2
전남 함평	400	1.5	270	1.2	295	1.2	349	1.2
전남 신안	2,549	9.7	1,785	8.0	1,774	7.4	2,319	8.2
경북 영천	864	3.3	803	3.6	919	3.8	1,011	3.6
경북 군위	266	1.0	229	1.0	288	1.2	461	1.6
경북 의성	1,483	5.6	1,268	5.7	1,495	6.2	1,750	6.2
경남 창녕	1,861	7.1	1,539	6.9	2,066	8.6	2,409	8.5
경남 남해	1,696	6.4	1,397	6.2	1,356	5.6	1,341	4.7
경남 합천	544	2.1	528	2.4	470	2.0	669	2.4
제주 제주	1,570	6.0	1,372	6.1	1,217	5.1	1,171	4.1
제주 서귀포	1,878	7.1	1,602	7.1	1,589	6.6	1,845	6.5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마늘 생산량 및 생산액

○ 마늘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마늘의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보면 난지형이 77.0%, 한지형이 23.0%를 점유하여 난지형 비율이 매우 높은 편
- 마늘의 10a당 평균 단수는 1,227kg이었고, 이 중 난지형 1,358kg, 한지형 790kg로 난지형이 한지형에 비해 높았으나 '09년을 기점으로 10a당 단수가 감소 추세

<표 4-61> 전남 마늘의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 톤)

구 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재배면적		44,941	31,766	28,416	26,323	22,414	24,035
비율 (%)	난지형	78.0	79.9	80.9	79.5	78.5	77.0
	한지형	22.0	20.1	19.1	20.5	21.5	23.0
단 수		1,095	1,180	1,321	1,357	1,212	1,227
	난지형	1,160	1,273	1,418	1,480	1,314	1,358
	한지형	690	807	912	879	838	790
생산량		474	375	360	357	272	295

자료 :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전남 마늘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 10a당 단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

- 우리나라 난지형 마늘의 대표적 주산단지인 전남의 생산면적은 고령화와 수입개방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며, 특히 10a당 단수는 1,116kg으로 전국 평균 및 난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저하

<표 4-62> 전남 마늘의 생산면적 및 10a당 수량

(단위: ha, 톤, kg)

구 분	생산면적	생산량	10a당 수량
2005	12,588	146,607	1,165
2006	11,211	125,079	1,116
2007	10,373	129,070	1,244
2008	10,486	131,204	1,251
2009	9,168	121,022	1,320
2010	7,484	82,909	1,108
2011	7,546	84,197	1,116

자료 : 전남통계년도, 2012

- 2011년 전국 마늘 생산액은 1조 1,440억 원이며, 이 중 전남은 28.5%에 해당하는 3,265억 원을 생산
- 경남 2,862억 원, 제주 1,730억 원, 경북 1,711억 원 등
- 한·중 FTA 체결로 주요 마늘 생산지인 전남, 경남에 가장 큰 타격이 발생하고, 제주 및 경북도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4-63> 마늘 시도별 생산액(2011년)

시도별	2011			
	면적(ha)	10a당 생산량(톤)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계	24,035	1,227	295,002	1,144,018
서울특별시	2	740	15	58
부산광역시	29	1,446	419	1,625
대구광역시	212	1,380	2,925	11,343
인천광역시	77	539	415	1,609
광주광역시	25	846	211	818
대전광역시	15	725	109	423
울산광역시	66	1,111	733	2,843
경기도	666	740	4,930	19,119
강원도	440	866	3,810	14,775
충청북도	674	588	3,962	15,365
충청남도	2,363	1,047	24,748	95,973
전라북도	673	890	5,990	23,229
전라남도	7,546	1,116	84,197	326,516
경상북도	3,518	1,254	44,110	171,059
경상남도	4,923	1,499	73,812	286,243
제주도	2,806	1,590	44,614	173,013

주 : 2011년 평균 마늘가격 3,718원/kg 적용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3) 마늘 수출 동향

○ 마늘 수출은 '0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

- 마늘 수출은 '01년 11,399톤을 수출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03년 중국과의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 이후 재배면적이 급감하면서 수출량이 현저히 감소 추세
- 전남의 경우 마늘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10년과 '11년 각각 17톤과 5톤을 수출하여 전국 대비 18.7%와 4.4% 점유

<표 4-64> 전남 마늘의 수출량

(단위 : 톤,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135	11,399	5,388	567	632	203	468	97	233	134	91	113
전남	0.5	-	-	-	-	1	-	-	-	12	17	5
비중	0.4	-	-	-	-	0.5	-	-	-	9.0	18.7	4.4

자료 : KITA

○ 마늘 수출액도 수출물량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미미한 수준

- 전국 마늘 수출액은 '01년 3,033천 달러를 기록한 이후 '11년 544천 달러 수준으로 감소
- 전남 마늘 수출액도 '10년 150천 달러, '11년 55천 달러 수준에 불과해 전국 대비 21.8%와 10.1%를 점유

<표 4-65> 전남 마늘의 수출액

(단위 : 천 달러,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144	3,033	1,281	514	488	358	707	298	1,170	649	688	544
전남	3	-	-	-	-	10	-	-	-	61	150	55
비중	2.1	-	-	-	-	2.8	-	-	-	9.4	21.8	10.1

자료 : KITA

4) 마늘산업 문제점

(1) 생산 부문

○ 마늘 생산규모의 영세성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 마늘농가의 84.8%가 1ha 이하의 경영규모를 보유하고 있어 호당 경영 면적이 매우 영세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1ha 이상 경영규모는 2%에 불과
- 생산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및 종구비 등의 경영비용 증가로 경쟁력 약화

- 연작재배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저하
 - 전남의 마늘 재배는 주로 밭작물로 재배되어 연작에 따른 선충과 응해 및 흑색 써음균핵병 발병으로 생산성 저하 및 품질저하 발생
 - 전남의 '10년 10a당 평균 단수는 1,108kg으로 전국 평균 1,212kg에 비해 적고, 난지형 평균 단수인 1,314kg에 비해 저하
- 질소과다 투입에 따른 품질저하
 - 마늘 재배 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질소를 과다 투입함으로써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폰지 마늘 생산증가
- 마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재배 기술 미흡
 - 개방화에 대응해 마늘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농약 및 유기재배 등 친환경재배 기술이 정립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기술개발 체계 미흡
-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품종 개발 미흡
 - 마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종구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대부분의 농가는 마늘 생산에 필요한 종구를 자가 생산하여 우량 품종 확보 미흡
- 마늘은 가격탄력적 작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급 불안 품목
 - 마늘은 타 작물에 비해 적정 수급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주기적으로 발생
-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미흡
 - 마늘생산비 비목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종구비와 노동력비로 마늘 시장 개방에 대응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파종 및 수확시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필요
 - 마늘 기계화를 위해서는 파종 시 대형농기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배단지의 규격표준화가 필요하고, 수확 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이 필요

<표 4-66> 마늘의 생산비

(단위: 원)

생산비항목별	2000		2005		2011	
	10a당	100kg당	10a당)	100kg당	10a당	100kg당
생산비 합계	1,225,808	112,446	1,423,161	117,047	2,295,367	182,349
직접생산비	1,060,901	97,319	1,214,451	99,882	2,022,313	160,657
종묘비	352,615	32,347	373,039	30,680	823,972	65,458
비료비	103,701	9,513	133,051	10,943	231,115	18,360
농약비	20,966	1,923	40,478	3,329	63,433	5,039
기타 재료비	22,151	2,032	27,167	2,234	44,440	3,530
영농광열비	2,020	185	3,683	303	6,768	538
농구비	28,263	2,592	28,345	2,331	33,647	2,673
영농시설비	1,748	160	4,312	355	6,681	531
수리(水利)비	28	2	426	35	263	21
노동비	529,409	48,565	587,111	48,286	745,818	59,250
위탁영농비	0	0	16,839	1,385	54,528	4,332
기타비용					11,647	925
간접생산비	164,907	15,127	208,709	17,165	273,054	21,692
토지용역비	103,530	9,497	129,660	10,664	154,765	12,295
자본용역비	61,377	5,630	79,049	6,501	118,288	9,397
부산물생산비	38,353	0	42,009	0	57,943	
부산물공제생산비	1,187,455	0	1,381,152	0	2,237,424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 유통 부문

○ 규격출하 미흡

- 마늘이 시장에 출하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으로 행하여 오고 있는 방법으로 통마늘의 줄기를 자르지 않거나 길게 잘라 50개, 100개씩 묶어 접단위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마늘 줄기를 2~5cm 정도 되게 자른 후 골판지 상자나 그물망에 넣어 출하하는 방법이 있음
- 정부에서는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을 제정하여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나 유통종사자에게 규격출하를 권장하고 있으나 농가단계 규격출하 미흡으로 상품성 저하
- 마늘의 등급규격은 특, 상, 보통 등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기준 중에서 중결점구는 병충해구, 부패변질구, 형상불량구, 상처입구 짝이 난 것 등이며 경결점구는 마늘 쪽수가 1개 이상이 떨어져 나갔거나 외피에 기계적인 손상을 입은 것 또는 뿌리턱이 빠진 것을 의미함

<표 4-67> 마늘의 등급 규격

항목/등급	특	상	보 통
날 개 의 고 르 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것의 혼입이 5%이내 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것의 혼입이 10%미만인 것	별도로 정하는 크기구분 표상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상인 것
형 상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각 마늘쪽이 충실하고 고른 것	품종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각 마늘쪽이 충실하고 고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색 택	품종고유의 색택을 뛰어나게 갖춘 것	품종고유의 색택을 양호하게 갖춘 것	
건 조	마늘통 및 마늘쪽 겉껍질의 건조가 양호한 것	마늘통 및 마늘쪽 겉껍질의 건조가 양호한 것	마늘통 및 마늘쪽 겉껍질의 건조가 양호한 것
신 선 도	뛰어난 것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것
열 구 (난지형)	10%이내인 것	25%미만인 것	25%이상인 것
중결점구	없는 것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경결점구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자료 : 국립농산물검사소

□ 마늘 선별 기준

- 좋은 마늘은 크기와 모양이 균일한 한지형 육쪽마늘을 선별한 것, 참흙에서 채배한 것으로 표피가 담갈색 또는 담적색인 것, 쪽수가 적고 짜임새가 단단하고 알차 보이는 것, 인편을 감싸고 있는 겉껍질과 속껍질 부착이 매우 강한 것, 구의 외형이 둥글고 깨끗하며 고유의 매운맛이 강한 것, 햇마늘은 건조가 양호하여 저장성이 강하고 저장마늘은 싹이 돋지 않고 육질이 견고 하며 공각이 없고 변색되지 않은 것 등임
- 좋지 않은 마늘은 난지형 마늘로서 여러쪽(10쪽이상)이며 마늘통이 작은 것, 모양이 바르지 못하고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며 깨끗해 보이지 않은 것, 짜임새가 엉성해 보이면서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 표피색이 흰색 또는 암적색, 검은색인 것, 저장마늘은 싹이 트고 썩은 공간이 많고 육질이 노랗게 변질되거나 쭈글쭈글한 것 등 임

○ 유통경로 과다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

- 마늘의 유통경로는 농가 ⇒ 수집상 ⇒ 농협 ⇒ 시군유통회사 ⇒ 대형유통업체 ⇒ 중도매인 ⇒ 소비자 등 6단계(난지형)로 유통되는 구조

- 마늘의 유통경로가 타 작물에 비해 복잡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저하

<표 4-68> 마늘의 유통마진 내역

(단위 : %)

구 분		한지형 마늘		난지형 마늘	
		의성→서울	서산→서울	무안→서울	고흥→서울
농가수취율		53.3	50.0	61.7	65.0
유통마진		46.7	50.0	38.3	35.0
마 진 내 용	직접비용	12.6	12.4	7.3	6.9
	간접비및 이윤	34.1	37.6	31.0	28.1
단계별 마 진	출하단계	20.0	21.4	9.7	8.9
	도매단계	13.4	14.3	7.2	6.6
	소매단계	13.3	14.3	21.4	19.5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

- 포전매매 성행에 따른 시장교섭력 저하
 - 마늘의 판매방법은 재배면적에 따라 연도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20~30%이고, 산지수집상이나 저장업체의 판매가 70~80%정도로 농가 직접판매 비율이 다른 작목보다 낮은 작물
- 마늘 유통조절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미흡
 - 수확직후 홍수출하에 의한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체나 조직을 통하여 산지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한 출하조절이 필요하나 산지유통시설 부족으로 한계
 - 건조, 저장, 선별시설 부족으로 품질수준이 낮고, 품질규격화 및 상품성 미흡
 - 깎마늘 등 가공시설 및 기능성마늘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브랜드 상품개발 및 부가가치 제고에 어려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자 조직 미흡
 - 생산농가 조직화 미흡으로 시장변화에 효율적인 대응 역량 부족

(3) 소비 및 가공 부문

- 마늘 1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마늘의 기능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생산으로 향후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

- 마늘 1인당 소비량은 '00년 10.6kg에서 '10년 7.5kg으로 연평균 3% 감소³⁴⁾
- 마늘 생산비 상승 및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김치소비 감소로 소비 감소
- 최근 마늘에 알리신, 펙틴, 비타민B·B1·C 등의 황산화물질의 다량 포함과 기능성 효능이 알려지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마늘 구입형태는 주대마늘의 비율이 높은 편
 - 주대마늘 36%, 통마늘 33%, 깎마늘 24%, 다진 마늘 7% 순
 -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동 다진 마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전체 다진 마늘 수요는 감소 경향
 - 구입장소는 '재래시장'(35.2%), '백화점/대형마트'(31.4%), '동네가게, 슈퍼마켓, 상가'(31.0%)에서 주로 구입
 - 선택 기준으로 '신선도'(1순위: 36.5%, 종합: 59.1%)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16.6%), '맛'(14.5%), '안전성'(11.5%), '생산지역'(11.2%) 등으로 응답
- 건강기능성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최근 마늘의 항암효과 홍보로 인하여 마늘관련 상품의 판매경쟁이 심화
 - 건강식품, 의약품의 원료로서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 피로회복 음료, 비타민오일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추세
 - 기능성 상품을 생산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마늘주산지 브랜드 및 원료 확보를 위한 연대 전략 강화

(4)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마늘산업은 지난 2001년 한중마늘분쟁 시 '03년 ~ '07년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08년 이후 사업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
 - 마늘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종구갱신사업, 유기질 비료, 병해충방제 약제공급 등 사업 추진 중이나 재정이 열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 마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된 주아 및 종구 갱신사업 지원 사업 중단으로 우량종류 생산 미흡

34)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738

- 마늘수확기와 장마철이 겹쳐 건조불량으로 인한 품질저하, 농가 포전 거래 시 중간상인 위주의 가격정책 등 생산농가의 소득 저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마늘 건가시설 지원 필요
- TRQ 수입물량 14,467톤(기본관세율 50%), 물가 안정용 추가물량 12,000톤(저할당 관세 10%) 수입으로 마늘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산 마늘수입 억제 대책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개입찰에 의해 낙찰 받은 깐 마늘은 원산지가 구별되지만 도·소매상을 거치면서 일부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중국산을 섞어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원산지 단속이 필요함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 현황

(1) 농업부문 총생산

- 2010년 기준 제주지역 GRDP는 10조 4,687억 원으로 전국의 0.9% 수준
- 이 중 농림어업부문은 1조 8,022억 원으로 제주지역 GRDP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농림어업부문의 평균 2.6%보다 7배 높은 수준임

<표 4-69> 제주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GRDP(억 원)	80,960	87,359	88,330	96,478	104,687
전국대비(%)	0.9	0.9	0.9	0.9	0.9
GRDP 성장률(%)	2.1	6.4	-3.4	7.2	2.6
산업구조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16.5	16.4	17.6	19.0	18.4
광제조업	3.0	3.4	3.1	4.1	4.3
건설업	9.5	9.3	8.0	8.1	8.0
서비스업	71.0	70.9	71.3	68.8	69.3

자료: 통계청 (KOSIS)

(2) 경지 현황

- 2011년 기준 제주지역 경지면적은 총 59,030ha(제주시 30,298ha<51.3%>, 서귀포시 28,732<48.7%>)로 전국 경지면적(1,698,040ha)의 3.5%에 해당됨

<표 4-70> 제주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8	2009	2010	2011	'08~'11 증감율
경지	56,693	59,485	59,255	59,030	4.1
논	84	58	33	33	-60.7
밭	56,609	59,427	59,222	58,997	4.2

자료: 통계청 (KOSIS), 농업면적조사

(3) 농가 및 농가인구

- 2011년 기준 제주지역 농가수는 38,497호, 농가인구는 114,061명(축산농가 포함)이며, 이는 2007년 대비 농가수 7.7%, 농가인구 8.6% 증가하였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대비 농가비율이 2011년 현재 21.8%로 전국의 6.3%보다 약 3.4배 높은 수준임

<표 4-71> 제주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호, 명, %)

구분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인구 비율	
			제주	전국
2007	35,735	105,004	18.8	6.8
2008	34,645	102,192	18.2	6.8
2009	35,388	104,802	18.4	6.6
2010	37,919	114,752	21.5	6.4
2011	38,497	114,061	21.8	6.3
'07 대비	7.7	8.6	-	-

자료: 통계청(KOSIS), 농어업총조사

- 한편 2010년 기준 제주지역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는 69천명으로 도내 취업인구 306천명의 22.5%를 차지하여, 이 역시 전국 농림어업 분야 취업인구 5%보다 약 4.5배 높은 수준임

(4) 농가소득 및 조수입

- 제주지역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으며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현재 전국 평균 호당 농가소득은 연간 3,015만원인 반면, 제주지역은 3,638만원으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농외소득의 경우 역시 2011년 현재 전국 평균이 1,295만원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1,528만원으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의 전국대비 비율을 보면, 농가소득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국보다 12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외소득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 가장 낮은 118%를 기록하였음

<표 4-72> 제주의 호당 농가소득의 변화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전국			제주			전국대비	
	농가소득	농외소득	비중	농가소득	농외소득	비중	농가소득	농외소득
2007	3,197	1,107	34.6	4,119	1,673	40.6	128.8	151.1
2008	3,052	1,135	37.2	3,767	1,537	40.8	123.4	135.4
2009	3,081	1,213	39.4	3,504	1,518	43.3	113.7	125.1
2010	3,212	1,295	40.3	4,108	1,659	40.4	127.8	128.1
2011	3,015	1,295	43.0	3,638	1,528	42.0	120.7	118.0

자료: 통계청 (KOSIS), 농어업총조사

○ 한편 제주지역 농산물 조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기준 제주지역 농산물 조수입은 1조 5,549억 원으로 2010년 대비 0.9%, 2007년 대비 50.0% 증가하였음
- 이 중 감귤이 7,642억 원으로 전체 농산물 조수입의 49.1%를 차지하여 제주지역의 주요 작물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채소류가 5,553억 원으로 35.7%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3> 제주의 농산물 조수입 변화 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11 (A)	2010 (B)	2009 (C)	2008 (D)	2007 (E)	증감	
							A/B	A/E
농 산 물	합계	15,548	15,406	12,238	11,669	10,367	0.9	50.0
	과수류	소계	7,986	7,044	6,250	4,574	13.4	74.6
		감귤	7,642	6,685	6,000	4,319	14.3	76.9
		기타과수	344	359	250	255	-4.2	34.9
	식량작물		1,502	1,685	1,411	1,060	-10.9	16.2
	채소류		5,553	6,022	3,827	3,258	-7.8	51.4
	특용작물		343	469	526	531	-26.9	-30.1
	화훼류		164	186	224	258	-11.8	-52.0

자료: 통계청 (KOSIS), 농어업총조사

2) 감귤산업 현황

(1) 입지조건

- 제주지역은 노지감귤 재배 북한계선에 위치해 있으며, 당도·산함량의 조화를 이룬 감귤의 최적생산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토양은 대부분 화산회토이고 연간 강우량은 1,400~1,700mm, 일조시간 2,000시간 내외임
- 감귤의 영문명 Citrus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과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구연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³⁵⁾
 - ☞ 때문에 감귤의 신맛은 구연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신맛이 있어야 감귤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소비자는 적당한 당도를 가지면서 신맛이 그다지 높지 않은 감귤을 선호
 - ☞ 캐나다 등 서구에서는 적절한 산도의 감귤을 선호, 향후 감귤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유리

(2) 재배 및 생산 현황

- 감귤 재배면적 및 농가수는 199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2011년 기준 감귤 재배면적은 20,608ha로 도내 경지면적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귤 재배 농가수는 30,797호로 제주도 전체 농가수의 80.0%를 차지함
- 감귤은 우리나라 과수 총생산량의 1/4 수준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수임
 - 최근 12년(2000~2011)간 연평균 감귤 생산량은 약 647,500톤으로 전 세계 감귤류 생산량의 0.6%(FAO 집계)를 차지함
- 감귤 조수입은 최근 5년(2007~2011)간 연평균 6,194억 원 수준
 - 감귤산업의 조수입은 1996년산 6,079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귤가격이 대폭 하락했던 1999~2002년산 4개년 평균은 3,437억 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음
 - 그렇지만 2003년부터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실시와 감귤품질의 향상³⁶⁾, 대규모

35)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2012~2016), 2011.

36) 1997~2002년까지의 당산비 평균은 8.6이었는데, 2003년의 당산비는 8.9, 2004년 9.8, 2005년 9.2, 2006년 8.9 등으로 높았으나 2007년은 7.8로 매우 낮았음

폐원³⁷⁾, 감귤 생산량 조정을 위한 감산정책 등으로 2003년산 4,704억 원 2004년산 6,105억 원, 2005년산 6,006억 원을 기록하는 등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이후 2007년산은 과잉생산과 품질하락으로 4,318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산 6,313억 원으로 다시 회복되었음
- 2009년산은 741,014톤이라는 많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감귤품질이 양호하고 감귤 유통명령제 발령에 힘입어 6,011억 원, 2010년산은 적정생산에 힘입어 6,684억 원, 2011년산은 제주 감귤산업 역사상 최초로 7천억 대를 돌파하였음

<표 4-74> 제주 감귤의 재배면적, 생산량, 조수입

구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조수입(백만원)	재배 농가수(호)
1980년	14,094	187,470	54,500	19,996
1990년	19,414	492,700	315,100	25,616
1995년	21,605	614,770	433,447	26,589
1996년	25,802	479,980	607,932	36,055
1997년	25,781	693,200	400,862	36,055
1998년	25,860	543,980	515,798	36,212
1999년	25,823	638,740	325,709	36,073
2000년	25,796	563,341	370,811	36,590
2001년	25,408	646,023	361,667	36,296
2002년	25,207	788,679	316,494	35,078
2003년	24,560	645,587	470,415	33,957
2004년	22,048	595,591	610,491	31,233
2005년	21,430	661,992	600,639	30,659
2006년	21,382	631,324	660,288	30,747
2007년	20,965	747,376	431,883	31,005
2008년	20,937	592,160	631,325	31,027
2009년	20,898	741,014	601,113	31,200
2010년	20,747	568,478	668,484	30,905
2011년	20,608	588,054	764,158	30,797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실태 분석」, 각 년도

- 한편 최근의 제주 감귤산업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노지감귤 위주의 생산에서 탈피하여 고품질 만감류(한라봉 등)의 재배면적·생산량·조수입의 비율이 급격하

37) 2003~2004년 2년 동안의 폐원면적은 3,882ha, 투입된 예산은 1,126.9억 원이었으며, 참고로 1997~2007년까지의 총폐원은 4,664ha, 예산은 1,332억 원이었음

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재배면적 665ha(2000년 2.6%) → 1,701ha(2010년 8.2%), 생산량 10,617톤(2000년 1.9%) → 42,826톤(2010년 7.5%), 조수입 106억 원(2000년 2.9%) → 1,588억 원(2010년 23.8%)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4-75> 제주 감귤의 품종별 재배면적, 생산량, 조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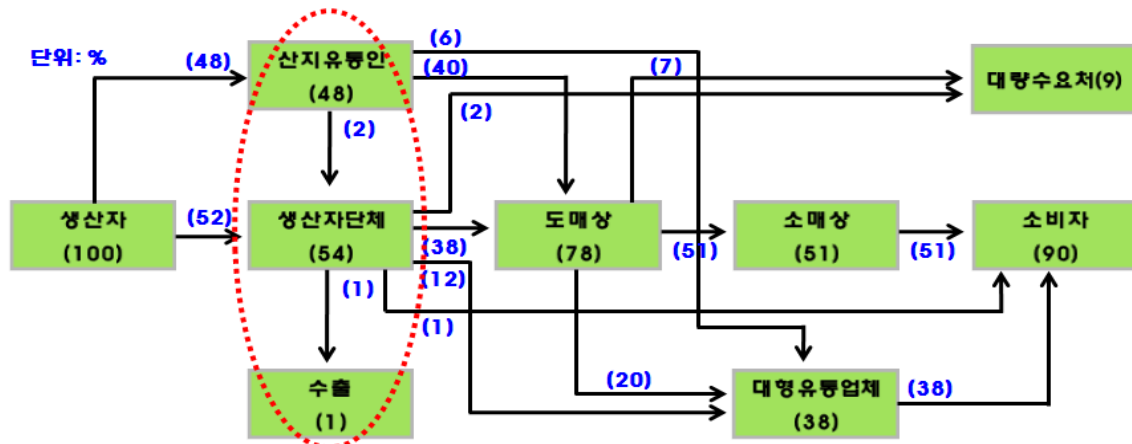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조수입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합계	25,796	21,430	20,747	563,341	661,992	568,478	3,708	6,006	6,68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지	24,261	19,068	17,921	518,154	600,511	480,565	2,860	4,463	4,052
	94.0	89.0	86.4	92.0	90.7	84.5	77.1	74.3	60.6
하우스	567	409	312	27,655	23,751	21,602	682	659	745
	2.2	1.9	1.5	4.9	3.6	3.8	18.4	11.0	11.1
비가림	303	484	813	6,915	13,434	23,485	60	181	300
	1.2	2.3	3.9	1.2	2.0	4.1	1.6	3.0	4.5
만감류	665	1,469	1,701	10,617	24,296	42,826	106	703	1,588
	2.6	6.9	8.2	1.9	3.7	7.5	2.9	11.7	23.8
(한라봉)	265	1,104	1,292	1,935	15,300	30,070	-	556	1,161
	1.0	5.2	6.2	0.3	2.3	5.3	-	9.3	17.4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실태 분석」, 각 년도

(3) 감귤 유통구조 및 처리 현황

- 감귤은 산지에서 주로 생산자단체(54%)와 산지유통인(48%)을 경유하는 2개 경로를 통해 유통되며 수출은 1%에 불과함
 -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인의 주 출하처는 도매시장(78%)과 대형유통업체(38%)
 -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감귤 중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물량 비중은 전체의 22.1%로 가장 높음
 - 가락시장의 감귤 반입 비중은 10월~익년 2월까지 전체의 91.4%를 차지하며, 월별로는 12월(28.1%)에 감귤 출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유통명령제에 의해 시장유통이 제한되는 감귤은 비상품 규격인 0~1번과 및 9~10번 과로써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22.3%임
 - 이를 물량으로 환산하면 2006~2009년 평균 생산량의 151,356톤에 해당되는데, 이는 2006~2009년 가락시장 감귤 평균 반입량(61,716톤)의 2.5배 많은 물량임

<그림 4-2> 제주 감귤의 유통 경로(2009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2010),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 감귤의 용도별 유통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도외상품으로 출하되는 노지감귤은 총 371,944톤으로 전체 물량의 63.2%를 차지함
 - 가공용으로 수매되는 노지감귤은 102,933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7.5%를 차지하며, 다른 과실에 비해 가공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기타(군납, 북한보내기, 도내 소비)로 출하되는 노지감귤은 110,429톤으로 전체 물량의 18.8%를 차지함
 - 한편 노지감귤 수출량은 2,748톤이며,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매우 미미한 실정임

<표 4-76> 제주 감귤의 용도별 유통처리 현황

(단위 :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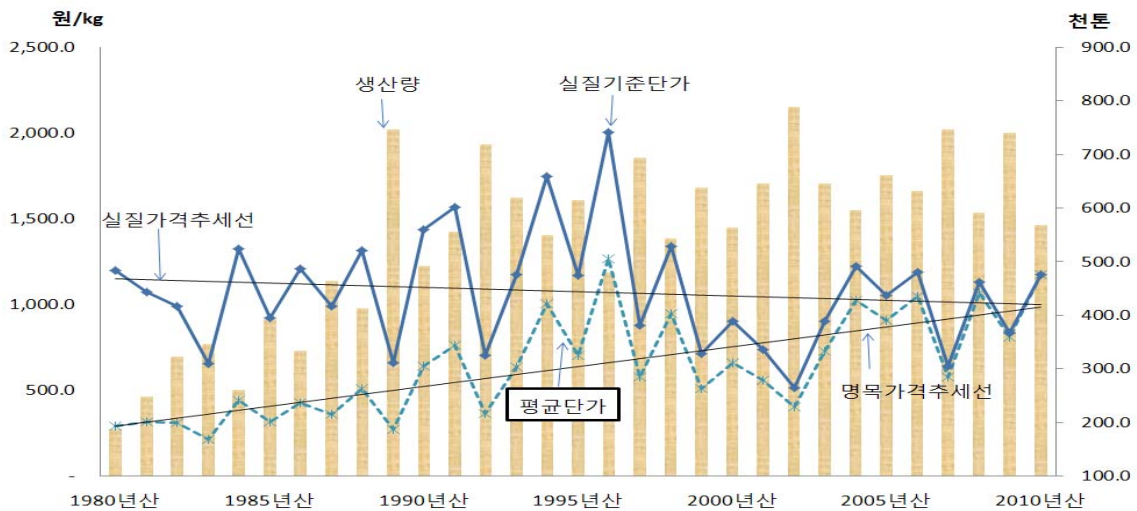
구분		2011년산		2010년산		2009년산		2008년산	
		처리량	비중	처리량	비중	처리량	비중	처리량	비중
계		588,054	100.0	568,478	100.0	741,014	100.0	592,160	100.0
도외 상품	소계	371,944	63.2	385,455	67.8	519,423	70.1	427,669	72.2
	계통	284,917	48.5	293,350	51.6	376,896	50.9	288,874	48.8
	일반	87,027	14.8	92,105	16.2	142,527	19.2	138,795	23.4
가공용		102,933	17.5	81,117	14.2	123,551	16.7	88,664	15.0
수출		2,748	0.5	1,553	0.3	2,735	0.3	1,370	0.2
기타		110,429	18.8	100,353	17.7	95,305	12.9	74,457	12.6

자료 : 제주농협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실태 분석」, 각 년도

(4) 가격동향

- 단위(kg)당 명목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가격³⁸⁾ 기준으로는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다만, 실질가격은 2003년 이후 장기 추세를 회복)
- 명목가격은 생산량과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³⁹⁾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3년 이후 유통조정명령제 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출하조정정책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임
- 특히 2004~2006년, 2008년, 2010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한 1994~1996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그림 4-3> 제주 감귤의 연도별 생산량 및 단가^{1),2)}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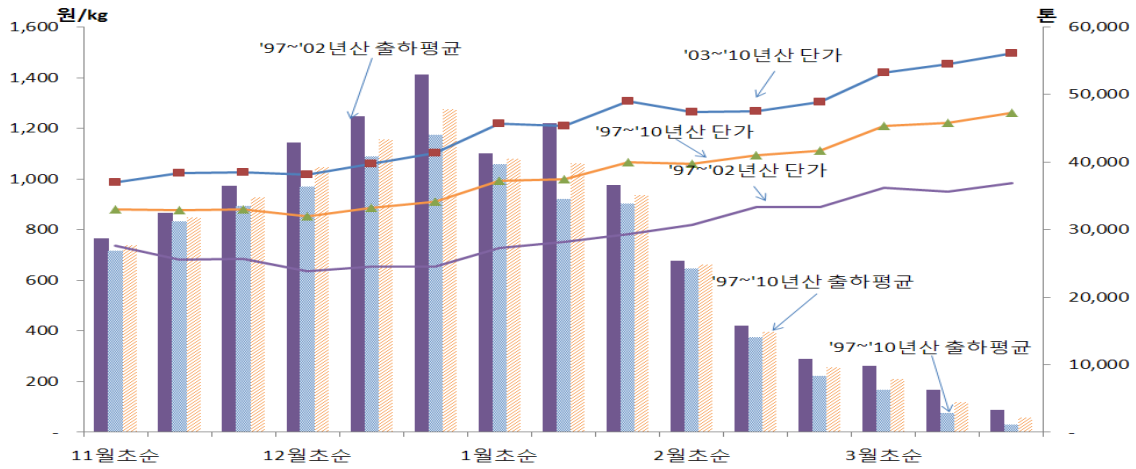
주 : 1) 단위당 가격(원/kg) = 조수입 - 생산량, 2) 실질기준단가는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한편 제주감귤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지온주 감귤의 1997~2010년산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출하시기별 추이를 보면, 성출하기인 11월~12월 중에는 kg당 900원선에서 횡보하다가 출하량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12월 하순부터 출하 종료기인 3월 하순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이를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된 2003년 전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1997~2002년산은 출하초기부터 12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한 반면, 2003~2010년산은 출하초기부터 익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성출하 기간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임

38)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음

39) 1980~2010년 중 가격변동률과 생산량 변동률의 상관계수는 -0.83562임

<그림 4-4> 제주 감귤(노지온주)의 순별 출하 및 가격 추이



주 : 9대 공영도매시장 일평균 경락가격의 순별 단순평균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5) 감귤류 · 오렌지류 수입동향⁴⁰⁾

- 감귤류·오렌지류 총 수입량은 136,735톤이며, 이 중 오렌지류가 99.8% (오렌지 (신선/건조) 80.4% 차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총 수입액 1억 7,537만 달러)
- 감귤류 총 수입량은 295톤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총 수입액 128만 2,000달러)
- 과거 5년 동안 감귤류(신선/건조), 만다린 등 감귤의 원물 수입실적은 없었으며, 감귤류 가공품 및 가공 원료가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
- 오렌지류 수입량은 약 136,602톤 내외이며, 2005년 이후 연평균 3.3%의 감소율을 나타냄 (총 수입액 1억 7,409만 달러)
- 오렌지 (신선/건조)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칠레나 남아공으로부터도 일부 수입되고 있음
- kg당 수입단가는 미국 1.2달러, 칠레 1.0달러이며, 남아공은 1.4달러로 미국과 칠레에 비해 다소 높음
- 오렌지류 가공품의 경우, 오렌지주스(냉동) 수입비중은 브라질이 75.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19.2%, 이스라엘 3.2%를 차지함
- kg당 수입단가는 브라질과 이스라엘이 각각 1.4달러이며, 미국은 2.5달러로 브라질과 이스라엘에 비해 높은 수준임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pp. 64~68.

<표 4-77> 감귤류 및 오렌지류의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감 귤 류	감귤류(신선/건조)	0	1	0	0	0	0
	만다린(기타)	535	420	109	136	0	0
	감귤류(기타)	0	0	2	1	0	0
	잼, 제리, 마말레이드	122	336	116	328	125	472
	감귤류의 과실제조품 기타	4	25	4	12	1	7
	감귤류주스기타 ¹⁾	0	0	1	1	0	0
	감귤류주스기타(기타)	0	0	18	56	2	177
	기타정유(감귤류의 것)	1	39	5	170	12	485
	감귤류의 껍질(신선/냉동)	645	233	254	93	154	141
	귤나무	1	11	0	0	0	0
	소계	1,308	1,065	508	797	295	1,282
오 렌 지 류	오렌지(신선/건조)	99,017	63,360	123,048	120,377	110,055	130,943
	오렌지주스(냉동)	39,531	51,232	37,222	40,761	25,529	41,291
	오렌지주스 ²⁾	825	787	679	559	280	423
	오렌지주스(기타)	114	407	546	736	738	1,431
	소계	139,487	115,786	161,494	162,433	136,602	174,088
합계		140,796	116,851	162,002	163,230	136,897	175,370

주 : 1)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6) 수입형태 및 관세⁴¹⁾

- 현재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는 감귤류·오렌지류의 세번별 품목은 14개이며, 부류별로는 신선 및 건조, 가공품 및 가공원료, 육묘,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구분됨
- 신선 및 건조 감귤류의 현행 관세기준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 144%이며, 북한산의 경우 0%를 적용함
 - 기타 감귤류의 MMA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이며, MMA 초과 물량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고율인 144%로 일반 수입업체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음

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pp. 58~63.

<표 4-78> 감귤류 및 오렌지류의 수입형태 및 관세

(단위 : %)

구분	부류	품목명	HS 코드	기본세율	기준세율	양허세율
감귤류	신선/건조	감귤류	0805201000	50	160	144
		만다린(기타)	0805209000	50	160	144
		감귤류(기타)	0805900000	50	160	144
	가공품 및 가공원료	잼·과실제리 및 마말레이드	2007911000	30	59.2	45
		감귤류의 과실조제품 기타	2007919000	30	41.4	31.5
		감귤류주스기타 ¹⁾	2009319000	50	60	54
		감귤류주스기타(기타)	2009399000	50	60	54
		기타정유(감귤의 것)	3301190000	5	20	13
		감귤류의 껍질(신선/냉동)	0814001000	30	50	32.8
	육묘	귤나무	0602206000	8	20	18
오렌지류	신선/건조	오렌지	0805100000	50	99	50
	가공품(주스)	오렌지주스(냉동)	2009110000	50	60	54
		오렌지주스 ²⁾	2009120000	50	60	54
		오렌지주스(기타)	2009190000	50	60	54

주 : 1)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자료 : 관세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 감귤류의 가공품 및 가공원료는 잼, 제리, 마말레이드, 과실조제품, 주스, 정유, 껍질 등 다양하며 양허관세율이 13~54%로 낮은 수준임
- 신선 및 건조 오렌지는 기본세율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추천 및 미추천도 각각 50%이며, 북한산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신선 및 건조 오렌지의 MMA 물량은 57,017톤이며 적용관세는 50%임
- 한편 오렌지주스류는 기본세율 50%,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미추천 54%이며 북한산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표 4-79> 감귤류 및 오렌지류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단위 : 톤, %)

구분		1995	1996	1997	1998	2000	2002	'04~현재
오렌지	기준물량	19,202	23,403	27,605	31,807	40,210	48,614	57,017
	적용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기타 감귤류	기준물량	1,342	1,426	1,510	1,594	1,761	1,929	2,097
	적용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오렌지 주스	기준물량	43,333	36,667	30,000	-	-	-	-
	적용세율	50.0	50.0	50.0	-	-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 현재 감귤은 검역문제로 미국(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제외), 일본, 뉴질랜드에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거의 없음
- 우리나라 감귤에 대한 FTA 양허안을 살펴보면 거의 양허 제외이고 칠레는 추후 협상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미국은 장기철폐 규정

<표 4-80> 한국의 감귤 품목 FTA 양허내용

HS 코드	품목	칠레	싱가폴	EFTA	아세안	인도	미국	EU	페루
0805201000	감귤	DDA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이행 15년차 1월1일 무관세	제외	제외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재인용

(7) 검역동향⁴²⁾

- 우리나라는 감귤류(오렌지) 수입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함(국립식품검역원,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 감귤류(레몬 포함) 수입 허용국가는 미국(하와이주, 텍사스주, 플로리다 제외), 일본(큐슈, 류큐열도 제외), 뉴질랜드임
- 오렌지 수입 허용국가는 미국, 칠레, 이집트, 스페인, 호주, 남아공, 이스라엘 등이며 일부 품목에 한해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수입이 가능함
- 식물방역법상 중국산 만다린과 오렌지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품목에 대해 중국의 수입금지 해제 요청도 없는 상황임
- 더욱이 수입금지 해제요청을 하더라도 해충위험평가(PRA)가 빠르면 5년,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됨
- 중국이 우리나라로 수입검역 해제요청을 한 품목은 양벚, 여지, 용안, 사과, 배, 호박으로 총 6개 품목임
- 해충위험평가(PRA) 절차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수출국의 적극성이나 협약에 따라 진행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
- 따라서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감귤류 검역단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경우, 해충위험평가(PRA) 과정은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음

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pp. 58~63. 참조

- ※ 미국산 :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오렌지는 식품검역증에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카 리브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표기하여야 수입 허용
- ※ 칠레산 : 식물검역증에 *Septoria citri* 및 *Pantomorus cervinus*가 없음을 표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단지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한함
- ※ 이집트산 : 지정된 수출과원에서 생산된 오렌지에 한하며 생산지 혹은 수송중에 저온 처리를 해야 함
- ※ 스페인산 : 수출 전 혹은 수송과정에서 저온처리를 해야 함
- ※ 호주산 : 지정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며 수송중 저온처리
- ※ 남아공산·이스라엘산 : 지정된 수출단지에서 생산되고 수송 중 저온처리를 해야 함

3) 감귤산업 문제점

(1) 생산 부문

- 감귤 농가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 한계
 - 농가당 재배면적이 0.7ha 내외이며, 특히 0.5ha 미만인 농가 비율이 전체 농가 의 53.9%를 차지(반면, 2ha 이상인 농가는 3.6%에 불과)
 - 이는 경영비 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감 귤산업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품질 감귤 생산체계의 미정착
 - 과거 量위주의 생산체계에서 최근에는 質위주의 생산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 대부분의 농가들은 관수시설, 고당도 감귤 생산시설 등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흡한 수준
 - ☞ 즉 토양피복 재배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및 재배기술을 활용 하는 농가는 소수에 불과⁴³⁾
- 국내 감귤 종자 개발·보급 취약
 - 국내 감귤 종자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산 보급률은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실정
 - 이는 품종보호제도의 조기 도입 시 로열티 지급문제로 직결되는 등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43) 토양피복 재배는 감귤 품질 면에서 일반 노지(하우스) 감귤보다 좋지만, 재배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령 농가보다는 비교적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음

(2) 유통 부문

- 소규모 분산출하로 인한 유통효율성 저하와 품질관리체계 미흡
 - 작목반 위주의 소규모 분산출하(소량생산·소량출하)⁴⁴⁾로 인해 시장별·지역별 출하조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가격형성, 대형유통업체와의 시장교섭력에서 불리한 실정임
 - 특히 적재·운송·하역과정에서의 기계화율이 낮아 높은 감모율, 인건비 과다 발생, 하역작업 지연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공동출하가 미흡하다보니 감귤 선별도 선과장에서 개인별로 이루어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감귤 거점APC가 일부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은 불충분하여 품질위주의 출하시스템 미비로 유통혁신을 통한 생산부분의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2년 현재 대형 6개소(농협 3개소, 감협 5개소) 이외에도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나, 이들의 실제 처리물량은 10만 톤 규모로 전체 감귤 생산량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특히 품질을 당도와 산도 등 감귤의 내부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의 미비로 시장의 가격차별화 생산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브랜드 난립에 따른 감귤 이미지 훼손
 - 제주지역의 감귤 브랜드는 농협 브랜드가 총 35개(개소 당 1~3개 보유)이며, 이외에도 상인들이 사용하는 브랜드와 작목반별 중소브랜드 등 모두 합치면 약 150여개에 달함
 - 특히 중소브랜드로 출하되는 감귤은 상대적으로 감귤의 품질규격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소비지에서 전체 감귤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산지유통조직별 개별 등급, 개별 브랜드, 개별 판매의 감귤 유통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내외 시장에서 썬키스트(Sunkist), 돌(Dole)과 같은 다국적 과일 수출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임

44) 638개 선과장에서 분산출하(1개소 당 연간 600여 톤 규모)하고 있음

(3)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단기 행정중심의 정책으로 생산자단체의 역할 축소 및 농가의 자생력 결핍
 - 그 동안 행정중심의 감귤정책이 수행되어 오면서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축소되고, 특히 농가의 행정의존적 행태로 인한 감귤산업의 자율적 생산 및 출하조절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과잉생산의 우려시 행정이 직접 나서서 폐원, 간벌, 열매숙기 등의 사업에 공무원을 직접 동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미집행 등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단기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정책집행의 곤란으로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가 미약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 과잉생산 우려에 따른 폐원, 간벌, 열매숙기, 감귤생산직불제 등의 단기정책 사업에만 집중, 반면 고품질 안전생산 및 유통혁신을 통한 생산부분의 혁신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에는 미약함
- 유형의 시장가치중심으로 경관 및 환경보전 등 무형의 가치 배제
 - 눈에 보이는 감귤 생과 중심의 정책집행으로 경관자원으로서의 감귤의 가치, 대기정화 등 환경보전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무형의 Green 서비스의 가치에는 무관심(감귤의 경관적 가치 연간 600억 원 이상, 감귤의 환경보전적 가치 연간 1,800억 원 이상)⁴⁵⁾
 - 감귤의 경관 및 환경보전적 가치 등 감귤의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공정책이 개입한데도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45) 고성보. 2008.03.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감귤(원)의 경관가치평가”. 『농촌계획』 14권 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7. 인천광역시 약쑥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 현황

(1) 농업부문 총생산

- 인천광역시 농림어업의 GRDP는 1996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2006년 2,629억원 → 2010년 2,284억 원), 결과적으로 인천 전체 GRDP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0.62%에서 2010년 0.40%로 감소함
-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농림어업의 비중은 전국수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4-81> 인천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억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GRDP	433,110	477,799	478,273	502,556	568,641
농림어업 GRDP	2,689 (0.621)	2,481 (0.519)	2,393 (0.500)	2,493 (0.496)	2,284 (0.402)

주: ()는 전체 GRDP대비 농림어업 GRDP비중임

자료: 통계청 (KOSIS)

(2) 경지 현황

- 인천광역시의 논 면적은 1996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밭 면적은 2002년까지 감소하다 2006년 이후 증가(2009년 제외)한 것으로 파악됨
- 논과 밭의 비율을 전국수치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의 논 면적이 밭 면적보다 넓고 경지비율도 전국수치에 비해 높음

<표 4-82> 인천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1996	2006	2008	2009	2010	2011	08~11 증감율
계	28,705	23,019	21,882	20,630	20,406	20,319	-2.4
논	20,587	16,647	15,401	14,281	13,662	13,394	-4.5
밭	8,118	6,372	6,481	6,349	6,744	6,925	2.2

자료: 통계청 (KOSIS)

- 인천광역시의 가구당 경지면적은 전국평균 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와 전국의 가구당 경지면적 차이는 2006년 0.20ha에서 2009년에는 0.05ha, 2011년에는 0.01ha로 계속 격차가 적어지고 있어 인천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이 좁아진 것으로 파악

<표 4-83> 인천의 가구당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1996	2006	2008	2009	2010	2011	08~11 증감율
전국	1.34	1.45	1.45	1.45	1.46	1.46	0.2
인천광역시	1.34	1.65	1.69	1.50	1.47	1.47	-4.3

자료: 통계청 (KOSIS)

- 인천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⁴⁶⁾은 서구, 강화군, 옹진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강화군에 가장 넓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고 전국수치(63.2%)에 비해서도 높은 비중(70.0%)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표 4-84> 인천의 농업진흥지역

(단위 : ha, %)

구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비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전국	-	1,153,088	-	957,043	-	196,045	63.2
인천광역시	61,306	15,826	52,433	14,626	8,873	1,200	70.0
서구	3,000	750	3,000	750	-	-	-
강화군	55,040	14,385	46,339	13,233	8,701	1,152	-
옹진군	3,266	691	3,094	643	172	48	-

주 : 비율=농업진흥지역면적/경지면적

자료 : 인천광역시(2007), 인천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2007), 농림업 주요통계.

46)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1992년 12월부터 시행된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과 농업보호구역(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 목적)으로 구분됨.

(3) 농가 및 농가인구

- 인천광역시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1996년부터 대부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0년 현재 인천광역시 총가구수 대비 농가수가 1.4%, 총인구수 대비 농가인구가 1.4%로 같은 기간 전국 가구 수 및 인구수 대비 구성비(각각 7.7%, 6.8%)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4-85> 인천의 농가 및 농가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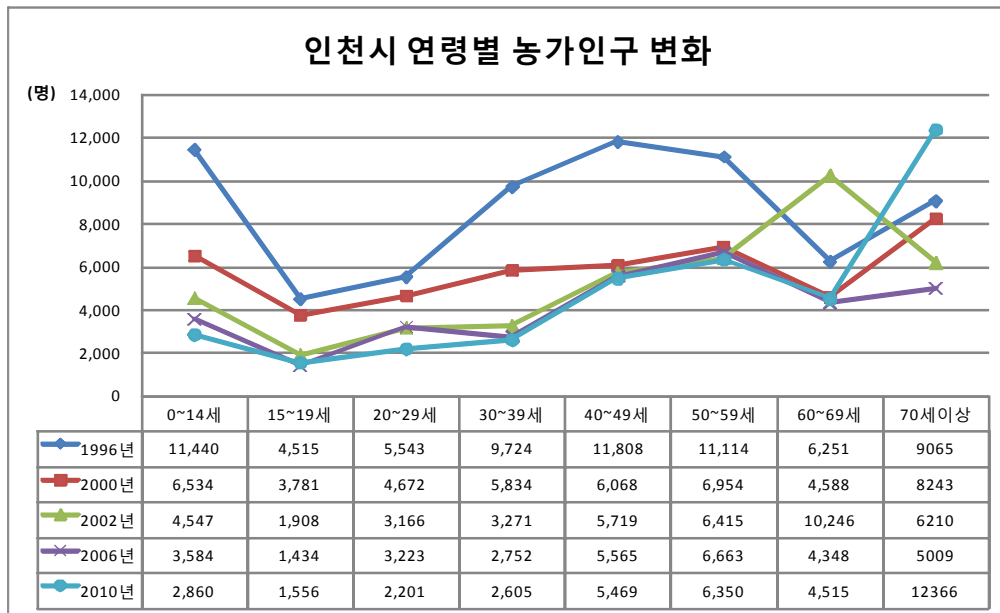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명)

구분	인천광역시	
	농가수	농가인구
1996	19,353	69,480
2000	15,357	46,674
2006	13,443	38,485
2007	14,038	41,788
2008	12,984	37,867
2009	13,724	39,652
2010	13,867	37,922

자료: 통계청 (KOSIS)

- 인천광역시의 가구당 농가인구는 1996년 3.6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가구당 농가인구수도 1996년 3.2명에서 2010년 2.5명으로 감소
 - 인천광역시와 전국수치를 비교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인천광역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 격차 또한 감소
-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천광역시의 농가인구는 40세 미만의 농가인구가 전체 농가인구 중 약 절반을(44.9%) 차지하고 65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17.6%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연령별 농가인구는 40세미만의 농가인구가 24.3%를 차지하고 60세 이상의 연령층도 44.5%를 차지하여 젊은 연령층이 급격히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

<그림 4-5> 인천의 연령별 농가인구 변화



인천광역시 (2007), 인천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통계연보.

(4) 생산 현황

가. 식량작물

- 인천광역시의 식량작물은 서류, 두류, 잡곡, 맥류, 미곡으로 구분되며 2010년 현재 전체 생산면적은 14,014ha이며 생산량은 59,500M/T로 1996년 19,675ha와 99,526M/T에 비해 각각 28.8%, 40.2% 감소
- 특히, 인천광역시 경지면적 중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71.1%를 차지하여 식량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국수치와 비교하면, 인천광역시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28% 생산량은 1.23%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생산실적은 저조한 편이며 특히, 면적에 비해 생산량이 저조함에 따라 영농의 효율성, 기계화가 필요
- 식량작물 중 미곡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비중이 각각 89.8%, 9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추세에 있으며 서류의 경우 재배면적에 비해 생산량이 높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996년과 2010년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미곡, 두류, 맥류의 생산량은 각각 42.3%, 73.5%, 79.5% 감소한 반면 서류, 잡곡은 각각 25.4%, 13.0%, 61.8% 증가하였음
- 이는 고구마와 감자 등 서류가 전통적인 주식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식으로 선호

도가 높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좋아 서류 생산농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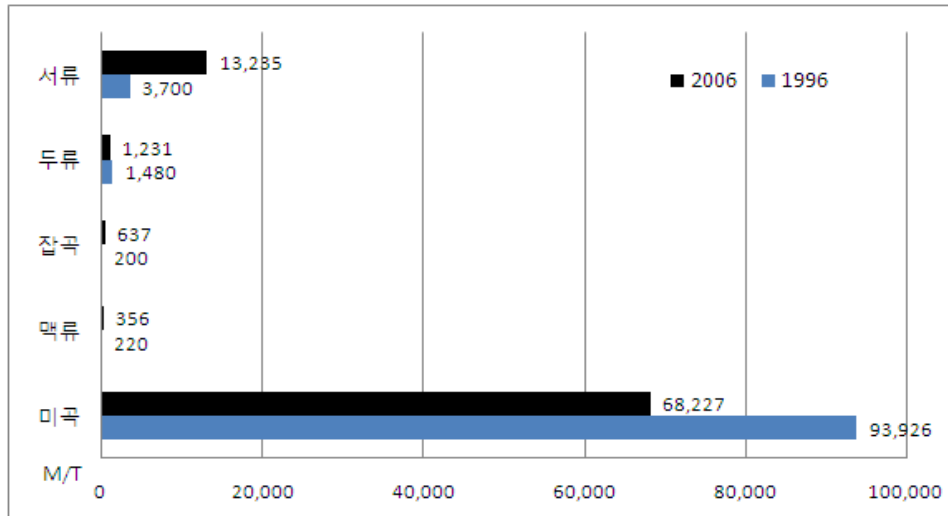
<표 4-86> 인천의 식량작물 생산 현황

(단위 : ha, MT, %)

구분		1996	2000	2002	2006	2010
계	면적	19,675	18,652	18,341	14,806	14,014
	전국구성비	1.47	1.41	1.41	1.39	1.28
	생산량	99,526	86,772	91,568	73,847	59,500
	전국구성비	1.09	1.47	1.64	1.55	1.23
미곡	면적	18,345	17,155	16,813	14,806	12,590
	구성비	93.2	92.0	91.7	90.4	89.8
	생산량	93,926	82,688	86,891	68,227	54,197
	구성비	94.4	95.3	94.9	92.4	91.1
맥류	면적	100	104	116	99	25
	구성비	0.5	0.6	0.6	0.6	0.2
	생산량	220	248	295	229	45
	구성비	0.2	0.3	0.3	0.3	0.1
잡곡	면적	60	134	128	124	95
	구성비	0.3	0.7	0.7	0.8	0.7
	생산량	200	361	353	634	226
	구성비	0.2	0.4	0.4	0.9	0.4
두류	면적	990	880	786	668	396
	구성비	5.0	4.7	4.3	4.1	2.8
	생산량	1,480	978	971	1,231	393
	구성비	1.5	1.1	1.1	1.7	0.7
서류	면적	180	379	498	679	908
	구성비	0.9	2.0	2.7	4.1	6.5
	생산량	3,700	2,497	3,058	3,526	4,639
	구성비	3.7	2.9	3.3	4.8	7.8

자료 : 인천광역시 (2001, 2007, 2011), 인천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2001, 2007, 2011), 농림통계연보.

<그림 4-6> 인천의 식량작물 생산량 비교



나. 채소류

- 인천광역시의 채소류 재배면적은 1996년 2,808ha에서 2000년 3,937ha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1,620ha로 감소하였고 생산량 역시 2000년 130,991M/T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 현재 42,680M/T로 감소하였음

<표 4-87> 인천의 채소류 생산 현황

(단위 : ha, M/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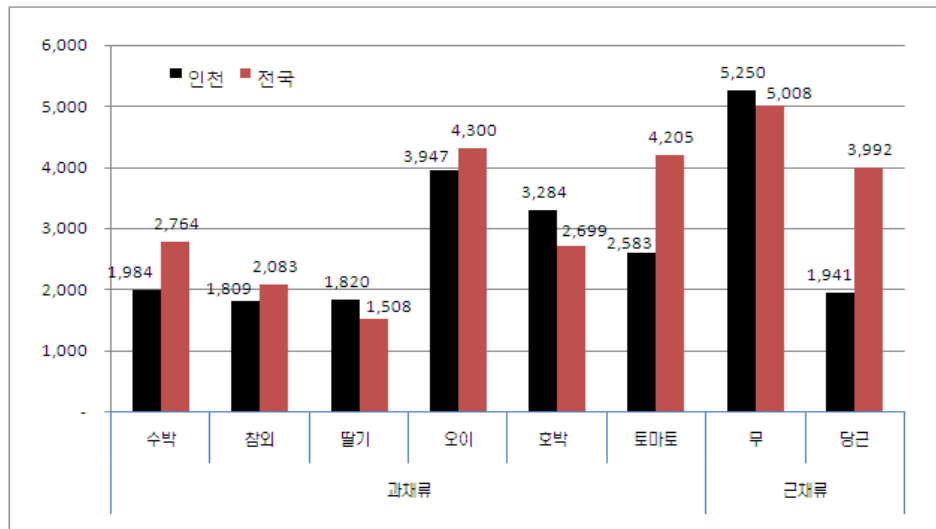
구분	인천광역시										전국 구성비	
	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6	2,808	70,019	247	9,461	676	32,477	437	17,617	1,448	10,464	0.78	0.74
2000	3,937	130,991	444	27,109	1,154	54,569	718	32,362	1,621	16,951	1.11	1.25
2002	3,437	94,541	479	25,117	1,047	36,802	496	17,671	1,415	14,951	1.13	1.05
2006	2,376	71,088	245	8,395	620	33,032	370	18,557	1,141	11,104	0.87	0.75
2010	1,620	42,680	197	7,674	349	16,179	206	8,875	868	9,952	0.71	0.54

자료 : 인천광역시 (2001, 2007, 2011), 인천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2001, 2007, 2011), 농림통계연보.

- 전국 재배면적과 생산량과 비교해보면 재배면적은 2002년 1.05%, 생산량은 2000년 1.25%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 현재 각각 0.54%에 머무름

<그림 4-7> 인천의 채소류(과채류 및 근채류) 생산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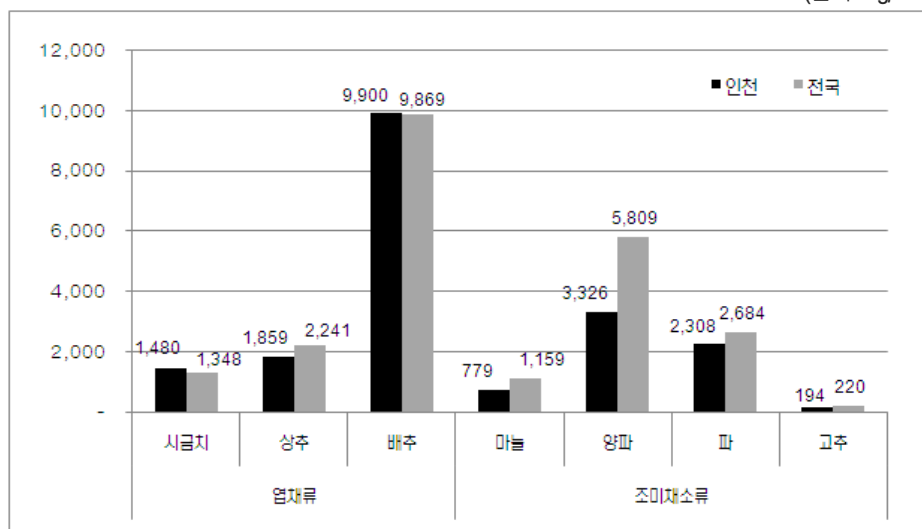
(단위: kg/10a)



- 과채류의 품목별 생산량을 전국 평균 수치와 비교해보면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는 전국 평균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나 딸기와 호박은 전국평균에 비해 각각 20.7%, 21.7%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
-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근채류는 무, 당근이며 무는 전국 평균 생산량 보다 4.8% 많이 생산되는 반면, 당근은 전국평균값에 비해 절반(51.4%) 정도의 생산량을 나타냄

<그림 4-8> 인천의 채소류(엽채류 및 조미채소류) 생산량 비교

(단위: kg/10a)



- 엽채류로는 시금치, 상추, 배추가 있으며 시금치와 배추는 전국평균 생산량에 약간 웃도는 수치(각각 9.8%, 0.3%)를 나타내는 반면 상추는 17.0% 적게 생산됨
- 조미채소류로는 마늘, 양파, 파, 고추 등이 있으며 전국평균 생산량에 비해 각각 32.7%, 42.7%, 14.0%, 11.8% 부족한 생산량을 나타냄

다. 특용작물

-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은 참깨, 들깨, 땅콩 등이 있으며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1996년 635ha, 432M/T에서 2000년 606ha, 489M/T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 현재 379ha, 494M/T의 생산실적을 나타냄
- 전국 생산실적과 비교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특용작물은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생산량(0.85%)이 재배면적(0.84%)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배면적에 미치지 못함

<표 4-88> 인천의 특용작물 생산 현황

(단위 : ha, M/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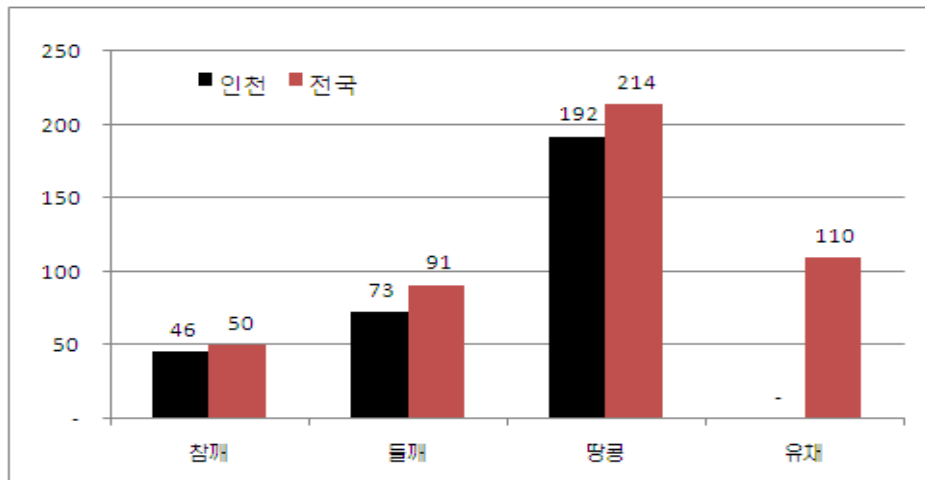
구분	인천광역시								전국 구성비	
	계		참깨		들깨		땅콩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6	635	432	235	85	376	286	24	61	0.79	0.66
2000	606	489	256	218	327	232	23	39	0.81	0.80
2002	558	396	210	90	316	259	32	47	0.73	0.71
2006	492	355	124	57	343	250	25	48	0.81	0.77
2010	379	494	78	33	267	350	34	111	0.58	0.81

자료 : 인천광역시(2001, 2007), 인천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2001, 2007), 농림통계연보.

- 특히, 특용작물 품목별 생산량은 전국평균 생산량에 비해 참깨 8.0%, 들깨 19.8%, 땅콩 10.3%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채를 생산하지 않아 그 수치가 누락(<그림 4-9> 참조)

<그림 4-9> 인천의 특용작물 생산량 비교

(단위: kg/10a)



라. 과실류

- 인천광역시에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의 과실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전체 생산실적은 1996년 316ha, 2,999M/T에 비해 각각 219.6%, 171.1% 증가하여 2010년에는 재배면적 694ha에서 5,131M/T를 생산하였음

<표 4-89> 인천의 과실류 생산 현황

(단위 : ha,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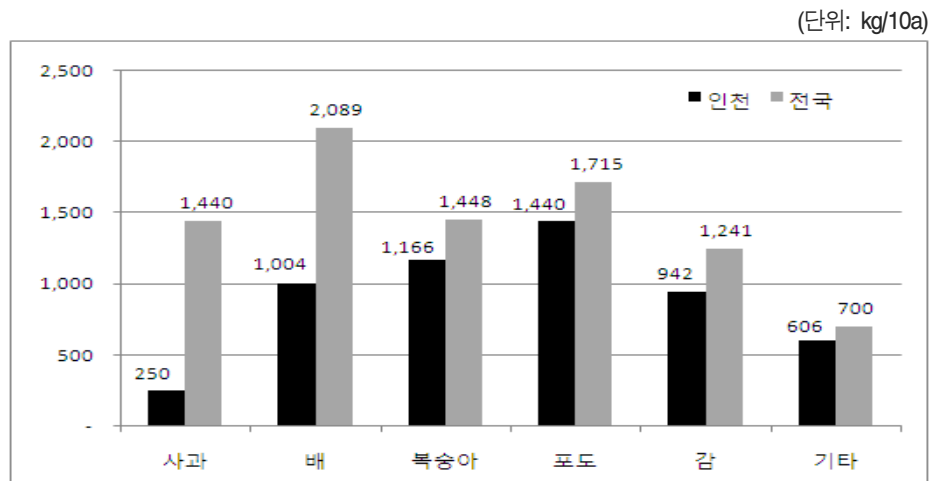
구분	인천광역시														전국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기타		구성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6	316	2,999	14	153	71	1,244	13	124	149	1,416	8	35	61	27	0.18	0.14
2000	403	4,225	1	-	93	950	20	169	200	2,738	29	130	59	232	0.23	0.17
2002	438	5,265	-	-	126	1081	25	371	212	3,417	25	214	97	320	0.30	0.12
2006	493	5,407	1	0	230	2,309	26	303	150	2,160	33	311	66	284	0.32	0.23
2010	694	5,131	26	0	258	1,192	24	269	138	1,729	61	538	187	1,403	-	-

자료 : 인천광역시 (2001, 2007, 2011), 인천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2001, 2007, 2011), 농림통계연보.

- 과실류 중 사과의 경우 1996년 재배면적 14ha, 생산량 153M/T에서 2010년 26ha, 0M/T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포도는 전체 과실생산량 중 23.2%를 차지하며 1996년 대비 22.1% 증가

- 다음으로 배가 전체 생산량 중 23.2%를 차지하며 1996년 대비 4.2% 감소하였고 복숭아, 감 등의 과실류도 생산량은 적지만 1996년과 비교하면 복숭아 216.9%, 감 306.6% 증가한 것으로 파악

<그림 4-10> 인천의 과실류 생산량 비교



- 전국 과실류 생산량 중 인천광역시 과실류 생산 비중은 1996년 14%에서 2006년 23%까지 증가하였으나 재배면적 10a당 과실류 생산량을 전국수치와 비교해 본 결과 모든 과실류가 전국평균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산여건개선 및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마. 화훼류

- 2010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화훼재배 농가는 140호이며 재배인력은 286명으로 전국 수치와 비교하여 각각 1.1%, 0.6%를 차지하며 재배시설은 69ha로 전국 7,185ha에 비해 1.0%를 차지하고 인천광역시 전체 출하량 중 76.2% (18,948천본)가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며 전국 출하량 중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 품목별 생산 및 판매현황에서 인천광역시의 재배면적은 63.5ha로 전국 7,687.5ha와 비교하여 0.8%를 차지하며 판매액은 총 8,949,487천원으로 전국 941,111,481천원과 비교하여 1.1%를 차지하여 인천광역시의 화훼재배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절화류가 인천광역시 전체 생산량의 81.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전국 비중 1.7%로 가장 많은 농가가 절화류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상수류, 초화류, 화목류 순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

<표 4-90> 인천의 화훼류 재배 현황

(단위 : 호, 명, ha, 천본(분)(주), %)

구분			인천광역시	전국	전국구성비
재배농가	계		140	12,440	1.1
	전업		113	8,682	1.3
	겸업		27	3,458	0.8
재배인력	계		286	45,320	0.6
	자가인력		231	26,928	0.9
	상시고용		55	18,392	0.3
재배시설	계		69	7,185	1.0
	시설		43	3,232	1.3
	노지		26	3,953	0.7
농가출하현황	계	농가수	140	12,440	1.1
		출하량	24,888	2,205,182	1.1
	도매시장 (법정 및 도매시장)	농가수	83	5,353	1.6
		출하량	18,948	1,432,362	1.3
	유사도매시 장	농가수	18	3,561	0.5
		출하량	5,654	521,334	1.1
	소매상	농가수	20	968	2.1
		출하량	34	48,254	0.1
	기타	농가수	19	2,558	0.7
		출하량	252	203,231	0.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7), 2006년 화훼재배현황.

<표 4-91> 인천의 화훼류 품목별 생산 및 판매 현황

(단위 : 호, ha, 천본, 천원)

구분		인천광역시	전국	전국구성비 (%)
계	농가수	140	12,440	1.1
	면적	63.5	7,687.5	0.8
	판매량	24,888	2,205,182	1.1
	판매액	8,949,487	941,111,481	1.0
절화류	농가수	74	4,415	1.7
	면적	35.3	2,670.5	1.3
	판매량	20,260	1,367,111	1.5
	판매액	4,620,948	390,368,470	1.2
분화류	농가수	27	3,599	0.8
	면적	7.8	1,262.7	0.6
	판매량	683	379,221	0.2
	판매액	2,862,700	327,010,322	0.9
초화류 (화단용)	농가수	5	357	1.4
	면적	5.4	454	1.2
	판매량	3,283	319,223	1.0
	판매액	1,033,989	100,555,561	1.0
관상수류	농가수	27	1,923	1.4
	면적	12.5	2,003.4	0.6
	판매량	140	44,626	0.3
	판매액	278,850	57,377,114	0.5
화목류	농가수	6	1,949	0.3
	면적	1.9	1,223.7	0.2
	판매량	22	55,269	0.0
	판매액	113,000	50,373,337	0.2
구근류	농가수	1	89	1.1
	면적	0.6	37	1.6
	판매량	500	5,654	8.8
	판매액	40,000	6,077,72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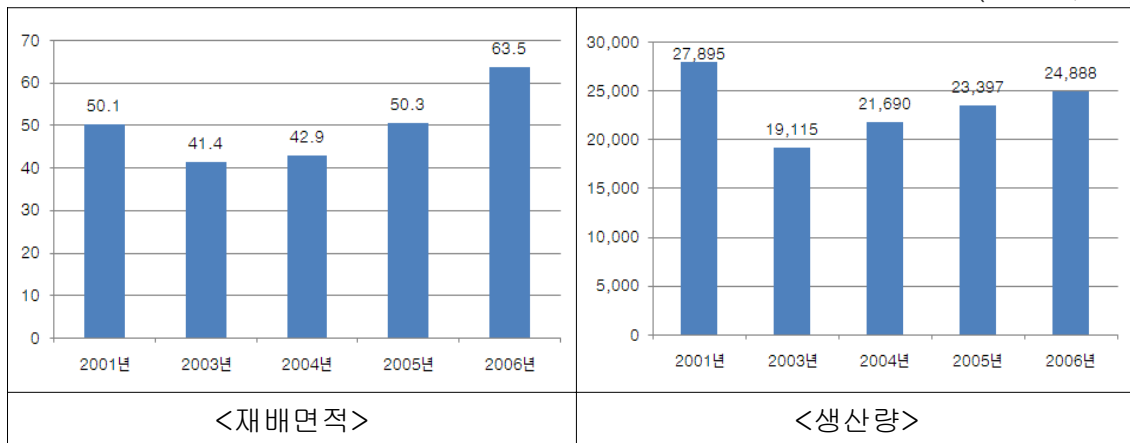
주) 종자·종묘류는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삭제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7), 2006년 화훼재배현황.

- 특히, 구근류의 경우 1개의 농가가 전국대비 8.8%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판매액은 0.7%를 차지하여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목별로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에는 절화류에는 장미, 국화, 백합, 안개초, 프리지아, 공작초, 소재류 등이 있으며 분화류에는 심비디움, 덴파레, 동양란, 풍란류, 호접란, 벤자민, 선인장, 소철 등이 있고 초화류에는 메리골드 등이 있음
 - 또한, 관상수류에는 향나무, 단풍나무, 주목, 회양목, 느티나무, 소나무류, 은행나무, 쥐똥나무, 구상나무, 야자, 종려류 등이 있으며 화목류에는 목련, 장미, 벚나무가 있고 구근류에는 아이리스 등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
- 인천광역시의 화훼류 재배현황 추이는 2001년부터 집계되었으며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01년 50.1ha에서 2006년 63.5ha로 26.7%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2006년 24,888천본으로 2001년에 비해 10.8% 감소

<그림 4-11> 인천의 화훼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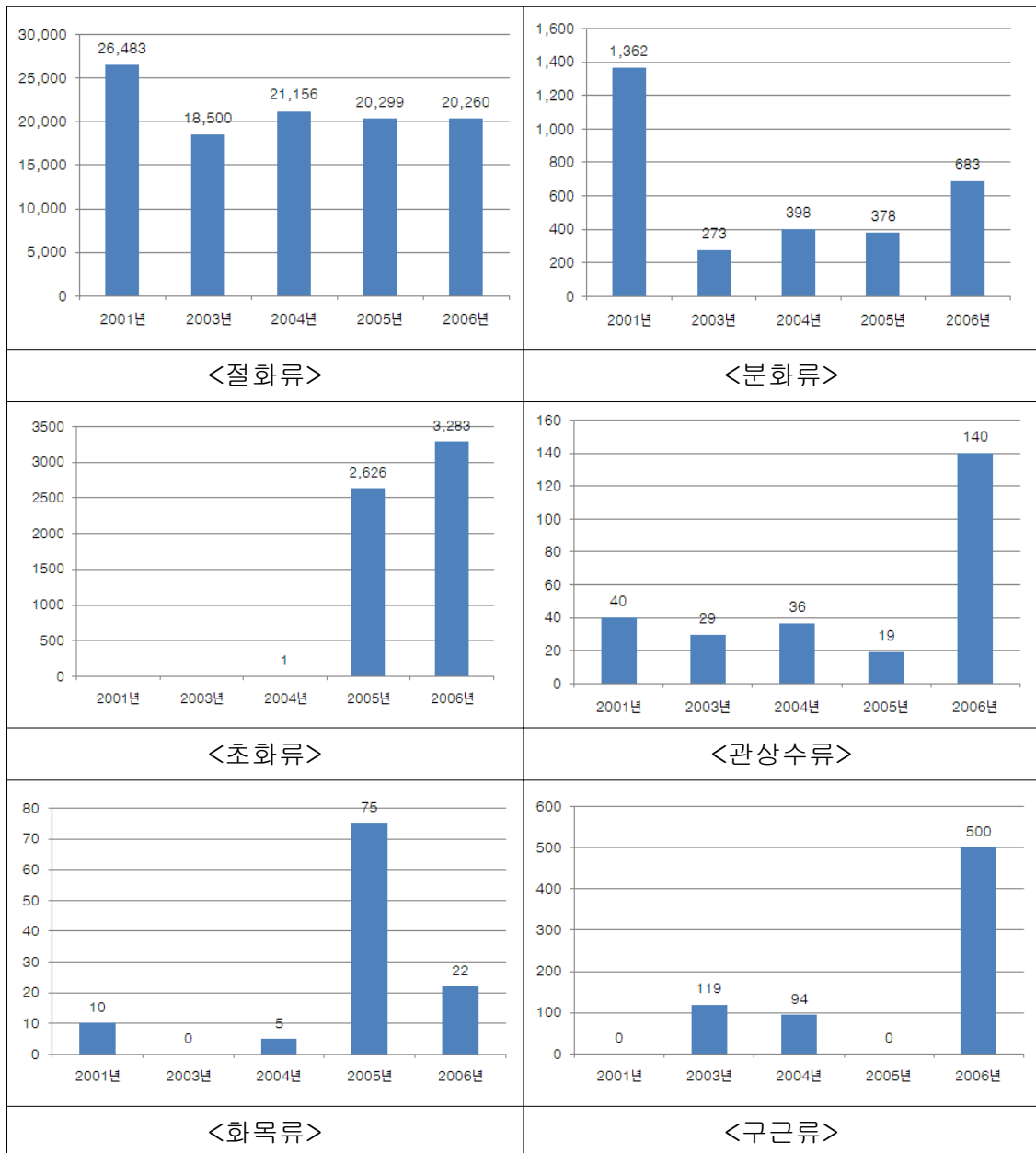
(단위 : ha, 천본)



- 품목별로 보면 2006년 현재 절화류, 분화류 생산량은 2001년과 비교하여 각각 23.5%, 49.9% 감소하였고 난류는 2003년에만 생산되었으며 초화류는 2004년부터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관상수는, 화목류는 각각 250%, 120% 증가하였고 구근류는 2006년에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

<그림 4-12> 인천의 화훼류 품목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본)



바. 친환경 농산물

○ 인천광역시에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업체 2곳이 있음

<표 4-92> 인천의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업체

구분	참손 한방란	트레비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역력 증진을 위해 인삼, 상황버섯, 목초액 등 먹임 - 자외선 살균처리 위생란 생산 - 인천 최초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순환형 농법 추구 - 환경조건에 맞추어 작물 선택 - 식물건강농업을 추구하여 소비자에게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제품	참손 한방란(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53개 품목 유기농산물 인증)
생산농가수	1농가	5농가(해들외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생산부지	5,000평	6ha
총생산량	3만여 개/1일	160톤
포장단위	10구, 15구, 30구, 40구	1.5~2kg, 4kg
홈페이지	www.참손농장.kr	www.trevi.co.kr
브랜드명		
관련 사진	  	 

사. 지역대표 농·특산물

-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주로 강화군에서 재배되며 2010년도 기준 인삼 재배면적은 129ha로서 전국 대비 0.6%를 차지하여 매우 저조.
- 강화인삼조합의 재배면적은 미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근별로 비교하면 5~6년근보다 저년근 인삼재배가 많으며 이는 강화인삼산업이 위축되어 2010년 현재 6년근보다 저년근 인삼 경작이 지배적

<표 4-93> 인천의 강화인삼 생산 현황

구분	'03	'04	'05	'06	'10	'06 전국대비(%)
재배농가(호)	117	203	227	307	477	1.9
재배면적(ha)	55	69	87	92	129	0.6
생산량(톤)	57	51	57	54	-	0.3
생산액(억 원)	22	20	23	21	-	0.3

- 인천광역시의 농·특산물은 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생산되며 지역적·기후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표 4-94> 인천의 농·특산물 현황

구 분		특 징
강화군	강화섬쌀	해양성기후의 영향과 일교차가 심하여 상품성이 뛰어남
	약쑥	화도면 문산리, 양도면 인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생산, 타지방산보다 부드럽고 향기가 좋음
	강화순무	강화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강도육미종의 하나, 유기농법으로 생산·재배
	강화인삼	고려인삼의 원산지로서 6년근 인삼재배의 최적지
	강화섬배	일교차가 10℃정도 웃돌아 결실에 좋은 조건으로 맛좋은 배 생산
	강화섬포도	해풍을 맞고 성장하여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
	강화속노랑 고구마	밤고구마와 달리 해변지역에서 생산, 건강식, 미용식 무공해 식품임
	강화오이	성인병예방과 건강증진에 효능,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많음
	강화마늘	한지형 6쪽마늘로서 단단하고 부패가 적으며 저장성이 좋음
	강화연	농가의 버 대책 작목으로 칼슘과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함
옹진군	옹진쌀	해풍을 맞으며 자라 찰기와 윤기가 흐르며 오리농법, 우렁이농업, 종이멸칭재배 등 친환경 농업을 통해 생산됨
	옹진포도	서늘한 해풍에 당도가 높고 껍질이 두꺼워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익어 포도 특유의 향과 맛이 우수함
	옹진고추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옹진 고추는 해풍을 맞아 특유의 매운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으며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옴
	옹진고구마	백령은 백색고구마, 북도 장봉은 노란색고구마, 연평은 흰색고구마로 불리며 유미계통의 식용 고구마로 찌서 먹을 때 물기가 많은 물고구마로 식미가 우수함
	옹진백령도 약쑥	백령도 특유의 염기가 배어있는 화강암 모래에서 재배되어 향이 좋고 국화잎과 비슷하고 잎과 줄기에 흰색을 띠는 작은 솜털이 촘촘히 나있어 일반 육지 쑥과는 모양이 다름

-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러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화인삼의 경우 강화인삼조합과 홍삼닷컴(주)을 통해 인삼차, 홍삼젤리, 홍삼진액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여 온라인과 강화인삼센터에서 판매
- 약쑥 및 순무는 농업기술센터의 특화작목연구실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경희대 약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식·의약품 소재를 개발하고 (주)이름, CJ(주), 강화순무골 등과 연계하여 상품화를 추진

<표 4-95> 인천의 특산물 가공공장 현황

구 분	약쑥 가공공장 (농산물가공공장)	순무 가공공장 (김치공장)	김치가공공장 (김치공장)
업체명	강화군산림조합	강화순무골	강화성정승덕김치
주소	강화읍 용적리	선원면 연리	선원면 선행리
생산품목	·약쑥엑기스, ·약쑥환, ·영지차 등	·순무김치류 ·순무즙 ·순무말랭이 등	·김치류 등 (깍두기, 포기, 각, 순무, 열무)
시설규모(평,점)	·부지 : 161 ·건물 : 140 ·기계 : 26	·부지 : 479 ·건물 : 153 ·기계 : 12	·부지 : 1,200 ·건물 : 350 ·기계 : 10
연간생산량(톤)	12.6	54.8	160
총매출액(백만 원)	120	162.1	240
원료조달	·산지생산자(80%) ·도매시장(20%)	·자가 생산(5%) ·계약재배(60%) ·산지생산자(35%)	·계약재배(10%) ·산지생산자(40%) ·도매시장(50%)
판매방법	·도소매상(15%) ·농수축협(10%) ·우편, 전자상거래(5%) ·현지직판(65%)	·도소매상(100%)	·우편, 전자상거래(5%) ·현지직판(95%)

자료: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공장 및 김치공장 운영실태 보고, 내부자료

<그림 4-13> 인천의 강화군 특산물



【강화인삼】



【화문석】



【강화섬쌀 제품】



【약쑥가공제품】



【순무가공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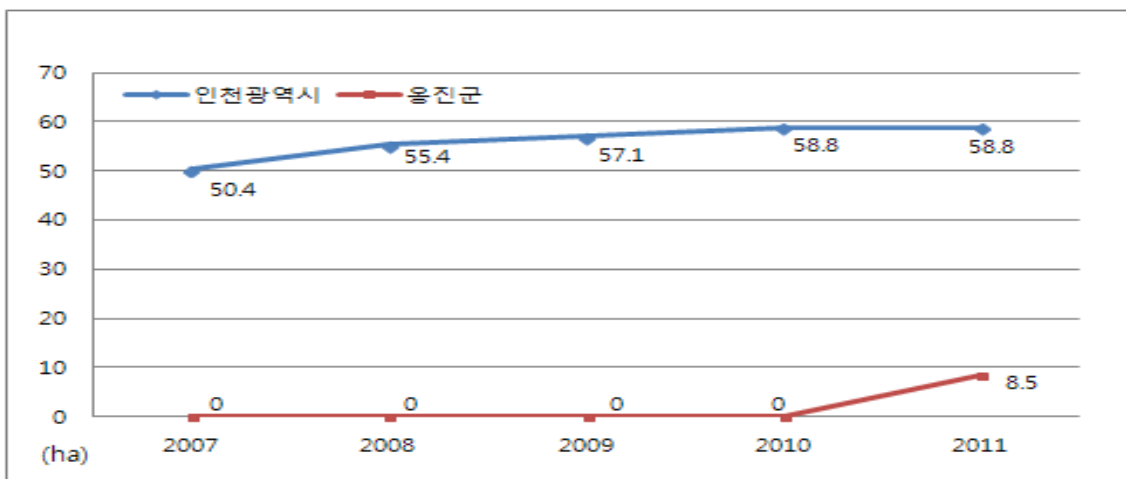
2) 약쑥산업 현황

(1) 재배면적

- 약쑥은 2011년 현재 약 58.8ha의 재배면적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음. 이는 2007년 50.4ha에서 17%가 증가한 규모임. 약쑥의 재배 면적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한 2005년도부터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는 정체상태에 있음
- 이는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약쑥의 특성 상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잡초 제거 등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어 일부 농가에서 약쑥 재배를 꺼리는 경향으로 판단됨

<그림 4-13> 인천 약쑥의 재배면적 추이

(단위:ha)



- 현재 강화에는 약 3,300㎡의 전문 육묘장을 확보하여 양질의 묘를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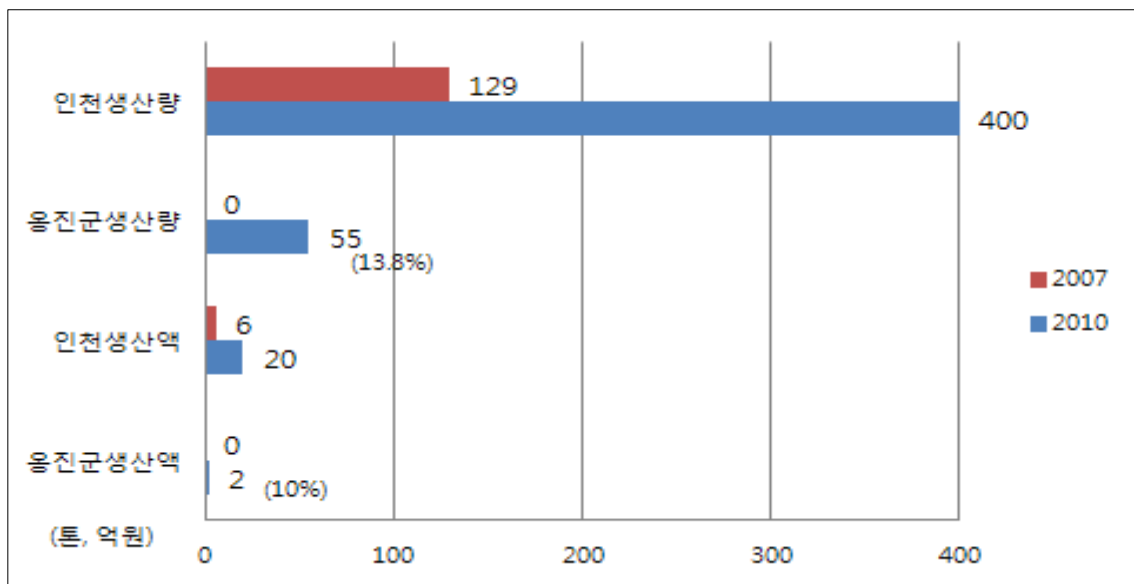
(2) 생산량 및 생산액

- 약쑥은 현재 303호의 농가가 양도 인산, 화도 내리, 화도, 마니산, 길상 애전 약쑥작목반을 조직하여 400톤의 약쑥(건쑥 기준)을 생산하고 있음
- 약쑥 생산은 강화군을 비롯하여 옹진군, 당진군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화군의 사자발약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쑥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종, 국내에만 3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강화의 약쑥은 강화에 자생하는 독특한 품종임
- 약쑥은 세종실록지리지(1425)의 강화호부편에 사자발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재배 역사가 오래된 강화의 특산물임
- 현재의 약쑥은 사자발쑥과 싸주아리 2종을 포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쑥의 품종 통일을 위해 성분 연구 및 품종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4-14> 인천 약쑥의 생산량 및 생산액

(단위 : 톤, 억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약쑥통계자료집, 각년도, 웅진군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

주: ()는 인천광역시대비 웅진군 비중임

- 약쑥의 생산량은 년 간 건쑥으로 400톤 정도가 생산 되며 주 재배지역은 마니산을 중심으로 불은, 화도, 길상면으로 구분 할 수 있음

<표 4-96> 인천 약쑥 생산 규모

(단위: 호, ha, 톤, %)

구분	농가수	생산량
사자발약쑥(강화군)	270(78.7)	300(66.7)
백령도약쑥(웅진군)	33(9.6)	100(22.2)
초락도약쑥(당진군)	40(11.7)	50(11.1)
합계	343(100.0)	450(100.0)

<표 4-97> 인천 약쑥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농가수	면적	생산량 (건쑥)	생산액	품종별		주 재배지역
				사자발	싸주아리	
303호	58.8ha	400M/T	20억 원	49.8ha (85%)	9.0ha(15%)	불은, 화도, 길상

<표 4-98> 인천 약쑥 우량종묘 보급

(단위: 만본)

합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수량	면적
420	35.2	100	8.4	100	8.4	100	8.4	40	3.3	40	3.3	20	1.7	20	1.7

- 고품질 약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약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작한 우량종묘 보급 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420만본(평당 40본)을 공급하여 사자발쑥의 고품질화로 타 지역 산 쑥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였음
- 과거에는 연 1회만 수확했으나 소득 확대를 위해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수확하고 있음
 - 약쑥 생산량의 2/3은 단오 전 봄철에 수확(5월 말~6월 초)하며, 나머지 1/3은 중보전(7월 말~8월 초)에 수확함
 - 단오절 전에 수확한 약쑥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약쑥은 별도 관리하여 구분 출하하고 있음
 - 또한 쑥의 순을 이용해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약쑥의 건조는 수공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수확한 약쑥은 1차 2-3일 햇볕에 말리고 그 이후에는 건조장에서 건조함
 - 건조 보관 시 벗짚이나 질긴 끈으로 약쑥을 이엉 위듯이 줄기 묶음 하여 저장고에 매달
 - 건조 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리되 비나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저장고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해야 함

- 강화군에서는 품질보증위원회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약쑥의 품질 고급화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생산된 약쑥의 50%는 10여개의 관내 약쑥 가공공장으로 출하되며 나머지 50%는 관내 시장, 중간상인, 외부 계약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해 출하됨. 약쑥의 유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쑥의 용도도 경혈을 풀어주는 뜸용 제품과 같이 다양함을 볼 수 있음
 - 약쑥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16품종 50종정도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뜸용 제품이지만 최근에는 가공식품 형태의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 약쑥의 50%는 뜸 재료 및 뜸 관련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사탕, 환, 면 등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4-99> 인천 약쑥의 출하형태

출하시장별				출하시장별		
관내가공업체	관내시장	외지상인	기타	뜸용	식용	기타
50%	20%	20%	10%	60%	30%	10%

<표 4-100> 인천 약쑥의 소득성

(단위 : 1,000원)

비목별		수량	단가	금액 (천원)	비 고
조수입	주산물(1차 수확)	450kg	5,000	2,250	평당계산(1차+2차) 수량: 2.4(1.5+0.9) 금액:10,200원(7,500+2,700)
	2,3차 수확물	270kg	3,000	810	
	계	720kg	(4,250)	3,060	
경영비	제 재료비	-	-	80	타작물과의 소득비교 · 벼(542천원)의 411% · 고추(1,790천원)의 125%
	노력비 제초, 수확, 건조	16명	-	800	
	계	-	-	880	
소득액		-	-	2,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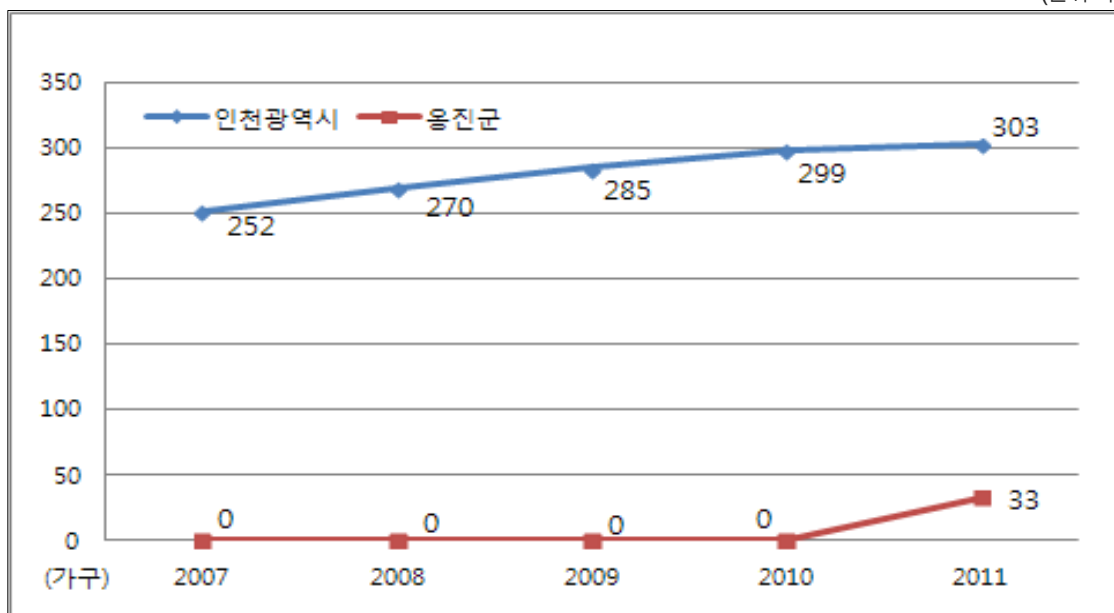
- 약쑥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값싼 중국산 약쑥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하락 및 둔갑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강화군 약쑥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유통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소비계층이 매우 얇고 신규 가공식품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함
-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군에서는 수확 후 농가별로 생산지 증명 띠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소비 규모 확대 효과는 제한적임
- 그럼에도 약쑥의 소득성은 벼의 4.1배, 고추의 1.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약쑥이 타 작목에 비해 고소득 작목임이 입증 되고 있음

(3) 농가 현황

- 인천광역시 약쑥 재배 농가수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즉, 2007년 252가구에서 2011년에는 303가구로 증가하였음

<그림 4-15> 인천 약쑥의 재배농가수

(단위:가구)



(4) 가공 및 유통

- 현재 강화군산림조합, 보성사, 파인엠, 한강식품, 인산식품 등 5개소의 민간 가공공장에서 좁·엑기스 제품, 한방약재, 화장품 등 25여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음
- 가공원료는 대부분 산지생산자나 도매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있고 판매는 직판, 도소매상,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공제품 후 1,000%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작물임
- 약쑥, 순무 등의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 현황을 보면, 현재 3~4개소의 민간 가공공장에서 좁·엑기스제품, 김치류, 한방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임
- 가공 원료는 대부분 산지생산자나 도매시장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판매는 현지 직판, 도소매상,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101> 인천 약쑥의 가공공장 현황

구분	강화군산림조합	(주)보성사(산애들애)	파인엠	(주)한강식품
주소	강화읍 용정리	선원면 냉정리	불은면 삼성리	불은면 두운리
생산품목	약쑥엑기스환 영지차 등	약쑥뜸기구, 뜸쑥, 쑥환, 쑥엑기스 등	약쑥오일, 로션, 토너, 마스크 등	약쑥냉면, 칼국수, 육수, 온면 등
생산량/년 (톤)	12.6	50 (약쑥가공원료량)	24	60
총매출액 (백만원)	120	1,500	900	1,500
원료조달	산지생산자(80%) 도매 시장 (20%)	산지생산자(100%)	산지생산자(100%)	약쑥:산지생산자(100%) 기타:도매시장(100%)
판매방법	도소매상 (15%) 농수축협 (10%) 우편,전자상거래(5%) 현지직판 (65%)	한방병원,한의원(50%) 의료기상사 (30%) 일반 (20%)	한방병원 (40%) 피부관리센터(35%) 지사 (25%)	요식업체 (75%) 종교단체 (20%) 일반 (5%)

자료: 강화군, 약쑥특구계획

<표 4-102> 인천 약쑥의 가공상품 판매처 현황

품목별	생 산 자(판매자)			비 고
	단체명	주 소	대 표	
추출액 (Extract) · 쑥 환 (Pill)	강화약쑥(법인)	양도면 능내리	김정인	주문판매
	보성사(햇님)	선원면 냉정리	김진섭	www.haitnim.co.kr
	산림조합	강화읍 용정리	남궁호	kanghwa.sanrimjohap.co.kr
	인산식품	양도면 인산리	김종빈	sajabalyakssook.com
건 쑥 · 뜸 쑥	강화약쑥(법인)	양도면 능내리	김정인	주문판매
	내리작목반	화도면 내2리	서영임	주문판매
	마니산 "	화도면 내1리	김유재	우편판매
	인산작목반	양도면 인산리	전보희	농협, 우편판매
뜸봉기구	보성사	선원면 냉정리	김진섭	대리점, 인터넷
쑥비누	보성사	선원면 냉정리	김진섭	미용비누
쑥미분	보성사	선원면 냉정리	김진섭	식품첨가제
쑥냉면	한강식품	불은면 두운리	박종화	쑥생즙 이용
화장지	산림조합	강화읍 용정리	남궁호	greenpapertech.com
쑥담배	(주)국초쑥나라	화도면 내2리	고운맘	http://ssook.co.kr

(5)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 약쑥의 지원은 대부분 신활력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약쑥의 생산, 재배, 가공, 홍보 및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음(<표 4-103>참고)
- 2006년 약쑥특구를 지정하여 약쑥 연구개발 및 생산가공밸리 조성, 약쑥브랜드 파워 세계화 사업, 약쑥농촌체험단지 조성, 약쑥문화축제 및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표 4-104>참고)

<표 4-103> 인천 약쑥의 정책지원 현황

사업명	지원 내용
신활력사업을 통한 약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사자발약쑥의 생리활성물질 분리·동정 및 효능평가 - 약쑥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량 증대 : 30ha→40ha - 약쑥 생산기반 조성 : 육묘장 1,000평설치, 종묘 100만본 보급 - 약쑥의 효능검정 및 소재개발 등 학술용역 4건 - 지적재산권 확보 : 상표, 캐릭터 등록, 연구결과 특허출원 - 약쑥 상품개발 : 25종
약쑥웰빙체험 및 홍보판매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05~2007년 - 사업면적 : 부지 5,355㎡(1,620평), 건물 2,162㎡(654평) - 사 업 비 : 6,527백만 원 (시비 4,569군비 1,958) - 주요시설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200평), 농특산물 웰빙체험시설 (200평) 강화 지역특산물 이용 전문레스토랑 및 야외테라스(254평)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소비자에게 강화 농·특산물 웰빙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강화농산물이미지제고 및 우수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

<표 4-104> 인천 약쑥의 특구 조성사업 개요

특화 사업	세 부 사 업 명	부 지 면 적 (㎡)	개 발 면 적 (㎡)	재 원 별 (백만 원)
				계
	합 계	52,976	15,926	17,422
약쑥연구개발 (R&D) 및 생산가공밸리조성	특화작목연구소 운영	5,649	834	3,382
	농특산물(약쑥등) 가공공장 건립	7,412	1,288	2,000
	산·학·연협력 주)파인엠연구소	3,015	-	68
	약쑥특구 조성 학술용역	-	-	320
	약쑥 확대 생산기반 조성	-	-	270.5
	소 계	16,076	2,122	6,040.5
약쑥 브랜드파워 세계화사업	약쑥브랜드 홍보 사업	-	-	2,246
	소 계			2,246
약쑥 농촌(웰빙)체험단지 조 성	약쑥웰빙체험 및 홍보 판매관 건립	5,355	2,114	4,000
	세계최초 조선온실 미로공원 조성	9,918	4,298	1,050
	농경문화관 운영	5,078	1,394	100
	전통문화 체험 공연장 건립	-	198	300
	약쑥 관광마을 육성	-	-	217.5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화도 전역	좌동	220
	토지 매입	17,917	-	2,053
	소 계	20,351	8,004	7,940.5
약쑥문화축제 및 이벤트 사 업	약쑥 단오제 개최	-	-	325
	강화농산물 큰잔치 개최	-	-	350
	약쑥 및 순무요리대회	-	-	280
	약쑥 및 순무요리 체험마당	8,521	-	54
	야외 이벤트 잔디광장 조성	8,028	5,800	186
	소 계	16,549	5,800	1,195

3) 약쑥산업 문제점

(1) 생산 부문

- 강화군의 고령화로 재배 회피농가 발생소지 상존
 - 약쑥부문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젊은 계층의 농업인력 감소는 향후 약쑥산업의 혁신체계 구축 및 향토 산업 육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약점으로 작용함
 - 특히, 2004년 이후 강화군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령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농업생산 인력도 감소하고 있으며 약쑥산업을 리드할 역동적 주체집단(생산·유통·가공 등)도 부족한 실정임

(2) 유통 부문

- 자동화를 통한 규모화 추진의 어려움
 - 약쑥의 건조는 수공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수확한 약쑥은 1차 2~3일 햇볕에 말리고 그 이후에는 건조장에서 건조한 후 보관 시 벗짚이나 질긴 끈으로 약쑥을 이엉 엮듯이 줄기 묶음 하여 저장고에 매달아야 함
- 유통시장의 혼란
 - 약쑥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값싼 중국산 약쑥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하락 및 둔갑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군에서는 수확 후 농가별로 생산지 증명 띠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소비 규모 확대 효과는 제한적임

(3) 소비 및 가공 부문

- 약쑥 특화작목을 활용한 2차 가공기반 미흡
 - 강화군 약쑥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 현황이 현재 3~4개소의 민간 가공공장에서 즙·엑기스제품, 김치류, 한방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을 뿐임
 - 강화군 약쑥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유통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소비계층이 매우 낮고 신규 가공식품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함

8. 광주광역시 과채류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 현황

(1) 농업부문 총생산

- 2010년 광주 지역내총생산은 25조 1천 400억 원이며, 이 중 농림어업 분야의 비중은 약 0.86%인 2천 522억 원으로 나타남
- 지역내 총생산 중 농림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05> 광주의 지역내총생산과 농림어업 비중(당해년가격)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GRDP	20,299,019	21,281,252	21,745,349	22,066,126	25,140,087
농림어업 GRDP	186,211 (0.92%)	186,630 (0.88%)	179,755 (0.83%)	183,110 (0.83%)	215,222 (0.86%)

자료: 통계청 (KOSIS), 생산지수

주: ()는 전체 GRDP 대비 구성비임.

(2) 경지 현황

- 2011년 광주광역시의 경지면적은 10,794ha로, 전국 경지 면적의 0.64%를 차지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 경지 면적 중 논은 7,015ha로 전국 논 면적의 0.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은 3,779ha로 전국 밭 면적의 0.51%를 차지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지면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경지면적은 2011년에 비하여 11.78% 감소함
 - 2006년과 비교한 논 면적의 감소율은 -22.10%로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에 반해, 밭 면적은 18.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6> 광주의 경지면적 변화추이

(단위 : ha,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6-11 증감율
경지	12,235 (0.68%)	11,941 (0.67%)	11,466 (0.65%)	11,286 (0.65%)	11,095 (0.65%)	10,794 (0.64%)	-11.78
논	9,040 (0.83%)	8,819 (0.82%)	8,310 (0.79%)	7,560 (0.75%)	7,302 (0.74%)	7,015 (0.73%)	-22.10
밭	3,195 (0.45%)	3,122 (0.44%)	3,156 (0.44%)	3,726 (0.51%)	3,793 (0.52%)	3,779 (0.51%)	18.28

자료: 통계청 (KOSIS), 농업면적조사

주: ()는 전국 대비 비중임

(3) 농가 현황

- 2010년 광주광역시의 농가수는 13,079가구, 농가인구는 37,994명으로 2005년에 비하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농가수는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200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07> 광주의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가구, 명)

구분	광주광역시	
	농가수	농가인구
2005	14,050	41,771
2006	12,913	39,257
2007	12,798	39,949
2008	11,646	36,037
2009	11,836	35,743
2010	13,079	37,994

자료: 통계청 (KOSIS), 농어업총조사

2) 과채류산업 현황

(1) 재배면적

- 광주광역시 과채류 재배면적은 543ha로 전국의 1.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08> 광주의 과채류 재배면적

(단위 : ha, %)

구분	전국	광주광역시
2005	59,154	1,002 (1.69%)
2006	56,314	858 (1.52%)
2007	54,786	925 (1.69%)
2008	55,004	760 (1.38%)
2009	54,676	771 (1.41%)
2010	48,296	652 (1.35%)
2011	46,595	543 (1.17%)

자료: 통계청 (KOSIS), 농어업총조사

주: ()는 전국대비 광주광역시 비중임

(2) 생산량 및 생산액

- 2011년 광주광역시 과채류 생산량은 25,181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515억 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과채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09> 광주의 과채류 생산량 및 생산액

(단위 : 톤, 억 원)

구분	전국		광주광역시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2005	2,488,043	36,822	48,939 (1.97%)	599 (1.6%)
2006	2,348,150	35,385	43,075 1.83%	716 (2.0%)
2007	2,290,639	39,019	48,003 2.10%	803 (2.1%)
2008	2,389,029	38,863	39,257 1.64%	639 (1.6%)
2009	2,355,474	38,761	40,141 1.70%	661 (1.7%)
2010	2,052,198	42,359	30,744 1.50%	635 (1.5%)
2011	1,932,947	39,561	25,181 1.30%	515 (1.3%)

자료: 통계청 (KOSIS), 농작물 생산조사

주: ()는 전국대비 광주광역시 비중임

(3) 농가 현황

- 2010년도 광주광역시 과채류 농가는 2,495가구로 전국 과채류 농가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과 비교했을 때 과채류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10> 광주의 과채류 농가

(단위 : 가구)

구분	전국	광주광역시
2005	261,089	2,689 (1.0%)
2006	264,603	2,592 (1.0%)
2007	260,334	2,559 (1.0%)
2008	258,458	3,208 (1.2%)
2009	223,873	2,558 (1.1%)
2010	252,728	2,495 (1.0%)

자료: 통계청 (KOSIS), 농작물 생산조사

주: ()는 전국대비 광주광역시 비중임

(4) 수출입 현황

- 2011년 국내 과채류 수출은 14,479천불이며 수입은 32,163천불로 무역수지 적자는 17,684천불임
- 2011년 뉴질랜드 등지에서 단호박 2만 톤, 중국 등지에서 절임오이류 1만 7천 톤,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냉동딸기 9천 톤 정도의 과채류 수입이 이루어짐
- 중국으로부터의 과채류 수입은 가공품 위주로 이루어지며 2011년에는 3만 8천 톤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져 국내 과채류 소비량의 약 2%를 차지
- 이러한 수입동향에도 불구하고 토마토, 달기 등의 신선과채 수입은 검역 등의 이유로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 한편, 2011년 호박 791톤, 오이는 절임류를 포함하여 46만 톤, 딸기 2천 톤, 토마토 3천2백 톤 정도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수입량보다 적은 편임
- 딸기, 토마토 등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량 증가 기대
- 무역적자는 딸기(수출 972천불, 수입 13,261천불)와 호박(수출 930천불, 수입 16,103천불)에서 발생
- 2011년 농산물 수출액(4,941백만 불)에서 과채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이고 수입액(0.2%) 수준에 불과하여 광주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전체적인 농

업부문에 대한 부정적 과급효과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광주지역 GR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86%에 불과하여 농업분야의 과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선채소류, 과채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FTA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5) 소비 현황

- 연도별 과채류 소비량에 따르면 2006년 1인당 49.1kg에서 2010년 45.5kg으로 전체 기간 동안 7.3%의 감소가 이루어짐

<표 4-111> 연도별 과채류 소비 현황

(단위 : kg/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량	49.1	48.5	48.2	47.3	45.5

3) 과채류산업 문제점

(1) 생산 부문

-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 특성
 - 갑작스런 추위와 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동절기 시설하우스 내가 저온 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과채류 잎곰팡이병과 잿빛곰팡이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시설과채류에 발생하고 있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와 주키니 황화모자이크 바이러스,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등도 전염경로가 진딧물의 식물체 흡즙에 의한 감염일 확률이 가장 높음
 - 외부기상의 변화가 심하면 시설 내 환경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됨에 따라 농작물도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되며, 특히 생육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의 작물은 병해충에 피해를 입기가 쉬움
 - 작물에 따라서는 농약 없이는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만큼 병해충 피해가 많은 작물도 있어 병해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 과채류 연작재배에 따른 피해, 시설비용 상승
 - 과채류 재배시설은 대형화, 현대화, 고정화되어 같은 작물을 매년 연작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
 - 이러한 폐쇄된 시설에서 작물을 매년 연중 재배하고 있어 연작장해가 심하게 나타남
 - 시설재배지에 가축분 퇴비와 화학비료의 다량 사용에 의한 양분의 불균형, 염류 집적, 토양의 물리화학적 변화, 토양 병원균 증가 등으로 토양 조건 열악화

(2) 유통 부문

- 과채류 낱개 및 완충포장 미흡
 - 과채류는 과실류에 비해 껍질이 두껍다고 인식되어 낱개 및 완충포장이 미흡하게 유통
 - 농산물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완충포장 용도로 판매되는 스티로폼의 약 55%만이 재활용되고, 26.8%는 매립, 17.5%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각됨
- 과채류 유통과정 중 물리적 손상이 큼
 - 과채류는 선별, 포장, 수송, 하역과 같은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압축, 낙하, 충격, 진동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물리적인 외력이 작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채류의 급격한 품질변화를 일으켜 상품을 크게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음
- 표준화된 등급기준의 부재 등 유통의 효율성 저하 및 마케팅파워 미흡
 - 과채류는 출하시기가 짧고, 재배면적이 적어 시장점유율이 낮아 마케팅 파워 미흡
 - 산지유통시설, 산지조합 등 출하조직 체계가 미흡하여 공동선별, 포장, 정산(APC)을 할 수 없어 마케팅 파워 미흡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과채류 고유의 ‘친환경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로 하여금 인지도가 낮음
 - 유통채널별 공급다양성이 부족하여 예컨대, 오이, 참외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은 어느 채널에서나 유사하지만, 고급과채류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나 구매하기 용이한 것은 아님

(3) 소비 부문

-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과채류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원산지, 안전성에 대한 불신문제가 잔존
 - 원산지 표시 및 인증이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 고품질 과채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성, 품질, 판매처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지 않아 대중적 수요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4)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수출가능성은 높으나 식품안전성, 원산지표시제 강화 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채류 관련 제조, 가공, 유통, 소비 관련 통계 강화 필요
 - 과채류는 국내 생산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이 큰 품목으로 수입의존도가 낮고 쌀 등 일부 채소류와 같이 정부의 가격안정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해당품목 시장가격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정보획득 장치 마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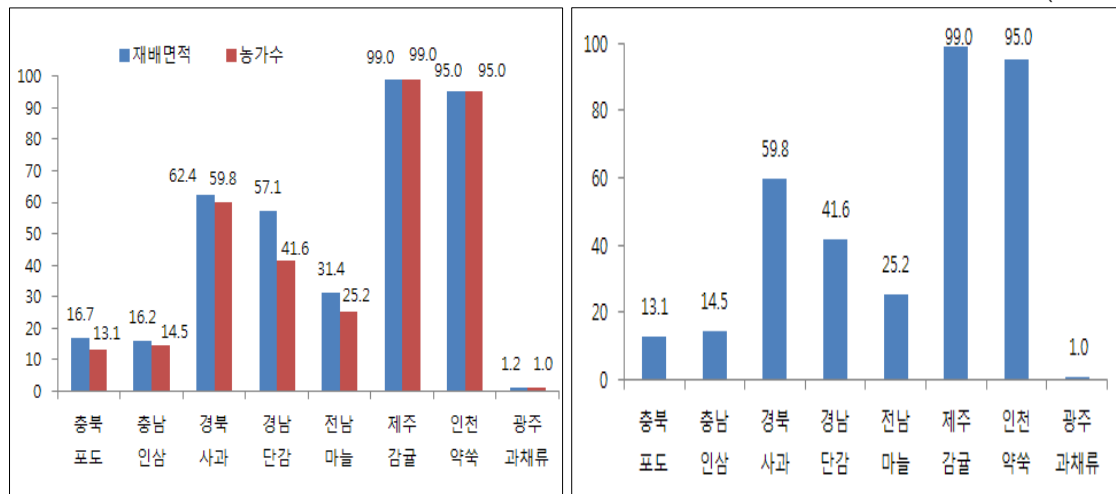
9. 요약 및 정리

1) 생산 부문

(1) 현황

-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민감품목 재배면적 비중은 충북 포도(16.7%), 충남 인삼(16.2%), 경북 사과(62.4%), 경남 단감(57.1%), 전남 마늘(31.4%), 제주 감귤(99.0%), 인천 약쑥(95.0%), 광주 과채류(1.2%)
-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민감품목 생산액 비중은 충북 포도(16.5%), 충남 인삼(17.3%), 경북 사과(63.5%), 경남 단감(60.7%), 전남 마늘(28.5%), 제주 감귤(99.0%이상), 인천 약쑥(90~95%추정), 광주 과채류(1.3%)
-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민감품목 농가수 비중은 충북 포도(13.1%), 충남 인삼(14.5%), 경북 사과(59.8%), 경남 단감(41.6%), 전남 마늘(25.2%), 제주 감귤(99%이상), 인천 약쑥(90~95%추정), 광주 과채류(1.0%)

<그림 4-16> 전국 대비 지역별 민감품목의 농가수 및 재배면적(좌), 생산액(우) 비중 (단위:%)



(2) 문제점

〈포도〉

- 포도 수급의 불일치, 기후 변화에 대응 미흡
- 포도농가의 영세성 및 고령화
- 재배품종의 단순화와 신품종 전문 육종가 부재
- 친환경 및 생력화 기술 저조, 병충해에 대한 정보와 방제법 미흡

〈인삼〉

- 전반적으로 2008~2009년 이후 인삼생산 규모 감소 추세, 농가수는 증감 반복
- 긴 경작기간과 연작피해, 까다로운 재배조건과 생산비 절감에 애로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품종 기술개발 연구 부족
- 정부투자 지원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

〈사과〉

- 사과산업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고령화되는 추세
- 사과재배 상·하위농가 간 기술격차와 경영능력의 차이 상존
- 묘목생산·공급 체계의 낙후성, 후지 중심의 생산구조
- 영세한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
- 현실에 맞는 사과농업인 교육·현장지도가 미흡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 부족

〈단감〉

- 단감 재배특성상 남부지역에 주산지 집중화
- 만생종인 부유 품종 집중되어 수확시기 노동력의 경합과 홍수 출하의 원인
- 경사도 15% 이상에 재배됨에 따라 기계화 곤란하여 재배단계에서 비용상승
- 단감의 수확전·후 투입노동시간 과다
- 단감의 높은 경영비와 낮은 소득수준으로 경영여건 열악
- 규모화, 전문화된 전업농이 영세 소농에 비해 소득이 높으나 매우 작은 비중

〈마늘〉

- 마늘 생산농가 영세성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생산비 절감 위한 기계화 미흡

- 연작재배와 질소과다 투입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저하
- 마늘 친환경재배 기술 미흡,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위한 신품종 개발 미흡
- 마늘은 가격탄력적 작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급 불안 품목

〈감귤〉

- 감귤 농가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대내외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고품질 감귤 생산체계의 미정착
- 국내 감귤 종자 개발·보급 취약

〈약쑥〉

- 강화군의 고령화로 재배 회피농가 발생소지 상존

〈과채류〉

-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특성
- 과채류 연작재배에 따른 피해, 시설비용 상승 민감

<표 4-112> 지역별 민감품목의 현황 및 문제점(생산부문)

구분	포도	인삼	사과	단감	마늘	감귤	약쑥	과채류
농가인구 고령화	√		√	√	√	√	√	
농가규모 영세화								
농가간 기술격차			√					
농민단체 부족							√	
묘목·종자 공급체계 부족	√		√		√	√		
품종의 편중생산	√	√	√	√		√		
기계화율 부진				√	√			
시설비용 상승		√		√				√
품질향상 미흡		√			√	√		
지도인력 부족			√					
기술개발노력 부족	√	√			√	√		
연작장해		√			√			√
기후변화대응 미흡	√							√
낮은 생산성		√	√					
수확시기 노동력 경합				√				
경영여건 열악				√				
수급불안 및 불일치	√				√			

주: 1. 과채류는 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등을 포괄함.
 2. 항목은 품목별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해당지역의 핵심내용만 표시함.

2) 유통 부문

〈인삼〉

- 유통구조의 낙후성, 저효율성, 포전매매의 성행
- 복잡한 유통구조 및 유통구조과정 체계 미흡
- 거래단위 및 규격 등 유통 거래시 복잡하여 소비자 혼란 초래, 신뢰도 저하 요인
- 부정유통 관행행배 : 해외삼이 국내인삼으로, 4년근이 6년근으로 눈속임 등
- 관행적 농약살포 및 일부 자체검사단에 품질관리 노력 미흡

〈사과〉

- 브랜드가 같지만 판매장소별로 품질이 다른 경우가 많음
- 다른 과일에 비해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인식 행배
- 국제시장에서 일본보다 낮은 가격경쟁력
- 산지 유통시설의 낮은 가동률

〈단감〉

- 단감은 저장성이 낮아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 많은 저장비용 발생
- 저장 및 유통 중 급속한 품질저하로 손실 발생이 많음
- 단감의 평균 유통비용과 농가수취율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통비용 과다 발생

〈마늘〉

- 규격출하 미흡, 유통경로 과다에 따른 유통비용 증가
- 포전매매 성행에 따른 시장교섭력 저하
- 마늘 유통조절을 위한 산지유통시설 미흡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자 조직 미흡

〈감귤〉

- 소규모 분산출하로 인한 유통효율성 저하와 품질관리체계 미흡
- 브랜드 난립에 따른 감귤 이미지 훼손

〈약쑥〉

- 자동화를 통한 규모화 추진의 어려움

○ 유통시장의 혼란

〈과채류〉

○ 과채류 낱개 및 완충포장 미흡

○ 과채류 유통과정 중 물리적 손상이 큼

○ 표준화된 등급기준의 부재 등 유통의 효율성 저하 및 마케팅과워 미흡

<표 4-113> 지역별 민감품목의 현황 및 문제점(유통부문)

구분	인삼	사과	단감	마늘	감귤	약쑥	과채류
유통구조 낙후성 및 저효율성	√				√	√	√
생산자 조직 미흡				√	√	√	
안전성 취약 인식		√					
품질 균일성 부족		√					
저장성 취약			√				
유통비용 과다 발생			√	√			√
품질관리체계 미흡	√		√		√	√	√
산지유통시설 낙후		√	√	√			√
유통관리체계 미흡	√		√	√	√	√	√
브랜드 난립		√			√		
거래단위 및 규격 복잡	√			√			√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					√	
포전매매 성행	√			√			
낮은 가격경쟁력		√					

주: 1. 과채류는 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등을 포괄함.
 2. 항목은 품목별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해당지역의 핵심내용만 표시함.

3) 소비 및 가공 부문

〈인삼〉

- 건강기능식품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안전성·친환경 인삼류 가공제품 소비 증가
- 원산지, 안전성 불신에 대한 문제 상존, 유통관계자의 안전성 인식 부족
- 재배면적 및 공급량은 점차 감소, 수요량은 점차 증가하는 상반된 현실

〈포도, 사과, 단감, 약썩〉

- 국내산 포도의 가공식품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낮은 등급만을 처리하는 형태
- 사과 가공제품 개발 미흡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단감 가공산업 육성 필요하나 지역내 역부족
- 약썩 특화작목을 활용한 2차 가공기반 미흡

〈마늘〉

- 1인당 소비량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마늘 기능성 활용 제품 소비량 증가 전망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마늘 구입형태는 주대마늘의 비율이 높은 편
- 건강기능성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과채류〉

- 안전·친환경 과채류 대한 선호도 높으나 원산지, 안전성에 대한 불신 문제 잔존

4) 수출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관리부처 및 상위관련 법의 이원화 구조로 인해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지원 애로
- 품목별 제조, 가공, 유통, 소비 통계 부실하기에 통계 강화 필요
- 단감 수출전문단지 부족과 규모 영세성, 수출상품 기술부족, 상품 다양성 부족
- 수출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 수출시장 해외 마케팅 부족
- 생산자는 수출시장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불량품 수출, 신용도 저하
-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2003-2007)지원 이후 이후 사업 중단
- 단기 행정중심의 정책으로 생산자단체의 역할 축소 및 농가의 자생력 결핍
- 유형의 시장가치중심으로 경관 및 환경보전 등 무형의 가치 배제

제5장

민감품목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5장 민감품목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1. 충청북도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포도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우수한 포도재배 여건
 - 일교차가 큰 온대성 기후로 포도재배에 적합
-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캠벨얼리 품종의 전통적 주산지
 - 캠벨얼리 품종은 대한민국 대표 품종(전체 재배면적의 70% 이상 점유)
 - 영동지역은 전통적으로 캠벨얼리 품종의 국내 최대 주산지
 - 영동포도는 캠벨얼리 품종의 소비자선호도 조사에서 1위 브랜드
- 편리한 교통 입지
 - 영동, 옥천 등 역내 포도 주산지는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
 - 대전의 철도, 청주의 공항 활용용이
-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자원 풍부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청원군 소재) 산하의 특화연구소 중 포도연구소가 특화자원으로 포도 관련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1992년부터 옥천포도시험장 운영, 2010년 포도 홍보관을 준공
 - 영동대학교는 영동포도클러스터 사업단을 이끌며 영동군 포도산업의 발전을 주도
 - 대원과학대 식품기술연구소, 세명대 한의학연구소 등 식품 및 한방바이오 관련 자원도 활용방법 모색 필요
 - 최근에 충북농업기술원은 와인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영동포도클러스터 등 성공적 포도산업 특화 노하우 집약
 - 지역 포도농가, 영동대, 와인코리아 등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속 발전

- 영동포도클러스터사업단 5년 연속 최우수사업단 선정
- 품종, 재배기술, 상품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과
- 옥천포도시험장, 이원면의 묘목산업 등 재배이전단계 기술력 확보
- 와인코리아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국내산 와인의 메카로 성장 중

(2) 약점(Weakness)

- 포도재배농가의 전문화, 규모화 부족
 - 농가별 재배면적이 적고, 대규모 농업법인 비중 미약
 - 시설포도 비중 정체, 포도재배농민의 노령화
-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연계 부진
 - 2010년을 기준으로 포도 가공량은 9,000톤이며 전체 생산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미비함
 - 즉, 현재 국내 포도 생산량의 대부분은 생과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도의 가공품 생산 비중은 낮음
 - 국내 포도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캠벨얼리의 경우 생식과 가공 모두 가능한 품종이지만 대부분 생과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포도가공에 사용하는 포도는 생과용으로 판매가 어려운 낮은 등급의 포도를 주로 가공하였음
 - 가공품의 종류도 포도즙과 포도잼이 대부분이었다가 개인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공형태가 일반적임
 - 최근 몇몇 영농조합 등에서 포도주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국내산 포도로 만든 포도주 시장은 미미한 수준임
- 역내 타 지역으로 영동·옥천의 성과 공유 부족
 - 영동·옥천을 제외한 충북 중부 이북 지방의 포도 관련 산업이 미약
- 포도 관련 관광자원 활용 미약
 - 영동포도페스티벌, 옥천포도복숭아 축제 등의 관광연계 부진
 - 와인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와인트레인 지역자원 활용 부족

(3) 기회(Opportunity)

- 포도 가공상품 개발용이
 - 포도는 포도주, 포도주스, 포도잼 등 식품의 기능이 풍부하므로 다양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다양한 상품의 개발 가능성이 높음
- 포도 가공식품 시장 확대
 - 와인시장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1998년을 제외하면 매년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 증가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되리라고 판단됨
 - 1인당 와인 소비량으로 보면 1997년에 약 0.3kg에서 2011년 약 0.75kg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해 와인 1인당 소비량이 급증했음.

<표 5-1> 와인 수입 추이

구분	물량(톤)	금액(천달러)	1인당 소비량(L)
1992	2,110	5,644	0.07
1997	9,390	22,809	0.30
1998	2,559	6,491	0.08
1999	5,766	15,122	0.18
2007	31,810	150,364	0.85
2008	28,795	166,512	0.76
2009	23,009	112,450	0.60
2010	24,568	112,888	0.75
2011	26,003	132,074	0.75

주: 포도증류주는 제외되며, 1인당 수입와인 소비량은 20세 이상 음용인구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보」 및 한국주류수입협회, 「주류저널」.

- 국산 농산물 및 식품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로컬푸드 운동, 식생활교육 운동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와 도농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었음.

(4) 위협(Threat)

-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포도 및 식품과의 경쟁 심화

- 포도 수입액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외에는 증가추세를 보인다 2009년에는 환율 상승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의 포도 수입액은 164백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포도 수입량은 66,274톤으로 국내 포도 생산량의 2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량은 2004년(10천 톤) → 2006년(17천 톤) → 2008년(32천 톤) → 2009년(28천 톤) → 2011년(66천 톤)으로 나타남
- 포도 소비량 감소
 - 포도는 이월되는 경우가 없고 수출이 미미하여 생산량과 수입량에 의해 소비량의 대부분이 결정됨
 - 포도 소비량은 감소 추세이나 과실 및 과채류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포도의 소비가 다른 과실 및 과채류로 대체되고 있음
- 국산 포도 가공식품 시장 협소
 - '10년 국내 와인시장 규모는 약 4,000억 원 정도로 전체 주류시장 규모 8조 2,000억 원 중 약 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산 와인시장 규모는 포도와인과 머루와인 포함, 약 350억 원 규모로 전체 주류시장의 0.43%, 전체 와인시장의 7~8% 수준 정도임.
 - 와이너리의 와인판매는 대부분 인터넷판매, 통신판매, 주문판매, 방문객 현장판매, 지역기업 판매 등의 형태이며, 수입와인의 주요 판매처인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주류전문판매점 등에서는 경쟁력 열세로 입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전략과제 도출

(1) SO전략

- 고품질 포도 생산 관리
 - 친환경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방제 기술 보급으로 안전한 고품질 포도 생산 확대
 - 생산물의 규격화, 균질화를 통한 품질 관리
- 지역 내 포도 및 가공품의 생산-유통 체계 마련
 -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연계 지원조직 구성
 - 포도 작목반 또는 법인화를 통한 산지 생산과 유통, 판매 등의 1·2·3차 산업 기

능의 경영적 통합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

○ 포도식품산업의 활성화

- 포도 주산지로서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포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산업 육성이 요구됨.
- 포도가 지닌 성분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화

(2) ST전략

○ 차별성 있는 품종개발 및 생산지 육성

-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상품가치가 높은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품종 특성, 재배 적지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지를 규모화

○ 포도집산지로서의 시장 교섭력 역할 확대

- 대규모 저장, 유통시설 및 시장기능 확대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대 필요
- 포도 가격이 농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별·포장시설의 보급 및 확충, 공동집하·공동출하체계가 필요함

○ 국산 포도 및 가공품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저변 확대

- 국산 포도 및 가공품의 유통시스템의 합리화와 브랜드 및 생산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명품화 및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 신규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가 중요하므로 품목별 핵심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함

(3) WT전략

○ 포도 산업 기반의 지역축제 등 관광자원 활성화

- 고품질 포도 생산 및 가공품에 기반을 둔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에 의한 1·2·3차 산업의 융합으로 경쟁력을 강화

○ 포도단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생산,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포도 생산을 위하여 포도생산지의 규모화

(4) WO전략

○ 포도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과 자본 지원

- 포도 원료의 기능성 식품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됨
- 소비자의 취향을 읽고, 미래의 식품 트렌드를 유도할 수 있는 제품 기획과 연구 개발이 필요
- 다양한 기능성 식·음료 및 의약·바이오 제품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첨단 R&D 능력 확보
- 정부기관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R&D 연계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지역 포도를 활용할 국내 대기업, 글로벌 식품기업의 유치가 필요
- 국내 와인브랜드 시장을 선점하였으나 수요기반이 미약한 국산와인 저변확대, 지자체 연계 마케팅 등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

○ 포도 생산 및 수확의 규모화 및 기계화 확충

- 재배농가의 기술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 단위당 투입비 중에서 차지하는 중간 재비는 큰 차이가 없으며, 노력비와 자본용역비의 경우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낮게 나타나 규모의 유리성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경영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 포도재배농가의 경영은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적정 경영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 단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포도산업도 농업인의 노령화로 인해 생산이나 수확 등에서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산 과정이나 수확후의 기계화가 필수적임

○ 포도 생산조직의 육성

- 포도 생산을 지속되고 지역특산물로 명성을 유지하려면 포도를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의 양성과 젊은 노동력을 지닌 후계자 육성이 필요함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문경영체(선도농)가 농업생산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도록 질적, 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지원과 교육훈련, 컨설팅의 연계 지원

- 법인경영체 육성으로 공동 유통, 전자상거래 등 발전 기반 구축
- 경영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기계화를 통한 생산 관리
 - 포도 재배 생산자 조직 단위의 규모화를 통해 기계화를 확대하여, 생산성 증대
농가의 노동력 부족, 고령화에 대비함.
- 시설재배 확대로 경영의 안정화
 - 시설재배 확대로 수확기간 연장 및 고품질 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포도 농
가 경영 안정화
- 차별성 있는 신품종 개발로 소비자에게 선택되는 포도 산지 육성
 - 소비자의 요구, 가공원료, 수확기간을 고려한 신품종 개발로 시장 개척
- 생산기술 지도 체제의 강화
 - 신규 산지 발굴, 기존 산지 관리의 기술·경영지도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경영체
의 품질, 생산량 향상을 지도함.
 -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자발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기술 연수회 등
을 개최하여 재배기술 혁신 지원
- 농업경영인의 육성 및 귀농자 정착 지원
 - 전략적인 포도 생산·경영계획 작성과 실행, 가격관리, 생산관리, 고용자 관리 등
지도나, 정기적인 경영 컨설팅의 지원을 통해 경영자로서의 기술과 역량 향상

- 귀농희망자에 대해서, 상담, 컨설팅, 기술전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포도를 중심으로 농업 후계자 양성 및 지원

2) 유통 및 가공 부문

- 식품 산업 등과의 계약 거래의 추진
 - 신제품, 가공원료, 구매자의 요구에 맞도록 실수요자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매 추진
 - 지역유통망, 식품 산업과 연계하여 계약 재배 확대
-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에 의한 판매 추진
 - 출하 규격, 상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고 규모화, 유통 합리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개선하고 중앙 도매시장의 점유율을 높임
- 포도 시장 변화 주시
 - 소비자 선호 품종 및 규격, 구매시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3) 서비스 부문

- 포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육성
 - 포도 주제의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개화기, 수확기간, 농업체험프로그램을 고려한 재배 품종을 다양화하고 관광농장 네트워크화하여 소비자를 유인
 - 포도 수확기간 외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체험농가 정비 지원, 포도 원료 와인 등 가공상품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 충북 포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 홍보 강화
 - 충북 포도 판매촉진 캠페인 및 도농교류 행사를 통해 충북지역 포도의 이미지 제고
 - 식생활 교육,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충북 포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 강화

2. 충청남도 인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인삼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한국 인삼, 충남 인삼의 세계적인 명성
-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암묵적 효능인증
- 인삼효능 등 건강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 관심 증가
- 점차 세대를 막론하고 젊은 층 소비자 선호도 증가해 저변 확대 중
- 오랜 역사와 축적된 재배 및 가공기술
-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는 인삼은 계절적 수요가 뚜렷하고 연중내내 소비⁴⁷⁾
- 택배활성화로 상인들과 직접거래 물량 증가(시장자체는 위축분위기)
- 시장개방 본격화 시기동안 전체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

(2) 약점(Weakness)

- 인삼의 작기가 4-6년으로서 가격과동시 타격 및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작물
- 긴 경작기간과 까다로운 재배생육조건, 연작장해 발생으로 품질과 생산성 저하
- 인삼 관련 용어, 거래단위, 연근단위, 생김새, 크기, 색깔에 따른 분류 복잡성
- 인삼공사 수매를 제외한 안정적인 원료조달을 위한 계약재배 부진
- 낙후된 유통구조, 포전매매 성행, 농가조직화 취약, 국제 가격경쟁력 취약구조
- 영세제조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 미흡, 안전성 관리시스템 미흡
- 뿌리삼의 수출비중이 높아 낮은 부가가치, 중화권에 편중된 수출시장
- 정확한 통계자료로 잡히지 않은 내수 및 수출거래 암시장 존재

47) 여름엔 삼계탕용 4근이, 추석과 설 명절 무렵엔 4~6근 상관없이 크고 모양이 좋은 선물용 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못생겨도 나름의 쓰임새가 있다. 실제로 홍삼용인 5~6근의 이식삼은 연중 수요가 꾸준하고, 수확 작업을 하다 상처가 나거나 몸체에 흠집(황이 낀 것) 있는 하품 및 파삼도 튀김 및 주스용으로 찾는 이들이 많다.

(3) 기회(Opportunity)

- 고소득층의 고급화 지향 소비추세
-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향상, 인삼효능에 대한 세계적 인식확대
- 생산·제조·유통 등 범인삼업계가 참여하는 인삼자조금 조성 출범 임박
- 된장, 고추장과 함께 인삼은 국제규격식품 등록, 식품으로서 국제표준화 실현
- 최근 인삼제품의 안전성 검사 및 부정유통 단속을 대폭 강화
- 거대 생산자로서의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 효과 상승,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중국시장여건이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개방 대응작물로서 인삼 전략적 가치 높음
 - 최근 중국의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법률 개정
 - 중국은 5년근 이하 인삼을 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 한국 측 요구 수용
 - 중국 위생부는 최근 ‘보건식품’으로 분류하던 5년근 이하 인삼을 일반식품의 하나인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한다고 공고
 - 5년근 이하 인삼, 인삼함유 젤리·사탕·삼계탕의 중국 수출 수월할 것으로 전망

(4) 위협(Threat)

- 홍삼 소비가 성숙기에 도달하여 국내홍삼 소비 정체 예상
- 유가인상 및 경기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목
-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로 중국산, 서양삼(화기삼)의 재배급증 및 기술향상
- 노동력 부족과 노임상승
- 연작피해, 경작적지 부족
- 밀수인삼, 유통질서 문란
- 고려인삼의 승열효과에 대한 오인식
-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강화
- 이원화된 법률, 관리감독 부처로 인해 집중적인 산업 발전 저해

2) 전략과제 도출

(1) SO전략

- 고품질·고급화·지속가능·안전한 충남 인삼산업 추진, 품질경쟁력 제고
-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위한 기술의 개발과 매뉴얼 보급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규모화 달성
-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생산 및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

(2) ST전략

- 인삼 잔류농약 검사, 인증, 성분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수삼(원료삼)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 문제 해결(인삼GAP재배 의무화, 채굴전 검사 확대)
- 중국시장 개방에 따른 고려인삼에 대한 과학적 효능 연구
- 중국시장 대비한 정부 및 지역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상품 수출확대

(3) WO전략

- 경작농가, 제조 및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의 규제위주 법령개정 제한 완화
-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소비자 구매촉진을 위한 상품개발
-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삼 소비계층 다양화·대중화
-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인삼보호와 육성(생산-제조-가공 유통 등 자율성 통해 경쟁력 확보)

(4) WT전략

- 수삼 선진유통시스템 도입(유통비용 절감, 유통구조 및 거래투명성 등 가격경쟁력 제고)
- 유통현대화 사업 : 지역은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성화, 수도권 별도 도매센터 설치
- 사이버거래소 등 전자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사업 활성화
- 생산과정부터 투명화 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시스템 정착

<그림 5-1> 충남 인삼산업의 SWOT분석에 따른 전략과제 도출 결과

SO전략	충남 인삼 품질혁신 및 차별화 전략(품질경쟁력) : 고품질 · 고급화 · 지속가능 · 안전 상품 개발
ST전략	충남 인삼 소비 확대 및 소비자 신뢰 향상 전략(신뢰경쟁력) : GAP재배의무 확대, 안전 · 안심시스템 구축, 수출촉진
WO전략	충남 인삼 대외경쟁력 확보 전략(가격경쟁력) : 가격경쟁 향상,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육성
WT전략	충남 인삼 유통혁신 전략(유통경쟁력) : 유통단계 및 거래투명성 확보, 선진유통시스템

▼
<최종목표>

충남 인삼의 명품화 시스템 구축(생산-유통-가공-소비-제도지원 기반)

충남 인삼의 종합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충남 인삼의 소비자 신뢰구축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고품질·고급화·지속가능·안전한 충남 인삼산업 추진, 품질경쟁력 제고
-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위한 기술의 개발과 매뉴얼 보급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규모화 달성
-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생산 및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

- 계약재배를 통한 우량인삼 생산체계 구축 및 인삼농가 조직육성
- 신규 재배면적 확대 및 안전한 인삼 생산시스템 구축
- 연작장해 발생으로 인한 신규재배면적 부족에 따른 영구인삼재배단지 계획 확보
- 6년근 위주의 생산체계에서 4년근 위주로 작부체계 전환 유도 사업
- 경작신고 체계를 통해 인삼시장 투명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역할 강화
- 품종분야의 신 생산혁신 기술연구개발 및 보급 : 신품종 개발로서 고온 적응성, 내병성 우량 신품종 개발, 우량 신품종 보급 체계 구축
- 비료나 농약, 기타 재배과정에 대한 선진화를 통해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 강화
- 농촌진흥청의 ‘표준인삼경작법’, ‘인삼수경재배방식’ 등 표준생산매뉴얼 보급, 확대
- 국내산 우수 품종 자급률 향상을 통한 로열티 유출 방지
- 저비용·저투입 실현 위한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내재해형 해가림 시설개선 지원 등)
- 청정·친환경인증·안전한 인삼생산 확대 기반 조성 : GAP 등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확대, GAP재배의무화, GAP생산농가 확대
- 충남내 인삼농가와 가공산업과의 연계기능 강화사업
- 관계기관 협동 재배농가 및 관련주체 안전성 교육 강화사업

(2) 유통 부문

- 수삼 선진유통시스템 도입(유통비용 절감, 유통구조 및 거래투명성 등 가격경쟁력 제고)
- 인삼유통시스템을 포함한 인삼유통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
- 유통현대화 사업 : 지역은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성화, 수도권 별도 도매센터 설치
- 사이버거래소 등 전자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사업 활성화
- 생산과정부터 투명화 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시스템 정착

- 충남내 주산지 중심(금산군, 서산시)의 조직화 및 브랜드화
- 신 유통기술 연구 및 보급 : 인삼품종 및 연근 판별기술 실용화
- 선진유통시스템 도입과 안착, 안정적 유통망 구축
- 금산인삼농협 및 서산인삼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 충남 도내 인삼 수직계열화 사업
- 충남 진스Q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로드맵 마련
- 충남 도 단위 광역브랜드화 및 연합마케팅 사업
- 산지유통시설 현대화사업 확충
- 사이버거래소,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사업 활성화
- 원료삼 유통단계(1차가공-수송-물류-최종소비)에서의 안전성 확보, 철저한 품질관리
 - 원산지 표기 단속 철저, 수삼 연근표시 의무화
 - 각종 등급, 규격, 거래단위, 기준 표시 의무화
 - 불법·부정유통 감시 강화
 - 인삼 생산이력추적관리제⁴⁸⁾ 도입
- 인삼 도매거래 기능 강화를 통해 투명한 유통시장 형성과 유통비용 절감 사업
 -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거래 가격형성 위하여 수도권 도매센터 설치(장기적 추진)
 - 수삼 경매거래 강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 금산 수삼센터는 전통적인 인삼거래시장. 유통시장으로서 활성화

48) 검사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확인 유통이력정보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미검사품이 유통되는것을 방지

(3) 소비 및 가공 부문

- 인삼 잔류농약 검사, 인증, 성분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수삼(원료삼) 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 문제 해결(인삼GAP재배 의무화, 채굴전 검사 확대)
- 중국시장 개방에 따른 고려인삼에 대한 과학적 효능 연구
- 중국시장 대비한 정부 및 지역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상품 수출확대
-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소비자 구매촉진을 위한 상품개발
-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삼 소비계층 다양화·대중화

- 원형삼(홍삼, 백삼, 태극삼 등)보다 여러 계층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삼류 가공제품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전략
- 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인삼 효능 홍보강화, 소비자 관심 유도, 저변확대 사업
 - 아동의 경우 허약체질이나 신장발달,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피로회복과 두뇌개발
 - 여성층에 대해서는 다이어트와 피부미용
 - 청장년은 혈행개선과 숙취제거·성인병예방
 - 노년층에게는 피로회복, 지구력증진, 노화지연, 항암, 성기능, 성인병 보조치료제
- 흑삼의 기존 인삼제품 차별화 전략, 시장 다각화 전략(최근 새로운 대안 부상)
 - 흑삼에 대한 정확한 이해, 수요시장의 안정적 형성, 제조 및 성분 표준화 통한 차별화 전략
 - 고부가가치 새로운 재화로서의 가치와 금산인삼산업의 독창적 창조물 효과
- 미계약인삼, 4년근 위주 안전성 검사 강화, 채굴전 검사확대 등 안전안심시스템
 - 검사업체 이화학검사기관 선정제도 개선, 검사기관 검사 시 부적합품 사후관리 강화
 - 자체 검사 원료삼 관련 서류비치 의무화, 검사시료 채취 모집단 단위 명확화
 - 검사제외된 인삼류 검사 의무화 검토
-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층, 고객접근성 향상
- 대한민국 고품격 수출농산물(휘모리⁴⁹⁾)로 지정하여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육성
- 건강기능성 효능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 연구결과 확산, 홍보

49) 현재 과채류(파프리카, 딸기), 과실류(배, 사과), 화훼류(국화, 장미, 백합, 선인장), 임산물(새송이, 팽이버섯), 가공식품류(김치) 등이 지정(농림수산식품부, 2012)

- 신비한 영약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인삼의 고급·건강·기능성 관련 효능 부각
- 충남인삼의 우수성 및 차별성 부각
-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 용도 다양화 시도
- 인삼클러스터 고도화
- 인삼을 주제로 하는 국제건강지자체 육성
-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수출상품 적극 개발과 제품다양화 시도
- 스위스 파마톤사 <진사나(GINSANA)>와 같은 진세노사이드 함량기준 가공제품
- 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한 각종 인프라 환경조성 사업
- 고려인삼의 효능 및 성과확산을 위해서 국제 임상실험 추진
- 고려인삼과 타 수입산 인삼과의 차별성, 우수성 홍보
- 한국산 인삼명칭을 Ginseng에서 Insam(인삼)으로 고유명사화
- 수출국 다변화
- 수출거래선 확대지원
- 목표시장별 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채널 및 홍보·관측 전략의 강화
- 대만·홍콩·중국 등 원형 홍삼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탈피
- 수출지역, 제품 및 가격의 다양화로 수출시장 다변화

(4)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경작농가, 제조 및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의 규제위주 법령개정 제한 완화
-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인삼보호와 육성(생산-제조-가공-유통 등 자율성 통해 경쟁력 확보)

- CODEX 아시아규격을 세계규격으로 전환
- 고려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 인삼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 제2기 정책방향 수립
- 인삼관련 통계자료 구축
 - 현재 생산(농가수, 면적, 생산량 등)에 치우친 통계 외에
 - 유통단계별 실태, 유통비용, 소비현황, 수출입 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DB구축
 - 품목별 생산-수입-수출-제조-가공-유통-소비량 등 단계별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 수급조절 및 가격동향, 미래예측 등 정책개발과 관리에 많은 도움
- 지나친 규제와 관리 완화, 관리부처 일원화를 통한 정책시너지 효과 창출
 - 관리부처 일원화 : 현재 식품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한약재용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로 인해 일관성 있는 관리와 지원 힘든 현실 타개책 마련

3. 경상북도 사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사과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재배 주산단지의 발달, 우수한 품질

- 2011년 우리나라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31,167ha이며, 경북 지역의 사과생산면적은 19,470ha로 전국의 62.4%를 차지하고 있음. 경북사과의 주요 생산지로는 안동, 영주, 청송, 의성 등임
- 경북지역은 사과재배에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일교차가 커 육질의 치밀함과 색깔 그리고 당도를 내는데 유리하며, 일조량이 풍부해 고운 빛깔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유리함. 또한 품종개량, 선진재배기술 도입, 친환경 재배농법의 적용,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등을 통해 당도가 높고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음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사과 주산지가 발달한 이유는 적정한 온도, 청정공기, 맑은 물, 일교차, 일조량, 토양, 그리고 다수의 농가들이 분포해 있어 기술에 대한 상호 경쟁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고랭지가 많아 주야간 온도차가 심하고, 햇빛이 강렬하여 타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사과를 생산하는데 적합함
- 경북지역 사과재배농가의 주된 재배 품종은 후지품종이 86.8%, 홍로 3.8%, 양광이 1.8%, 쓰가루 1.1%이며, 그 외 감홍, 선홍, 홍옥, 홍월, 산사 등의 품종은 1% 미만임

○ 타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 2010년 과수농가 평균 10a당 소득을 품목별로 보면 단감 10a당 소득이 171.7%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다음으로 감귤(124.2%), 배(109.5%), 사과(100.9%), 포도(85.5%), 복숭아(37.2%) 순으로 나타남⁵⁰⁾
- 사과의 경우 가장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소득동향으로 보았을 때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 선호품목이 될 수 있음

○ 저농약 친환경 재배기술의 발전

- 우리나라의 친환경적 사과생산기술은 다양한 유전적, 환경, 생태적 기술을 가지고 못하고 농가의 특정비법적 방법에 의해 의존해 왔음. 경북지역에는 지역적으

50)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집」, 2011.

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별로 기술이 우수한 사과재배농들이 많이 분포해 있음

- GAP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제도, 고품질 사과를 지향하는 유해물질의 잔류가 없는 안전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노력, 친환경 농자재 등에 의해 저농약 친환경 재배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
- 밀식과원 증대로 생산성 향상
 - 유럽에서 발달한 고밀식 재배기술이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다수확 및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옴. 뿐만 아니라 일반과원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밀식과원의 경우 원뿔형 수관으로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고, 기계를 이용한 관리가 쉬울 뿐 아니라 생산 품질이 우수한 편임
 - 밀식재배는 낮은 수고(樹高), 단위면적당 많은 나무를 심어, 적과와 착색향상, 병해충 예찰 등이 편리하고,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적용으로 고품질, 다수확, 생산비 절감으로 경제적이며 소규모의 가족농으로도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음
 - 경북지역의 경우 2000년 이전부터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1년 기준 재배면적 19,470ha의 44.2%인 8,608ha의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였음. 경상북도는 2017년까지 71.9%의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⁵¹⁾임

(2) 약점(Weakness)

- 농업인 고령화로 노동의 질 저하
 - 2010년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종사자수 중 65세 이상 비율이 40.0%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전국의 과수농가 또한 35.1%가 65세 이상임. 경북의 과수농가의 경우도 38.4%가 65세 이상의 연령층임⁵²⁾
 - 이와 같은 농업인 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과수농가의 고령화는 전반적인 농업의 고령화 비율에 비해 다소 낮다고는 하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노동의 질 저하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생산물의 가공산업 연계 부족
 - 사과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과 가공량은 200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사과의 가공량은 23.7천톤으로 4.8% 수준에 불

51) 경상북도 내부자료

52) 통계청, 「2011 농림어업총조사」, 2011.

과함. 과실류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공량 비중 또한 12.2%에 불과하여 감귤의 59.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사과가공은 2009년 현재 주스가 약 76.9%, 음료 및 기타 가공이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가공품으로 넥타(3.1%), 술(2.6%), 통조림(2.1%), 잼(1.5%), 식초(1.4%) 순임⁵³⁾
- 사과 가공수요 증대를 위한 가공품 품질 개선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높은 국내가격으로 수출물량 확보의 어려움

- 2009년 기준 사과의 세계평균 수출단가는 1톤당 712달러이며, 일본이 1톤당 3,254달러, 한국이 1,940달러, 멕시코 1,258달러, 프랑스 966달러, 미국 933달러로 나타났으며, 세계 수출량의 15.1%를 차지하는 중국은 608달러로 낮은 수준임⁵⁴⁾
- 우리나라의 사과수출 단가는 높은 편이나 수출물량이 0.1%에 불과하며, 상대국의 검역상황 변화, 국내작황 등에 따라 수출물량이 들쭉날쭉함. 뿐만 아니라 국내가격의 변동이 심해,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다소 높을 경우 내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사과소비량의 감소

- 사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992년 15.7kg에서 2004년 7.4kg으로 절반정도 감소하다가 최근 다소 증가하여 2010년 9.3kg으로 증가함⁵⁵⁾
- 이러한 원인은 타과일 소비 증가와 더불어 오렌지 등 대체 수입과일의 증가로 사과 소비가 줄었기 때문

(3) 기회(Opportunity)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관심

- 전반적인 소득증가와 더불어 웰빙, 웰니스를 추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안전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친환경농산물 거래액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4조 8,622억 원, 2015년에는 전년대비 9.2% 증가한 5조 3,11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53) (사)한국사과연합회, 「한국 사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0. 12. pp. 45~47.

54) 안동대,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경북사과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중간보고서, 2012. 8. pp. 36~38.

55) 안동대, 위의 보고서, p. 50.

망⁵⁶⁾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판매시장의 변화

- 쇼핑몰을 통한 우리나라 상품의 전자상거래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농수산물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액 규모에서는 해마다 대폭적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해 농산물 시장거래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표 5-2> 사이버 쇼핑몰에서의 농수산물 거래비율

(단위 : 십억,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쇼핑몰 전체	13,460	15,766	18,146	20,643	25,203	29,072
농수산물	312	393	493	588	681	821
전체에서의 농수산물 비율	2.3	2.5	2.7	2.8	2.7	2.8
농수산물 전년대비 증가율	9.8	25.8	25.5	19.1	15.9	20.5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 및 호감 팽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에 의하면, ‘국산 및 수입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비교에 있어서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이 78.3%인 반면, 수입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은 4.9%⁵⁷⁾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 소비자들은 국산 농산물, 그 중에서도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이 많아질수록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선호도 또한 높아질 것임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공동체 관심 부각

-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동, 복지, 주택,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지금까지 생산 그 자체만으로 결속해 왔던 작목반이나 생산협의회 등이 생산에서 가공 및 유통을 기반으로 한 법인체 공동조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짐

(4) 위협(Threat)

○ 시장개방화로 값싼 과일 수입 증대

56) 김창길 외 3,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정책연구보고 P1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12.

57) 김창길 외 2,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형태 분석」, 정책연구보고 R5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2.

-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포도, 배, 와인 등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수입으로 우리나라의 과일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됨. 더군다나 2011년 한-EU, 2012년 한-미 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사과는 직접 수입되지 않더라도 값싼 많은 과일들이 수입됨으로써 대체소비 효과가 발생하여 사과 생산과 소비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됨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적지의 변화

- 사과의 재배적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산단지가 쇠락하고 장래에는 새로운 지역이 주산지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기후변화는 사과의 재배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과의 생육기와 품질, 재배적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품종개발이 시급하며, 매개곤충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수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부재

- 2011년 대만으로의 수출사과에 농약이 검출되어 전수조사후 수출 재개, 자국의 농약 등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만정부는 정부발행 농약검사서 첨부를 요구, 그 이후 6개 업체가 또 적발되어 수출애로
- 생산농가 단위에서의 농약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출시 특정 농가가 농약검출이 발각되면, 다른 농가 명의로 수출하는 등 수출에 대한 인식이 부재
- 무역거래 문제점 발생 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산자 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회사 책임으로 되어 있어 무역회사의 많은 민원발생

○ 인접국 및 타 지역의 생산면적 증대

- FAO 집계⁵⁸⁾에 의하면, 2010년 세계 사과 생산량은 6,957만 톤으로 2001년도 5,759만 톤에 비교하여 10년에 걸쳐 1.2배 증가함
- 주요생산국으로는 2010년 기준 중국이 3,327만 톤(47.8%), 미국이 6.1%, 터키 3.7%, 이태리 3.2%, 인도 3.1%, 폴란드 2.7%, 프랑스 2.5%, 이란 2.4% 순임
-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외 일본이 80만 톤, 북한 75만 톤, 우리나라가 46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생산량의 0.7%를 차지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세계사과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럽과 미주지역의 생산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58) 안동대, 위의 자료, pp. 26~30 재인용

- 지구온난화로 사과의 재배지가 북상하여 이미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경북 = 사과주산지’ 라는 등식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경북사과의 품질이 우수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를 경북사과, 특히 청송사과의 브랜드로 도용하는 사례가 많음

<그림 5-2> 경북 사과산업의 SWOT 분석

S 강점(Strengths)	W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의 발달, 높은 재배기술 수준 ▪ 타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 밀식과원 증대로 생산성 향상 ▪ 저농약 친환경 재배기술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고령화로 노동의 질 저하 ▪ 생산물의 가공산업 연계 부족 ▪ 높은 국내가격으로 수출물량 확보 어려움 ▪ 사과 소비량의 감소
O 기회(Opportunities)	T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관심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판매시장의 변화 ▪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선호 및 호감 팽배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공동체 관심 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화로 값싼 과일 수입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적지의 변화 ▪ 수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부재 ▪ 인접국, 타지역의 생산면적 증대

2) 전략과제 도출

○ 경쟁력 있는 생산재배기술 유지·발전

- 키낮은 사과원의 고밀식재배를 통해 효율적 병충해 방제를 행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또한 경북사과 브랜드 및 원산지증명 강화에 치중할 필요가 있으며, GAP사과, 친환경 사과 등 품질 좋은 사과생산을 위해 생산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출하단계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APC 활용

- 지역에 설치된 APC를 통해 균일화된 품질의 사과생산을 유도하고, 출하단계에서의 집하 및 출하, 소포장, 매취사업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자리매김 되도록 함. 또한 APC의 적절한 역할을 통해 생산의 조직화 및 전문화로 연결되어 상호 윈윈의 관계가 설정되도록 함

○ 장기 저장기술 보급 확대

- 일년 한번의 수확기를 맞아 연중소비로 연결되고 품질 좋은 사과와 연중 출하를 위해 수확 후 관리가 필요함. 수확기의 홍수출하를 막고 저장을 통해 품질 유지기간을 연장하는 저장기술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여야 함

○ 사과 수출경쟁력 강화

- 내수용만으로 사과공급을 충족한다면 사과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임. 국제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수출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 뚫은 수출선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과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사과수출 마케팅보드 육성이 필요함

○ 사과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사과소비는 가격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소포장단위로의 변경, 포장재 개발, 홍보 등 마케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과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사과가공품 개발

- 사과의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과 가공품 개발이 필수적임. 특히 음료 이외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과와 다른 생산물을 혼용한 국수류, 건강보조식품, 발효제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함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지역 내 고밀식 재배체계의 확대

- 고밀식 재배는 키낮은 사과나무를 단위면적당 많이 심어, 적과와 병해충 예찰이 쉬워 생산성이 높고 노동력이 절감되어 기존의 재배방식보다 나은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음
- 아직 전정, 수세관리, 시비 등 관리기술이 미흡하고, 바이러스 무독묘목이 제대로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정밀한 관리기술이 확립되고 우수한 왜성대목이 보급될 경우 경북 사과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현장 밀착형 생산자교육 강화

- 사과 농의 경우 재배기술이 우수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와의 차이가 수량은

1.9배, 소득은 3.8배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사과에 대한 기술보급이 농업기술센터나 경북농민사관학교,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과대학 등의 집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사과 생산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주산지별 기상, 입지, 토양환경 정밀분석과 더불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과 재배방법에 대한 교육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함

○ 기계화 기술개발과 확대를 통한 투입비용 절감

- 기존 사과농장 관리가 SS방제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풀베기는 한정적으로 기계 예초가 행해지며, 수확과 적과, 전정 등에는 주로 사다리를 이용한 인력으로 해결해 옴.
- 최근 고밀식 재배체계의 보급으로 사과농장에 기계투입이 용이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재배방식에 맞는 기계화 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화 작업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인력투입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과 수고(樹高)가 낮은 나무의 적과, 방제에 적합한 작업차 개발 등이 필요함

○ 국가별 사과수출전문단지 육성

- 한국산 사과수출은 연중 지속적이기 보다는 단발성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극동아시아 등 몇 나라에 한정되어 있음
- 지속적으로 사과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과수입국별 선호체계에 부합하는 한국산 사과 재배전문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배단계에서부터 수출선적까지 일관된 품질 및 안전성 관리체계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 선호에 맞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사과수출단지에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단지 생산사과에 대한 GAP 인증 및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거점 APC를 통해 균일화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사과에 대한 브랜드 개발 지원 및 수출관련 지원금을 확대하여야 함

○ 우수품질 사과생산 GAP 인증 확대 추진

- 1997년 유럽에서 시작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제도가 우리나라 사과에도 2006년부터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2007년 이후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GAP가 전제조건이 되면서 사과수출을 위해서는 GAP 정착

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

<표 5-3> 품목별 GAP 인증 현황

순 서	품목	인증 건수	인증 농가		면적(ha)	생산계획량	
			호수	비율(%)		생산량(톤)	비율(%)
1	쌀	304	18,644	50.19	29,989.95	191,996.26	29.9
2	사과	124	4,162	11.2	4,894.92	114,684.78	17.86
3	배	67	1,619	4.36	2,063.11	55,548.71	8.65
4	포도	88	1,247	3.36	797.38	25,020.99	3.9
5	복숭아	51	1,139	3.07	1,103.48	18,888.44	2.9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1년 GAP이력추적등록 통계(종합) 1부」, 2011. 12

- 위의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의 GAP 인증건수는 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비율이 낮은 편임. 향후 사과 수출 및 우수한 저농약친환경 사과로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GAP 인증농가가 늘어나도록 지자체 등의 지원·지도가 필요함

(2) 유통 부문

○ 장기 저장기술 보급 확대

- 고품질 사과 출하를 위해 수확 후 관리가 필요하며, 수확기의 홍수출하를 막고 저장을 통해 품질 유지기간을 연장하여 비생산기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체 유해한 수확후 처리제인 1-MCP 처리(강력한 에틸린 작용 억제)를 통한 사과 품질유지, CA저장고 확대, 거점 APC의 CA 저장고 확대, ULO-CA(Ultra Low Oxygen Controlled Atmosphere) 저장기술 등을 보급함으로써 장기저장기술을 통해 고품질이 유지하고 연중 사과 출하가 가능하도록 함

○ 거점 APC 중심의 유통체계 정착

-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한 거점APC의 주요사업은 사과의 집하 및 출하 기능뿐만 아니라 매취사업을 통한 과실계약출하 및 유통활성화 유도, 사과 판로확보를 위한 수탁사업, 하나로클럽 등 대형거래처 개발을 마케팅 활동사업, 시장정보 제공, 영농자재 제공 등임. 경북지역 내 문경, 영주, 청송의 APC가 사과를 주요품목으로 다루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증대,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의 물량 점유율 증가 등 농산물시장 여건의 변화로 거점APC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이에 부응하

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대표브랜드 육성, 조직화 및 전문화를 통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사과전문 유통시설로 자리매김시켜 가야 함

○ 경북사과 브랜드 및 원산지 증명 강화

- 사과주산지인 경북지역에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사과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 청송사과, 영주사과 외에도 사과 수출브랜드인 데일리(Daily) 등이 있음. 사과 하면 청송사과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듯이, 청송사과를 도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빈번함
- 경북지역 내 사과주산지가 많고 많은 사과가 생산되다보니 사과브랜드 또한 많은 편임. 광역브랜드의 효용성을 논하기 전에 지역별로 생산되는 우수사과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값을 받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RFID 기술을 이용한 사과의 이력관리 및 원산지증명, 브랜드 도용 방지 기술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함

○ 사과수출 마케팅보드 육성

- 사과소비는 생과와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게 됨. 지금 국제가격이 낮다고 해서 내수만으로 수요를 충당한다면 사과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 입장에서 사과생산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됨. 국제적으로 사과 소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사과수출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사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신경써야 함. 경북지역의 농산물 수출은 경북통상 등 몇 군데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출회사는 사과 한 품목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농산물 모두를 취급하고 있음. 수출창구의 일원화와 전문화를 위해 사과수출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시군별 수출협의체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사과마케팅보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마케팅보드를 통해 지역사과의 홍보업무를 극대화하고 수출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과수출 창구 역할을 담당토록 함

○ 다양한 소포장 단위 개발

- 사과산지의 포장단위는 대부분 15kg이며, 소매단계에서는 5kg, 3kg 4~5개 들이 포장 묶음으로 재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음. 소매단계에서 소포장하는 불필요한 재포장 작업을 없애 유통비용을 줄이고 사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감
- 산지출하단계의 APC에서 소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형태로 출하를 권장토록 함. 소포장의 보관방법, 소포장을 통한 고급화를 추구함

(3) 소비 및 가공 부문

○ 사과소비 촉진운동 전개

- 사과소비 촉진운동은 단순한 사과소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로컬푸드, 웰빙푸드로 자리매김되도록 함
-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사과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운동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공조를 통해 사과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감. 뿐만 아니라 홍보 전단지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사과 홍보, TV 연속극 등 간접광고를 활용함

○ 사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 사과 소비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생과만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사과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재 사과 가공 또한 주스 등 음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과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 맛을 가진 가공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임. 전처리가 된 신선편이 학교급식 제품, 사과와 다른 생산물을 혼용한 국수류, 건강보조식품, 발효제품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함

4. 경상남도 단감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단감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첫째, 농가와 지차체간에 농산물 수출의 필요성과 의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임
 - 수출을 통하여 지역 농업이 경쟁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증대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농산물과 경쟁을 함으로써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농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마인드의 확산은 중요함
- 둘째, 농업의 현대화,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신선채소류, 과일, 일부 축산물의 경우 수출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업적 영농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임
 - 비농업분야의 수출상품에 대한 지원과 같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춘 상업적 전업농가들이 대거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때문에 맛, 향, 당도 등에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임
 - 우리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이 해외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약점(Weakness)

- 첫째, 농촌 노임의 상승과 비싼 농지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임
 -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중국 동남아 등 후발 경쟁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하면 품질대비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수출농업은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로서 농민들과 업체들이 수출 업무에 익숙지 못하여 불필요한 클레임을 야기하거나 거래교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 농산물 값이 조금만 높게 형성되어도 수출계약을 파기하고 내수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는 농산물 수출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수출신용도를 떨어뜨려 지속적인 수출을 어렵게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셋째, 수출농업단지 규모의 영세성이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수출 농산물의 생산단지 규모가 너무 작아 적재량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로 수송함에 따라 수집·선별·운송비가 많이 들고 컨테이너를 채우기 위해 며칠씩 대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부족물량을 채운 후 수송하는 사례도 많아 농산물의 품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기회(Opportunity)

- 첫째,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시장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점임. 일본은 한해 약 800억 달러 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최대 농산물 수입국가인데 다 최근 한국문화와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져 품질조건만 갖추면 수출을 확대하는데 호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선도 유지가 중요한 채소, 과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인접국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살릴 경우 대 일본 신선 농산물의 수출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음
 - 신선농산물의 대일 수출은 식품박람회 참가, 유망품목 개발, 일본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판촉전과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경남의 주력 수출농산물인 단감의 경우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고소득층이 늘어나고 고품질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 차별화로 승부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시장을 신규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점임
- 셋째, 음식문화의 세계화 추세 및 우리나라 한류 문화와 음식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남에서 생산된 단감을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한 전통식품 및 전통 음식류의 수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 넷째, 최근 FTA 등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농산물 무역 자유화 추세는 우수한 경남의 단감을 해외로 수출하는 좋은 기회로 판단됨

(4) 위협(Threat)

- 첫째, 중국, 동남아등 후발 농업국의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싼 가격을 무기로 경쟁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증가에 큰 위협을 주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가격인데,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수출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위협을 받고 있음
- 둘째, 최근 환율 하락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수출시장에서 환율변동은 농산물 수출에 크게 영향을 줌
 - 농산물 수출이 환율의 하락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환율 손실보상, 선물시장, 중계 무역 등 보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셋째, 농산물의 수출과정에서 병충해, 위생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상대국의 보복적 비관세장벽 등 예기치 못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WTO 출범이후 농산물 무역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동·식물검역, 식품검사 등의 비관세 무역 장벽이 많이 남아 있음
 - 신선농산물에서 검출되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이 각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수입국에서의 식품위생검사 통관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전략과제 도출

(1) SO전략

- 국제 기호성 고품질 생산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 기술 개발
 - 중생종, 종과종(200g 내외), 당도 16, 0°Bx이상의 품종 개발과 상온 저장성이 30일 이상의 장기 저장성 기술 개발 절실
-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시스템 구축
 - 비용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 기술력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한 과원관리 요구
-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문 선도농 육성
 - 단감 관련 전문성을 가진 선도농을 육성하여 단감산업의 경쟁력 확보 요구

(2) ST전략

-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단감을 이용한 신선편이 식품 개발 및 상품화가 절실하고, 단감 아이스, 와인 개발 등 소비자 맞춤형 가공품 생산이 절실함
- 저수고 재배기술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Y자 수형 재배기술 개발로 조기 수량을 증대하고, 소득을 높이는 전략 요구됨.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산 저해 요인 해소 기술 개발
 - 기후 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대응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재배지 북상에 따른 동상해 피해를 경감 시키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3) WT전략

- 거점 APC 육성으로 안전과실 생산 시스템 구축
 -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규격화된 고품질 과실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통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높임
- 유통 선진화 및 유통의 조직화 및 규모화
 - 도매 단계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및 시설 현대화 작업 필요함하고, 포장·운송·하역 관련 설비의 규격화 및 기계화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
- 제품 브랜드화, 품질 차별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개발
 - 실질적인 브랜드의 형성을 위해 철저한 선별, 품질균일화, 전속출하, 물량 규모화, 규격화, 디자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4) WO전략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 아이스 단감, 와인 등 다양한 고품질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전략적 R&D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가공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

- 단감 수요기반 확대 및 시장, 가격,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공산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
- 수출과 연계한 고품질 과실 홍보 강화
 - 일본, 대만 등 고가품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중국의 고급과실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조중생 우량품종 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
 - 중앙묘목관리센터를 통해 조중생 우량 묘목을 확보·증식하여 묘포장에 공급하고, 생산된 묘목에 대한 병해충 검사 실시
- 고품질 생산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개선
 - 고품질화, 생산성제고, 비용절감, 재해예방 등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사업 : 품종갱신, 방풍시설, 관수관비시설, 조수방제시설 등
- 수출단지, 경쟁력이 있는 과원 등 대상으로 생산기반정비
 - 용수개발, 배수로 및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거점 육성

(2) 유통 부문

〈품질관리〉

- 효율적 품질관리와 비용절감을 위한 현대화된 APC 확충
 - 규격화된 고품질 과실출하 및 유통조절기능 강화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단감의 대표 브랜드 육성
 - 우리나라 단감 대표브랜드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

〈비용절감〉

- 표준규격과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포장·운송·하역 관련 설비의 규격화·기계화로 물류비 절감
- 도매단계 비용절감을 위한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및 시설현대화
 -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 경매중심의 거래제도 다양화
- 소매단계 비용절감 위한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 집·배송센터와 직판 기능을 겸한 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전문화·규모화〉

-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효율화 도모
 -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규모(전문조직), 소규모(일반조직) 등으로 연결되는 수직계열화된 산지유통체계 구축
- 과실계약재배사업을 통한 규모화된 출하체계 구축
 - 재배초기(5~6월)에 산지조합이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로 일정물량을 미리 확보하여 출하기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조절
 - 농업관측과 계약출하사업을 연계하여 적정출하유도

(3) 가공 부문

- 단감 가공산업 육성팀 설치 통해 기능성 단감 가공품 개발, 다양한 요리법 개발
 - 단감연구소에 단감 가공산업 육성팀 설치
 - 고부가가치 기능성 단감 가공품개발
 - 단감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개발
- 단감 가공산업 육성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의체 구성
 - 단감 가공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 단감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성

(4) 수출 부문

- 단감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 지역별 수확후 관리시설 현대화

- 우량 품종 확대 보급 : 조추, 상서조생, 태추 등 조·중생종 품종
- 단감 수출조직 정비 및 수출창구 단일화
 - 단감주산지별농협 수출업무 통합 : 설별기준, 공급물량, 계약 등
 - 단감수출실무추진위원회 구성 : 브랜드 및 박스통일

5. 전라남도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마늘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마늘주산단지로서의 높은 브랜드 가치
 - 전남은 전국 마늘 생산면적 및 생산량('11년)의 31.5%와 28.5%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로서 소비자에게 높은 인지도 보유
-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재배 최적지
 - 전남은 해양성 기후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최적의 기후 및 토양 보유
-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기술 보유
 - 전남은 전국 친환경인증면적('11년)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 친환경농업 공급기지
 - 마늘의 경우 무농약 및 유기재배가 타 발작물에 비해 용이하지 않으나,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 친환경면적 증가 추세

(2) 약점(Weakness)

- 지속적 연작재배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 저하
 - 마늘은 전남의 대표적 발작물로서 지역특화 작물이나 연중 재배에 따른 수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 연작장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유통비절감을 위한 유통인프라 미흡
 -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한 마늘의 유통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미흡한 실정
- 수급 불안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전성
 - 마늘은 대표적인 가격 탄력적 품목으로 적정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수급불안으로 3년 단위의 가격파동이 발생해 농가소득 안정에 불안정한 구조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화·규모화 미흡

- 마늘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생산면적이 필요하나 대부분 1ha 미만으로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조직의 조직화 미흡으로 규모의 경제효과 감소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연계 미흡
 - 마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마늘 유통보다는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깎마늘 및 흑마늘, 마늘음료, 식품첨가제 등 다양한 식품산업과 연계가 필요하나, 가공시설 및 가공업체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성장 한계
-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미흡
 - 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파종 및 수확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시설 구축이 필요하나, 기계화를 위한 다양한 R&D 및 기계 개발 미흡

(3) 기회(Opportunity)

-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 소비자 수요 증가
 - 마늘의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마늘의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가공품을 중심으로 향후 소비는 증가할 전망
- 안전·안심 고품질 친환경 마늘 수요증가
 - 농산물 시장 개방 이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농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증명된 GAP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심화
 - '01년 중국과 마늘 분쟁 이후 '03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되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산 마늘이 수입 증가추세에 있으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중국산 구입의향 감소
-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
 - 발작물 및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작물 및 원예브랜드 사업 지원
 - 전남의 경우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고흥군 및 신안군이 선정되어 마늘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유통비 절감을 위한 시군유통회사 설립 및 지원

- 전남은 시군유통회사에 5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이 중 (주)고흥유통과 (주)신안그린유통이 마늘 품목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전문 회사로 육성 중
- 전남은 지역특화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목별 주식회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과 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한 시군 유통회사 설립 운영 계획

(4) 위협(Threat)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산 마늘 수입증가
 - 기 체결된 한·EU, 한·미 FTA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산 마늘의 생산면적 감소 예상
 - 특히 재배환경이 비슷하고 지근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둥성 마늘의 수입이 확대될 경우 한지형보다는 난지형 마늘의 심각한 피해 발생
- 국내 마늘주산지별 지자체간 경쟁 심화
 - 마늘 시장 폭이 확대되면서 국내 마늘 주산지인 전남, 경남, 경북 등 지자체간 경쟁 심화 예상
 - 마늘의 재배 특성 상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되나 재배 품목이 같은 전남(고흥, 신안, 해남, 무안)과 경남(남해, 창녕) 등 지자체간 경쟁 체계 심화
-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
 - '80년 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이촌향도 영향으로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4.2%를 초과하는 등 초령시대에 진입하여 상대적으로 타 발작물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투하되는 마늘의 재배면적 감소 예상
- 마늘 소비량 감소
 - 마늘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1년 7.7kg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대체관계에 있는 양파의 소비량은 31.4kg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 향후 마늘의 소비량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필요

<그림 5-3> 전남 마늘산업의 SWOT 분석



2) 전략과제 도출

(1) SO전략

- 고품질 마늘친환경재배기술 확립
 - 전국 최고의 친환경자치단체로서 높은 소비자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 마늘친환경재배면적 확대
 - 고품질 마늘 친환경재배를 위한 생산기술, 작부체계, 우량품종, 방제기술 등 다양한 생산기반 확충
- 마늘의 기능성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산업 활성화
 - 마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늘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생산, 가공, 유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마늘 융복화산업화 기반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과 연계한 마늘산업 육성

- 마늘 원예브랜드사업과 시군유통회사에 선정된 (주)고흥유통과 (주)신안그린유통의 유통망을 활용한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
- 주산지의 마늘 생산자 조직을 전남마늘품목별유통조직으로 육성
-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 강화
 - 마늘 생산농가의 수익성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배기술이 우수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간 수익성이 2배에 이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마늘의 경우 도서지역과 해안지역, 내륙지역에 따라 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영향으로 생산성 및 수익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장 중심의 교육 체계 강화를 통한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필요

(2) ST전략

- 마늘에 대한 지역단위 관측시스템 강화
 - 마늘의 수급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측시스템을 강화하여 적정 재배면적 유지
 - 농경연의 품목별 관측시스템과 연계를 위해 지역농업기술원에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사 배치
- 소비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소포장단위 개발
 - 핵가족 및 소가족화 되어가는 소비자들의 가족구성형태를 반영하여 소비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포장 단위 마늘 유통시스템 정착
 - 기존의 통마늘(접) 소비에서 깎마늘 중심으로 변화되는 소비자 트렌드 반영
- 상장제도 도입
 - 비상장품목으로 독과점 구조인 마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가락시장에 마늘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개선을 통해 마늘 수급 조절 및 적정 가격 보장
- 객관성을 담보하는 마늘 생산비 조사 체계 구축
 - 마늘 생산비를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해 농가 및 유통업자의 불신 해소를 위한 객관적 생산비 조사 체계 구축 필요

(3) WT전략

- 마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아재배 확대
 - 고품질마늘 생산을 위해 우량종구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타 품종에 비해 생산성이 증가된 주아재배 단지 확대
 - 마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품종 개발 및 농가 보급체계 구축
- 마늘 유통비용절감을 위한 산지 유통시설 확대
 - 마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마늘종합유통센터 건설
 -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한 건가시설(개량곳간) 지원
-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 마늘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마늘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마늘의 감소를 절감시키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농가에 보급
- 마늘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단지 조성
 - 마늘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 및 수확단계 기계화 가능 기술 개발 및 농가 활용 체계 구축
- 마늘 생산이력추적시스템 확대
 -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체계 구축으로 전남 마늘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 신뢰 구축

(4) WO전략

- 마늘 홍보강화 및 소비 촉진 운동 전개
 -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해 마늘이 보유한 다양한 기능성을 홍보하고, 지역의 소비자 단체들과 연계한 국산 마늘의 소비운동 촉진
- 마늘 원산지증명 강화
 - 수입산 마늘을 포대같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시스템 근절을 위해 마늘 원산지 증명제도 강화
 -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시체계 강화

○ 다양한 마늘가공식품 개발

- 마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마늘 및 깎마늘 만으로는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마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마늘 가공식품 개발 필요
- 최근 마늘의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마늘 드링크 음료 및 음식의 양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스 개발 등이 필요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지역여건에 적합한 우량종구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 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품종과 우량 씨마늘 확보 매우 중요한 과제
- 씨마늘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정해야 하고, 녹별과 부패병·선충·응애 등 인편의 외관 및 뿌리 부분이 건전한 씨마늘 사용
- 수량은 파종한 씨마늘 크기와 거의 정비례하고, 너무 크면 벌마늘이 되기 쉬우므로 한지형은 4~5g, 난지형은 5~7g 크기 선택

※ 우리나라 대표적 재래품종 : 서산종, 의성종, 단양종, 제주종, 해남종 등이 있으며 도입종은 남도마늘, 대서마늘, 자봉마늘이 있음

○ 마늘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주아재배 확대

- 주아재배는 씨마늘 재배보다 수량 32% 증수 가능하고, 생산비는 kg당 28% 절감이 가능하며, 특히 브랜드 마늘의 품질균일화를 위해서는 주아재배 확대 필요
- 주아재배 확대를 위한 주아재배 시범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우량종구 보급 체계 구축

<표 5-4> 마늘의 주아재배 효과

구 분	2006년 (A)	종구갱신기술도입효과		대비(%)	
		2008년(B)	2013년(C)	B/A	C/A
기술 수용율(%)		종구 40%	종구 70%	-	-
수량(kg)	1,159	1,310	1,570	113	135
kg당 생산비(원)	1,235	931	770	75	62
종구비	316	195	158	62	50
노력비	509	429	357	84	70
농기계비	22	29	23	132	105
기 타	388	278	232	72	60

자료 : 농촌진흥청, 2010

○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확대

- 한 토양에 지속적으로 마늘을 재배함으로써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등 토양에 전염하는 병원균 수가 증가하여 수량이 저하되거나, 저품질의 마늘 생산 증가 개선
- 마늘 수확이 완료된 후 녹비작물을 파종하여 토양의 미생물 증가를 통한 연작장해 발생 억제 시스템 구축

○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시스템 구축

- 마늘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재배 시스템 구축
- 수입개방에 대비 국산 마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늘의 친환경재배기술 확립 및 농가보급 시스템 구축

○ 마늘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면적 확대

- 마늘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마늘 공급체계 구축
- 마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마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마늘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보호

○ 마늘생산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추진

- 마늘 재배 과정 중 노동력이 많이 투하되는 파종 및 수확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파종 및 수확 기계 개발
- 기계화를 통한 마늘 생력화재배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유도
- 마늘 재배 과정 중 노동력이 많이 투하되는 파종 및 수확 시 노동력 절감을 위한 파종 및 수확 기계 개발
- 생력화 기계도입 시 효과
 - 노력시간 : ('06) 134시간/10a → ('08) 106 → ('13) 101(△25%)
 - 생 산 비 : ('06) 1,235원/kg → ('08) 1,080 → ('13) 1,069(△13%)

<표 5-5> 마늘의 생력화 재배 시 기대 효과

구 분	2006년 (A)	기계도입효과		대비(%)	
		2008년 (B)	2013년 (C)	B/A	C/A
기술 수용율(%)		기계 50%	기계 70%	-	-
노동시간(시간/10a)	134	106	101	79	75
수량(kg)	1,159	1,143	1,143	99	99
kg당 생산비(원)	1,235	1,080	1,069	87	87
	종구비	316	266	84	84
	노력비	509	402	79	72
	농기계비	22	94	427	536
	기 타	388	318	82	82

자료 : 농촌진흥청, 2010

(2) 유통 부문

○ 마늘종합처리시설 확충

- 마늘은 생산자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유통경로가 6단계로 매우 복잡한 구조이며, 유통비용은 난지형의 경우 깎마늘 73%, 통마늘 60%, 한지형의 경우 통마늘 46%에 이릅니다
- 마늘의 주산지에서 원료조달부터 판매까지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마늘종합처리시설 확충으로 품질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

- 마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직거래 확대
 - 주산지 시군과 대도시 구청과 협약을 통한 소비지 직판행사 개최, 산지에 소비자 초청을 통한 교류확대 등 주산지 생산자단체와 대량수요처간 지속적인 직거래 채널(MOU) 확보
 - 주산지 생산자단체의 연합사업, 공동출하·공동계산제 확대 등 물량의 규모화, 조직화로 유통비용 절감
- 마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계약재배 확대
 - 마늘관측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적정 재배유도로 마늘의 수급조절기능 강화
 - 수급동향에 따라 계약물량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가격의 등락폭을 조정하는 등 계약재배 및 유통협약 확대로 수급안정제도 운영 내실화
- 마늘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중국산 마늘의 수입증대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소비자의 욕구가 마늘의 품질이나 가격보다는 안전성에 비중을 두는 추세
 - 위해환경으로부터 마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제고
- 마늘 브랜드 차별화
 -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마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 실시
 - 대표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마늘산업 주체간 수평적 및 수직적 결합을 통한 브랜드 차별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마늘 주체간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브랜드 경영체와 참여농협, 생산농가 및 생산자조직들의 역할분담 체계화를 토대로 마늘 생산에서 산지유통, 상품화(저장, 가공) 및 마케팅·판매에 이르는 마늘 산지공급체계의 수직계열화
 - 시군유통회사인 신안그린유통(주)과 고흥유통을 중심으로 농가, 작목반, 가공업자등이 역할 분담을 통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 생산농가 조직화를 통해 친환경 마늘생산, 주아재배 및 기계화 재배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 추진

○ 마늘 상품화 개발

-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할 때는 품질인증 제도와 아울러 새로운 상표개발이 필요
- 상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상품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지속적인 수요창출 가능
- 상표개발은 고품질농산물임과 동시에 지역특산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이미지로 고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필요
- 이제까지는 대부분 산지명이 그대로 상표명이 되는 예가 많았으나 앞으로 품질 인증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산지표시만으로 소개 내지 선전하기에는 미흡
- 생산지, 품종특성, 재배특성에 맞는 상표명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때 산지 간 경쟁을 극복할 수 있음.

(3) 가공 부문

○ 마늘의 기능성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 마늘환, 짬아찌, 흑마늘 등 기 개발된 마늘 관련 가공품 이외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마늘 드링크, 식품첨가제 등 개발
- 마늘 가공(깎마늘, 다진마늘 등), 기능성 식품, 마늘과 연계된 다양한 식품개발을 통한 마늘의 부가가치 향상

○ 마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관·연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생산자, 자치단체, 농협, 유통업자, 산지수집상, 연구단체 등 마늘산업에 종사하는 주체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마늘연구소 설치

- 마늘의 품질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마늘 품종 공급체계 구축 필요
- 전남의 경우 국가시험장인 호남원예시험장(무안소재)에서 마늘 육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 연구사가 1인에 불과한 실정
- 전남 마늘의 육종 및 가공품 개발을 전담할 전문 연구소 설치

○ 마늘 공동 가공공장 또는 마늘 소재화 가공센터 설립

-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로 깐마늘·다진마늘 등 마늘 가공의 위생 수준이 마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부상
- 향후 대형급식, 학교급식, 대형 소매업체, 식품업체 등은 HACCP 기준을 충족한 마늘 가공품 또는 마늘식품소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공동 가공공장 또는 소재가공센터를 활용하여 안전한 마늘을 공동 브랜드 마케팅과 연계하여 식품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도모
- 중국과의 FTA추진시 HACCP, 가공식품화 방안 필요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감귤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국내 최적의 감귤 생산지
 - 기후변화 등으로 감귤재배 가능 지역이 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현재까지 제주지역은 감귤생산의 최적지임
 - 기후적 여건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연중 생산 및 출하가 가능하고 단위 면적당 높은 생산성 확보
- 단일 행정구역으로 정책집행에 용이
 - 공항과 항구의 출하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감귤 과잉생산시 출하조절 수단인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이 가능
 - WTO/DDA, FTA 체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곤란한 경우, 자율적 수급조절을 하기위한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조금 도입이 용이
- 높은 교육수준과 젊은 농업인이 많음
 - 타 지역에 비해 농업경영인의 높은 교육수준과 젊은 경영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감귤 재배 노하우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할 경우 감귤의 경쟁력 확보가 용이
 - 건강·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기능성 감귤 생산 등 신기술의 도입과 기술집약적인 영농에 유리
- 청정·무공해 자연환경, 1천만 제주방문객과 이미지 브랜드
 -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청정, 무공해 자연환경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감귤의 식품 안전성 관리에 유리한 환경 보유
 - 1천만 제주방문객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인한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고품질 감귤 브랜드 관리 및 마케팅에 유리
- 외부와 격리지역으로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용이
 - 섬지역이라는 특성은 물류비와 유통 차원에서는 불리하지만 병해충 차단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

(2) 약점(Weakness)

- 섬지역의 특성으로 물류·유통비용 과다
 - 섬의 특성 및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물류, 유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 WTO/DDA 협상에서 물류, 유통비용의 보조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 지급되고 있는 물류보조금 등의 집행에 어려움 초래
-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생산비 과다
 - 1ha미만 농가가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재배면적이 0.67ha로 경영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
 -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용 증가로 단위 면적당 생산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 조생온주 위주의 품종 구성
 - 조생온주의 비율이 88%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품종위주의 감귤재배에 따른 생산, 유통, 출하 등의 문제점 발생
 - 동절기에 출하가 집중됨으로써 출하조절의 어려움 가중으로 가격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농가수취가격의 불안정성 및 감소 초래 가능성이 높음
- 농업후계자 감소와 고령화 추세
 - 농업후계자 비율이 전국 평균(3.5%) 수준보다는 다소 높으나 10.4%에 불과하여 감귤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39.2%)보다 낮은 수준(27.2%)이지만 진전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출하 주체의 영세성과 출하조절의 미흡
 - 연간 600여 톤 처리 수준의 소규모 선과장에 의존하는 출하 방식으로 출하조절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 생산자가 출하를 조절하고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요구하는 신물류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

(3) 기회(Opportunity)

-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출여건 호조
 - 고급 과실수요가 많은 일본 및 중국시장과 근접하고 있어 수출기반 및 유통구조 개선 시 청정 고급 감귤의 대외 수출여건이 호조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전체인구의 13%인 1억 7천만 명의 고급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감귤의 고급화·차별화 전략 추진
- 소비자의 트렌드(청정·웰빙식품 선호) 변화
 -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비가격적 경쟁 요소에 대한 관심 증가
 - 수입농산물 소비 불신에 따른 안전농산물 소비증가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 건강식품으로서의 감귤에 대한 인식 확대
- 중앙정부의 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한 지원
 - 산지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FTA 과실기금 사업을 통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 대형(1만톤 이상) 12개, 중형(5천 톤 이상) 20개 등 총 32개 건설 예정
- 감귤의 기능성 물질 산업화 가능성
 - 감귤의 다양한 기능성 물질은 건강, 웰빙시대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큼
 - 감귤박 건조시설의 도입, 최첨단 기능성 물질 추출 기술 등의 개발로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

(4) 위협(Threat)

- WTO/DDA, FTA 협상에 따른 수입 오렌지 및 과일류의 수입량 급증
 - 오렌지 수입은 2000~2010년 평균 109.8천 톤으로 1995년 15천 톤에 비해 7배 규모로 증가
 - 포도 수입은 2천 톤에서 38천 톤으로 19배 급증
- 국제적으로 농업, 환경, 무역의 연계논의 강화
 - WTO/DDA에서 농업환경과 생산·무역과의 연계논의 강화

- 감귤과 경합되는 국내산 과실과 시설 과채류 생산 증가
 - 과실류 총 생산량은 1990년 176만 톤에서 2010년 249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배 93%, 단감 89%, 포도 133% 증가
 - 시설 과채류(딸기, 토마토) 생산량은 1990년 14.5만 톤에서 2010년 55.3만 톤으로, 시설딸기 179%, 시설토마토 414%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 생산 환경 변화
 - 기후상승으로 남해안 등 감귤재배가 확대될 경우 독점적 생산지역의 지위 상실
 - 기후상승으로 인한 병해충 증대, 수확기의 강수량이 많아지면 당도 저하, 부피 과 발생으로 고품질 감귤생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2) 전략과제 도출

(1) SO전략

- 고품질·고급화·지속가능·안전한 제주 감귤의 품질경쟁력 제고
- 로열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품종 개발
-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감귤원 경관 및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2) ST전략

-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국제기준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인 감귤 우수농산물 관리제(GAP) 도입 필요
- 해충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초생재배 등 친환경 감귤생산 재배단지 구축
-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품종 개발·보급 등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구축

(3) WO전략

- 품질 선과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 공동출하·공동 계산제 전면 시행을 통해 감귤의 생산과 판매를 완전 분리하여 전문 마케팅이 가능한 전문출하 시스템 구축
- 감귤의 품질기준에 따른 브랜드 감귤 유통시스템 구축

(4) WT전략

- 감귤 식품산업의 허브로써 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감귤 기능성 물질을 융복합한 산업화 및 다각화 추진
- 생산농가·단체 서비스 기관, 정책기관, 연구개발 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식 기반형 감귤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감귤의 고품질, 연중 적정생산을 위한 품종 및 작형 재배치
 - 일반재배 온주밀감 재배면적 축소로 가격 안정 도모
 - 만감류 및 온주밀감 무가온 하우스 재배 등 연중 생산 및 출하체계 구축
 - 품종 갱신을 적극 유도하고 품종 및 작형 재배치에 필요한 시설지원 확대
 - 지중열 이용, 공기팩 커튼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가온재배 시스템 공급 확대
-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품종 개발·보급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UPOV)에 대비한 로열티 경감, 수출확대 및 소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발 필요
 - ☞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에는 감귤 로열티 353억 원 지불이 예상되며, 2020년에 40년 이상 노후된 감귤재배면적 9,409ha(전체 재배면적의 40%)로 추정(현 개발품종 : 하례조생, 상도조생 등 10여 개 불과)
 - 로열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품종 개발
 - ☞ 만감류 : 로열티 대응, 연내 출하형, 기능성 품종
 - ☞ 온주밀감처럼 껍질 벗기기 쉽고 껍질을 벗길 때 향이 있으며, 당도가 높으면서 산이 낮은 감귤품종 육성

- ☞ 감귤 품종육성 방법 : 교잡육종과 돌연변이, 도입 선발육종 등
- 감귤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품종개발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협력 체계 구축(대학, 감귤시험장, 농업기술원(감귤육종센터), 민간 육종가 등)
-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국제기준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인 감귤 우수농산물 관리제(GAP) 도입 필요
 - ☞ 재배환경, 영양, 병해충 종합관리, 이력추적제, 품질, 작업자, 유통 종합관리
 - 청정, 무공해 이미지를 활용한 ‘도지사 품질보증제’ 실시
- 친환경 감귤생산 확대
 - 해충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초생재배 등 친환경 감귤생산 재배단지 구축
 - 무농약 재배 이상의 친환경 감귤 생산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
 - ☞ 2021년 2,000ha 조성(2016년까지 1,500ha까지 확대, 이후 매년 100ha씩 증대)
 - 친환경 감귤 가공사업, 기능성 물질 산업화 원료 등 관련 계획과 연계 추진
-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현장접목 확대
 - 노지감귤 부농프로젝트 추진 및 노지감귤 탑프르트 단지 확대
- 감귤원 경관 및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 관광자원으로서의 경관적 가치에 대한 경관 직불제 도입⁵⁹⁾
 -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⁶⁰⁾
 - 친환경 감귤을 확대하기 위해 GAP 준수 감귤 재배농가부터 우선 시행

(2) 유통 부문

- 품질 선과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59) 관광객 대상으로 한 감귤원의 경관적 가치는 596.5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12,926원으로 산정되었음

60) 공익적 가치는 연간 1,816억 원이며, 그 기능으로는 대기정화, 수자원 함양, 홍수조절, 토양유실 저감, 기후순화, 유기성폐자원 소화 기능 등이 포함됨

- 감귤생산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위생화·첨단화 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 중심축(Hub)으로 육성
- 감귤 수급조절, 물류비 절감 등 유통혁신을 통한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거점 APC 32개소 건립 추진(광센서선과기 확대 보급 포함)
- 기타 농협직영 선과장, 규모화된 선과장의 유통시설 현대화·계열화 추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연계 추진
- 공동출하·공동 계산제 전면 시행
 - 감귤의 생산과 판매를 완전 분리하여 전문 마케팅이 가능한 전문출하 시스템을 구축하되, 거점 APC·산지유통시설과 연계하여 단계적 추진
- 감귤의 품질기준에 따른 브랜드 감귤 유통시스템 구축
 -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 후 당산비를 기준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인 감귤 품질 기준 설정
 -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물질기준에 기초하여 감귤의 대중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화 추진
 -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포장 등 포장규격의 다양화 추진

(3) 가공 부문

- 감귤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산업화 추진
 - 감귤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R&D 강화
 - ☞ 생약 원료 추출기술 개발 :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등 25종 이상의 기능성 물질 함유 및 수요 증가
 - 기능성물질의 산업화를 통한 생산량 조절 및 경제적 효과 제고
 - ☞ 10억 원 설비 투자(청과 2만 톤, 감귤박 2만 톤 처리)로 연간 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감귤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감귤 식품산업의 허브로서 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 복합형 감귤식품 종합단지(Mandarine Complex Town) 건설을 통한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산농가·단체, 서비스 기관, 정책기관, 연구개발 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건강·뷰티 생물기반 산업과 연계한 촉매 프로젝트 추진
-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식 기반형 감귤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

7. 인천광역시 약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약쑥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건강기능성 인증 추진 완료

- 약쑥은 연구를 통해 항당뇨 및 항비만 효능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고 2006년 세계 기능성 식품학회에서 우수 학술상을 수상하였음. 현재까지 얻은 주요 연구결과로 특허출원 8건, SCI 급 국외학술지에 10건 게재,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30여회 발표하였으며 (주)이름에서 강화사자발약쑥 혼합즙 등 기능성 음료 2종을 판매하고 있음
- 또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와 중앙대학교의 2년간의 합동연구를 통해 약쑥을 사료로 개발하여 육류 섭취시 콜레스테롤 증가를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기술을 보급해 약쑥 한·육우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공제품의 다양성

- 생산된 약쑥의 50%는 10여개의 관내 약쑥 가공공장으로 출하되며 나머지 50%는 관내 시장, 중간상인, 외부 계약판매, 통신판매 등을 통해 출하됨. 약쑥의 유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쑥의 용도도 경혈을 풀어주는 뜸용 제품과 같이 다양함을 볼 수 있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강한 육성의지

- 약쑥의 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신활력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약쑥의 생산, 재배, 가공, 홍보 및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06년 약쑥특구를 지정하여 약쑥 연구개발 및 생산가공밸리 조성, 약쑥브랜드파워 세계화 사업, 약쑥농촌체험단지 조성, 약쑥문화축제 및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거대잠재 시장 보유

- 약쑥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유리하고 수도권의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 소비시장을 겨냥한 약쑥가공제품의 판매 및 관광시장 전망 밝음

(2) 약점(Weakness)

- 특화작목을 활용한 2차 가공기반 미흡
 - 강화군 약쑥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공장 현황이 현재 3~4개소의 민간 가공공장에서 즙·엑기스제품, 김치류, 한방약재, 화장품 등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있을 뿐임
 - 강화군 약쑥에 대한인지도 상승을 위해 유통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소비계층이 매우 얇고 신규 가공식품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함.
- 유통시장의 혼란
 - 최근 값싼 중국산 약쑥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하락 및 둔갑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군에서는 수확 후 농가별로 생산지 증명 띠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소비 규모 확대 효과는 제한적임
- 강화군의 고령화로 재배 회피농가 발생소지 상존
 - 약쑥부문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젊은 계층의 농업인력 감소는 향후 약쑥산업의 혁신체계 구축 및 향토 산업 육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약점으로 작용함
 - 특히, 2004년 이후 강화군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령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농업생산 인력도 감소하고 있으며 약쑥산업을 리드할 역동적 주체집단(생산·유통·가공 등)도 부족한 실정임
- 자동화를 통한 규모화 추진의 어려움
 - 약쑥의 건조는 수공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를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수확한 약쑥은 1차 2~3일 햇볕에 말리고 그 이후에는 건조장에서 건조한 후 보관 시 벗짚이나 질긴 끈으로 약쑥을 이엉 엮듯이 줄기 묶음 하여 저장고에 매달아야 함

(3) 기회(Opportunity)

- 약쑥의 높은 인지도
 - 약쑥이 건강·웰빙제품이라는 인지도가 높음
 - 약쑥은 강화에서 예부터 자생하고 있는 약쑥으로 강화지역의 기후풍토에 수백 년 동안 적응해온 재래종 싸주아리약쑥과 새롭게 선발된 사자발약쑥을 포함하여 향과 약효가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음
 - 특히 각종 부인병에 특효약이며, 각종 성인병 예방효과, 피부미용, 위궤양 등 위장병, 알레르기 성병 예방, 비만해소, 두통, 설사, 변비 등 수많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강화군 약쑥에 대한인지도 상승을 위해 유통 및 홍보강화가 요구됨
-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약쑥산업화 육성의지 확고
 - 약쑥의 지원은 이미 생산, 재배, 가공, 홍보 및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음
 - 향후에도 강화군은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약쑥 연구개발, 약쑥브랜드과워 세계화 사업, 약쑥문화축제 및 이벤트 사업 등을 강화할 계획
-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향상
 -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강화지역은 인천국제공항 및 초지대교 건설 등 여건변화 요인을 내부화함으로써 이를 약쑥과 연계한 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여건 확충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과 연계교통여건이 양호해지고 최인접 해양도시로서의 입지적 장점이 있어 국민국내관광시장의 확대에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 관광관련 인식 및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증대
 - 웰빙족의 등장,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광에 있어서도 생태관광, 모험관광, 휴양관광 등의 체험관광 위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또한 도시민의 여행 빈도가 연평균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주말여가 형태와 여행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농·산촌 자연환경 선호와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농촌관광 수요가 매년 16%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위협(Threat)

○ 타지자체와의 경쟁 심화

- 강화군에는 특화작목인 약쑥으로 가공품목, 생산농가의 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서도 강화군과 유사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강화군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농업위주의 강화군 산업·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약쑥에 대한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타 지자체와의 무한 경쟁이 현실화되고 있어 약쑥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특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약쑥 가공제품은 생존하고 약한 관련 제품은 도태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난립으로 경쟁력 약화

- 강화군에는 농·어촌 체험마을과 약쑥 체험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유사한 농촌관광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해에도 수십 개의 마을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음
- 또한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각기 다르고 수도권 인근 마을 중에는 우수 성공사례로 인지도가 높은 마을도 있어 강화군 약쑥 체험마을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유사 농산물 유통으로 인한 혼란

- 중국산의 유사 농산물 유통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아직 일반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최근 값싼 중국산 약쑥으로 인해 둔갑 판매되어,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2) 전략과제 도출

(1) SO전략

-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 강화군은 약쑥, 순무 등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강화군의 약쑥의 생산량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인지도와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식품소재 및 가공식품개발을 통해 상품력을 확보하는 등 고품질의 지역밀착형 특산물·특산품로 생산하여야 할 것임
- 친환경 강화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제고로 수도권 거대시장 공략
 - 약쑥은 강화군내 특산품 판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물량공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보한 후 건강기능성 특화작물의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강화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의 대형매장, 도·농 교류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약쑥 가공제품의 시식회와 약쑥 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수도권 도시민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생산의 규모화
 - 약쑥의 유통 확대와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의 규모화가 필요함
 - 즉,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약쑥은 생산성 증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공급이 가능한 생산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연간 2회 생산체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여러 번 수확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이뤄져야 할 것임

(2) ST전략

- 지리적 표시제⁶¹⁾ 등록 등으로 유사 제품으로부터 피해 사전 예방
 - 또한,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약쑥 및 가공제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약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타 지역 유사제품으로 부터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왜냐하면, 약쑥은 천혜의 기후조건으로 약쑥재배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약쑥 원료 중에서도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기 때문임
- 중앙정부와 강화군의 연계·협조 체계 강화로 선택과 집중 품목 육성
 - 약쑥의 지원은 중앙정부와 강화군의 연계·협조속에 선택과 집중 품목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 약쑥은 이미 중앙정부의 신활력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약쑥의 생산, 재배, 가공, 홍보 및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지원되고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지정된 약쑥특구내에 약쑥 연구개발 및 생산가공밸리 조성, 약쑥브랜드과워 세계화 사업, 약쑥농촌체험단지 조성, 약쑥문화축제 및 이벤트 사업 등을 강화하여 약쑥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약쑥의 산지·소비지 유통망 확충
 -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작물인 약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고품질의 특화작물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산지 및 소비지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구매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약쑥 마케팅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의 유통망 확충,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강화군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1)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함.

(3) WT전략

○ 정직과 신뢰로 고품질 약쑥제품을 생산유통

- 현재 약쑥 판매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품목별, 생산 농가별, 영농조합단체별, 군·구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약쑥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지도가 아직 낮아 온라인 판매는 저조한 편이며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약쑥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약쑥의 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판매 기능만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영세규모의 지역 내 쇼핑몰을 연계해주는 포털 사이트의 기능을 구비한 통합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강화군의 행·재정적 지원 및 전문 업체 연계 등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약쑥 원산지 증명을 통한 품질보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중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⁶²⁾를 약쑥 가공제품에도 도입·정착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제도를 약쑥 제품에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임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함

6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4) WO전략

- 특화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위한 지자체의 가공 분야 집중 투자
 - 약쑥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추진한 관련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약쑥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적 약쑥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강화군의 행·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강화군에서는 약쑥의 우수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및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등과 연계하고 약쑥 가공 제품의 차별화와 품질제고를 위해 영세한 약쑥 가공업체의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약쑥 농업인의 실질소득 연계 가능 노동 생산성 기술개발 보급
 - 우선, 약쑥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던 영농기술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실용화기술로 정립하여 약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강화군의 관련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영농자재비 인상, 채산성 악화 등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약쑥농가에 친환경 고품질 기술 등 첨단 영농기술을 지원·보급해야 할 것임
- 약쑥의 수출 강화 및 홍보 강화
 - 약쑥의 생산 규모화와 상품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전략 품목 발굴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등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특화작물을 생산하고 약쑥 가공업체와 생산 농가를 연계하여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해외 소비자 기호 및 식습관에 적응할 수 있는 현지화 된 상품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 특히 여성의 부인병을 비롯해 인체에 유익한 작목으로 한·중·일 국민이 좋아하는 건강 작목으로 인식 된 것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장·단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상품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과 수출확대가 가능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측홍보 등 해외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인천광역시 농·축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요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약용, 식용, 미용, 생활용품으로 개발된 약쑥 가공제품의 상품가치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수단의 다각화 등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방안을 수립하여 약쑥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할 것임

○ 생산·가공·관광이 결합된 복합 산업화 전략

- FTA 체결 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혹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화군은 산업경제 및 관광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현재 강화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쑥과 운영되고 있는 가공공장, 그리고 약쑥체험장, 순무김치 만들기 체험장 등을 연계하여 강화군의 볼거리, 먹을거리, 할거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약쑥의 경우 뜰쑥 시장은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약쑥을 원료로 한 식품이나 소재를 개발하여 대량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수립함
- 즉, 수박 등 시설원예작물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고 있는 약쑥이지만 생력화 측면에서는 수확 및 결속기 등을 개발 보급하여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쑥농가의 재배쑥은 상품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는 유기농 약쑥 재배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약쑥을 단오 무렵 초벌 수확하게 되면 바로 장마로 이어져 약쑥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건조된 약쑥의 상품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저장 공간이 필요함
- 따라서 약쑥에 발생하는 해충 및 진딧물 등의 구제에 대한 연구와 생산량 증가를 위한 품종개량 및 유기농 약쑥 재배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며 약쑥의 건조시설과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유통 부문

- 현재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쑥을 소비할 만한 수요처가 많이 부족하며 가짜 약쑥의 유통으로 약쑥의 품질 및 소비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쑥 농가에서 안심하고 약쑥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량을 산출하고 중재해야 할 것이며 지리적표시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약쑥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할 것임

(3) 소비 및 가공 부문

- 뜸이나 약용으로 시판되는 쑥의 규모는 제한적이므로 약쑥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나 기능성 소재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약쑥의 기능성을 활용하여 면, 과자 등 약쑥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러한 약쑥 가공식품 시장의 확대에 따라 약쑥 생산 규모 역시 확대됨으로써 약쑥산업의 발전이 지속가능해 질 것임
- 따라서, 다양한 소재 개발이 가능한 대량 유통업체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정립이 필요함
- 약쑥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추진한 관련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강화군의 세외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약용, 식용, 미용, 생활용품으로 개발된 약쑥 가공제품의 상품가치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수단의 다각화 등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방안을 수립하여 약쑥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할 것임
- 여성의 부인병을 비롯해 인체에 유익한 작목으로 한·중·일 국민이 좋아하는 건강 작목으로 인식 된 것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장단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4)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중앙정부와 강화군의 연계·협조 체계 강화로 선택과 집중 품목 육성

<그림 5-4> 인천 약썩산업의 육성방안



8. 광주광역시 과채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 과채류산업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 대도시권에 위치하여 소비지 시장과의 인접성 등 입지적 장점 보유
 - 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인구를 170만 정도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음
 - 지역차원의 친환경 급식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이루어져 대형 소비처 증가추세
 - 신선도 유지에 유리하고 유통비용에서 상대적 우위성 확보
- 풋고추, 토마토 등 주요 과채류 품목의 브랜드명 제정 및 광주광역시 품질인증, 브랜드관리 실시
 - 빛찬들 풋고추, 빛찬들 토마토 등 빛찬들을 브랜드 명으로 사용
 - 빛찬들 풋고추는 농협중앙회의 명품인증 획득
 - 빛찬들 풋고추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공동선별장에서 모양, 섀택, 크기별로 엄격한 선별하여 신선도와 균질성 확보, 당일수확, 당일출하원칙을 적용하고 출하 후 3일 이내 100% 리콜 실시
 - 빛찬들 토마토는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으며 브랜드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생산 및 품질관리 시행
 - 이를 위하여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균등을 추구하고 2명의 품질검사원을 활용하여 엄격한 등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출하 후 3일 이내에는 100% 리콜 가능함
 - 수확 후 예냉 처리를 통하여 신선도 유지
- 애호박의 경우 생육기를 보급하여 공산품 수준의 규격을 갖춘 애호박 생산
 - 생육기 속에서 자라 농약이 차단되어 맛과 향이 뛰어나 상품가치 높음
 - 수확 즉시 공동선별장으로 이동하여 예냉을 거친 후 미생물 세척, 살균, 자동무게선별, 자동포장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높은 신선도 유지
- 수입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소득작물로 지속적 육성 가능
 - 신선과채류 중심으로 과채류 시장이 형성된 반면 무역을 통하여 유입되는 신선과채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현재 내수 시장 방어를 위한 추가적 비용 없이 농가소득 유지가능

(2) 약점(Weakness)

- 재배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한 규모화 부족
 - 농가별 재배면적이 적고 대규모 농업법인 비중이 적음
 - 농촌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재배면적 축소 가능성 존재
 - 추가적으로 새로운 재배기법의 원활한 전파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
-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 농지가격 상승 등이 이루어져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짐
 - 가공식품 중심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선도 유지기술의 발달과 검역조건 충족기술의 발달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신선과채류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과의 거리상의 인접성 등을 고려한다면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과채류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가공식품으로 연계되지 않고 신선과채류 상태로 유통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제약
 - 국내산 과채류 내수 및 수출시장 모두 신선상태로 유통
- 도시근교 농업으로 체험관광 등과 연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주로 시설재배를 통하여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재배공간을 체험학습,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구조가 아님
 - 그러나 향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서는 일부 시설재배 공간을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
- 기후요인에 의한 영향이 큼
 -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 기후현상의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피해는 시설농가의 경우에도 피해갈 수 없음
 - 시설피해와 작물피해가 겹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노지재배 농가보다 피해규모가 더 크게 발생
- 수출농업단지 부재로 일본 등 신선채소 수입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제약

(3) 기회(Opportunity)

- 식품소비구조 변화와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 증대
 - 시설재배로 중심이 이동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웰빙 추구 인구증가로 인하여 고품질 신선과채류에 대한 소비증가
- 주요 농산물 수입국가인 일본과 인접한 지역으로 국내수급 불균형 발생 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일본시장 확보가능
 - 신선과채류 수출량은 적지만, 신선도 유지, 국내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완충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의 과채류 재배면적의 감소 및 생산물량 증가세 둔화
 - 중국의 과채류 재배면적은 2007년 (4,106천ha) 이후 연평균 3% 정도 감소하여 2010년 3,739천ha
 - 생산량 또한 2009년 161,177천 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감소
- 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인하여 마을단위 조합결성 등 법인화 촉진 가능성 존재
 -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등 생산 및 판매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소득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짐
 - 또한 다자의 결합으로 인한 규모화·전문화 된 경영체계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 농업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생산량 및 신선도 증가로 수익성 개선
 - 생육기 보급에 따른 생산량 증가, 품질 개선은 수익성으로 직결
 - LED 기술을 활용한 식물공장 설립사업의 시행 등 농업생산방식의 현대화를 통한 내재해성, 내병해충성 농작물 생산 가능성 제고
- 소득증대에 따른 레저 수요 증대
 - 친환경과채류의 농장 및 산지 직관, 음식수요의 증가 예상

(4) 위협(Threat)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 한-EU FTA, 한-미 FTA 발효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수입물량의 증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신선과채류에 대한 수입물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기후변화의 영향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병해충 발생 등은 농업인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일정 수준 대응할 수 있는 분야임
 - 반면 외생변수로서 기후변화는 생산적지의 변화 등 농업생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해당
 - 광주지역이 시설재배 중심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노지재배 보다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작기는 하지만 일부 노지재배 작목의 시설재배 전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2) 전략과제 도출

(1) SO전략

- 소비자 점점 다양화
 -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대도시권 입지 등의 요인을 활용하여 과채류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
- 생산자 단체의 법인화 촉진과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활동 등 경영전반에 걸친 현대화 추진
 -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등 지역 과채류 농가의 소득제고에 기여
- 기 생성된 브랜드(빛찬들)의 저변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 창출
 - 생산관리, 품질관리, 신선도 확보 등 브랜드 가치를 전체 과채류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
 - 생산자단체 법인화와 연계될 경우 효율적인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유지 가능
- 식물공장 설치 등 정책지원 강화

- 농업과 첨단기술의 결합으로 광산업의 새로운 활로 마련
- 농업생산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내재해성, 내병해충성 과채류 보급 확대
- 신선과채류 수입의 제한성을 활용한 공격적 시장진출 지원
 - 안정적인 내수시장에 기반을 둔 해외시장 진출 지원
 - FTA 발효에 따른 피해품목의 작목전환 등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FTA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
- 직거래, 상설매장, 공공조달 등 시장세분화에 의한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 친환경 신선 과채류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및 대형 고객 직거래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지역이 갖는 강점인 “맛”과 지역 농산물을 연계를 통하여 관광 Attractive의 한 요소로 활용

(2) ST전략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확대
 - 신선과채류에 대한 수입 가능성이 현재는 낮지만 상황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지원 필요
 - 또한 공격적 시장진출을 통한 과채류 산업 활성화 등 자생력 강화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존재
- 극한기후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시설재배 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내재해성 시설구축에 대한 지원이 절실
 -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 지도 지속전개
 -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 및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수급 안정화와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 규격화 및 표준화, 소포장, 저온유통체계 확립
 - 기존 빛찬들 브랜드에 적용된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개선사항 도출 및 적용
 - 전체 과채류에 대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과채류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자립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선과채류 시장 주도권 유지

(3) WT전략

- 토마토, 딸기, 수박, 파프리카, 참외 등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을 이용하여 권역별 단지화 유도
 - 마을 및 작목반 단위 공동생산 장려를 통한 지역 농업 조직화 및 계약재배 활성화
- 노령화 등 생산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및 노동력 지원
 -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 지원사업 전개 필요
- 과채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이를 위하여 공공 R&D 사업을 전개할 필요
 -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개발된 기술의 시장 착근성 강화
- 수출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통하여 과채류 농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유도
 - 수출 진행시 농업인들의 수출관련 제반규정(원산지 증명, 잔류농약 검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검사 지원을 병행하여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

(4) WO전략

-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적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술 개발 또는 대체작목 개발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개별 농가 단위 또는 농업법인으로는 감당하기 곤란하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를 정부가 갖추어야 함
- 극한 기후현상에 따른 시설피해에 대한 조기 복구 시스템 구축
 - 복구지원에 따른 추가 피해의 극소화를 통하여 2차적 손실발생 방지
- 일부 과채류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 여건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 수출 중심의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경영체의 육성을 통하여 과채류의 국제경쟁력 확보
 - 수출 경영체의 사업 노하우의 축적을 통하여 타 품목 확대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품목 시장을 개척

3)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1) 생산 부문

○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농산물의 판매시장에서 주산지가 복수일 때 상호 경쟁자의 행동을 예측해 가면서 출하량의 조절로 판매가격을 높이고, 판매 단위당 이윤을 증대하여 자기 주산지의 총 이윤을 최대화하는 행동이 필요함.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조직화가 요구됨
- 주산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산지의 지리적 생산조건, 규모경제, 생산 및 유통활동에서의 조직력 등임. 시장에서 주산지의 출하량 점유율에 따라 거래 교섭력이 결정되고 타 주산지에 비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대규모 산지가 될수록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등급화·표준화 등을 통해 품질의 질을 높여 다른 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갈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산지가 판매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수록 그 주산지는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소비자의 소비선호에 맞는 친환경과채류 품목·품종 개발

- 친환경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토양관리, 자재, 기술개발, 시설 개·보수

(2) 유통 부문

○ 공동마케팅활동 강화

- 출하활동의 경우 실제 사업 내용은 대부분 공동수송에 그칠 뿐 공동출하·공동정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으로 주산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활동에서 생산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공동출하로 출하단위를 규모화하고, 주산지 다수 농가의 공동출하·공동계산, 효율적인 선별·포장으로 시장에서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여 부가적인 이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포장·브랜드의 통일 등 공동대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이 산지 내 유통조직과 연계 운영되어야 함. 간이 집하장,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등 그 동안 건설된 산지유통시설의 이용효율이 낮은 것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과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이 너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산지유통시설이 지역이나 품목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규모와 내용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아울러 운영활성화를 위한 평가와 후속지원제도를 도입 필요
- 나아가 주산지에 유통기술의 도입·보급과 저장, 포장기술의 개발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출하시기의 조절 등으로 가격을 높게 받고, 광고, 선전, 브랜드화가 정착되어 판매촉진, 시장 개척,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득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3) 소비 및 가공 부문

- 친환경 과채류, 저농약농산물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 선호에 부응
- 친환경 과채류 학교 급식 등 대량 수요처 적극 발굴
 - 학교, 병원, 대기업체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대량 수요처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 필요
 - 친환경농산물 급식확대를 위해 환농연, 농협과 공동으로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 담당 및 학부모 간담회 개최

(4)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노령화 등 생산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및 노동력 지원
-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자립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신선과채류 시장 주도권 유지

9. 요약 및 정리

1) 생산 부문

〈포도〉

- 기계화를 통한 생산 관리, 생산기술 지도 체제의 강화
- 시설재배 확대로 경영의 안정화
- 차별성 있는 신품종 개발로 소비자에게 선택되는 포도산지 육성
- 농업경영인의 육성 및 귀농자 정착 지원

〈인삼〉

- 고품질·고급화·지속가능·안전한 충남 인삼산업 추진, 품질경쟁력 제고
-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위한 기술의 개발과 매뉴얼 보급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규모화 달성
-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생산 및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과〉

- 지역 내 고밀식 재배체계의 확대, 현장 밀착형 생산자교육 강화
- 기계화 기술개발과 확대를 통한 투입비용 절감
- 국가별 사과수출전문단지 육성
- 우수품질 사과생산 GAP 인증 확대 추진

〈단감〉

- 조중생 우량품종 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
- 고품질 생산시설 설치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개선
- 단감 주산지별 수출전문단지 육성, 경쟁력 있는 과원 등 대상으로 생산기반정비

〈마늘〉

- 지역여건에 적합한 우량종구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 마늘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주아재배 확대
-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확대, 마늘생산 생력화 위한 기계화 추진

-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시스템 구축
- 마늘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면적 확대

〈감귤〉

- 감귤의 고품질, 연중 적정생산을 위한 품종 및 작형 재배치
-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품종 개발·보급
-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친환경 감귤생산 확대
-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현장접목 확대
- 감귤원 경관 및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약쑥〉

- 생산의 규모화, 약쑥 농업인의 실질소득 연계 가능 노동 생산성 기술개발 보급

〈과채류〉

-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소비자의 소비선호에 맞는 친환경 과채류 품목·품종 개발

〈표 5-6〉 지역별 민감품목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생산부문)

구분	포도	인삼	사과	단감	마늘	감귤	약쑥	과채류
생산자 교육강화	√		√			√	√	√
영농기술 체계화	√	√	√	√	√	√	√	√
친환경, GAP인증농산물 확대		√	√	√	√	√	√	
계약재배 확대		√						√
시설재배 확대	√							
녹비작물재배 확대					√			
신품종개발	√	√		√	√	√	√	√
묘목·종자개발 확대				√	√	√		√
영농기계화 확대	√		√		√		√	
수출전문단지 육성			√	√				
경영인 육성 및 귀농지원	√							
생산비용 절감		√	√	√			√	
생산성 향상		√				√	√	√
경관 및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		

주: 1. 과채류는 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등을 포괄함.
 2. 항목은 품목별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해당지역의 핵심내용만 표시함.

2) 유통 부문

〈포도〉

- 식품 산업 등과의 계약 거래의 추진
-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에 의한 판매 추진
- 포도 시장 변화 주시

〈인삼〉

- 수삼 선진유통시스템 도입(유통비용 절감, 유통구조 및 거래투명성 등 가격경쟁력 제고)
- 인삼유통시스템을 포함한 인삼유통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
- 유통현대화 사업 : 지역은 전통시장으로서의 활성화, 수도권 별도 도매센터 설치
- 사이버거래소 등 전자상거래,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사업 활성화
- 생산과정부터 투명화 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시스템 정착

〈사과〉

- 장기 저장기술 보급 확대
- 거점 APC 중심의 유통체계 정착
- 경북사과 브랜드 및 원산지 증명 강화
- 사과수출 마케팅보드 육성, 다양한 소포장 단위 개발

〈단감〉

- 효율적 품질관리와 비용절감을 위한 현대화된 APC 확충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단감의 대표 브랜드 육성
- 표준규격과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도소매단계 비용절감을 위한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시설현대화,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효율화 도모
- 과실계약재배사업을 통한 규모화된 출하체계 구축

〈마늘〉

- 마늘종합처리시설 확충
- 마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직거래 확대

- 마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계약재배 확대
- 마늘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마늘 브랜드 차별화, 마늘 상품화 개발
- 마늘 주체간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감굴〉

- 품질 선과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 공동출하·공동 계산제 전면 시행
- 감굴의 품질기준에 따른 브랜드 감굴 유통시스템 구축

〈약쑥〉

-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으로 유사 제품으로부터 피해 사전 예방
- 약쑥의 산지·소비지 유통망 확충, 정직과 신뢰로 고품질 약쑥제품을 생산유통
- 약쑥 원산지 증명을 통한 품질보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과채류〉

- 공동마케팅활동 강화

〈표 5-7〉 지역별 민감품목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유통부문)

구분	포도	인삼	사과	단감	마늘	감굴	약쑥	과채류
APC 확충 및 정비			√	√	√	√		
주체간 규모화, 조직화	√			√	√	√		√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			√	√	√		√
원산지 증명 강화		√	√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		√	
수출육성		√	√	√			√	
대표브랜드 육성			√	√	√	√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			√	√	√	√	
저온저장기술 및 유통체계 확립			√	√			√	√
유통현대화 사업		√		√	√			
다양한 포장단위 개발			√					
계약거래, 직거래 확대 추진	√	√		√	√			
소비시장 변화 주시	√						√	
선진유통시스템		√				√		√

주: 1. 과채류는 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등을 포괄함.
 2. 항목은 품목별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해당지역의 핵심내용만 표시함.

3) 소비 및 가공 부문

〈포도〉

- 포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육성
- 충북 포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 홍보 강화

〈인삼〉

- 수삼(원료삼) 단계부터 근원적 안전성 문제 해결(인삼GAP재배 의무화, 채굴전 검사 확대)
- 중국시장 개방에 따른 고려인삼에 대한 과학적 효능 연구
- 중국시장 대비한 정부 및 지역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상품 수출확대
-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소비자 구매촉진을 위한 상품개발
-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삼 소비계층 다양화·대중화

〈사과〉

- 사과소비 촉진운동 전개
- 사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단감〉

- 단감 가공산업 육성팀 설치 통해 기능성 단감 가공품 개발, 다양한 요리법 개발
- 단감 가공산업 육성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의체 구성

〈마늘〉

- 마늘의 기능성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 마늘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관·연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마늘연구소 설치, 마늘 공동 가공공장 또는 마늘 소재화 가공센터 설립

〈감귤〉

- 감귤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산업화 추진
- 감귤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약쑥〉

-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 친환경 강화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제고로 수도권 거대시장 공략

- 특화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위한 지자체의 가공 분야 집중 투자
- 약쑥의 수출 강화 및 홍보 강화
- 생산·가공·관광이 결합된 복합 산업화 전략

〈과채류〉

- 친환경 과채류, 저농약농산물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 선호에 부응
- 친환경 과채류 학교 급식 등 대량 수요처 적극 발굴

〈표 5-8〉 지역별 민감품목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소비 및 가공부문)

구분	포도	인삼	사과	단감	마늘	감귤	약쑥	과채류
브랜드 확립	√				√		√	
상품안전성 강화		√	√				√	√
가공상품 개발	√	√	√	√	√		√	
소비촉진운동 전개	√	√	√					
기능성물질 개발						√		
타 산업과의 연계	√	√	√	√		√	√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	√	√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
산·학·연 협의체 구성		√		√	√	√		√
품목연구소 설치				√	√			
수출상대국 상품연구 등		√						

주: 1. 과채류는 토마토, 수박, 멜론, 딸기, 호박, 가지 등을 포괄함.
2. 항목은 품목별로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해당지역의 핵심내용만 표시함.

4) 수출, 기타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

- 경작농가, 제조 및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의 규제위주 법령개정 제한 완화
- 관련산업법 개정으로 품목보호와 육성(생산-제조-가공-유통 등 자율성 통해 경쟁력 확보)
- 주요 품목별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수출조직 정비 및 수출창구 단일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협조 체계 강화로 선택과 집중 품목 육성
- 노령화 등 생산 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및 노동력 지원
- 생산자 조직 중심의 자립화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품목별 시장 주도권 유지

제6장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제6장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1. 충청북도 포도

1) 고품질 포도 생산체계 강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관·학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친환경포도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생산조직-선별-판매 조직을 체계화
- 포도 생산 시설지원,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 경영지원 강화

2) 경쟁력 있는 신품종 육성 및 개발 지원

- 캠벨얼리 위주의 단조로운 품종 생산에서 외국산 포도와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선택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의 기호, 가공원료, 재배특성 등을 고려한 신품종 개발 R&D 확대

3)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 포도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지원
 - 충북 포도 관련 생산자,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가 협력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내산 포도를 원료로 한 식품산업에 대한 계약거래 확대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4) 경영위험 안전장치 마련

- 농가의 산업화와 창업 등에 관련한 투자 지원제도 마련
- 농업자원 및 비농업자원을 포함한 새로운 농가소득의 기회제공

2. 충청남도 인삼

1) 민감품목의 지정

-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인삼유통시장이 개방화됨으로써 국내 인삼시장 붕괴 우려
- 수삼(원료삼) 형태보다 홍삼(가공삼) 형태로 소비되기에 이에 대한 과급영향은 매우 큰 품목

2) 품질 및 신뢰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단위 연구개발 전폭적인 투자 지원

-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작장해 방지, 품종개발 등 생산단계 연구개발 지원
- 고려인삼에 대한 과학적 효능연구와 전략적인 홍보사업

3) 가격·유통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 대비한 중앙정부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 (법, 제도, 예산, 조직)
- 정부차원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 국내외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개발

4)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삼관련 법의 개정, 관리부처 일원화

- 관리부처 이원화, 관련법령 이원화 구조로 인해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시급
- 규제위주의 법령개정 제한 완화, 인삼산업법 개정으로 인삼보호 및 육성 필요

5) 인삼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충남지역은 인삼 재배와 생산부문, 가공부문, 물류 및 유통시스템, 지원 및 R&D 기관의 집적 등 전 부문에 걸쳐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40여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각 경제주체간 선순환적 산업생태계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특히 금산군에는 제조 및 가공업체, 국제인삼연구소, 인삼약초시험장, 수삼도매센터, 수삼시장 등 각종 생산-유통-제조 및 가공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충분
- 연계산업화 구조 형성을 통한 전주기적 산업화시스템 구축 시작으로 융복합비즈니스화 추진, 자생적 거버넌싱 구축, 연계형 클러스터링 완성을 목표(충남, 2011)

3. 경상북도 사과

1) 민감품목 선정으로 양허대상 제외

(1) 현황

- 여러 나라들과 FTA가 진행되어 사과가 수입될 경우 생산농가의 직접적 피해와 더불어 다른 과일의 수입으로 사과소비가 줄어드는 많은 간접피해까지 예상됨
- 전국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경북지역의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완전철폐될 경우 40% 이상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FTA는 사과 산업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어 다른 나라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인위적인 보호막을 통해 사과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 어떠한 나라와의 FTA가 체결되더라도 사과품목은 일정기한까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감품목으로 지정
-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 사과가 수출규모에 오를 때까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과채류 몇 가지(사과, 귤, 복숭아, 수박, 배, 딸기 등)를 선정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력 필요

2) 사과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1) 현황

-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수입 과실과의 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고품질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수적임
-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현행 FTA기금사업 보조율로는 시설현대화 확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함
- 경북지역의 경우 사과 19,543ha, 포도 8,341ha, 복숭아 6,011ha 중 2011년 현재 5,852ha(17.2%) 밖에 미치지 못함

(2) 내용

- 사과를 포함한 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현대화 지속적 추진
- 노동력 경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수 FTA기금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조정(FTA 기금사업 국비보조율(20% ⇒ 50%) 상향 건의)
 - (현행)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조정)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10%, 자부담 20%

3) 과수전용 중소형 농기계 농가 지원사업 실시

(1) 현황

- 사과를 포함한 과수농가의 경우 직접 생산비 중에 노력비가 50% 이상 차지(기계화 미흡)하고 있으며,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경사지 과원의 경우 대형농기계 농작업 불가능
- 수입개방 확대와 농촌노동력 노령화 및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업별 다양한 농기계 필요

(2) 내용

- 과실전문APC, 작목반, 영농법인, 대규모 전문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행형 동력분무기, 동력파쇄기, 신선도 유지기 등을 보급
- 공동브랜드, GAP 참여농가 등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에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하고 저비용 농작업 기계화 및 영농의 규모화 촉진

4) 공공형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1) 현황

- 전국 최대 과수주산지로 수입개방 확대와 농촌노동력 노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과수농가 어려움 직면
- 과원전용방제기 등 대형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로 FTA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2) 내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능금농협)을 대상으로 사과주산지에 임대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선택) 및 임대농기계 구입,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지원
- 공동브랜드, GAP 참여농가 등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에 임대농기계 우선 지원
- 농가조직화, 유통규모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 촉진에 기여

5) 우량묘목 증식 및 보급센터 설치

(1) 현황

- 1996년 이후 고밀식재배를 위해 지속적으로 왜성대목인 M9 대목을 보급 중에 있음. 과수 묘목의 생산·공급을 민간업체에서 전담하고 있어 불량묘목 공급에 따른 농가피해가 빈번히 발생
- 사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밀식 재배를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우량한 묘목을 심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우량 바이러스 무독묘목의 공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M9 대목의 경우 2~3월에 동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밀한 관리기술과 함께 보다 내환경성이 우수한 왜성대목의 보급이 필요함

(2) 내용

- 주산지 시군 등에 우량묘목 증식보급센터(농업기술센터 혹은 능금농협 내 설치)를 설치하여 우수한 무병원종을 확보·증식하여 농가에 직접 보급
 - 센터 내 자근대목 증식포 조성, 묘포장, 병해충 검정센터, 부대시설 등 설치
- 생산되는 묘목에 대한 병해충 검사를 체계화하고, 품질개선과 수량증대를 위해 고품질 생산시설 설치 지원
- 국가 단위(농진청 국립원예원, 사과연구소 등)에서는 우리나라 기후, 토양 및 경영 여건에 적합한 재식밀도 및 수형 선발, 기술 개발·보급
- 무병 우량묘목 생산 공급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으로 사과산업 경쟁력 향상

6) 소포장 경매제 실시

(1) 현황

- 가족구성원 감소로 1회당 구매량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도매시장 경매포장 규격은 여전히 15kg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상태
 - 포도, 복숭아 등 관련 과일류는 소포장 경매로 전환
- 소포장 구매 증가로 인해 도매시장 경매 이후 중도매인, 최종소비단계에서 재포장, 소포장 경매로 소비자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태
 - 유통단계에서 재포장으로 인한 비용발생, 농가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 지출가격은 늘어나고, 중간유통마진은 증가하는 모순적 상황 발생

(2) 내용

- 사과 도매시장 판매시 5kg, 10kg 경매제 시행
 - 초기 10kg 포장 경매제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5kg 소포장 경매까지 확대
- 농가 혹은 영농법인 단위의 소포장 경매 확대에 따른 소포장 경비지원
 - 사고 소포장 경매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초기(2~3년간) 소포장 출하농가에 대한 포장박스대 일부 지원(소포장 비용의 50%)

7) APC 유지관리비 지원

(1) 현황

- 사과를 비롯한 과실류를 위한 산지농산물 유통센터의 건립,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의 지역내 선택과 집종을 통한 규모화 실현
- 지역 내 집하기능의 향상으로 선과, 등급화, 공동출하, 가공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 APC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APC 집하 물량대비 가동률이 낮은 상태로 경영 애로 요인 심각

(2) 내용

- APC가 정상적인 경영궤도에 돌입하기 위한 자체 활성화 조치 지원

- APC 경영 전문인력 고용, 가동률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추가 투자 필요
- APC 경영 중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처리규모 2만톤 이상의 거점APC 유지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 APC 준공 이후 5년 이내의 경영애로기에 산지물량 수집 및 마케팅 활성화 자금

4. 경상남도 단감

1) 기상재해 대비 비용절감형 생산시설 구축 및 지원

- 재배면적의 80%를 한국형 저수고 수형으로 전환(나무높이 2.5~3m 수준)
- 정책지원: 생산비 절감, 기상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설치 지원
- 기대효과
 - 품질향상: 당도 14.5 \Rightarrow 15.5°Bx
 - 상등품화율 향상: 50 \Rightarrow 80%
 - 생산비절감: 전지전정, 적뢰, 적과 작업, 수확작업 20~30% 절감

2) 단감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지원

- 품종구성: 조·중생 및 만생종 품종 적정 비율 재식(조생20%·중생20%·만생60%)
- 입지여건: 경사도 15%미만의 기계화 가능한 농지
- 부대시설: 생력화 및 자동화된 수확 후 품질 관리 시설 설치
- 정책지원: 교육, 시설보강, 홍보 및 컨설팅 정책 지원
- 기대효과: 수출용 규격 단감 생산비율 향상으로 수출기지로 활용

3) 단감 수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선도 수출업체 선별 및 지원

- 문제점: 신규시장 개척의 위험부담 감수 회피로 기존 수출시장에서 출혈경쟁 심화
- 목적: 수출단감의 소비촉진을 위한 기존시장 활성화와 신규시장 개척
- 정책방향
 - 신규시장 개척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시장개척비, 홍보비 등 정책지원 차별화
- 기대효과: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

4) 단감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단감 가공산업 육성

- 현황: 단감은 경제성 있는 가공산업 전무
- 필요성: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단감산업 활성화가 필요
- 정책방안
 - 단감가공산업 육성 협의체 구성 및 육성 전략 수립
 -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단감가공산업 단지 육성
 - 고부가가치 기능성 단감가공품 개발
- 기대효과
 - 단감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단감의 부가가치향상과 소비촉진

5) 단감 클러스터 구축 지원

- 문제점: 국내 단감산업은 소규모 영세영농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유통 단계에서도 높은 저장성이 요구되며, 고부가가치의 단감가공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
- 목적: 단감 생산·가공·수출 등의 과정을 원스탑체계로 구축하고,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기능과 연계·클러스터화시켜 단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수출추진 체계를 구축
- 정책방향
 -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 및 연구기능 클러스터화
 - 산학관연을 통합한 단감수출대표조직 육성
 - 단감수출조직 정비를 통한 수출창구 단일화와 공동브랜드 육성 (예: 제스프리)
- 기대효과: 우리단감 대표브랜드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향상

5. 전라남도 마늘

1) 마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인프라 및 사업 지원

○ 마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늘 건조가공시설 지원

- 마늘수확기와 장마철이 겹쳐 건조불량으로 인한 품질저하, 농가 포전거래시 중간상인 위주의 가격정책 등이 마늘생산농가의 소득 저하 요인으로 제시되어, 다목적 마늘건가시설 지원으로 장마와 무관 수확 즉시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마늘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유도
- 마늘 건조를 마늘 건조가공시설에서 저장 및 보관, 마늘 건조 과정에서 일부 마늘 부패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늘하우스 건가시설 설치로 마늘 조기부패 문제점 보완
- 마늘 수확 후 장마와 벼 이앙 시기가 겹치고 미흡한 건조시설로 건조되지 못해 부패율이 높고 품질이 저하(반점마늘)되고 창고 등에 걸어서 건조하는 실정임

○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마늘 주아 및 종구 갱신사업 지원

- 정부는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마늘 주아 및 종구 갱신사업을 지원하였으나 '04년 이후 중단
- 지역 희망농협이 생산농가의 주아수매 및 공급으로 마늘종구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마늘 종구생산 장려금 지원

-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03~'07년까지 주아과종 농가에 10a/800천원 지원했으나 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고품질 마늘 종구 보급에 어려움 발생
- 마늘산업 보호와 생산성 증진 및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주아를 자가 채종하여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종구생산 장려금 지원 필요

2) 마늘 상장경매제도 도입

- 상장경매제도 도입 배경으로는 마늘은 비상장거래품목으로서 가락시장 상장율이 14.3%에 불과한 실정이며 중도매인 21명이 전체거래액의 64%를 점유하고 있어

독과점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마늘을 도매시장 상장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급조절 및 공정가격 형성 유도하고자 함임

○ 출하자의 거래상의 선택권 보장

-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가 병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상장거래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은 마늘의 농산물적 특성과 유통적 특성에 따라 경매를 통한 거래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도매시장의 상장거래 강제는 마늘 유통 상의 문제들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경매제도를 강제하려는 측에서는 마늘의 경매 거래 확대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대표가격 형성, 도매상인의 가격 개입, 마늘의 출하선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임
- 그러나 도매상인의 가격 개입 가능성은 앞에서 산지 가공 또는 유통업자들의 가격 개입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고, 도매시장 경매를 통한 대표가격 형성 문제는 산지에서의 1차 가격 결정에 따라 비용 대비 효용이 낮았음
- 마늘의 도매 유통에서는 현재와 같이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개정 농안법에서도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나 입찰을 원칙으로 마늘 거래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전환 유도

3) 마늘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마늘수입 억제대책 추진

- 정부는 지난 '01년 중국과 마늘 분쟁이후 '03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해제로 국내 마늘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마늘 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본 사업은 '03년부터 '07년까지 추진되었으며, 마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 발생
- 그러나 '08년부터 본 사업 중단으로 국고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마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
- 특히 마늘은 우리나라 대표적 조미채소로서 우리국민의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작물로 한·중 FTA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마늘산업의 희생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 중국산 마늘수입 억제 대책 추진

- 중국산 마늘은 '11년 기준 TRQ 수입물량 14,467톤(기본관세율 50%), 물가 안정용 추가물량 12,000톤(저할당 관세 10%) 수입으로 마늘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
- 평균가격 : ('10) 4,142원 → ('11) 3,418원/kg (87% 수준)
- 국내 마늘산업 활성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TRQ 수입물량을 국내산 마늘의 수확기~성출하기 이후 수입시기 조절 및 수입마늘 전량을 다진 마늘 등 가공용으로 도입하고, 국내마늘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할당 관세율(10%)을 기본관세율(50%) 상향 적용

6.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1) 제주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초민감품목 지정·확대

(1) 제주감귤 양허제외 및 월동채소류 초민감품목의 지정·확대

- 일반적으로 국가간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와 같이 특정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여 산업부문 전체가 협상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었기에 개방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이 큰 민감품목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둘 필요가 있음
 - 생산액 비중(국내 농업생산에서의 중요성), 현행 관세율, 경쟁력(무역특화지수 ; TSI), 중국산 수입 비중, 그리고 과거 한·미 FTA와 한·EU FTA 양허유형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민감품목 후보군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련업계 및 지역경제 파급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감품목의 유형
 - 초민감품목 : 국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현행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
 - 고민감품목 : 생산액 비중이 0.5% 이상이고 경쟁력이 낮은(중국의 MCA가 1 이상, 또는 RCA가 더 높거나 가격 차 3배 이상) 품목 또는 대중 수입특화 품목
 - 민감품목 : 생산액 비중이 0.2% 이상으로 대중 수입특화 되었거나 최근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 따라서 초민감품목군은 2007~2009년 농업생산액 비중이 0.5%를 넘는 31개 품목 가운데 양허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군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쌀, 우유, 고추, 인삼, 감귤, 마늘, 콩, 고구마, 양파, 벌꿀, 감자, 참깨 등 12개 품목
 - 이 중에서 감귤, 마늘, 콩(대두), 양파, 감자, 참깨 등은 제주지역에서도 중요한 품목군에 속하며 이외에도 월동채소인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더 고려해야 함
- 즉 다음의 <표 6-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의 양어관세가 철폐된다면 현재의 한·중 도매가격의 격차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져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들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확대하여 제주지역 주요 품목 보호 및 피해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감귤은 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6-1>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감귤 생산액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중국가격(원/kg)	국산가격(원/kg)	가격차(%)	양허관세(%)
감귤	709	1,315	185	144
참깨	2,437	17,136	703	630
대두	834	5,546	665	487
마늘	1,402	5,193	370	360
감자	363	1,363	375	304
양파	264	647	245	135
무	206	767	372	45
대파	245	1,592	650	27
당근	210	1,347	641	27
양배추	207	652	315	27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출입통계, 한·중 FTA 공청회 발표자료('12. 2), FTA 협상동향('12. 3, 농림수산물부), 제주발전연구원(2012) 재인용

(2) 양허관세 유지·세이프가드(SG)·중간심사제도 도입

- 제주지역 주요 품목의 양허제외 및 현행 양허관세 유지와 유예기간 연장
 -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관세철폐 시기를 늦추고 일부 초민감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 제주지역 주요 품목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제주의 초민감 품목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SG)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임
 - 즉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SG) 등 국내시장의 교란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긴급구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농산물에 대한 SG 적용보다는 수입급증 시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을 선정하여야 함
- ☞ 특별 농산물 SG 사례 :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우유, 크림, 분유, 버터, 치즈 등 낙농제품에 특별 SG를 적용하였음

- 중간심사제도 도입의 검토 필요
 -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후,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즉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 민감품목인 낙농품에 대한 중간심사제도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실질적인 지원사업

-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감귤원 토양피복 자재 사업비 지원
- APC 조기 추진 및 확대
- 감귤 기능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

3) 감귤 소득피해직불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시급
- 탄소흡수 및 경관보전 등의 역할에 따른 감귤경관 직불제 도입 추진
-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환경보전 직불제 도입 추진

4)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 제주감귤 농무관제도 도입
-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 FTA 기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개선
- 수입오렌지 관세할당(TRQ) 물량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 위임

5) 국가단위로 동식물 검역(SPS) · 원산지 규정의 강화 및 수입제한

-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역·위생조치에 대한 통관 절차 철저 및 강화
 - 중국산 농산물 수입급증이 발생하면 동식물 병충해 반입 가능성과 식품안전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수 있음
 - 넓은 지역을 보유한 중국의 지역별 조치와 양국의 병해충 및 질병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철저한 동식물 검역(SPS)으로 우리나라 국내는 물론 제주도내의 동식물 보호와 관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임
- 원산지 기준(ROO) 및 지리적 표시제 강화 및 확대
 - 우리나라와 중국이 다른 국가와 기 체결한 FTA 협정에 나타난 원산지 규정을 비교해 보면, 양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및 확인절차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
 - 원산지 판정 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 번 변경기준(CC), 중국은 부가가치 기준(RVC)을 각각 적용함
 - 원산지 확인 절차도 중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도 적용, 우리나라는 기관증명과 자율증명을 선택적으로 채용
 - 원산지 판정기준은 세 번 변경기준을 기본으로 채택하되 품목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등 보완하는 방안, 원산지 확인 절차는 기관증명 방식이 유리할 전망
 - 원산지 검증방식은 양국 모두 간접검증 방식을 적용하나, 만약을 위해 직접검증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요구해야 함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되는 고관세 농수산물에 대해 DNA 분석기와 같은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원산지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의 시장에서 제주 농산물의 특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지리적 표시제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7. 인천광역시 약쑥

1) 약쑥 이용 테마(Eco-healing) 체험관 건립 지원

○ 목적

- 인천의 주요 특화작목인 약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융복합화 조성 기반 확보
- 최근 힐링 테마, 의료관광, 웰빙 등의 추세에 맞춰서 약쑥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하는 복합공간 마련
- 지역내 관광객 및 방문객 유치를 통하여 간접적인 홍보효과 달성

○ 개요

- 약쑥 이용 Eco-healing 종합 체험관 등 20만평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여차리 일원 (예정)

○ 사업 내용

- 약쑥 이용 건강 예방 및 항 아토피 등 치료가능 종합 휴양 체험관 건립

○ 기대효과

- 인천국제공항 연계환승 외국인 및 수도권 관광객 유인 극대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8. 광주광역시 과채류

1) 정보수집 강화

-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동향에 대한 정보는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생산 및 판매전략을 구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과 부가가치의 제고에 필수적임
- 농산물의 생산·출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내외 생산과 시장수급에 관한 사전 정보는 주산지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품목별 재배면적, 작황, 출하에 관한 정보는 농산물 수급정책 수립과 농업관련 단체 및 유통업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생산·출하 및 가격정보와 예측정보를 발표하는 농업정보관측센터를 설립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함

2) 친환경 과채류 생산 및 인증

- 친환경과채류를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며, 수출 장려가 필요함. 고품질 과채류 생산, 토경시설에서 양액재배시설로 전환과 단지화된 지역에 선별·포장 자동화 시설 지원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연구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요소 평가가 필요함. 환경보전 기능의 제고를 위한 영농관리 및 재배기술의 적합성 분석, 경지이용 변화에 따른 다원적 가치의 변화 예측, 직접지불제가 농촌지역의 환경생태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농업의 환경적 공익기능 평가 모형 개발이 필요함. 농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평가를 위한 모형 및 지표 개발, 과채류 시설 재배지의 환경보전 기능의 계량적 평가, 농경지 이용형태에 따른 환경보전기능 실증적 사례 분석

4) 한국산 과채류 마켓테스트 및 신규입점 추진

- 해외시장시장 개척을 위해 항공운송료 인하, 현지 유통매장 홍보 및 언론 광고를 추진하는 등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파프리카·토마토 등을 비롯한 한국산 과채류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마켓테스트를 추진, 중국 내 고급유통매장 판촉홍보 및 잡지광고, 바이어 운송차량 딸기 홍보물 부착 등에 나서 수출 증대 가능성을 타진 필요

5)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설비 보급

- 자동화비닐(플라스틱) 온실과 단동온실의 저비용 환경조절기술 발굴 및 자동화비닐하우스의 구조개선 및 수막을 이용한 보온형 단동온실의 광 환경 및 보온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별 기상여건에 적합한 온실모델 등 개발·보급이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시설하우스에 사용되는 비닐(플라스틱) 피복재는 폴리에틸렌(PE) 필름임. 반면 투광성, 보온성, 유적성 및 유지관리 등 피복재의 기능성을 향상시킨 폴리올레핀(PO) 필름(코팅필름)이 차츰 보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개발됨
- 과채류 수출농가가 보다 쉽게 피복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6) 친환경 과채류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확대

- 과채류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근거법령 마련 및 예산 확보함. 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 과채류 이력추적 등록신청·등록절차·등록대상 농산물 품목·등록사항 및 이력추적품 표시방법 등
- 과채류 이력추적등록기준, 등록심사세부기준 등 각종 기준마련. 이력추적등록기준, 이력추적관리기준 등 포함된 과채류 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 실시요령 확정
- 과채류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교육·홍보 지속 추진. 농가·관련단체 업무관계자 교육 실시, 이력추적관리제도 홍보 책자·리플렛 등 제작 배포

9. 요약 및 정리

- 지역별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부문에서 6개의 공통적인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을 도출
 - 첫째, 한·중FTA 협상 시 민감품목의 지정
 - 둘째,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및 경영안정장치의 마련
 - 셋째,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국고보조 지원
 - 넷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
 - 다섯째, 품목별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
 - 여섯째, 품목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법·제도적 정비 실시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포도〉

- 고품질 포도 생산체계 강화
- 경쟁력 있는 신품종의 육성 및 개발 지원
-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 경영위험 안전장치 마련

〈인삼〉

- 민감품목의 지정
- 품질·신뢰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단위 연구개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 가격·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삼관련 법의 개정, 관리부처 일원화
- 인삼 클러스터 구축 지원

〈사과〉

- 민감품목 선정으로 양허대상 제외
- 사과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 과수전용 중소형 농기계 농가 지원사업 실시
- 공공형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 우량묘목 증식 및 보급센터 설치
- 소포장 경매제 실시
- APC 유지관리비 지원

〈단감〉

- 기상재해 대비 비용절감형 생산시설 구축 및 지원
- 단감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지원
- 신규 수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선도 수출업체 선별 및 지원
- 단감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단감 가공산업 육성
- 단감 클러스터 구축 지원

〈마늘〉

- 마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늘 건조가공시설 지원
-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마늘 주아 및 종구 갱신사업 지원
- 마늘 상장경매제도 도입
- 마늘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및 중국산 마늘수입 억제대책 추진

〈감귤〉

- 제주지역 주요 품목에 대한 초민감품목 지정·확대
 - 제주감귤 양허제외 및 월동채소류 초민감품목의 지정·확대
 - 양허관세 유지·세이프가드(SG)·중간심사제도 도입
- 실질적인 지원사업
- 감귤 소득피해직불제 도입을 통한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 관련 법 및 제도개선
- 국가단위로 동식물 검역(SPS)·원산지 규정의 강화 및 수입제한

〈약쑥〉

- 약쑥 이용 테마(Eco-healing) 체험관 건립 지원

〈과채류〉

- 정보수집 강화
- 친환경 과채류 생산 및 인증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연구
- 한국산 과채류 마켓테스트 및 신규입점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설비 보급
- 친환경 과채류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확대

제7장

결론

제7장 결론

1. 요약 및 정리

- 본 연구는 “FTA와 지역발전”이라는 대주제에 맞춰서 한·중 FTA에 대응한 8개 광역지자체의 지역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임
- 한·중FTA는 지역농업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급부상
 - 기본적으로 중국농업과 한국농업간에는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격차가 매우 심각
 - 중국농업은 토지면적, 생산량, 생산액, 부가가치 등 총량면에서 한국농업 대비 최소 2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차이
 - 중국과 한국은 지리·자연기후·품목별 재배조건 등이 비슷한 것도 위협요인으로 작용
- 중국 전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인 농업 비중 점차 감소하는 반면 2, 3차 산업 증가
 - 산업화로 인해 농촌 청장년층 인구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은 ‘공동화’ 문제 발생
- 중국농업의 생산현황
 - 중국의 농산물 생산현황 꾸준히 증가, 특히 식량작물과 과일류 중심 지속 증가
 - 꾸준한 우유마시기 소비운동으로 우유 등 축산가공품 생산증가
 - 사료작물로서 옥수수 등 식량작물 증가
 - 수산물도 자연산에서 양식으로의 증가 두드러지고 패류와 어류 생산량 증가
- 중국 농축수산물 유통현황
 - 유통시설의 낙후 및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신선도 저하
 - 농산물의 슈퍼마켓 직공급 운동의 확산
 - 거래 방식의 낙후, 낮은 유통효율
 - “녹색통로”의 개통으로 농축수산물 수송차량 우대 및 중복검역 방지 장치 마련

○ 중국 농축수산물 소비현황

- 수요의 다양화, 의식수준의 향상, 다양한 영양보충 식품 등장
- 유행과 개성에 대한 민감성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증가
- 지역에 따라 편중된 소비
- 체험, 셀프, DIY 식 식품소비 트렌드
-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식품의 등장
-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곡물과 채소류는 소비감소, 축산물 소비 증가 추세

○ 중국의 對한국 농축수산물 교역 및 FTA 추진 현황

- 중국의 농축산물 수출은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대부분 이뤄짐
-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산물, 채소류의 수입이 많은데, 곡물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주산지 길림성), 채소류 및 과일류도 상위권 수출액 기록(산둥성), 축산물은 2006년 이후 거의 실적 없음
- 한국은 중국의 수산물에 대한 수출액규모가 3위이고 수입액규모가 5위이지만, 다른 수출입품목에 비해 수출입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큼(산둥성)
- 산둥성은 중국의 성중 한국으로부터 과일의 수출입이 가장 많은 성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의 규모가 비슷
- 중국의 FTA추진현황은 현재 ASEAN의 10개국을 포함한 19개국과 FTA 협상이 체결된 상태이며, GCC의 6개국, SACU의 5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을 만큼 활발한 편

○ 한국의 對중국 농축수산물 교역 및 FTA 추진 현황

- 한중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의 농축수산물 교역규모, 교역품목수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중국의 제4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수출시장(당류, 과자류, 커피류 등 농식품가공상품)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2대 농산물 수출시장(곡류,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 원물)으로서 對중국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확대 추세
- 한·중FTA는 2005년 한·중간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한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은 4차례 진행된 상황

- 이와 같이 앞으로 체결이 예상되는 한·중FTA에 대하여 8개 광역지자체별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농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됨
- FTA체결이 됨으로써 농축산물 관세철폐가 실현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한·중간 농축산물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액·교역량·관세율·지역경제 영향을 기준으로 지역별 민감품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 8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첫째, 산업구조변수로서 전국대비 생산액 비중, 둘째, 교역변수로서 중국시장과의 교역현황, 셋째, 현행 관세율, 넷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을 토대로 8개 민감품목 선정한 결과 포도(충북), 인삼(충남), 사과(경북), 단감(경남), 마늘(전남), 감귤(제주), 약쑥(인천), 과채류(광주)로 도출됨
- 지역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민감품목인 충북 포도, 충남 인삼, 경북 사과, 경남 단감, 전남 마늘, 제주 감귤, 인천 약쑥, 광주 과채류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민감품목 재배면적 비중은 충북 포도(16.7%), 충남 인삼(16.2%), 경북 사과(62.4%), 경남 단감(57.1%), 전남 마늘(31.4%), 제주 감귤(99% 이상), 인천 약쑥(90~95%추정), 광주 과채류(1.2%)
 -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민감품목 생산량, 생산액 비중은 충북 포도(16.5%), 충남 인삼(17.3%), 경북 사과(63.5%), 경남 단감(60.7%), 전남 마늘(28.5%), 제주 감귤(99%이상), 인천 약쑥(90~95%추정), 광주 과채류(1.3%)
 - 전국대비 해당지역의 민감품목 농가수 비중은 충북 포도(13.1%), 충남 인삼(14.5%), 경북 사과(59.8%), 경남 단감(41.6%), 전남 마늘(25.2%), 제주 감귤(99% 이상), 인천 약쑥(90~95%추정), 광주 과채류(1.0%)
- 아울러 충북 포도, 충남 인삼, 경북 사과, 경남 단감, 전남 마늘, 제주 감귤, 인천 약쑥, 광주 과채류의 부문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도출됨
 - 생산 부문에서는 농가인구 고령화, 농가규모 영세화, 농가간 기술격차, 농민단체 부족, 묘목 및 종자 공급체계 부족, 품종 편중생산, 기계화율 부진, 시설비용 상승, 품질향상 미흡, 지도인력 부족, 기술개발노력 부족, 연작장해, 기후변화대응 미흡, 낮은 생산성, 수확시기 노동력 결핍, 경영여건 열악, 수급불안 등
 - 유통 부문에서는 유통구조 낙후성, 생산자 조직 미흡, 안전성 취약, 품질균일성 부족, 저장성 취약, 유통비용 과다발생, 품질관리체계 미흡, 산지유통시설 낙후, 유통관리체계 미흡, 브랜드 난립, 거래단위 및 규격 복잡, 원산지 둔감판매 등 부정유통, 포전매매 성행, 낮은 가격경쟁력 등
 - 소비 및 가공 부문에선 원산지 및 안전성 불신확배, 소비량 감소로 인한 가공시

장 협소, 가공기반 미흡, 지역내 가공산업 역량부족, 가공제품 개발노력 미흡

- 수출,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제조·가공·유통·소비통계 부실, 수출정보 부족, 수출전문성 및 경험부족, 수출시장 신용도 저하, 단기성 정책으로 인한 농가자생력 저해, 유형 시장가치 중심으로 경관과 환경보전 등 무형 가치 배제 등

○ 민감품목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자 교육 강화, 영농기술 체계화, 친환경·GAP인증농산물 확대, 계약재배 및 시설재배 확대, 농비작물재배 확대, 묘목 및 종자개발, 영농기계화 확대, 수출전문단지 육성, 경영인 육성 및 귀농지원,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경관 및 환경지불제 도입
- 유통 부문에서는 APC 확충 및 정비, 주체간 규모화 및 조직화,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 원산지 증명 강화,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수출육성, 대표브랜드 육성,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저온저장기술 및 유통체계 확립, 유통현대화 사업, 다양한 포장단위 개발, 계약거래 및 직거래 확대 추진, 소비시장 변화 주시 등
- 소비 및 가공 부문에서는 브랜드 확립, 상품안전성 강화, 가공상품 개발, 소비촉진운동 전개, 기능성물질 개발, 타 산업과의 연계,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산·학·연 협의체 구성, 품목연구소 설치, 수출상대국 상품연구 등
- 수출, 제도 및 정책지원 부문에서는 규제위주의 법령개정 제한 완화, 관련 산업법 개정으로 품목보호와 육성, 주요 품목별 주산지별 수출전문생산단지 육성, 수출조직 정비 및 수출창구 단일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협조 체계 강화, 기술지도 및 노동력 지원, 생산자 조직 중심의 품목 시장 주도권 유지 등
- 종합해보면, 민감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 구축, 현대화된 유통시설,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안

○ 마지막으로 지역별 민감품목으로 지정된 부문에서 6개의 공통적인 대정부 정책건의사항을 도출함

- 첫째, 한·중FTA 협상 시 민감품목의 지정
- 둘째,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및 경영안정장치의 마련
- 셋째,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국고보조 지원
- 넷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
- 다섯째, 품목별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
- 여섯째, 품목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법·제도적 정비 실시

2. 시사점

-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개방의 폭, 속도, 강도, 체결국가수 등 세계 어떤 국가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WTO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개방 농정 전개 시작
 - DDA협상이 2001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을 내세워 2004년 발효된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 중, 2011년과 2012년에 한·EU FTA, 한·미FTA를 체결
 - 현재 협상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 농업 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
- 수입개방의 여파는 현재 우리나라 농업·농촌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정부도 그간 재정적 지원과 각종 정책사업 실행, 그러나 여전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기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 제기
 -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 경작면적의 감소와 농지임대료 상승, 수입원자재 사용으로 인한 경영비 압박, 농가간 소득양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 경쟁력에서 도저히 앞서나갈 수 없는 구조적 문제 가속화
 -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농촌 분위기는 불확실성, 상실감, 패배감, 박탈감 만연
- FTA체결이 됨으로써 농축산물 관세철폐가 실현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한·중 간 농축산물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피해품목 부류도 각기 다르고 위협요소로도 작용 혹은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우선 기회요소로 볼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임. 크게 중국시장 접근전략과 내수시장 관리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중국시장 접근전략〉

- 중국내 소비패턴 변화를 면밀히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개방·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국시장 접근전략 수립
- 단일국가로 13억이라는 지구상에서 최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상위계층 공략 전략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수요층이 존재, 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마케팅 전략 수립

- 특히 전체 인구 중 30%이상의 중산층은 앞으로 주요 소비계층이 되므로 이를 공략하기 위하여 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내 생산·유통·제조 및 가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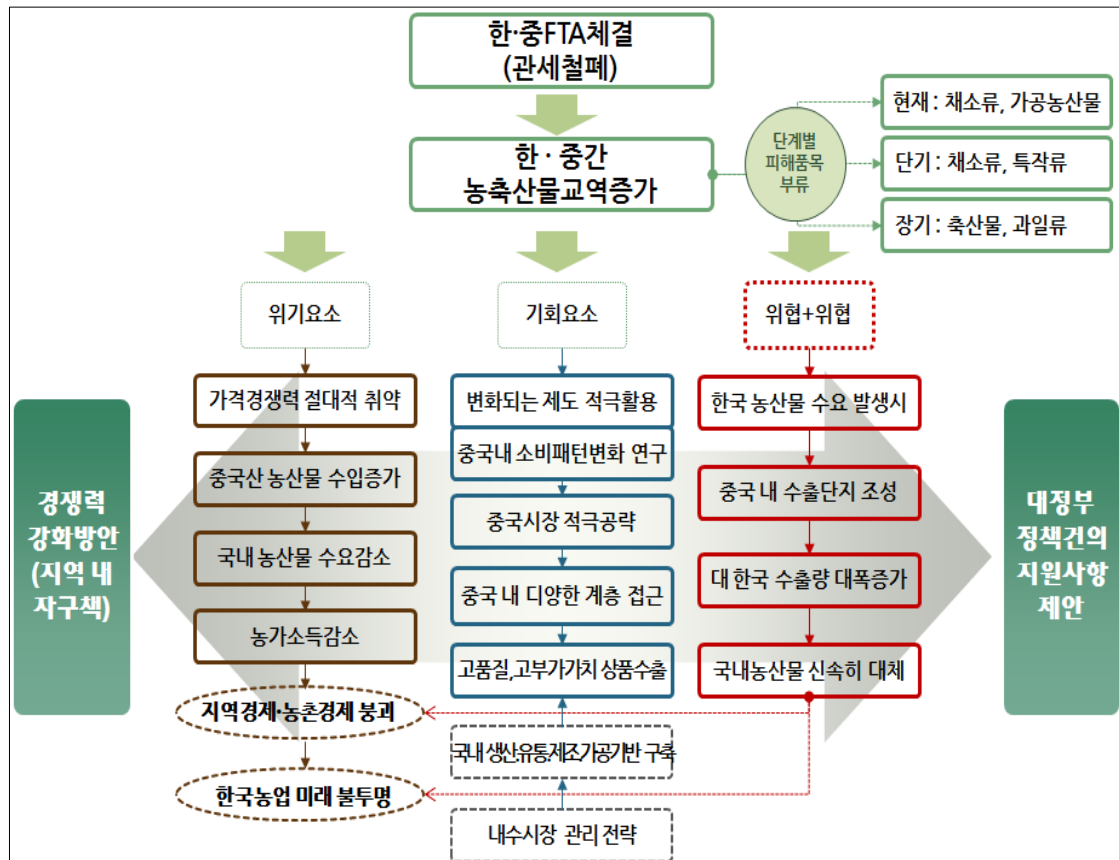
〈내수시장 관리전략〉

- 중국산 농산물과는 품질경쟁력, 원산지, 신뢰도 면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앞서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만 마련되면 충분히 상대 가능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비관세장벽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품목별 원산지 표기를 의무적으로 확대 시행, 일반 슈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업체, 마트 등 동일매장내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매대를 확연히 구분하여 판매하는 전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현재처럼 표시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임
- 다음으로 위기로소로 보는 부정적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예상할 수 있음
- 중국 농업 대비 한국 농업은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취약, 물리적·자연적으로 절대 극복 불가능
 - 한국과 중국 간 상호 교역규모 증가와 동시에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폭 더 큼
 - 중국산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과 경쟁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요식업체 등의 국내농산물 수요 현격히 감소
 - 수입개방 여파로 농가교역조건 악화, 농업소득 감소 등 농가경제의 어두운 현실
 - 시군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기본이 되는 농촌경제는 붕괴, 이를 더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
- 최악의 상황은 중국입장에서 한국 농산물 수요 발생 시 중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對한국 수출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고 국내 농산물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긍정적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지역 내에서도 기존에 무조건적인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과감히 지역 내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함
- 생산부문에서는 농가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기초교육, 조직화, 기술개발 및

보급활동 등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 구축활동 지속적 전개할 것임

- 유통, 가공부문에서는 조직화된 농가기반을 중심으로 공동선별·공동출하 등 확대시행,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직거래 사업 활성화, 현대화된 유통시설 정비 등을 펼칠 것임
 - 소비부문에서는 브랜드 확립, 안전성 강화, 소비촉진 운동전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지역 내 관련주체간 클러스터 및 협의체 구성 등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주목할 것임
- 국가가 성장할수록 자연적으로 농업이라는 1차산업은 상대적인 축소를 경험하게 되지만 수입개방 여파로 인해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 농업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에 한국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붕괴될 수 있음
- 농업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로서 국가의 정책개입이 필수적인 산업분야이고 반드시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함
-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책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초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해야 하는 것임. 그 이후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수립이 필요한 것임
- 한·중FTA협상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거듭강조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품목을 필두로 민감품목 지정 관철이 가장 급선무
 - 수입개방에 따른 1차산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확대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
 -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국고보조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육성
 - 품목별 시장특성에 맞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
 - 품목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그에 맞는 법·제도 정비

<그림 7-1> 연구의 시사점



참고문헌

-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공장 및 김치공장 운영실태 보고
- 고성보,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주감귤(원)의 경관가치평가, 2008년
- 김창길 외,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2010년
- 김창길 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형태 분석, 2005년
- 노령령, 중국 농산물 유통정책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2008년
- 농림수산식품부, FTA 협상동향, 2012년
- 문한필 외,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49-1, 2011년
- 박기임, 한국 농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Trade Focus Vol 9(51), 한국무역협회, 2010년
- 박재홍,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148호, 2011년
- 안동대학교,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경북 사과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2012년
- 안병민,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년
- 약쑈특구계획, 강화군청
- 어명근 외,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중국의 FTA 사례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26-1, 2010년
- 이동필, 중국의 인삼산업 실태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6-39, 2006년
- 임병옥, 국내외 인삼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기술연구 Vol 18(2) 16-30, 2005년
- 전형진, 한·중 농업현황과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한중 농업분야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
- 전형진 외,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49-2, 2011년
- 정환우,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Trade Focus Vol 11(24), 한

국무협회, 2012년

최세균,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KREI농정포커스 제 4호, 2011년

최세균 외,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FTA 협정문 및 상품양허,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R626, 2010년

최세균 외,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추진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2,
2009년

최용민,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협상시 고려요인, Trade Focus, 한국무역
협회, 2010년

충북발전연구원 외, 충청권 포도 와인산업 선진화 방안, 2012년

충청남도, 충남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충청남도 자체계획서, 2011년

충청남도,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충청남도 연구용역보고
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2011년

한국사과연합회, 한국 사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0년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진 37권 제3호, 2006년

Tan Chao, 중국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 2012년

〈통계〉

감귤유통처리실태 분석, 각년도, 제주농협지역본부

감귤출하자료집, 각년도, 감귤출하연합회

광주통계연보, 각년도, 광주광역시

경남통계연보, 각년도, 경상남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경상북도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2012년, 농림수산물식품부

농림수산물식품 통계연보, 2012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2년, 통계청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총조사, 통계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집, 각년도, 농촌진흥청

약속통계자료집, 각년도, 농림수산물부

인삼통계자료집, 2012년, 농림수산물부

인천통계연보, 각년도, 인천광역시

전남통계연보, 각년도, 전라남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통계연보, 각년도, 충청남도

충북통계연보, 각년도, 충청북도

2010 과실류 가공현황, 2011년, 농림수산물부

2011 과실류 가공현황, 2012년, 농림수산물부

GAP이력추적등록 통계, 201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광주광역시 <http://www.gwangju.go.kr/>

경상남도 <http://www.gsnd.net/>

경상북도 <http://www.gb.go.kr/>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http://www.fao.org>

금산군 <http://www.geumsan.go.kr>

농림수산물부 <http://www.mifaff.go.kr>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m>

부여군 <http://www.buyeo.go.kr>

서산시 <http://www.seosan.go.kr>

시사인 <http://www.sisainlive.com>

외교통상부 한·중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china>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전라남도 <http://www.jeonnam.go.kr/>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http://www.citrus.or.kr>

중국 경제주간지 제경 <http://biz.sinchew.com>

중국시장연구 인터넷 카페 <http://cafe.naver.com.asiastudy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http://stats.gov.cn>

충청남도 <http://chungnam.net>

충청북도 <http://www.cb21.net/>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http://www.kati.n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www.kati.net>

중국농민일보, 양선만보, 2011, 2012년

부록

1 제1차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회의록

1. 일시 : 2012. 6. 7(목) 14:00 ~ 16:00

2. 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3. 참석 :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참여연구자 12명 중 9명

가. 참석자

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광주발전연구원 조인형, 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강마야,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오병기, 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나. 불참석자

인천발전연구원 김번욱, 충북발전연구원 윤영한,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4. 주요 결정사항

가.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대표주관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 결정

나. 6월 중 연구사업계획 확정 및 연구비 지급

5. 기관별 주요 의견

〔대표주관기관 선정 관련〕

전남 : ‘FTA와 지역발전’연구팀의 대표주관기관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이 2개의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등 충남발전연구원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충남발전연구원의 농업분야의 특화성을 고려하건대 대표주관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충남 : 협의회의 공동연구의 수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표주관기관은 시너지 효과가 참여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남 : 농업분야의 연구진 구성으로 볼 때 충남발전연구원이 대표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연구사업 추진방안 관련]

전남 : 공동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연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전남 :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 차원에서 해외현장 조사, 원고료 지급 등 공동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충남 : 한·중 FTA와 관련하여 수산분야의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한다면 위탁을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제주 :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FTA와 관련하여 감귤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다. 수산분야는 비공개로 연구한 바가 있으며, 자료도 다소 보유하고 있다.

제주 : 예산 10,000천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각 기관에서 자체연구화로 연구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광주 : ‘격차인식과 지역상생’연구팀에서는 주관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이 연구를 자체연구화하여 착수시킬 예정이다. FTA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북 : 한·중 FTA가 체결되기 전에, 즉 FTA체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한·중 FTA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내용에서 한·중 FTA부문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주 : 한·중 FTA의 연구는 가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남 : FTA의 연구의 주목적은 FTA라는 큰 범위안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다.

충북 : 2부분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첫 장에서는 일반적인 FTA 관련 내용을 다루고, 둘째장에서 각 시도별 지역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전남 :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서비스업 등의 분야까지도 이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광주 :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존에 FTA관련 연구결과물들이 많다. 이에 대응방안, 정책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 어떤 FTA를 체결하여야 할 것인가가 어찌면 이번 연구에 화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중 FTA를 접근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대구 : 기존의 FTA체결 시 사전 예측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한·미, 한·EU 등의 FAT 체결 전의 예측과 체결 후의 결과

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를 예측하는 것이다.

제주 : FTA를 분석하면서 체결 전 예측화 체결 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 (피해가 적은 것)은 FTA체결을 위한 협상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 기간 중에 정부의 대책과 농업의 자구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남 :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함으로 지역의 제도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제주 : 지역의 의견 수렴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전남 : 우리 연구원은 현재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며 세미나 개최도 예정되어 있다. 중국의 최신자료를 얻을 수 있다.

충북 : 좋은 제안이다. 중국의 자료를 국내에서 회귀하다. 중국의 최신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FAT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주제선정, 예산문제 등 많은 제약조건하에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파괴력있는 주제를 선정할 필요도 있다.

전남 : 전남발전연구원에서는 자체과제로 한·중 FTA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피해 위주가 아니라 대책 위주의 보고서이다.

충남 :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FTA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이는 농업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광주 :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FTA대응대책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있다. 지역차원에서 FTA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여하튼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다.

전남 : 시도연구원협의회 명의의 발간하는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충남 : 협의회의 공동연구 수행도 각 기관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주기 바란다.

전남 : 공동연구 참여자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제2차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회의록

1. 일시 : 2012. 8. 3(금) 16:00 ~ 18:00

2.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

3. 참석 :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참여연구자 13명 중 9명

가. 참석 (8명)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강마야, 여민수, 김영수, 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 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인천발전연구원 김번욱, 전남발전연구원 박재형

나. 불참석 (5명)

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오병기,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광주발전연구원 조인형

4. 주요 안건

[연구계획서 논의]

가. 연구계획서 목차부분, 연구내용과 범위 설정

나. 연구기관별 역할분담, 연구대상 품목 지정

[기타 건의사항]

가. 연구기관별 과제인정

나. 해외현지 조사 필요

다. 보고서 양식 통일

라. 보고서 분량

[향후일정]

5. 기관별 안건별 주요 의견

[연구계획서 논의]

가. 대구경북연구원

- 전체적인 틀은 짜여져 있으나, 내용 중 피해액 규모의 범위 설정이 필요함. 관세의 완전철폐를 가정하고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도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품목을 늘리는 것이 좋겠음
- 대응방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건의사항 및 국가가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음
- 민감품목의 설정이 중요함. 전국적으로는 생산액이 크지 않지만 지역 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민감품목 설정이 필요함
- 각 연구원 별로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량분석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임
- 농업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 품목 보다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한 분석 필요함
- 대구 경북에서는 참외, 마늘, 양파, 사과, 배 등 10여개 품목의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겠음

나. 제주발전연구원

- 지역별로 피해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됨. 협상이 끝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차별성이 없음
- 대응방안 부분이 부족함.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내용임. 건의사항, 지금의 협상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피해액은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산출하는 것은 짧은 용역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는 감귤 및 무, 마늘, 양배추 등 발작물과 활어의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겠음

다. 인천발전연구원

- 피해규모의 추정은 지역별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성적 설명 후 중요 품목에 대해 정량적으로 그 규모를 산출 하여야 함. 즉 특정산업에 대한 피해규모 예측은 필요하지만 도별 피해규모에 대한 예측은 필요없음
-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대한 건의나 정책제언이 들어가야 할 6장이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하고, 제목 또한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품목만 피해액 규모를 분석할 것인지 전반적 품목의 피해액 규모를 분석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인천에서는 약쑥, 꽃게의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겠음

라. 경남발전연구원

- 피해규모를 산정할 품목을 정하기보단 각 시도연구원에서 알아서 정해야 될 것임. 채소류, 과일류 등 부류별로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함. 각 시도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임. 지역별 피해규모가 아닌 품목별 피해규모 산정을 하는 방법임
- 경남은 단감, 참외, 수박, 활어 등 10여개 품목의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겠음

마. 충남발전연구원

- 대표품목이 다르고 지역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액 산출을 동일한 방법으로 예측을 하면 결과에 유의성 문제가 발생함. 피해액 산정은 각 시도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임. 피해액 산정은 정량적, 정성적 방법모두 그 시도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던 가능함
- 많은 품목에 대해 피해규모를 산출하다 보면 품목마다 대응방안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전체적인 틀은 시도별로 일정한 기준(생산액,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을 제시하고 민감품목의 피해액을 예측한 후, 그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 충남은 인삼, 패류 품목의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겠음

[기타 건의사항]

가. 연구기관별 과제인정

- 각 연구원별로 과제인정을 받아야 함. 연구원 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연구원으로 과제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협조 공식문서 필요
- 연구원협의회 문의결과 각 참여연구기관으로 공문 발송 예정

나. 해외현지 조사 필요

- 한·중 FTA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중국 농업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현지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본 용역은 해외여비 지급이 금지되어 있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 주관연구기관에서 건의할 필요 있음
- 주관연구기관 검토결과 내부 예산한계로 인해 불가 판정

다. 보고서 양식 통일

- 보고서 스타일을 통일, 하위 목차설정 필요
- 주관연구기관에서 배포할 예정 (김번욱박사 협조)
- 피해규모 추정에 통일을 위해 같은 표 양식을 사용해야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배포할 예정

라. 보고서 분량

- 각 연구원별로 30page이내 분량으로 작성 요망

[향후 일정]

가. 9월 중순경 : 연구진 3차 회의

- 원고 초안작성 수준으로 연구기관별 발표, 논의
- 중국현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연구진간 회의로 대체
- 일정과 장소 추후 공지

나. 10월 15일주간 : 연구진간 최종 워크샵

- 원고 최종완성본 수준으로 연구기관별 발표, 논의
- 최종보고회 (11월초) 이전 연구진간 회의로는 마지막 수순
- 일정과 장소 추후 공지,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 검토

6. 2차 회의 요약 및 정리

가. 목차 제3장) 피해규모 추정

- 피해규모의 추정은 공통된 방법이 아닌 정량, 정성적 방법 구분 없이 각 연구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함
- 도별 전체 피해규모 추정은 불필요, 해당품목에 대한 피해규모만 추정
-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통일된 양식을 제공하도록 함

나. 목차 제2장, 제5장) 중국과의 수출입 현황, 수출전략 내용 추가

- 제2장에서 수출입 현황 추가, 제5장 수출전략 내용 추가

- 보고서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규모 추정뿐만 아닌 수출전략에 대한 내용 언급 필요
- 따로 목차로 빼는 방법 보다는 대응방안 부분에 언급

다. 목차 제5장) 품목별 대응방안 도출

- 당초 : 지역별 품목별 대응방안 → 변경 : 품목별 지역별 대응방안
- 품목 중심으로 정리, 지역별 공통품목을 우선 취합해서 정리
- 지역별 내용은 품목내용에서 세부사항으로 빼서 정리

라. 목차 제6장) 국가 및 중앙정부에 대해 제안사항, 건의사항

- 본 연구 당초 취지를 살려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중심으로 기술

〈최종정리 : 연구목차 조정〉

- 2장 - 중국농업 현황, 수출입 등 무역 현황 추가(주관연구기관 작성)
- 3장 - 지역 전체 농업 현황, 품목별 현황 순으로 작성(각 기관별 작성)
- 4장 - 지역별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피해규모 추정(각 기관별 작성)
- 5장 - 품목별 지역의 농수산물 피해 대응방안 도출(각 기관별 작성)
- 6장 - 품목별 제안사항 혹은 건의사항(각 기관별 작성)

〈사진자료〉



2012년 전국시도공동연구 2차회의

3 제3차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회의록

1. 일시 : 2012. 11. 21(수) 13:00 ~ 15:00

2. 장소 : 서울역 4층 회의실

3. 참석 :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참여연구자 13명 중 10명

가. 참석(10명)

충남발전연구원 강마야, 김양중, 여민수, 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고봉현, 인천발전연구원 김번욱, 전남발전연구원 박재형, 광주발전연구원 조인형, 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 (대리참석)

나. 불참석(5명)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오병기, 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4. 기관별 주요 의견

[연구계획서 논의]

가. 제주발전연구원

- 발표자료 전반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음. 시각적인 면도 중요하기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농업부분 시사점에 충남의 대응사항만 나오고 있음, 중복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음.
- 현황부분에 제주도의 자료가 빠져있음. 제주도의 감귤재배면적 및 생산량 등은 전국의 99%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99%로 표기하여야 함. 또한 연도의 표기를 하여야 함.
- 각 슬라이드별 제목에는 마늘, 단감, 감귤 등 품목이름만 표기되어 있지만 전남 마늘, 경남 단감, 제주 감귤 등 지역명을 표기하여야 함.

나. 경남발전연구원

- 현황부분에 재배면적, 생산량 등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있으나, 지역별로 스케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로만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농업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생산비중, 수출비중 등이 들어가야 8개품목의 어려움을 알수있음. 한국과 중국의 농업 현황을 한 슬라이드에 표현하여서 눈에 띄게 만들 필요가 있음.
- 품목의 선정기준, 경쟁력 강화방안, 대정부 건의사항 등의 부분에서 같은슬라이드가 계속 반복되어 지루한 부분이 있음. 8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슬라이드의 추가가 필요함.
- 과수 4개품목, 양념채소, 특작류 등 품목부류별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
- 경쟁력 강화방안 부분에서 생산, 유통, 소비 및 가공 등 한슬라이드에 요약정리하여 표현하고, 현재 나열된 슬라이드는 첨부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청취자 입장에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표하여야 함.

다. 인천발전연구원

- 현황부분, 약쑥의 전국대비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등은 전국대비 95%정도로 표기함. 정확한 통계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 파악은 한계가 있음.
- 문제의 제기 부분에서 내용범위 4가지 항목을 하위개념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필함.
- 민감품목의 선정기준에서 앞부분에 정리해 줄 수 있는 요약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한·중FTA 대응방안이 주제이니, 중국과의 관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표 등을 만들어야 함.
- 8개의 품목을 다 묶을 필요는 없고 공통사항이 있는 품목만 묶어서 표현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은 8개 품목별로 다 발표할 필요성은 없음. 대부분 공통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산, 유통, 소비, 정책 등 각 부문별로 요약슬라이드로 설명을 하고, 특이한 품목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음.
- 대응전략과 경쟁력강화방안이 중복된 내용이 있음. 성격을 판단하여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함. 대응전략 부분은 국가차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굵직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라. 충북발전연구원

- 대응전략과 경쟁력 강화방안 부분에 중복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마. 충남발전연구원

- 현황 및 문제점부터 대응전략부분까지 중복되는 부분들 정리하겠음.
- 4장은, 생산, 유통, 소비, 정책 및 기타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1슬라이드씩 추가하여 내용을 정리하겠음. 현재의 자료들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음.
- 지역별 민감품목 선정기준은 표를 만들어 정리 슬라이드를 추가하겠음. 중국의 현황과 한국의 현황을 비교하여 넣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응전략 부분은 크게 생산기반 확충, 수출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화 전략, 고부가가치 전략, 직접지불제도의 확대방안 등 5가지 방안으로 정리하여야 함.

5. 3차 회의 요약 및 정리

- 민감품목 선정기준 항목에서 품목별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산액, 수출액, 관세율, 지역경제 영향 등 4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여야 함.
- 주요 품목별 산업경쟁력 강화부문에서 생산, 유통, 소비 부문별로 기존자료는 참고자료로 남기고, 각 부문별로 요약 슬라이드를 추가하여야 함.
- 대응전략과 경쟁력 강화부문에서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야 함. 대응전략은 국가차원에 요청할 사항들이 주로 들어가야 하고, 경쟁력 강화 부분은 자구책 중심으로 들어가야 함.

〈사진자료〉



2012년 전국시도공동연구 3차회의

4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워크숍 회의록

1. 일시 : 2012. 10. 08(월) ~ 10. 09(화)

2. 장소 : 제주도 제주시 대명리조트

3. 참석 : 'FTA와 지역발전' 연구팀 참여연구자 13명 중 12명

가. 참석 (8명)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강마야, 여민수, 김영수, 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 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고봉현, 인천발전연구원 김번욱,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 광주발전연구원 조인형

나. 불참석 (1명)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4. 주요 논의사항

가. 연구원별 진행상황 공유

나. 주제별 연구성과 발표

다. 최종보고 및 3차회의일정 공유

5. 기관별 주요 의견

가. 전남발전연구원

- 주제가 광범위함. 한중FTA, 혹은 한미FTA로 주제가 일치 되어야 뒷 내용또한 일치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됨
- 기관별로 1품목씩 선정된 8개 품목은 지역에서는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의 대응으로 볼 때 중요한 품목인지의 고민이 필요함. 즉 대표성을 가진 품목인지의 고민이 필요함
- 국가적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 지원대책을 포함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중앙기관, 국책연구원에서 하기 어려운 대응방안을 지역차원에서 다뤄준다면 보

고서가 특색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판단됨-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함

나. 제주발전연구원

- 피해액 계측 방법이 연구원별로 상이하여,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책연구원의 기존 피해액 계측자료를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자료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 기존의 연구제목(FTA와 지역발전)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제목을 추가하여 범위를 좁히는 것도 방법임
- 대응방안측면에서는 국가에 요구하는 국가적인 측면과 지역의 경쟁력강화방안의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함
- 한중 FTA에 대한 양허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액 계측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대구경북연구원

- 품목별 국가의 대응방안에서 ① 민감품목지정, ② 농업정책 지방이양, ③ 직접지불문제, ④ 법문제 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건의사항을 넣어야 할 것임
- 각 지역별로 민감품목을 몇 가지 선정을 하여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마. 경남발전연구원

- 품목선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함
- 각 연구원별로 연구하고 있는 8개 품목이 민감품목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부합하여야 이 연구가 의미가 있음. 그러나 민감품목 선정기준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니, 선정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함
- 대표품목을 정하는 기준은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연구원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처음 제시한 목차보다 품목별로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어 혼란이 있음
- 정책건의와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건의만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충남발전연구원

- FTA와 지역발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나 다른 보고서와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음.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룰 차별성 있는 주제가 필요함. 서론, 결론부분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보고서의 차별성을 고민해야됨 - 중앙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어 줘야 함
- 보고서내 피해액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품목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필요함
- 민감품목 선정기준은 지역의 통계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자료위주로 정해야 함

아. 충북발전연구원

- 각 연구원 별로 대응방안, 결론을 잘 도출하였음. 추가하여 공통된 대응방안을 뽑아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품목선정에 대한 연구원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6. 워크숍 요약 및 정리

가. 품목의 선정배경 내용 추가

- 각 품목선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원별로 품목선정 배경을 정리하면 주관기관에서 최종보고서 작업 시 내용을 추가
- 정부에서 정한 민감품목 선정기준은 공개되기 힘들기 때문에, 주관기관에서 민감품목 선정기준을 정하여 품목별로 배분

나. 발표자료

- 최종보고 발표ppt는 40sheet 가량으로, 품목별로 품목선택의 배경(1sheet), 현황(1sheet), 문제점(1sheet), 대응방안(2sheet-국가적차원의방안+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의 총 5sheet로 함
- 연구주관기관에서 공통의 대응방안 도출
- 최종발표자로 ppt양식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배포

다. 연구내용

- 중앙기관, 국책연구원에서 하기 어려운 대응방안을 지역차원에서 다뤄준다면 보고서가 특색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경쟁력 강화부분은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지역별

로 가능한 부분에서 작성

- 피해액 부분은 제외함

라. 향후 일정

- 최종회의 : 장소-서울역회의실, 일시-11월 9일 12시 (변동가능)

〈사진자료〉



2012년 전국시도공동연구 워크숍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총괄 진행)
- 연구간사 :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공동 진행)
- 참여연구진(담당분야) :

충북발전연구원	우장명 선임연구위원(포도)
전남발전연구원	조창완 선임연구위원(마늘)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마늘)
대구경북연구원	유병규 연구위원(사과)
경남발전연구원	권용덕 연구위원(단감)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연구위원(감귤)
제주발전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위원(감귤)
인천발전연구원	김번옥 선임연구위원(약쑥)
광주발전연구원	조인형 연구위원(과채류)
충남발전연구원	여민수 연구원(인삼, 중국의 농업 및 FTA현황)
충남발전연구원	김영수 연구원(인삼, 중국의 농업 및 FTA현황)